

국역 대구부읍지

대구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목 차

해제	1
건치 연혁(建置沿革)	7
군명(郡名)	9
관직(官職)	11
성씨(姓氏)	11
산천(山川)	12
풍속(風俗)	14
방리(坊里)	14
호구(戶口)	18
전부(田賦)	18
요역(徭役)	21
군액(軍額)	22
성지(城池)	25
창고(倉庫)	32
군기(軍器)	35
학교(學校)	42
관방(關防)	120
진보(鎭堡)	120
봉수(烽燧)	120
단묘(壇廟)	121
총묘(塚墓)	122
불우(佛宇)	123
공해(公廨)	126
누정(樓亭)	160
도서(島嶼)	165
제언(堤堰)	165
장시(場市)	172
역(驛)	174
목장(牧場)	174

형승(形勝)	174
고적(古蹟)	175
토산(土産)	180
진공(進貢)	180
봉름(俸廩)	180
환적(宦蹟)	181
영선생(營先生)	181
읍선생(邑先生)	232
도사(都事)	242
영장(營將)	267
과거(科擧)	272
인물(人物)	275
비판(碑板)	311
책판(冊板)	353
읍지 보궐(邑誌 補闕)	356

부록1 경상북도대구군읍지 원문

부록2 읍지 보궐 원문

경상북도 대구군읍지

대구부읍지(大丘府邑誌)

해제(解題)

정병호(鄭炳浩)

고려시대의 지지(地誌)로는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誌)』가 있고, 조선 초기의 지지(地誌)로는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誌)』가 있으나 독자적인 지리지가 아니고 역사서에 첨부된 일종의 부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격적인 지지(地誌)는 15세기부터 등장한다. 1432년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1454년의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1478년의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그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신찬팔도지리지』를 저본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 편찬되었다. 지역의 연혁·지리·산천·호구·군사·산업·성씨·고적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노사신(盧思愼) 등이 1481년에 『팔도지리지』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하였다. 전체적인 항목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비슷하지만 제영(題詠)·인물(人物)·충의(忠義)·효열(孝烈)·교원(校院)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유교적 내용이 확대되었다. 이 책은 이후 관찬지리서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1530년 이행(李荇)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보 개정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동국여지승람』의 항목 중 토산(土產)·풍속(風俗)·연혁(沿革)·관제(官制)·군현(郡縣)·효열(孝烈)·시문(詩文) 가운데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한 책이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지방 수령과 지역 사족(士族)에 의해 읍지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찬읍지(私撰邑誌)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정구(鄭逵)의 『함주지(咸州誌)』·『임영지(臨

瀛誌)』·『창산지(昌山誌)』·『동복지(同福誌)』와 윤두수(尹斗壽)의 『평양지(平壤誌)』가 그것이다. 이 시기의 읍지는 대부분 자발적인 관심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하고 개성이 도드라졌다.

1765년에 『동국여지승람』의 개수·보완에 착수하여 각 읍지와 여지도를 널리 모은 『여지도서(輿地圖書)』가 편찬되었다. 이 책에는 읍지(邑誌) 295종, 영지(營誌) 17종, 진지(鎭誌) 1종 등 무려 313종에 이르는 방대한 지지(地誌)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에도 읍지 편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고종 때에는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읍지 편찬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현재 남아 있는 900여 종의 읍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때 편찬되었다. 이 시기의 읍지는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184종)·전라도(154종)·경기도(143종)의 순서로 읍지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구읍지도 일찍부터 활발하게 편찬되었다.

대구읍지가 처음으로 편찬된 것은 1637년이다. 이후 1697년 우석규(禹錫珪, 1648~1713)에 의해, 1757년 조춘경(趙春慶, 1714~1786)에 의해 대구읍지가 편찬되었다. 60년을 주기로 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편찬된 대구읍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현전하는 대구읍지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 명	편찬시기	소장처	장수	비 고
대구읍지	1768	계명대 도서관	100장	대구시유형문화재 제55호
대구부읍지	1832	서울대 규장각	119장	경상도읍지
대구부읍지	1832	국립중앙도서관	128장	
대구부읍지	1871	서울대 규장각	120장	영남읍지
대구부읍지	1895	서울대 규장각	130장	영남읍지
대구부읍지	1899	서울대 규장각	134장	
대구부읍지	1907	서울대 규장각	95장	읍지 보궐 첨가
대구읍지	1924	국립중앙도서관	77장	

현전하는 대구읍지는 모두 8종이다. 3종은 경상도읍지나 영남읍지 속에 수록된 읍지이고 6종은 독립적인 읍지이다. 이 가운데 편찬시기가 가장 빠른 『대구읍지(1786)』와 내용이 가장 풍부한 『대구부읍지(1899)』를 중심으로 그 수록내용과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여지도서(1765)』에 수록된 대구도호부 읍지가 있긴 하지만 독자적인 대구읍지로는 계명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대구읍지(1786)』가 현전하는 대구읍지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대구읍지(1786)』는 건치연혁(建置沿革)을 시작으로 군명(郡名), 관직(官職), 성씨(姓氏), 산천(山川), 풍속(風俗), 방리(坊里), 호구(戶口), 전부(田賦), 군액(軍額), 성지(城池), 창고(倉庫), 관방(關防), 진보(鎭堡), 봉수(烽燧), 학교(學校), 단묘(壇廟), 능묘(陵墓), 불우(佛宇), 궁실(宮室), 누정(樓亭), 도로(道路), 교량(橋梁), 도서(島嶼), 제언(堤堰), 장시(場市), 역원(驛院), 목장(牧場), 형승(形勝), 고적(古蹟), 토산(土產), 진공(進貢), 봉름(俸廩), 환적(宦蹟), 과거(科擧), 인물(人物), 제영(題詠), 비판(碑板), 책판(冊板), 추록(追錄) 등 4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부의 역사, 지리적 여건, 지역민의 현황,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의 제반 시설, 조세 현황 등 지역의 현황과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특히, 조세와 관련된 호구(戶口), 전부(田賦), 군액(軍額), 진공(進貢), 봉름(俸廩) 등이 각각 독립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조세의 정확한 파악은 통치력 강화 및 재정 확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주요항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록에는 관찰사 이은(李潑)이 지은 팔달헌(八達軒)과 경우각(慶雨閣)의 기문이 실려 있다. 궁실 항목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로 수록한 것이다.

『대구부읍지(1899)』는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성씨(姓氏), 산천(山川), 풍속(風俗), 방리(坊里), 호구(戶口), 전부(田賦), 군액(軍額), 성지(城池), 임수(林藪), 창고(倉庫), 학교(學校), 관방(關防), 진보(鎭堡), 봉수(烽燧), 단묘(壇廟), 충묘(塚墓), 불우(佛宇), 공해(公廨), 누정(樓亭), 도로(道路), 교량(橋梁), 도서(島嶼), 제언(堤堰), 장시(場市), 역(驛), 목장(牧場), 형승(形勝), 고적(古蹟), 토산(土產), 진공(進貢), 봉름(俸廩), 환적(宦蹟), 과거(科擧), 인물(人物), 제영(題詠), 비판(碑板), 책판(冊板) 등 4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부읍지(1899)』의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郡名)에는 대구부의 연혁, 1895년 이래 지방제도 개편과 근대식 기구의 설치, 대구부의 변화상, 관직(官職)에는 감사 겸 부사, 판관, 우체주사, 전보사 등 1899년까지의 대구부 직제와 인원이 수록되어 있다. 성씨(姓氏)에는 대구부와 하빈(河濱), 수성(壽城), 해안(解顔) 등 속현의 성씨, 산천(山川)에는 연귀산(連龜山), 금호(琴湖) 등 대구부를 둘러싼 산과 하천의 위치, 명칭의 유래 등이 수록되어 있다. 풍속(風俗)에는 선비들은 질박한 것을 숭상하고 백성들은 발갈고 길쌈한다고 하였다. 방리(坊里)에는 대구부 소속 면, 리, 동, 호구(戶口)에는 감영을 설치할 때의 호구수와 1898년의 호구수, 전부(田賦)에는 전세, 대동, 요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군액(軍額)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조세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성지(城池)에는 관내의 달성(達城), 부성(府城) 등의 성곽과 문루 등의 연혁, 상량문 및 제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임수(林藪)에는 신천수(新川藪)와 칠성암수(七星巖藪)의 위치 및 연혁이 새롭게 수록되어 있다. 창고(倉庫)에는 부창(府倉), 해안창(解顔倉), 남창(南倉), 군기고(軍器庫) 등 관내 창고의 위치, 연혁, 전곡 충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학교(學校)에는 향교(鄉校), 연경서원(研經書院), 이강서원(伊江書院) 등 서원의 연혁, 위치, 사액 여부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관방과 진보는 항목만 있고 내용은 없다. 봉수(烽燧)에는 마천산, 법이산, 성산 봉수의 위치와 폐지 사실, 단묘에는 사직단, 문묘, 여제단의 위치, 총묘(塚墓)에는 달성군(達成君) 서영(徐穎)의 묘 등 대구부 현인들의 묘소 위치, 불우(佛宇)에는 동화사(桐華寺) 등 관내 사찰의 위치와 연혁, 소속 암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공해(公廨)에는 객사를 비롯하여 동헌, 관아 소속 건물의 연혁과 명칭 유래와 심성당(心城堂), 전보사, 경무서, 우체사 등 새로운 관제 및 군제에 따라 창설된 관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누정(樓亭)에는 하목당(霞鶯堂), 전귀당(全歸堂) 등 관내에 소재한 누정의 위치 및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도로(道路)에는 서울, 통영으로부터의 거리와 병영(兵營)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교량(橋梁)에는 달서교 등 관내 교량의 축조 사실과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나루에

대해 기록하였다. 도서(島嶼)는 항목만 있고 내용은 없다. 제언(堤堰)에는 송라제(松羅堤) 등 관내에 산재한 제방의 위치·둘레·수심, 보(洑)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장시(場市)에는 관내 시장의 위치와 장날, 역(驛)에는 범어역(凡於驛) 등 역의 위치, 목장(牧場)에는 분양마를 기르는 대신에 사복시에 납부하는 대전(代錢)이 기록되어 있다. 형승(形勝)에는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려한 형세, 고적(古蹟)에는 동수(桐藪) 등 관내의 여러 역사현장과 관련된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토산(土產)에는 붕어 등의 특산물, 진공(進貢)에는 인삼 등 진상 공물, 봉름(俸廩)에는 쌀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환적(宦蹟)에는 금유(琴柔), 옥고(玉沽) 등 선정비(善政碑)나 생사당(生祠堂)이 있는 지방관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영선생(營先生)에는 1899년 부임한 김직현(金稷鉉)까지 역대 관찰사의 명단, 읍선생(邑先生)에는 1899년 부임한 김영호(金榮浩)까지 역대 대구관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역대 도사와 경력, 영장(營將), 참령(參領)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과거(科擧)에는 고려 말 빈우광(賓宇光)부터 이후 문무과 급제자, 인물(人物)에는 대구부에서 배출한 현인들과 효자, 효부, 열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영(題詠)에는 달성십경시(達城十景詩)를 비롯하여 관내의 여러 명소를 소재로 한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비관(碑板)에는 표충사비 등 관내에 있는 비문, 책판에는 관내에 소장되어 있는 『만병회춘(萬病回春)』 등 서책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대구부읍지(1899)』는 『대구읍지(1786)』와 비교해보면 항목은 임수(林藪) 하나만 새로 추가되었다. 『대구읍지(1768)』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대구부읍지(1899)』는 『대구읍지(1786)』보다 113년 뒤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여러 항목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인물, 학교(서원), 누정 등의 항목은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고 관직, 군액, 전부 등은 내용이 실상에 맞게 수정되었다. 지역의 실상과 현황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반영한 것이다.

『대구부읍지(1899)』의 체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제영 항목을 축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체재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제영 항목을 축소하고 관련 궁실이나 학교 항목으로 제영을 옮겨 수록한 것이다.

유기적인 체재를 고려한 구성으로 판단된다.

『대구부읍지(1899)』는 19세기 경상도 대구부의 실상과 현황, 그리고 대구부의 역사와 전통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지역인들은 이와 같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수록된 읍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읍지가 지니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건치(建置) 연혁(沿革)

본래 신라의 달구벌현(達句火縣, 達弗城이라고도 함)이었는데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수창군(壽昌郡)의 영현(領縣)¹⁾이 되었다. 고려 현종 때 경산부(京山府)의 속현(屬縣)이 되었고, 인종(仁宗) 때에 현령을 두었으며, 조선 세종 때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세조(世祖) 때 처음으로 진(鎭)을 설치했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다. 만력(萬曆)²⁾ 신축년(1601)에 경상감사가 대구부사를 겸직하면서 판관(判官)을 두었고, 병신년(1656)에 다시 대구부사를 임명하였다. 무신년(1668)에 유영(留營)을 설치하고 대구부사를 겸직하게 하면서 판관을 두었다가 정사년(1677)에 판관을 없애면서 부사(府使)로 승격시켰고, 갑자년(1684)에 감사(監司)가 부사를 겸직하면서 판관을 두었다.

영조 을해년(1755)에 판관을 없애고 부사로 승격시켰다가 무인년(1758)에 다시 판관을 두었다. 개국 504년인 을미년(1895)에 판관을 없애고 군수를 두었으며, 같은 해 9월에 군수를 없애고 본도의 참서관(叅書官)으로 겸임하게 하였다가 병신년(1896) 7월에 참서관을 없애고 다시 군수를 두었다.

속현(屬縣)

수성현(壽城縣)

대구부(大丘府)에서 남쪽으로 12리에 있다. 본래 위화군(渭火郡)이었는데 상촌창군(上村昌郡)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수창군(壽昌郡)으로 고쳤는데, 가창(嘉昌)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려 초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때에 경주의 속현이 되었고, 공양왕 2년에 감무(監務)를 두어 해안현(解顔縣)을 겸임하도록 하

1) 영현(領縣) : 속현(屬縣)을 거느리는 군현(郡縣).

2) 만력(萬曆) :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였다. 조선 태조 3년에 감무를 없애면서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으며, 뒤에 다시 경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조선 태종 14년에 다시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다.

해안현(解顔縣)

대구부에서 북쪽으로 17리에 있다. 본래 치성화현(雉省火縣)이었는데, 미리(美里)라고도 하였다.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장산군(獐山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경주의 속현이 되었으며, 공민왕이 감무(監務)를 두면서 수성현(壽城縣)의 감무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조선 태조 3년에 감무를 없애면서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경주의 속현이 되었으며, 태종 14년에 다시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다.

하빈현(河濱縣)

대구부에서 서쪽으로 37리에 있다. 본래 다사지현(多斯只縣)이었는데, 답지(沓只)라고도 하였다.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수창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경산부(京山府)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다. 별칭은 금호(琴湖)이다.

화원현(花園縣)

대구부에서 서남쪽으로 30리에 있다. 본래 신라의 설화현(舌化縣)이었는데 경덕왕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수창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성주의 속현이 되었고, 조선 숙종 을축년(1685)에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다.

풍각현(豊角縣)

대구부에서 남쪽으로 70리에 있다. 본래 상화촌현(上火村縣)이었는데 고려 때 유산(幽山)으로 이름을 고치고 밀양의 속현으로 삼았다. 조선 숙종 을축년(1685)에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다.

진관부(鎭管府) 둘

밀양(密陽)·인동(仁同)

군(郡) 하나

청도(淸道)

현(縣) 다섯

경산(慶山)·현풍(玄風)·영산(靈山)·창녕(昌寧)·자인(慈仁)

군명(郡名)

달구벌(達句火) · 달성(達城)

감영(監營)

정덕(正德)³⁾ 기묘년(1519)에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로 나누어 각각 감사를 두었으나 폐단이 많아 없애고 다시 하나로 통합하였다. 만력(萬曆) 계미년(1583)에 다시 좌도와 우도에 감사를 두면서 술권(率眷)⁴⁾하게 하였다. 좌영(左營)은 경주에 설치하고 우영(右營)은 상주에 설치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없앴다. 갑오년(1594)에 감사 홍이상(洪履祥)이 교지를 받들어 성주 팔거현(八莒縣)에 감영을 열었으니, 명나라 장수 유충병(劉攄兵)이 주둔한 곳이다. 을미년에 지역이 커서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여 다시 좌도와 우도에 각각 감사를 두었다. 병신년(1596)에 감사 이용순(李用淳)이 다시 좌도와 우도를 겸하여 다스렸고 체찰사 이원익(李元翼)과 상의하고 장계를 올려 달성에 감영을 설치하고는 석축(石築)을 더하였다. 정유년(1597)의 병란에 다시 유영(留營)을 없앴다. 기해년(1599)에 감사 한준겸(韓浚謙)과 체찰사 이덕형(李德馨)이 장계를 올려, “성주와 대구는 경상도의 중앙인데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또한 황폐해져 여전히 막혀 있다”고 하니 잠시 안동부에 유영(留營)을 두었고, 같은 해에 양계(兩界)의 관례에 의해 2년마다 교체하게 하였다. 신축년(1601)에 체찰사 이덕형이 장계를 올려 본부(本府)의

3) 정덕(正德) : 명나라 무종(武宗)의 연호.

4) 술권(率眷) : 지방 수령이 부임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감.

유영(留營)에서 대구부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판관을 따로 두었고, 경산·하양·화원 등의 현이 대구부에 소속되었다. 또 병오년에 설권(挈眷, 率眷)의 제도와 속현(屬縣)을 모두 혁파하였다. 무신년에 유영(留營)과 설권(挈眷)의 제도를 다시 설치하였고, 2년 뒤에 대구부사를 겸하게 하면서 판관을 두었다. 정사년에 폐단이 많아 다시 없애면서 판관은 부사로 승격되었다. 갑자년에 설권(挈眷)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감사가 부사의 직무를 겸하게 하면서 판관(判官)을 두었다. 성주현·화원현·밀양현·풍각현이 모두 본부(本府)에 소속되었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4도로 나누었으며, 대구·안동·진주·동래 4부로 나누어 각각 관찰사를 두었다. 병신년(1896) 7월에 안동부와 동래부는 혁파되었다. 이후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 진주는 남도가 되었고 대구는 북도의 관할이 되었다. (남도는 30군, 북도는 41군)

지방대(地方隊)

광서(光緒)⁵⁾ 정해년(1887) 도순찰사 이호준(李鎬俊)이 조정의 명령으로 친군남영(親軍南營)⁶⁾을 감영의 진휼창(賑恤倉)에 설치하였는데 병신년(1896)에 혁파되었다. 친군영 사령관 이겸제(李謙濟)는 임시로 군대를 거느렸다. 정유년(1897)에 지방대를 설치하고 참령(參領)·정위(正尉)·참위(參尉)·부위(副尉)를 두었다.

전보사(電報司)

광서(光緒) 무자년(1888) 4월에 낙육재(樂育齋)에 전분국(電分局)을 창설하고 주사(主事) 2인, 위원 1인을 두었다가 을미년(1895)에 2인을 감축하였다. 병신년(1896) 2월에 전국청사(電局廳舍)를 일본인 수비대에 빌려주고 예전 감영의 관노청(官奴廳)에 이설하였다. 무술년(1898) 5월에 국명을 전보사(電報司)로 개칭하고 주사 3인을 다시 두었다.

5) 광서(光緒) : 청나라 덕종(德宗)의 연호.

6) 친군남영(親軍南營) : 1887년(고종 24) 대구에 설치하였던 친군영(親軍營). 종전의 경상감영군(慶尙監營軍)을 친군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친군남영이었다. 그 지휘관을 남영사(南營使)라 하였는데 경상도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이 군영은 갑오경장 뒤인 1896년에 개편되어 대구지방대(大邱地方隊)라 하였다.

경무서(警務署)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예전 진영(鎭營)에 창설하고 경무관보(警務官補) 1인과 총순(總巡) 2인을 두었다가 정유년(1897)에 경무관보를 없앴다. 무술년(1898)에 제승당(制勝堂)에 옮겨 설치하였다.

우체사(郵遞司)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예전 감영의 영리청(營吏廳)에 창설하고 기수보(技手補) 2인을 두었다. 병신년(1896)에 1인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해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로 개명하였다.

관직(官職)

감사(監司) 겸 부사(府使), 판관(判官), 도사(都事), 영장(營將), 중군(中軍) 겸 남영병방(南營兵房)은 모두 혁파되었다.

관찰사 겸 재판장, 주사 5인, 군수, 참령, 정위, 참위, 부위, 우체주사 3인, 전보사 기수 3인, 총순 2인, 교원(校員).

성씨(姓氏)

본부(本府) : 백(白)·하(夏)·배(裵)·서(徐)·이(李)씨가 거주한다. 도(都)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성이다.

하빈현(河濱縣) : 신(申)·이(李)·송(宋)씨가 거주한다.

수성현(壽城縣) : 빈(賓)·나(羅)·조(曹)·혜(淮)씨가 거주한다.

주관육익(周官六翼)에 “수성에는 예전부터 세 성(城)이 있었다. 첫째는 수대군(壽大郡)으로 양성(壤城)이라고도 한다. 그 성씨는 빈(賓)이다. 둘째는 구구성(句

具城)으로 그 성씨는 나(羅)이고, 셋째는 잉조이성(仍助伊城)으로 그 성씨는 조(曹)와 헤(嵯)이다.”라고 하였다.

류(柳)·장(張)·최(崔)·신(申)·유(劉)·고(高)·정(鄭)·예(芮)·진(陳)·김(金)·이(李)씨도 모두 외지에서 들어왔다.

해안현(解顔縣) : 모(牟)·백(白)·하(河)·신(申)·정(丁)씨가 거주한다.

육익(六翼)에 또 이르기를, “성화성(省火城)에는 모씨(牟氏), 무가성(無價城)에는 신씨(申氏), 불좌성(佛坐城)에는 백씨(白氏), 하명성(河鳴城)에는 정씨(丁氏)가 거주한다.”라고 하였다. 제(諸)·진(秦)·박(朴)씨도 모두 외지에서 들어왔다. 한(韓)씨도 거주하는데 속성(續姓)⁷⁾이다.

자이현(資已縣) : 김씨가 거주하는데 속성(續姓)이다.

박·채·조(趙)·양·윤·전·우·이·임·민·최·손·곽·배·구·김·은(殷)·여·홍·권·남·공·문씨도 거주하는데 모두 외지에서 들어온 성이다.

산천(山川)

연귀산(連龜山) : 부(府)의 남쪽 3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건읍(建邑) 초기에 돌거북을 만들어 산등성이에 묻었다고 전해온다. 거북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꼬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지맥을 통하게 했으므로 연귀산(連龜山)이라 부른다. 성불산(成佛山)에서 뺏어내렸다. 산 아래에 석빙고가 있다.

침산(砦山) : 부의 북쪽 6리에 있다. 최정산에서 뺏아내렸다. 여제단(厲祭壇)이 있다.

팔공산(八公山) :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신라시대에는 부악(父岳)이라 부르고 중악(中岳)이라 여겨 중사(中祀)를 지내는 곳으로 삼았다. 주위의 고을로는 대구 부와 하양·신녕·의흥·인동·칠곡 등이 있다. 산봉우리 위에 삼동석(三動石)이 있다. 화산(花山)에서 뺏아내렸다.

마천산(馬川山) : 부의 서쪽 30리에 있으며 일명 금산(錦山)이라고도 한다. 봉수

7) 속성(續姓) : 해당 지역의 옛 기록에는 없으나 현재의 문서에 기록된 성씨. 향촌 지배층의 성씨로 보기도 한다.

대가 있다. 칠곡의 가산(架山)에서 뺏어내렸다.

왕산(王山) : 부의 북쪽 20리에 있다.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쫓기다가 이 산에 올랐기 때문에 왕산이라 한다. 몇 리쯤에 재(고개)가 하나 있는데 고려 태조가 그 곳에서 파군(破軍) 당했기 때문에 파군재[破軍峙]라 한다. 공산(公山)에서 뺏어내렸다.

팔조령(八助嶺) : 부의 남쪽 40리에 있다. 청도 운문산에서 뺏어내렸다.

입암(笠巖) : 부의 동쪽 5리 신천변에 있다. 바위의 모양이 삿갓과 같아서 입암이라 부른다. 별이 떨어져 돌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조족산(鳥足山)에서 뺏어내렸다.

최정산(最頂山) : 부의 남쪽 20리에 있다. 가파른 바위와 험한 벼랑으로 사방이 모두 막혀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칼날이 미치지 못했으며, 정유재란 때 승병대장 유정(惟政)이 여기에 진을 쳤다. 팔조령에서 뺏어내렸다.

조족산(鳥足山) :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일명 법이산(法伊山)이라 한다. 봉수대와 기우단(祈雨壇)이 있다. 팔조령에서 뺏어내렸다.

비슬산(毘瑟山) : 부의 남쪽 40리에 있다. 용추사(龍湫寺)가 있어 용연(龍淵)이라 이름 지었고, 옥천사(玉泉寺)가 있어 용천(龍泉)이라 이름 지었다. 두 절은 이 산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그 곳에 모두 기우단이 있다. 현풍과의 경계에 또 마차정(磨嵯亭)과 동계재(東溪齋)가 있다. 최정산에서 뺏어내렸다.

성불산(成佛山) : 부의 남쪽 10리에 있다. 관아(官衙)의 안산(案山)이다. 비슬산에서 뺏어내렸다.

성산(城山) : 부의 서남쪽 30리 화현(花縣) 안에 있으며 봉수대가 있다. 비슬산에서 뺏어내렸다.

와룡산(臥龍山) :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아래에 옥연(玉淵)이 있는데 용이 그 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이름으로 삼았다.

나가산(羅伽山) : 부의 북쪽 20리에 있다. 가파른 절벽에 향나무 숲이 있다. 벼랑에 오래된 암자가 있는데 향암(香菴)이라 부른다.

동학산(童鶴山) :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산세는 치솟아 있고 암벽은 가파르다. 위아래의 암혈(岩穴)에 모두 암자가 있는데 동쌍암(童雙菴)이라 부른다.

화암(畫巖) : 부의 북쪽 15리에 있다. 붉은 벼랑과 푸른 암벽이 높이 솟아 가파

르다. 기괴한 형상이 화폭을 펼쳐 놓은 듯하여 화암(畵巖)이라 부른다.

금호(琴湖) :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그 근원은 둘인데 하나는 신령의 보현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경주의 모자산(母子山)에서 나온다. 영천군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져 흐르므로 쌍계(雙溪)라고도 한다. 서쪽으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전탄(箭灘) : 부의 북쪽 20리 해안현(解顔縣)에 있다. 고려 태조와 견훤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화살이 수중(水中)에 쌓였기 때문에 전탄(箭灘)이라 한다. 금호강의 상류이다.

화담(花潭) : 부의 북쪽 16리에 있다. 팔공산의 자락이 강물을 감싸면서 10리에 푸른 절벽을 이루고, 금호강의 물결이 절벽을 끼고서 10리에 깊은 못을 이룬다. 화창한 봄날에 꽃이 수많은 절벽에 만발하여 물결을 비추므로 화담(花潭)이라 이름 하였다.

달천진(達川津) : 부의 서쪽 16리 하빈현에 있다. 금호강의 하류이다.

신천(新川) : 부의 동쪽 4리에 있다. 한 근원은 팔조령에서 나오고 한 근원은 최정산에서 나온다. 사방산(四方山) 앞에서 합류하여 금호강으로 들어간다.

동안진(東安津) : 하빈현의 16리 낙동강에 있다.

행탄(杏灘) : 하빈현의 남쪽 10리 낙동강에 있다.

풍속(風俗)

사대부는 순수하고 질박함을 숭상하고, 백성들은 농사와 길쌈을 생업으로 삼는다.

마을[坊里]

동상(東上) : 부(府)의 동쪽으로 3리에 있다. 소속된 동(洞)은 열둘이니, 후동

(後洞)·전동(前洞)·남문내(南門內)·사관리(射觀里)·신전리(薪田里)·남성리(南城里)·신동(新洞)·동성리(東城里)·칠성리(七星里)·용덕리(龍德里)·가암리(駕巖里)·신천리(新川里)이다.

동중(東中) : 부의 북쪽 7리에 있다. 소속된 동은 다섯이니, 산격리(山隔里)·침산리(砦山里)·북현암리(伏賢巖里)·검단리(檢丹里)·옥산리(玉山里)이다.

동하(東下) :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은 넷이니, 동변리(東邊里)·서변리(西邊里)·연경리(研經里)·도덕리(道德里)이다.

서상(西上) : 부의 서쪽 3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하나이니, 북문내리(北門內里)·서문내리(西門內里)·쇄환리(刷還里)·남일동(南一洞)·남산리(南山里)·동산리(東山里)·전동(前洞)·후동(後洞)·달성리(達城里)·남문외리(南門外里)·신동(新洞)이다.

서중(西中) : 부의 서쪽 8리에 있다. 소속된 동은 여섯이니, 원대리(院垞里)·용천리(龍泉里)·노곡리(魯谷里)·부암리(傅巖里)·평리(坪里)·비산리(飛山里)이다.

달서(達西) :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옛이름은 서하하(西下下)이다. 소속된 동이 여덟이니, 성당리(聖堂里)·감삼리(甘三里)·신전리(薪田里)·중리(中里)·괘이리(掛耳里)·신기리(新基里)·이현리(梨峴里)·상리(上里)이다.

성서(城西) : 부의 서쪽 20리에 있다. 옛이름은 서하(西下)이다. 소속된 동이 넷이니, 용산리(龍山里)·이곡리(梨谷里)·신당리(新堂里)·파산리(巴山里)이다.

해서부(解西部) : 부의 북쪽 2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하나이니, 지동리(枝洞里)·상향리(上香里)·지저리(枝底里)·입석리(立石里)·지당리(池塘里)·현상리(縣上里)·불로동(不老洞)·구성촌(九成村)·단산리(丹山里)·봉무촌(鳳舞村)·노은동(老隱洞)이다.

해동촌(解東村) :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셋이니, 도리동(道理洞)·연천리(蓮川里)·도신리(道新里)·검사리(黔沙里)·격양리(擊壤里)·대암리(臺巖里)·칠동(柒洞)·상동(上洞)·부동(釜洞)·구명동(九明洞)·호암동(湖巖洞)·신평리(新坪里)·신태리(新德里)이다.

해북촌(解北村) :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다섯이니, 내동리(內洞里)·신기리(新基里)·미대리(美垞里)·용전리(龍田里)·구암리(龜巖里)·중산리(中山里)·중심리(中心里)·백안리(百安里)·진정리(眞亭里)·양방리(良方里)·능성리(能城里)·인산리(仁山里)·당동리(唐洞里)·평리(坪里)·광리(廣里)이다.

해서촌(解西村) :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여섯이니, 상리(上里)·덕산리(德山里)·복초리(復初里)·대성리동(大成里洞)·송정리(松亭里)·택리(宅里)·중리(中里)·대거리(大渠里)·연암리(燕巖里)·용담리(龍潭里)·삼산리(三山里)·용진리(龍津里)·대곡리(大谷里)·지묘리(智妙里)·신기리(新基里)·연경리(研經里)이다.

수현내(守縣內) : 부의 남쪽 1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셋이니, 상동(上洞)·중동(中洞)·하동(下洞)이다.

수북(守北) :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금정리(琴汀里)·만촌리(晩村里)·각계리(覺界里)·효목리(孝睦里)·황청리(黃靑里)·소지리(所只里)·범어리(泛魚里)이다.

수동(守東) :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치산리(雉山里)·향덕리(向德里)·범물리(凡勿里)·이전리(泥田里)·신덕리(新德里)·두산리(斗山里)·두천리(斗川里)이다.

상수서(上守西) : 부의 남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여섯이니, 정대리(亭岱里)·오이리(梧耳里)·대암리(大巖里)·매계리(梅溪里)·용계리(龍溪里)·파잠리(巴岑里)이다.

하수서(下守西) : 부의 남쪽 1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넷이니, 상괘리(上掛里)·동괘리(東掛里)·장진리(長津里)·입암리(立巖里)이다.

상수남(上守南) : 부의 남쪽 4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주동(蛛洞)·옥분리(玉盆里)·단양리(丹陽里)·금동(金洞)·범동(凡洞)·우록리(友鹿里)·백록리(白鹿里)이다.

하수남(下守南) : 부의 남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이니, 흥덕리(興德里)·퇴계리(退溪里)·신전리(薪田里)·행정리(杏亭里)·창산리(昌山里)·박곡리(朴谷里)·상원리(上院里)·단산리(丹山里)·원정리(元亭里)·냉천리(冷泉里)이다.

하북(河北) :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금천리(琴川里)·현내리(縣內里)·검동리(鑣洞里)·무등리(武等里)·두천리(豆川里)·성당리(聖堂里)·기곡리(基谷里)이다.

하동(河東) :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여섯이니, 이천리(伊川里)·달천리(達川里)·박곡리(朴谷里)·방내리(防內里)·서재리(鋤齋里)·세천리(世川里)이다.

하서(河西) : 부의 서쪽 4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이니, 안곡리(安谷里)·묘동

(妙洞)·성곡리(城谷里)·적산리(赤山里)·하산리(霞山里)·감문리(甘文里)·우목리(友睦里)·척동(尺洞)·사야리(沙也里)·동곡리(桐谷里)이다.

하남(河南) : 부의 서쪽 35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강정리(江亭里)·죽곡리(竹谷里)·매곡리(梅谷里)·부곡리(釜谷里)·서부리(西部里)·문양리(汶陽里)·문산리(汶山里)이다.

화현내(花縣內) :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천내리(川內里)·신기리(新基里)·성산리(城山里)·명곡리(楡谷里)·설화리(舌化里)·부신리(付新里)·현내리(縣內里)이다.

감물천(甘勿川) : 부의 서쪽 2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여섯이니, 갈산리(葛山里)·감천리(甘泉里)·건법리(建法里)·본리(本里)·적현리(赤峴里)·송현리(松峴里)이다.

영암(靈巖) :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둘이니, 일리(一里)와 이리(二里)이다.

월배(月背) :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일곱이니, 상인리(上仁里)·본리(本里)·채정리(蔡亭里)·원덕리(遠德里)·도원리(桃源里)·진천리(辰泉里)·신기리(新基里)이다.

인흥(仁興) :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다섯이니, 송정리(松亭里)·대곡리(大谷里)·본리(本里)·쌍학리(雙鶴里)·성암리(聖巖里)이다.

옥포(玉浦) : 부의 서쪽 4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넷이니, 간경소리(干京所里)·대방리(大防里)·본리(本里)·신평리(新坪里)이다.

법화(法化) : 부의 서쪽 4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다섯이니, 본리(本里)·신당리(神堂里)·교항리(橋項里)·강림리(江林里)·시저리(時杵里)이다.

성평곡(省平谷) : 부의 서쪽 5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다섯이니, 송촌리(松村里)·금흥리(金興里)·반송리(盤松里)·조산리(造山里)·기세리(奇世里)이다.

각북(角北) : 부의 남쪽 6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여섯이니, 낙성리(樂盛里)·고며리(古脉里)·오이리(梧耳里)·삼청리(三清里)·금곡리(金谷里)·지곡리(枳谷里)·지촌리(枝村里)·남상리(南上里)·남하리(南下里)·방지리(芳旨里)·풍산리(豐山里)·율정리(栗亭里)·석교리(石橋里)·우산리(牛山里)·저대리(楮大里)·귀명리(貴明里)이다.

각현내(角縣內) : 부의 남쪽 70리에 있다. 본래 각북(角北)인데 나뉘어져 현내

(縣內)가 되었다. 소속된 동이 여덟이니 송서리(松西里)·현리(縣里)·유산리(幽山里)·성재리(聖在里)·우곡리(牛谷里)·수곡리(水谷里)·장기리(長基里)·외월리(外月里)이다.

각이동(角二同) : 부의 남쪽 80리에 있다. 본래 각남(角南)인데 나뉘어져 이동(二同)과 초동(初同)이 되었다. 소속된 동이 열둘이니, 묘봉리(妙峯里)·월산리(月山里)·차산리(車山里)·덕암리(德巖里)·흑석리(黑石里)·안국리(安國里)·안태리(安怠里)·구산리(龜山里)·금동리(金洞里)·동원리(東院里)·서원리(西院里)·구항리(丘巷里)이다.

각초동(角初同) : 부의 남쪽 80리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하나이니, 녹갈리(鹿竭里)·신당리(新塘里)·부동리(釜洞里)·평리(坪里)·사외리(沙外里)·구만리(九萬里)·함박리(咸博里)·대산리(臺山里)·옥포리(玉浦里)·개양리(開陽里)이다.

호구(戶口)

감영을 설치했을 때 가구 수는 13,194호이고, 인구는 66,962명이다. 남자는 24,794명이고, 여자는 32,168명이다.

광무(光武) 2년 무술년(1898)에 가구 수는 12,504호이고, 인구는 44,801명이다. 남자는 24,652명이고, 여자는 20,149명이다.

전부(田賦)

밭

양안(量案)⁸⁾에 기록된 것이 7,807결(結) 23부(負)이다. 이 중에 부세가 면제

8) 양안(量案) :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 곧 논밭의 소재지(所在地) 자호(字號) 위치 등급 형상(形狀) 면적 사표(四標) 소유주(所有主) 등을 기록한 원장(原帳). 전적(田籍). 전안(田案).

된 것이 214결 82부 8속, 진잡탈(陳雜塲)⁹⁾이 3,884결 41부 8속, 시기전(時起田)¹⁰⁾의 실결(實結)이 3,707결 98부 4속이다. 해에 따라 같지 않아 신묘년의 연조(年條)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11결 15부 3속이다. 구몽탈(舊蒙塲)¹¹⁾은 456결 62부 7속, 부세가 면제된 것의 승총(陞摠)은 20결 31부 2속이다. 갑오년의 몽탈전(蒙塲田)과 시기전의 실결은 4,133결 14부 6속으로 무술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논

양안(量案)에 기록된 것이 4,976결 54부 4속이고, 이 중에 부세가 면제된 것은 276결 81부 2속, 진잡탈은 795결 99부 8속, 시기전의 실결은 3,903결 73부 4속이다. 해에 따라 같지 않아 신묘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310결 64부 7속이다. 구몽탈은 284결 60부 6속, 부세가 면제된 것은 320결 51부 3속이다. 갑오년에 몽탈답과 시기답의 실결은 3,557결 18부인데 무술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세(田稅)

세미(稅米) 1,182섬 12말 3되 6홉 6사(夕)¹²⁾ 중에 왜료(倭料)¹³⁾는 208섬 12말 3되 6홉 6사, 실재 남아있는 쌀은 974섬이다. 삼수량미(三手糧米)¹⁴⁾는 608섬 14말 6홉 2사, 면세된 삼수량미는 15섬 6말 8되 6홉 9사이다. 이상 쌀은 1598섬 5말 9되 3홉 1사이다. 공작목(公作木)¹⁵⁾은 89동 32필 34척 6촌이다. 콩 882섬 10말 2되 4홉 8사 중에 왜료는 75섬 12말 2되 4홉 8사이고, 실재 남

9) 진잡탈(陳雜塲) : 문제가 있는 묵은 전답.

10) 시기전(時起田) : 현재 농사짓고 있는 밭.

11) 구몽탈(舊蒙塲) :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전답.

12) 사(夕) : 작(勺)과 같다. 용량의 단위.

13) 왜료(倭料)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에게 공급하는 식량.

14) 삼수량미(三手糧米) : 조선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 소속의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할 목적으로 징수하던 쌀.

15) 공작목(公作木) : 공미작목(公米作木). 공미(公米, 일본과의 무역에 치르는 쌀)를 무명[木]으로 바꿈.

아있는 콩은 807섬이다. 공작목 32동 14필이다. 공목(公木) 121동 46필 34척 6촌 중에 21동 21필은 다시 공작미(公作米)¹⁶⁾로 바꾸었는데, 공미(公米)는 571섬 3말이다. 본색(本色) 공목(公木)은 100동 25필 34척 6촌이다. 위태(位太)¹⁷⁾는 256섬 10말 2되, 작미(作米)¹⁸⁾는 171섬 1말 8되 4사, 위미(位米)는 4섬 4말 2되이다. 배로 운반하여 동래(東萊)에 수납(輸納)하였다. 해에 따라 같지 않아 신묘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동(大同)

작목(作木) 95동, 돈 9,500냥을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였다. 저장해 둔 쌀 410섬 7말 1되를 보관하였다. 선혜청에서 나누어준 쌀 168섬 2말, 줄여준 쌀 571섬 3말, 어란가미(魚卵價米) 3섬 13말 1되 5홉을 정해진 대로 배로 운송하여 동래부에 수납하였다. 해에 따라 같지 않아 신묘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균세(均稅)

세태(稅太) 87섬 11말 8홉, 작목 4동 19필 12척 2촌, 대동미 263섬 3말 2되 4홉, 작목 11동 14필 1척 2촌 중에 30필 32척은 서울로 운송하는 짐값으로 계산하여 제하고 실제로는 무명 10동 33필 4척 2촌을 상납하였다. 연례에 따라 결전(結錢) 4,186냥 8전 5푼을 상납하였다. 해에 따라 같지 않다. 선무포(選武布) 5동 41필을 정해진 대로 상납하였다. 부세가 면제된 삼수량미는 26섬 4말 8되 2홉 4사인데 작목 1동 28필 33척 8촌을 호조에 납부하였다. 화전 1결 66부 5속에 대한 작목은 16필 26척인데, 대전(代錢)¹⁹⁾ 38냥 3전을 호조에 납부하였다. 무녀세는 무명 13필인데 대전 45냥 5전을 호조에 납부하였다. 신묘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16) 공작미(公作米) : 공목작미(公木作米). 공목(公木, 일본과의 무역에 치르는 무명)을 쌀로 바꿈.

17) 위태(位太) : 전세(田稅)로 내는 콩.

18) 작미(作米) : 전세(田稅)나 공물(貢物)로 징수하는 곡식을 쌀로 환산한 것.

19) 대전(代錢) : 물건 대신으로 내는 돈.

요역(徭役)

평과 답 : 정미년(1727)에 관찰사 유척기(兪拓基)가 둔답(屯畓)을 설치하여 감영과 부(府)의 수요에 오래도록 대비하였다. 본부(本府)에서 평 값으로 내는 세금 317석 6말 5되²⁰는 진청(賑廳)에서 받는다.

숯 : 신미년(1751)에 관찰사 민백상(閔百祥)이 600냥을 출연하여 감영·부(府)·진영(鎭營)의 수요에 오래도록 대비하였다.

멜나무 : 계유년(1753)에 관찰사 윤동도(尹東度)가 10,000냥을 출연하여 감영의 수요에 오래도록 대비하였고, 무인년(1758)에 관찰사 조운규(趙雲逵)가 1,050냥을 출연하여 또 진영(鎭營)의 수요에 대비하였다. 본부(本府)에서는 전례에 따라 백성들에게 9단(丹)씩 거두었다. 임진년(1772)에 판관이 3,662냥 1전을 출연하였으며 3단을 경감하였다. 경오년(1810)에 관찰사 정만석(鄭晩錫)이 2,000냥을 출연하였고 임오년(1822)에 판관 이장현(李章顯)이 465냥을 출연하였다. 멜나무 6단은 나누어 방급(防給)²⁰하였다.

빙정(氷丁) : 병자년(1756)에 관찰사 이익보(李益輔)가 1,400냥을 출연하여 방급하였다.

청초(靑草) : 을유년(1765)에 관찰사 정존겸(鄭存謙)이 6,000냥을 출연하여 방급하였고, 그 나머지 돈으로 동서부(東西部) 양면(兩面)의 소목(燒木) 비용을 방급하였다.

고초(藁草) : 일부(一夫) 당 100근씩 거두어 감영과 부(府)의 수요에 대비하였다. 정해년(1827)에 관찰사 조인영(趙寅永)이 2,600냥을 출연하여 방급하였다.

읍내 동서부 민전(民纏) 대복(垜卜) : 신유년에 관찰사 김이양(金履陽)이 2,000냥을 출연하여 식년(式年) 호적 작성 비용을 방급하였다. 을해년(1815)에 관찰사 김희순(金羲淳)이 3,000냥을 출연하여 논을 마련하여 세금을 거두어 방급하였다.

왜료태(倭料太) : 임진년에 관찰사 김회연(金會淵)이 1,000냥을 출연하여 방급하였다.

20) 방급(防給) : 방납(防納)이라고도 함. 고을수령 등이 각종 요역의 비용을 대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으로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아내는 폐단이 빈번하였다.

경영주인(京營主人) 역가조(役價租) : 계유년에 관찰사 김노응(金魯應)이 620냥을 출연하여 방급하였다.

경내 각 역참 관예(官隸) 지공(支供, 조달) : 무진년에 관찰사 윤광안(尹光顔)이 2,750냥을 출연하여 역참 비용으로 대비하였다. 기축년에 관찰사 정기선(鄭基善)이 50냥을 출연하여 부족분에 대비하였다.

형곤목(刑棍木) : 점민(店民)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한다. 갑진년에 관찰사 이병모(李秉模)가 150냥, 무진년에 관찰사 윤광안이 250냥, 기축년에 관찰사 정기선(鄭基善)이 300냥을 출연하여 요역비에 대비하였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 7월에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베풀지 말라는 명이 있어 모두 탕감하였다.

군액(軍額)

도총(都摠) 15,209명. 이 중에 경안(京案)에 등재된 훈련도감 포수보(砲手保) 228명. 이 중에 1명은 영천군(榮川郡)에서 옴. 어영청 정군(正軍) 152명. 경술년에 강작(降作) 관보(官保) 21명. 정축년에 감번(減番) 정군자보(正軍資保) 99명. 관납보(官納保) 434명 중에 5명은 지례현에서 오고 1명은 영천군에서 옴. 금위영(禁衛營) 정군(正軍) 226명 중에 6명은 무오년 강작(降作) 관보, 45명은 무진년 강작 관보, 39명은 정축년 감번(減番) 정군자보, 149명은 관납보이다. 관납보 460명 중에 1명은 영천군에서 옴. 별파진보(別破陣保) 1명, 병조기병(兵曹騎兵) 46명, 보병 166명 중에 10명은 영천군에서 옴, 84명은 임진년에 할숙된 시노(寺奴), 분방금보직(分防禁褌直) 50명 중에 4명은 금군보(禁軍保)에서 옮겨오고 1명은 경역보(京驛保)에서 옮겨옴. 장악원(掌樂院) 악생보(樂生保) 4명, 악공보(樂工保) 13명 중에 4명은 영천군에서 옴, 교서관(校書館) 장인(匠人) 42명, 보충대(補充隊) 여정(余丁) 1명, 충익위(忠翊衛) 2명, 충찬위(忠贊衛) 243명, 충순위(忠順衛) 233명, 악공노보(樂工奴保) 3명, 침선비보(針線婢保) 2명, 선무군관(選武軍官) 291인, 외안(外案)에 등재된 감영 재가작령군관(在家作領軍官) 백충장

(百摠將) 1인, 대솔작령군관(帶率作領軍官) 백총장 2인, 재가작령군관 107인, 재가출사군관 80인, 아병초관(牙兵哨官) 8인, 기고관(旗鼓官) 2인, 지구관(知穀官) 2인, 대솔출사군관(帶率出使軍官) 90인, 대솔작령군관 101인, 기패관(旗牌官) 111인, 도훈도(都訓導) 26인, 아병마군(牙兵馬軍) 226명, 마군보(馬軍保) 461명, 아병보군(牙兵步軍) 590명, 아병복마군(牙兵卜馬軍) 54명, 복마보(卜馬保) 100명, 재가작령별장 표하군(標下軍) 20명, 작령 백총장 표하군 40명, 작령군관 火兵 70명, 馬丁 70명, 대솔작령별장 표하군 20명, 작령백총장 표하군 20명, 작령군 화병 30명, 출사군관 마정 30명, 장관청(將官廳) 수솔(隨率) 9명, 화병 30명, 아병 마군수솔 55명, 기고청(旗鼓廳) 화병수솔 23명, 기수(旗手) 100명, 기수보 68명, 당보수(唐報手) 30명, 무부(巫夫) 군뢰(軍牢) 화병 75명, 군뢰 50명, 군뢰보 17명, 화병 4명, 나장(羅將) 80명, 보 12명, 궁인(弓人) 22명, 시인(矢人) 10명, 유황군(硫黃軍) 32명, 수미군(需米軍) 75명, 탄군(炭軍) 9명, 공고격군(工庫格軍) 6명, 공고보역군(工庫助役軍) 3명, 고마격군(雇馬格軍) 11명, 도침군(搗砧軍) 40명, 각색(各色) 장인보(匠人保) 4명, 당보수(塘報手) 화병 5명, 기수화병(旗手火兵) 10명, 도훈도 마정 5명, 세악수 화병 1명, 수철장 26명, 사기장 6명, 웅장 63명, 각색 장인 244명, 각청 하전 226명, 가산외성수첩작령군 백총장 2인, 산성출사군관 10인, 산성수첩작령군관 138인, 화병 46명, 산성성정초관(山城城丁哨官) 15인, 화병 5명, 산성성정군 203명, 산성 화포수 6명, 보 9명, 산성 유황군 39명, 산성모군 200명, 산성군기하전 3명, 감영 여사부 9명, 중영 표하군 50명, 군뢰 30명, 수솔 8명, 각청 하전, 18명, 소속된 아골진 분방수군 733명, 보 367명, 사부 220명, 노량군 72명, 조라진 분방수군 469명, 보 234명, 사부 252명, 노량군 126명, 가덕진 분방수군 240명, 보 119명, 노량군 41명, 천성보 분방수군 97명, 보 50명, 사부 225명, 옥포진 분방수군 33명, 보 17명, 통영 유황군 2명, 좌병영 유황군 35명, 봉별장 3인, 봉수군 75명, 보 225명, 대구진 토포군관 171인, 별장 1인, 천총 1인, 파총 1인, 지구관 1인, 기고관 1인, 초관 9인, 기패관 19인, 도훈도 5인, 보 6명, 군뢰 30명, 보 4명, 각청 하전 15명, 속오별대수솔군 236명 가운데 41명은 경산에서 초군과 함께 옴, 수솔보 431명과 보군수솔 1,008명 가운데 6명은 경산에서 초군과 함께 옴, 보 1,043명, 좌수영 유황군 23명, 부참 파발보졸 및 보 45명 오동참 파발보졸 및 보 45명, 본부 수첩

군관 1,000인, 화병 34명, 출사군관 60인, 별무사 112인, 보 98명, 복마군 10명, 겸제군(兼濟庫) 모군(募軍) 20명, 사역 역리보 35명 상납, 어영보 434명, 무명 8동 34필 10월에 어영청에 납부, 금보직(禁褫直) 50명, 무명 1동 10월에 병조에 납부, 보충대 여정 1명, 무명 1필 10월에 병조에 납부, 경보병(京步兵) 82명, 무명 1동 32필, 기병 46명, 무명 46필 3월에 병조에 납부, 충익위 2명, 무명 2필 12월에 병조에 납부, 충찬위 243명 가운데 아리고 탈난 124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119명, 대전 238냥 상납, 충순위 233명 가운데 아약 잡탈 138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95명, 대전 119냥을 상납, 9월에 병조에 의승군 8명 상납, 매명 번전 22냥씩, 합전 176냥, 이 가운데 66냥은 승군이 납부하고 110냥은 을사년 경관(京關)에 따라 상진조모(常賑租耗) 106석 5말에 대한 작전(作錢)을 10월에 수어청에 납부, 금위보 460명, 무명 5동 10필, 별파진보 1명, 무명 1필 10월에 금위영에 납부, 각수보 42명, 무명 42필 10월에 교서관에 납부, 포보 228명, 무명 4동 28필 10월에 훈련도감영에 납부, 악공보 13명, 무명 13필, 악생보 4명, 무명 4필, 악공노(樂工奴) 일용보(日用保) 3명, 대전(代錢) 6냥 10월에 장악원에 납부, 침선비(針線婢) 미섬보(美蟾保) 2명, 대전 4냥 10월에 상의원에 납부, 시노(寺奴) 156구(口) 가운데 공노(貢奴) 151구, 무명 3동 1필, 남자종 5구, 무명 5필은 신유년 문서가 불탄 후에 감축하고 중학(中學) 둔세전(屯稅錢) 6냥 3전은 8월에 중학에 납부.

금위정군(禁衛正軍) 226명, 관보(官保) 459명, 자보(資保) 242명, 별파진보(別破陣保) 1명, 어영정군(御營正軍) 152명, 관보(官保) 304명, 자보(資保) 162명, 기보병(騎步兵) 202명, 제색군(諸色軍) 51명, 충찬위(忠贊衛) 60명, 충익위(忠翊衛) 2명, 포보(砲保) 227명, 교서관 각수보(校書館刻手保) 42명, 악공(樂工)과 악생(樂生)이 각각 13명, 속오보군(束伍步軍) 1,009명, 보인(保人) 1,009명, 복마군(卜馬軍) 36명, 보인(保人) 72명, 마군(馬軍) 194명, 보인(保人) 388명, 수군(水軍) 1,456명, 병보(并保) 728명, 무학(武學) 834명, 봉수군(烽燧軍) 300명, 벌장(機將) 4명, 벌군(機軍) 90명, 통영유황군(統營硫黃軍) 2명, 수첩수술화병(守堞隨率火兵) 150명, 영군기고화병(營軍旗鼓火兵) 46명, 수솔(隨率) 56명, 장관수솔(將官隨率) 32명, 화병(火兵) 54명, 기수군(旗手軍) 150명, 화병(火兵) 19명, 당보군(塘報軍) 30명, 세악수(細樂手) 43명, 별무사복마군

(別武士卜馬軍) 92명, 보인(保人) 903명, 도침군(搗砧軍) 40명, 마군(馬軍) 1,202명, 수솔(隨率) 140명, 보인(保人) 2,404명, 보군(步軍) 3,768명, 복마군(卜馬軍) 303명, 보인(保人) 606명, 표하군(標下軍) 50명, 수솔(隨率) 229명, 대솔마정화병(帶率馬丁火兵) 102명, 가산모군 200명, 여군(餘軍) 606명, 유황군(硫黃軍) 806명, 수솔(隨率) 41명, 수미군(需米軍) 200명, 표하군(標下軍) 100명, 탄군(炭軍) 150명이다.

성지(城池)

달성(達城)

부(府)의 서쪽 4리에 있다. 비슬산으로부터 뻗어내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둘레가 944척이고 높이가 4척이다. 성 안에 세 개의 우물과 두 개의 못이 있다. 군창(軍倉)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구계(龜溪) 서침(徐沉) 선생은 대대로 달성(達城)에 살았다. 조선 세종 때 달성의 성참(城塹)을 수리하면서 남산(南山)의 옛 역참터와 연신지(蓮信池)·신지(新池)를 내려주고 그 땅과 바꾸도록 명하고 상을 주려 하였다. 선생은 상을 사양하면서, 고을 백성들이 관청에 이자로 바치는 곡식을 한 섬에 5되씩 줄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오랫동안 조정의 특별한 은전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계서원묘정비(龜溪書院廟庭碑)에 자세히 실려 있다.

부성(府城)

처음에는 성지(城池)가 없었다. 영조 병진년(1736)에 감사 민응수(閔應洙)가 대구부는 영남의 요충지로서 감영을 설치한 곳인데, 성채가 없으므로 진실로 환란에 대비하는 방도가 아니라 여기고, 사정을 갖추어 장계를 올렸다.

비로소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124보(步)이고 높이가 24척이며 여첩(女堞)²¹⁾이 955보(堡)이다. 성에는 4개의 정문이 있는데 동쪽은 진동문(鎭東門),

21) 여첩(女堞) : 성벽 위에 쌓은 나지막한 담.

서쪽은 달서문(達西門), 남쪽은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 북쪽은 공북문(拱北門)이다. 서로 2개의 암문(暗門)²²⁾이 있다. 사적이 남문 밖의 축성비에 실려 있다. 초루(譙樓)와 연못은 없고 우물과 샘은 많다.

남문루(南門樓) 상량문(上樑文)

—통판(通判) 이협(李峽) 지음.

성곽이 우뚝 솟아 비로소 남문(南門)이 세워지고, 새가 날개를 펼친 듯이 장대한 용마루가 크게 세워졌네. 관문은 더욱 견고해졌고, 단청은 곱게 물들었네.

달성은 실로 영남의 중요한 곳이고, 길이 평평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이곳에 모여 들었네. 지세(地勢)는 낙양과 같아 팔공산이 절하고 금호강이 감돌아 흐르니, 형승(形勝)은 영남의 으뜸이로세.

수륙군(水陸軍)의 대원수가 머무는 곳이니 체모(體貌)가 높고, 동서로 수천 길 이 늘어서 있으니 옥백(玉帛)이 모두 모여드네. 거룻배로 건널 수 있는 곳에 왜적이 있으니 이로부터 침입의 요충로가 되었고, 양호(兩湖)²³⁾의 교차지에 올라타기 되었으니 본래 하늘이 만든 요해지라 할 만하네.

천리 관문의 땅에 어찌 수 척의 성을 쌓을 재력이 없었겠는가? 노인이 옛 성터를 말하기는 해도, 어느 때 쌓고 허물었는지는 알 수 없네. 포악한 관리는 중문(重門)도 갖추지 않았으니, 성을 쌓지 못한 지 몇 해나 되었던가? 임진왜란에 방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적의 출몰에도 안전하기 어려웠네. 평지에 성을 쌓는 일은 본래 쉽지 않아서 당시 식자(識者)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항상 탄식만 반복하였네.

오직 우리 관찰사 민응수(閔應洙)께서 동량(棟梁)의 재목으로 변방의 중임을 맡아 난진이퇴(難進易退)의 절조를 지녔네. 홍문관 대제학으로 10년 동안 공손하고 신중했으며, 편안할 때 근심스러움을 생각하며 감사로 재임할 때 축성에 정성을 기

22) 암문(暗門) : 누각이 없는 성문.

23) 양호(兩湖) : 호서와 호남. 곧 충청도와 전라도.

울었다네. 설산(雪山) 같은 무거운 여망에 부응하여 굳건함이 장성(長城)과 같았고, 음우(陰雨)²⁴⁾에 대한 계책을 생각하여 우리 변경을 견고하게 하였네. 관찰사로 부임하여 축성에 마음을 다하였고, 옛 성터를 살피 더욱 둘레를 넓혔다네. 그리하여 수천여 보(步)의 큰 성이 되었고, 담을 합하여 상하 23척의 높이가 되었네.

원근에 석맥(石脈)이 있는 곳이면 직접 찾아가기를 꺼리지 않았고, 크고 적은 재원이 들어오면 모두 쌓아 창고가 가득하였네. 매일 직접 공사를 감독하여 드디어 40일 만에 완공하였다네.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품삯을 넉넉히 주었으니, 어찌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했겠는가?

성 위 담의 형세가 구름에 닿아 있음을 바라보니, 초루(礮樓)²⁵⁾의 완성이 매우 빠름을 알겠네. 정문이 넷, 암문(暗門)이 둘인데, 남문을 가장 중하게 여겼네. 하가(下架)가 다섯, 상가(上架)가 셋으로, 드디어 하늘로 솟은 대들보를 세워주네.

바람과 달을 도끼로 삼아 날개 편 듯한 솜씨를 드러내었고, 무지개 없던 들보와 노을 비친 용마루는 평탄히 연귀산(連龜山)의 들판에 가까이 있네.

천백 리 산하가 멀리서 절하니 형세가 더욱 장대하고, 70고을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라보고 그 위용에 모두 놀라네. 이곳은 외적(外敵)을 막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상황을 글로 올리기도 했다네.

고을의 모습이 크게 새로워지니 남방을 다스릴 위무(威武)를 펼쳐내고, 산과 언덕이 멀리서 축하하니 임금에 대한 충성을 본받는 듯하네. 창고를 설치하여 돈과 곡식을 쌓으니 고을을 다스리는 방식이 훌륭하고, 군수에게 성지(城池)를 관리하게 하니 규모 또한 갖추어졌네.

이 누각에 올라 관람하는 사람은 그 누군들 우리 민공(閔公)을 칭송하지 않겠는가? 국경을 돌아보니 대비를 소홀히 함이 없고, 둘러싼 성을 살피보니, 아! 태산같이 견고하도다. 비록 후일에 급한 환란이 있더라도 민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네. 진실로 위대한 공적은 견줄 데 없고, 저 얼음 같은 지조와 은혜로운 정치는

24) 음우(陰雨) : 시경 〈치효(鵲巢)〉에 “하늘에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로 문을 감는다면, 이제 너희들이 혹시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爽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하였다. 환란에 대비해야 함을 경계한 말.

25) 초루(礮樓) : 성문에 설치한 누각.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네.

어찌 낙성의 잔치를 열려 할 때, 문득 임기가 끝났다는 문서가 온단 말인가. 좋은 날 술자리를 여니 유량(庾亮)²⁶⁾의 풍류처럼 모두 다투어 바라보고, 스무 달 만에 임기가 차니 구순(寇恂)²⁷⁾처럼 일 년 더 머물게 하고 싶네.

아, 이 누각이여!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우리 성상께서는 남쪽을 염려할 근심이 없어졌으니, 진실로 국가를 보존할 고을이 되었네. 이곳에 부임하는 여러 군자(君子)에겐 후일의 임무가 있으니, 어찌 보수하는 일을 소홀히 하겠는가. 이에 파요가(巴謠歌)²⁸⁾를 부르며 훌륭한 장인(匠人)의 공을 기리노라.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신천(新川)이 큰 들판 가운데로 흘러드네.
공(公)의 지금 공택(功澤)과 함께
천년토록 끝없이 흘러가리라.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대마도가 바다 넘어 멀리 보이네.
어찌 큰 물결이 영원히 그치길 바라겠는가?
임금의 교화가 멀리까지 펼쳐야 하리라.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곧 바로 가산(架山)²⁹⁾과 협공하는 형세를 이루네.
이로부터 백성들이 살 곳을 정하게 되니

26) 유량(庾亮) : 진(晉)의 명신(名臣). 유량이 무창(武昌)에 있을 때 하급관리들이 남루(南樓)에서 놀고 있었다. 유량이 오자 관리들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였는데, 유량이 그들을 머물게 하고 함께 즐겼다고 함.

27) 구순(寇恂) : 후한(後漢)의 명신. 여남태수(汝南太守)로 있다가 집금오(執金吾)로 전임되자 여남의 백성들이 왕에게 구순(寇恂)을 1년만이라도 여남태수로 유임해 주기를 간청하였다고 함.

28) 파요가(巴謠歌) : 들보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

29) 가산(架山) : 팔공산의 한 줄기로 칠곡군과 군위군 사이에 있음.

어찌 담소(談笑)하면서 적을 평정하기 어려우리.

어영차! 들보를 위로 올리니
머리를 돌려보니 봉래산(蓬萊山)이 보이네.
임금께서 날마다 태양처럼 빛나시기를 축원하노니,
임금의 성덕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렵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내리니
천만(千萬) 촌락에 뽕나무 가득하네.
밭 갈고 우물 파며 태평가를 부르면서
곡식도 생산하고 길쌈도 하리라.

엮드려 원하옵건대, 들보를 옮긴 뒤에 금탕(金湯)³⁰⁾이 더욱 견고해지고, 기후가
항상 조화로워 만세토록 태평하고 큰 바다 밖에서 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여가가 있는 날 이곳에 올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수 간에서 절로 행복하게 하소서.
바라건대 나의 축하와 경계를 받아들여 쌓아 놓은 성을 영원히 보호하소서.

남루가(南樓歌)

•관찰사 정존겸(鄭存謙) 지음.

구름 낀 성 남쪽에 아침해 비치니
누대 하나 하늘로 우뚝 치솟네
관문에서 야경(夜警)하던 날 언제였던가
관찰사의 경륜 저와 같이 빛났어라
남쪽 고을에 구름과 우레소리 세월은 흘러
목석은 무정하게 절반이나 무너졌네

黃雲城南朝日射
有樓翼然天中起
重關擊柝何年事
相國經綸照如彼
雲雷南國歲月長
木石無情半傾頽

30) 금탕(金湯) : 굳건한 성.

옛 사람 지금 사람 뜻은 서로 같고
 옛 사람 가고 나면 지금 사람 온다네
 현산의 조각돌에는 이끼가 끼었고
 황학루 신선 누각 다시 꾸며졌네
 기둥들 새로 솟고 주춧돌 듬직하고
 성가퀴 굽이굽이 아름답게 비치네
 제비들 쌍쌍이 지저귀며 축하할 때
 한가로이 누각에 올라 사방을 굽어보네
 펼쳐이는 깃발은 풍운의 빛깔이요
 굳건한 형세는 산하의 모습으로세
 대마도 파도는 삼만 리에 푸른데
 왜적의 바람은 얼마나 비릿하던지
 농요는 들판에 가득 세상은 고요하고
 태평시대라 군영에 북소리 그쳤네
 누각에 풍악 소리 칼은 갈무리되고
 마을마다 밥 짓는 연기 모두들 즐겁네
 금호강 잔잔하고 비슬산 저물녘에
 농사 살피던 관찰사 거문고 연주하네
 풍성한 곡식들 논밭에 이어져 있으니
 손님과 관리들 풍년을 축하하네
 춘대(春臺)가 빛나니 누구의 공인가
 성군(聖君)이 계시니 하늘처럼 어지시네
 주작성(朱雀星) 아래 북두성 바라보니
 오색구름 용마루 위에 머물러 있네
 소신 절하며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니
 천년만년 해와 같이 솟아오르시기를
 남루의 형세 태산같이 높으니
 관찰사 해마다 이곳에서 굽어보겠지

古人今人意相同
 古人去後今人來
 峴山片石生莓苔
 黃鶴仙樓再雕飾
 棟樑新聳盤石安
 粉堞縈迴映丹雘
 雙飛燕子喃喃賀
 綏帶登臨開八楹
 旌節彩動風雲色
 金湯勢壯山河形
 馬島波澄三萬里
 蠻風那堪送穢腥
 農謳滿野塵沙靜
 聖世轅門茄鼓停
 笙歌繞樓劍藏鞘
 烟火千村士女喜
 琴湖不動琵琶山
 晚觀稼元戎琴瑟倚
 穰穰百穀連原陌
 且今賓僚祝有年
 春臺熙皞伊誰力
 聖人在上仁如天
 朱鳥星下望北斗
 五雲何處是觚稜
 小臣拜獻南山壽
 千歲萬歲如日昇
 南樓勢同泰山奠
 刺史年年晚眺憑

•관찰사 김응순(金應淳) 지음.

남루의 달빛 어제 밤과 같이 환하고
누각 위에 봄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네
가희(歌姬)는 비파 타며 신곡을 부르니
도독(都督)의 풍류가 완연히 저와 같도다
일소(逸少)의 풍류 남루의 흥보다 알고
관찰사의 풍류 조금도 못하지 않다네
몇 년 만에 이 누각을 완성하였는데
지난번 그대는 이부(吏部)에서 벼슬하였지
맑은 날에 이르러 우뚝히 완공되니
영남의 변화함에 아름다움 더하였네
난간은 열두 개 제비들 날아들고
아침해 비치니 단청이 아름답네
감영의 성루 이로부터 형세가 안정되고
천 척의 누각 층마다 기둥 더하였네
두 개의 관문은 자연스레 남북을 구분짓고
산과 강은 저절로 울타리와 담장 이루었네
낮에는 순라꾼 쉬고 밤에는 야경꾼 드무니
태평세월 왜적 침략 없는 지 오래일세
군영의 채색 깃발 그림자 너울거리고
관찰사 피리 불며 한가로이 쉬고 있네
성 안 가득 밥 짓는 연기에 마을 흐릿하고
아낙네들 밥광주리 이고 가니 농부들 기뻐하네
낙옥재는 서쪽에 있어 글공부 소리 들리고
관덕당은 남쪽에 있어 간성처럼 기댈 수 있네
태평세월 봄 경치가 마치 그림 같은데
우리 임금님 등극하신지 42년이라네
천신(賤臣)은 먼 시골에서 일어나
두텁고 어진 임금님의 은총 듬뿍 받았네

南樓月色如昨夜
樓上冉冉春雲起
歌姬謠琵琶解新曲
都督風流宛在彼
逸少猶淺南樓興
元規此時非小顏
治成數載修此樓
往者君以吏部來
迨天未雨起突兀
南國繁華增賁飾
欄干十二鶯子飛
朝日照之輝丹雘
營壘從此體勢奠
疊榭千尺仍層檻
重關天以限南北
襟帶自作藩垣形
勻斗晝臥夜柝稀
明時久息南蠻腥
高牙彩纛影逶迤
刺史笙管暇日停
滿城烟火迷市井
饁婦出田田畯喜
樂育在西絃誦聞
觀德在南干城倚
太平春光如畫圖
吾王四十之二年
賤臣起自湖海至
便藩異渥荷仁天

부임해서 알았다네 한결같이 맑은 것
 맹박이 다스린 뒤 바른 풍도 남아서라네
 나도 모르게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축원하노니 임금님의 만수무강
 장가 지어 격양가에 화답하니
 북두칠성 아득히 남루에 기대어 있네

攬轡已覺一路清
 孟博去後餘風稜
 不識不知咨我民
 願祝聖人如日昇
 爲作長歌和擊壤
 北斗渺渺南樓憑

숲[林藪]

신천숲

부(府)의 동쪽 5리 하수서면(下守西面)과 동상면(東上面)에 있다. 길이는 10여 리이다. 영조 무술년에 판관 이서(李澈)가 읍기(邑基)를 위하여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고종 무진년(1868)에 고을사람들이 비를 세우고 이공제(李公堤)라 하였다.

칠성바위숲

부의 북쪽 성밖에 있다. 정조 병진년(1796)에 관찰사 이태영(李泰永)이 일곱 개의 바위가 북극성을 껴안고 있는³¹⁾ 것을 기이하게 여겨 바위 둘레에 초목을 심었다.

창고(倉庫)

부창(府倉)

31) 북극성을 ... 있는 : 논어 〈위정(爲政)〉에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별들이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라고 하였다.

부(府)의 관아 동쪽에 있다. 쌀 250석 4되 8홉 1작, 콩 62석 6말 9되 1홉 1작, 조(租) 2,346석 2말 1되 6홉, 걸보리 898석 9되 9홉 2작, 진맥(眞麥) 2되 8홉 5작, 상진미(常賑米) 122석 5말 4되, 목맥(木麥) 1석 8되 6홉 7작, 비군미(備軍米) 7말 2되 3홉 8작, 벼 9석 13말 2되 4홉 7작, 별군미(別軍米) 340석 3말 3되 1작, 첨가조(帖價租) 1,200석 12말 6되 5홉 7작, 약환조(藥丸租) 766석 1말 5되 5홉 5작, 별회미(別會米) 52석 1말 3되 4홉, 조 450석 2말 3되 3홉, 진맥 2석 4되 9홉 6작.

해안창(解顔倉)

부의 북쪽 17리 해안현에 있다. 쌀 111석 2말 3되 2홉 4작, 조 3,500석 4말 1되 5홉 4작, 상진미 122석 2말 4되 8홉 1작, 콩 210석 1홉 6작, 조 152석 1말 4되 4홉, 걸보리 410석 7되 1작, 별군미(別均米) 106석 7말 1되 7홉 6작, 별회미 296석 13말 2홉 5작, 조 420석 4말 4홉 9작.

남창(南倉)

부의 남쪽 12리 수성현에 있다. 훈국미 20석 1말 3되 2홉 4작, 별군미 300석 4되 2홉, 상진태 11석 6말 9되 9홉, 피모 102석 1말 2홉, 진맥 7말 5홉 1작, 통전미(統錢米) 92석 3말 4되 4홉 3작, 신수조(信需租) 4280석 13말 7되 7홉 5작, 별회미 239석 13말 5되 4홉 4작, 콩 105석 9말 4작, 조 401석 2말 1되 3작, 피모 311석 6말 7되 6홉.

하빈창(河濱倉)

부의 서쪽 37리 하빈현에 있다. 회내미 304석 5말 3되 9홉, 조 5102석 1말 6홉, 피모 81석 1말 7홉 5작, 상진태(常賑太) 88석 10말 1되 1홉, 피모 111석 3말 5되 1홉, 진맥 5말 6되 2홉 5작, 비황조(備荒租) 35석 5말 3홉 6작, 사진미(私賑米) 9석 5말 9되 3홉 7작, 콩 3석 13말 8되 4홉 6작, 조 134석 5말 3되 1홉 4작, 비군피모(備軍皮牟) 1석 1말 7되 5홉 6작, 보민사조(保民司租) 682석 3말 6되 8홉 1작, 첨가피모(帖價皮牟) 78석 12말 6되 1작, 별회조 253석 8말 1

되 5홉 8작.

화원창(花園倉)

부의 서쪽 30리 화원현에 있다. 쌀 222석 4말 1되 1홉 2작, 조 6,113석 5되 2홉, 상진대 101석 1말 2되, 피모 193석 7말 5되 3홉, 진맥 5말 2되, 별균미 394석 13말 1홉 4작, 균군미(均軍米) 5석 12말 7되 3홉 5작, 통전미 33석 3말 4되, 사진피모(私賑皮牟) 14말 5되 5홉 2작, 별희미 91석 11말 3되 4홉 8작, 조 202석 2말 2되 3홉, 겉보리 409석 3말 2되 5홉, 진맥 3석 1말 5되 2홉 3작.

풍각창(豐角倉)

부의 남쪽 70리 풍각현에 있다. 쌀 8,982석 8말 5되 1홉, 상진조 141석 1말, 피모 203석 1말 3홉, 진맥 3말 3되 1홉 9작, 비균미 7말 4되, 갑술년 보진조(補賑租) 51석 9되 5홉 8작, 약환미(藥丸米) 334석 14말 1되 9홉, 남전미(南錢米) 662석 11말 3되 6홉 8작, 별희대 150석 5말 9되 1홉 2작, 조 123석 3말 2되, 피모 730석 10말 8되 7홉 5작, 진맥 1석 6말 9되 3홉 7작. 모든 창고는 임진년의 연조를 표준으로 삼는다.

대동고(大同庫)

저치미(儲置米) 556석 3말 2되 7홉.

강창(江倉)

부의 서쪽 30리 낙동강 나루에 있다. 춘결미를 획급에 따라 봉상하는데 4월에 배로 운송하여 동래부에 납부한다.

고마고(雇馬庫)

이전에 전곡이 있었는데 신구 영송하는 비용으로 200냥을 사용하였다. 판관 洪元燮이 갑진년 봄에 별비전(別備錢) 2,000냥, 관찰사 이병모(李秉模)가 을사년 봄에 별비전 200냥, 판관 이복섭(李復燮)이 정미년에 별비전을 본 창고에 두었다.

둔답(屯畓) 490말 5되 지기[落只], 둔전(屯田) 10마지기, 둔마(屯馬) 48필.

공고(工庫), 관청(官廳), 빙고(氷庫)

부의 남쪽 연귀산(連龜山)에 있다. 판관 유명악(俞命岳)이 설치하였다.

군기고(軍器庫)

객사(客舍)의 서쪽 모퉁이에 있다. 흑각궁(黑角弓) 47장(張), 간각궁(簡角弓) 161장, 교자궁(校子弓) 233장, 죽궁(竹弓) 18장, 통아(桶兒) 278개, 환도(環刀) 95자루, 장전(長箭) 404부(部), 편전 334부, 장창(長槍) 160자루, 엄두(掩頭) 140부, 엄심(掩心) 140부, 거마작(拒馬作) 100좌(坐), 결삭소조(結索所條) 300과(把), 삼혈총(三穴銃) 6자루, 화전(火箭) 30자루, 능철(菱鐵) 5,900개, 대로구(大爐口) 168좌, 소로구(小爐口) 11좌, 장막 104부(部, 浮), 나팔(喇叭) 3쌍, 호적(號笛) 3쌍, 대쟁(大鍾) 1면(面), 쇠발(鎗鉢) 2쌍, 세악(細樂) 1쌍, 학라(學囉) 3쌍, 약승(藥升) 270개, 등 의(燈衣) 160건(件), 등촉(燈燭) 159자루, 흑탁개(黑傘蓋) 158개, 등철(燈鐵) 159개, 남비개(南飛箇) 270부, 화철(火鐵) 270개, 화철석(火鐵石) 270개, 이약통(耳藥桶) 270개, 약통(藥桶) 8001개, 화승(火繩) 103사리(沙里), 수노(手弩) 5좌, 궁노(弓弩) 1좌, 목표(木瓢子) 1,229개, 조총 442자루, 화약 5,444근 5전 5푼, 연환(鉛丸) 290,852개, 포관혁(砲貫革) 5좌, 사관혁(射貫革) 6좌, 추관혁(菊貫革) 10좌, 나각(螺角) 1쌍, 독(蠟) 1좌, 북 10좌, 참형도(斬刑刀) 1쌍, 삼지창(三枝槍) 1쌍, 숙정패(肅靜牌) 1쌍, 회피패(迴避牌) 1쌍, 고시패(告示牌) 1쌍, 투문패(投文牌) 1쌍, 관이전(貫耳箭)과 영전(令箭)이 각각 한 개, 명라(鳴囉) 1좌.

수성(守城) 군기(軍器)

장창(長槍) 566자루, 신기(神旗) 11면(面), 중군사명(中軍司命) 1면, 천총인기(千總認旗) 1면, 파총인기(把總認旗) 1면, 초관인기(哨官認旗) 5면, 기총기(旗總旗) 15면, 대장기(隊長旗) 45면, 영기(令旗) 3쌍, 장막 5부(浮), 징 3좌, 소고(小鼓) 8좌가 군관청(軍官廳)의 별고(別庫)에 보관된다. 정해년에 판관 김노(金

魯)가 세워 군기(軍器)를 갖추었다.

화약고(火藥庫)

북문 안에 있다.

감영창고(監營倉庫)

각종 곡식 도합 6440석 7말 6되 2홉. 쌀 2,536석 9말 1되 2홉 5작 가운데 1,183석 3되 1홉 1작은 각 고을에 있고, 1,353석 8말 8되 1홉 4작은 본부의 창고에 있다. 콩 598석 8말 8되 8홉 3작 가운데 552석 8말 8되 1홉 9작은 각 고을에 있고, 46석 6홉 4작은 본부의 창고에 있다. 조 3,305석 4말 6되 1홉 2작 가운데 3,041석 5되 3홉은 각 고을에 있고, 264석 4말 8홉 2작은 본부의 창고에 있다. 돈은 7,837냥 1전 8푼이 있다. 정조 경자년(1780)에 어사 이시수(李時秀)의 목은 폐단으로 인하여 왕이 특명으로 방채(防債)하도록 하였다.³²⁾ 은자 1,193냥 3전 3푼을 정조 병진년(1796)에 공고(工庫)로 옮겼다. 무명 119동 31필 33척 7촌 가운데 64동 29필은 정조 무신년(1788)에 군기고로 옮겨두었고, 썩어서 상한 20동은 무신년 성역시(城役時)에 작조(作租)하였고, 창고에 남아있던 35동 2필 33척 7촌은 병인년(1866)에 불타버렸다.

공고(工庫)

천은(天銀) 9,392냥 1전 4푼 가운데 4,000냥은 칙수(勅需) 소용 차 올려보냈다. 호조에 있는 5,392냥 1전 4푼과 정은(丁銀) 1냥 9전은 합쳐 창고에 두니 은 5,394냥 4푼이다. 1,193냥 3전 3푼은 정조 병진년에 영고에서 옮겨왔다. 370냥 5전은 무진년에 진흥고에서 옮겨왔다. 도합 은자 6,957냥 8전 7푼 가운데 42냥 3전은 약관(藥罐) 보아(甫兒) 쟁반을 약방(藥房)에 올리고 300냥은 경오년에 감동 역관 최학령에게 빌려주고 대전(代錢) 690냥은 두었다. 1,152냥 8전 9푼 6리

32) 정조 ... 방채하였다 : 이전에 영남 감영은 곡식을 빌려주고 그 이식(利殖)으로 민역(民役)을 대신 충당하고 감영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민역과 감영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였는데, 이 곡식을 방채곡(防債穀)이라고 불렀다. 『正祖實錄』 5년 4월 1일, 6월 10일.

는 병진년에 작조하고 각읍에 산재해 있는 것은 562냥 8전이다. 임술년에 비국(備局)의 공문으로 인하여 왜관 수리차 감동역관에게 지급하니 실제 창고에 남은 것은 4,899냥 8전 7푼 4리이다.

무명 164동 33필은 병인년에 불타버렸고, 마포(麻布) 19동 34필은 17척 2촌 가운데 11동 42필은 약본(藥本)을 사는 것에 대한 대전(作錢)으로 약계(藥契)에 상납하였다. 1동 37필 32척 9촌은 사격옹장가포로 방급하니 실제로 창고에 남은 것은 배 6동 4필 24척 3촌, 돈 5,665냥 8전 7푼이다. 정조 경자년 어사 이시수의 묵은 폐단으로 인하여 왕이 방채하도록 특명하였다. 연분지(年分紙) 8,967속(束) 15장이 병인년에 불타버렸다. 백지 7214속 가운데 7,114속이 병인년에 불타 백지는 100속이 남아 있다.

진휼고(賑恤庫)

각종 곡식은 도합 64,176석 4말 7되 3홉 6작이다. 쌀 11,601석 3말 3되 1홉 3작 가운데 11,433석 8말 6되 2홉 3작은 각 고을에 있고, 167석 9말 9되 9홉은 본 창고에 있다. 콩 2,448석 9말 3되 7홉 9작 가운데 2,398석 6되 7홉은 각 고을에 있고, 50석 8말 7되 9작은 본 창고에 있다. 조(租) 23,737석 5말 2되 8홉 5작 가운데 17,118석 3말 8되 9홉 6작은 각 고을에 있고, 6,619석 1말 3되 8홉 9작은 본 창고에 있다. 겉보리 25,773석 3말 4되 2홉 7작은 각 고을에 있다. 소미(小米) 81석 13말 4되 6홉 8작은 각 고을에 있다. 소두(小豆) 51석 4말 8되 8홉은 각 고을에 있다. 녹두(菽豆) 29석 2말 3되 5홉 7작은 각 고을에 있다. 진맥(眞麥) 99석 1말 4되 3홉 2작은 각 고을에 있다. 목맥(木麥) 261석 12말 9되 7홉 6작은 각 고을에 있다. 조[粟] 92석 7말 9되 1홉 9작은 각 고을에 있다. 천은(天銀) 370냥 5전은 무진년(1808)에 공고(工庫)로 이송하였다. 돈 7,412냥은 정조 경자년에 어사 이시수의 묵은 폐단으로 인하여 왕이 특명으로 방채(防債)하도록 하였다. 무명 78동 4필 가운데 29동 21필은 무신년에 군기고(軍器庫)에 옮겨두었다. 썩어서 상한 48동 33필은 무신년에 작조(作租, 벼로 환산)하였다. 각 고을에 산재한 치계(雉鷄) 둔전(屯畝)은 1,903말 5되 지기[落只]이고 세전(稅錢)은 950냥 8전으로 매년 바친다. 영부(營府)에 쓰이는 치계(雉鷄) 방채 둔답은 215마지기이고 매년 논 511말 8되 지기를 매입하니 도합 논은 726말 8되 지기

이고 세전은 369냥 5전 8푼이다.

영선(營繕)

각종 곡식은 도합 857석 13말 6홉 5작이다. 조(租)는 750석이다. 본 창고에 있는탄포(炭布)는 3동이고 공고로 옮긴 소목은 66,400속, 탄(炭)은 595석, 본전(本錢)은 3,558냥이다.

보선고(補膳庫)

수미(需米) 300석, 환미(還米) 139석 1말 8되 2홉 1작, 콩 5석 5말 5되 5홉, 조 127석 10말 6홉 5작은 병인년(1806) 영고(營庫, 감영 창고)로 옮겼다. 돈 2,287냥 8전 1푼은 정조 경자년 어사 이시수의 묵은 폐단으로 인하여 왕이 특명으로 방채하도록 하였다.

겸제고(兼濟庫)

둔답 146석 5말 4되 지기, 둔전 8석 14말 5되 지기, 세조(稅租) 1049석 7말 4되, 모군(募軍) 20명. 돈 16,935냥 9전 가운데 15,691냥은 논을 매입하였다. 남은 돈 1,244냥 9전은 정조 경자년 어사 이시수의 묵은 폐단으로 인하여 왕이 특명으로 방채하도록 하였다.

지소(紙所)

종이를 매입하는 비용은 별회미(別會米)로 돈을 만들어 사용한다. 복마(卜馬) 4필의 값은 120냥으로 정조 임인년에 작조하여 120석으로 하였다. 각 고을에 있다.

도지소(都紙所)

부의 남쪽 30리에 있다. 정조 임인년에 창설하였다.

수성창(修城倉)

각종 곡식 도합 29,911석 11말 3홉 7작이다. 쌀 469석 11말 7되 8홉 1작 가운데 386석 2말 4되 1작은 각 고을에 있고 83석 9말 3되 8홉은 본 창고에 있다. 콩 1,338석 1말 3되 3홉 7작 가운데 1,316석 11말 8되 1홉 9작은 각 고을에 있고 21석 4말 5되 1홉 8작은 본 창고에 있다. 조(租) 28,103석 12말 9되 1홉 9작 가운데 24,034석 6말 1되 4홉 4작은 각 고을에 있고 4,069석 6말 7되 7홉 5작은 본 창고에 있다. 무명 76동 25필 27척 8촌 가운데 19동 2필 39척 3촌은 기묘년 성역(城役)에 내려주었다. 55동 43필 10척 5촌은 매년 바치지 않고 있다. 가 탕감되면 창고에 보관해 둔다. 1동 29필 18척, 돈 6,733냥 6전 3푼은 정조 경자년 어사 이시수의 묵은 작폐로 인하여 왕이 특명으로 방채하도록 하였다. 둔우(屯牛) 49척(隻), 작조(作租) 387석 13말 9되 6홉 4작, 사호모포(四號母砲) 21좌, 자포(子砲) 83좌, 중포(中砲) 52좌.

고마고(雇馬庫)

각종 곡식 도합 2,786석 11말 3되 2홉 8작이다. 쌀 127석 9말 1되 8홉 6작 가운데 64석 12말 3홉 9작은 각 고을에 있고 62석 12말 1되 4홉 7작은 본 창고에 있다. 콩 179석 3되 1홉 9작 가운데 155석 5말 3되 3홉 2작은 각 고을에 있고 23석 9말 9되 8홉 7작은 본 창고에 있다. 조 2,480석 1말 8되 2홉 2작 가운데 985석 1말 1되 9홉 9작은 각 고을에 있고 1,495석 6되 2홉 4작은 본 창고에 있다. 무명 43동 34필 28척 5촌 가운데 7동 37필은 무신년에 반열(反閱)할 때 썩어 있어 군기고로 옮겨 단단히 봉해 두었다. 30동 9필은 무신년에 작조하였고 5동 38필 20척 5촌은 썩어 형체가 없었다. 은자(銀子) 7냥 대전(代錢), 둔전(屯田) 50석 13말 3되 지기, 둔답(屯畓) 74석 5마지기, 둔마(屯馬) 25필, 마부 25명, 돈 3,223냥. 정조 경자년 어사 이시수의 묵은 작폐로 인하여 왕이 특명으로 방채하도록 하였다.

남창(南倉)

칠곡 가산(架山)에 있다. 경진년(1640)에 세웠다. 은(銀) 29,322냥 4푼 가운데 6,000냥은 칙수(勅需, 칙사의 영접 등에 드는 비용)의 소용차, 병오년 호조의

공문으로 인하여 상납하고, 3,000냥은 임술년에, 4,200냥은 을유년에 비국(備局)의 공문으로 인하여 왜관(倭館) 수리차 내어주니 창고에 남은 것은 16122냥 4푼이다.

돈 139,610냥 8전과 133,000냥은 신해년부터 신묘년까지의 감영의 별비전(別備錢)으로 도합 272,610냥 8전이다. 이 중에 74,844냥 7전은 신해년에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탕감되었고 34,000냥은 경술년 을묘년 정사년에 화성(華城)으로 올려보내졌고 19,000냥은 병진년과 을해년에 비국(備局)의 공문으로 인하여 왜관 수리차 출급되었다. 15,000냥은 정사년에 진청(賑廳)으로 올려 보내졌고, 3,900냥은 우조창(右漕倉)으로, 1,100냥은 좌조창(左漕倉)으로 무오년에 환무(換貿)하는 값으로 내어주었다. 15,000냥은 경신년에 장용영(壯勇營)으로 올려 보냈고 5,000냥은 임술년에, 6,093냥은 갑자년에 호조로 올려 보냈다. 3,907냥은 임술년에 비국의 공문으로 인하여 왜관 감동소(監董所)에 빌려주었다. 56냥은 을축년에 산릉도감(山陵都監)의 공문으로 인하여 올려 보냈고 5,000냥은 을축년에 호조의 공문으로 인하여 공인(貢人)에게 주었다. 31,100냥은 감영의 별비전으로 무진년부터 정해년까지 금정산성(金井山城)으로 옮겨졌다. 10,000냥은 임신년에 작조(作租)하였고 300냥은 정해년에 시유가(柴油價)로 동래(東萊)에 내주었으며 2,000냥은 신묘년에 작미(作米)하였다. 창고에 남은 것은 46,310냥 1전이다.

무명 254동 6필 8척 6촌 3푼 가운데 22동 9필은 정묘년에 헛수가 오래되어 썩고 상했기에 개색(改色) 작조하였고, 2동 41필 24척은 정묘년에 헛수가 오래되어 썩고 상하였다. 190동 14필 8촌 3푼은 신해년부터 신묘년까지 창속(倉屬)의 급료(給料)로 내려주었다. 창고에 남은 것은 39동 5필 8척이다.

쌀 1,252석 14말 4되 1홉 3작, 콩 129석 12말 3되 3홉 9작, 벼 3,554석 7말 8되 1홉 5작, 장(醬) 58석 9말, 구운 소금 500석, 작(作) 1740괴(塊).

군수고(軍需庫)

각종 곡식 도합 1,842석 12말 2되 9홉 3작. 쌀 1,736석 12말 4되 7홉 8작 가운데 836석 12말 7되 9홉 1작은 각 고을에 있고 899석 13말 6되 8홉 7작은 본 창고에 있다. 콩 105석 14말 6되 1호1 5작 가운데 100석 6말 1되 6홉 2작은 각 고을에 있고 5석 8말 4되 5홉 3작은 본 창고에 있다. 무명 62동 43필 16

척은 햇수가 오래되어 썩고 상하였다. 돈 5,451냥 4전 5푼으로 둔답을 매입하였다. 이상 영부의 각 창고의 환곡은 햇수가 오래되어 폐단이 발생하자 헛장부로 막았기 때문에 광서(光緒) 병술년(1886)에 순찰사(巡察使) 남일우가 장계를 올렸다. 이에 왕은 환곡 일체를 혁파하고 모두 환상(還上)하게 하고 한결같이 민부(民夫)에 따라 매 결당 돈 3냥씩을 마련하게 하고 결두전(結頭錢)이라 이름 하였다. 10월에 납입하게 하니 그 가운데서 매년 상납하였고 모조(耗條, 耗穀의 묶)는 제외하고 상납하였다. 이후에 남은 돈은 감영의 고을의 지방(支放, 俸給) 수요에 사용하였다. 갑오년에 결두전 또한 혁파되었다. 각 창고는 햇수가 오래되어 무너지고 다만 터만 남아 있다.

군기(軍器)

천은(天銀) 353냥, 은자(銀子) 1,419냥 3전 5푼, 돈 4,217냥 9전 9푼 가운데 4200냥은 민간에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하여 창고에 남은 것은 17냥 9전 9푼이다.

임술년 11월에 군막을 새로 갓출 때 무명 114동 25필 28척 2촌이 햇수가 오래되어 썩고 상하였다. 환도(環刀) 1,825자루, 조총(鳥銃) 2,503자루, 갑주(甲冑) 13건(件), 복노궁(伏弩弓) 4좌(坐), 장막 754부(浮), 유나팔(鑼喇叭) 14쌍 1척(隻), 동부자(銅釜子) 1좌, 부자(釜子) 27좌, 동로구(銅爐口) 744좌, 유쇄눌(鑼噴吶) 6쌍, 통아(桶兒) 39개, 쟁(鐙) 36면(面), 북 77좌, 쇠발(쇠鉢) 8개, 명라(鳴羅) 6좌, 각색(各色) 궁자(弓子) 9208장(張), 삼혈총(三穴銃) 8자루, 대포 3자루, 조총견양(鳥銃見樣) 1자루, 대포환(大砲丸) 400개, 연환(鉛丸) 15,000개, 수철환(水鐵丸) 15,000개, 청홍사등의(靑紅紗燈衣) 50건, 화석(火石) 200개, 화승(火繩) 300사리(沙里), 궁가(弓家) 12,000건, 궁현(弓弦) 9,700건, 철말(鐵抹) 1858개, 철촉룽(鐵燭籠) 707건, 변유등의(汴油燈衣) 250건, 아리금(牙里金) 370개, 나무나팔 19쌍 1척, 홍전립(紅氈笠) 10건, 목표자(木標子) 1,540개, 주장(朱杖) 30쌍, 편곤(鞭棍) 297개, 피납라개(皮納羅介) 237개, 이약통(耳藥桶) 283개, 화전족철(火箭足鐵) 58개, 연철(鉛鐵) 310근, 정철(正鐵) 1,400근, 수철(水鐵) 200근, 화철(火鐵) 323개, 부자(斧子) 80개, 대봉창(大鵬槍) 18개,

일지창(一枝槍) 58개, 삼지창(三枝槍) 1개, 아구창(牙鉤槍) 1자루, 나팔 7개, 세악(細樂) 2쌍, 연구란(硯具卵) 1좌, 장전(長箭) 2,853부 20개, 편전(片箭) 320부, 복노전(伏弩箭) 63부, 견양전(見樣箭) 5개, 황촉 5,000자루, 황밀항(黃蜜缸) 5좌, 기간(旗竿, 깃대) 100개, 군막간(軍幕竿) 20개, 가시목(柯時木) 14조, 죽촉룽(竹燭籠) 200좌, 석유황(石硫黃) 100근, 나무숟가락[木匙] 500개, 대서자(大鋤子) 20자루, 삼지대곡창(三枝大曲槍) 20자루, 장창 50자루, 언월도(偃月刀) 1쌍.

각 고을에는 무명 70동, 유황군(硫黃軍) 800명이 있다. 납입하는 무명은 16동이다. 개국 504년 을미년에 수포(收布)하고 한꺼번에 혁파하였다. 건양(建陽) 원년 병신년(1896)에 병기(兵器)를 지방대(地方隊)에 이속시켰다.

학교(學校)

향교(鄉校)

부(府)의 동쪽 2리에 있다. 처음에는 동문 밖의 고성(古城)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옛 향교(鄉校)의 터라고 한다. 만력(萬曆) 기해년(1599)에 달성(達城)으로 옮겨 세웠고, 을사년(1605)에 달성으로부터 지금의 터에 옮겨 다시 세웠다. 명륜당(明倫堂)의 동서재(東西齋)는 한결같이 태학의 제도에 따라 공자의 사당 뒤에 두었다.

상량문(上樑文)

흉악한 적의 칼날에 무너지고 불탄 것이 매우 참혹하였고, 재력이 고갈된 애통함이 비록 지극하였으나, 선성(宣聖)께서 제사를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으며, 사당을 새로 지은 게 너무 늦었다네. 여러 가지 폐단을 바로잡는 데 이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한동안 버려두고 돌볼 겨를이 없었네. 어찌 인심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실로 국맥(國脈)이 신령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에만 국한될 뿐이겠는가. 전성기를 되돌아보니 관청 건물의 왼쪽에 자리잡았네. 제도를 지극히 갖추었으나, 지세가 낮고

시끄러운 것이 한스러웠네. 전쟁이 뜻밖에 일어났으니, 어찌 이리가 보금자리에 쳐들어 올 줄 알았겠는가. 성루에 남아 있는 흔적을 보고 마음이 놀라고, 해골이 쌓여 있으니 간담이 부서지는 듯하였네. 누추해졌으니 어찌 다시 짓지 않겠는가. 남겨진 자취가 깨끗하고 바르니, 아름다운 터로 옮기리라.

공손히 살펴보니 관찰사와 부사(府使)께서 유학을 드리내고 무너진 교화를 이을 것을 돈독히 유념하셨네. 어렵지 않게 신축하려는 뜻을 들어 주시고, 진실로 고을 선비들이 하는 바를 따르시어, 아낌없이 옛터를 바꾸어 달구(達丘)의 좋은 땅을 내려주셨네. 쇠와 같은 성은 절로 견고하여 결함이 없으니 땅은 몇 길이나 되는 성벽으로 보호되고, 천부(天府)³³⁾는 넓고 여유가 있으니 백관(百官)의 부려(富麗)함을 갈무리할 수 있다네. 평평한 근교(近郊)와 큰 들판은 서로 가려지고 비치어 넉넉하고, 빼어난 물과 아름다운 산은 교대로 삼키고 토하면서 둘러싸고 있네. 이곳은 남쪽 지방의 명승지라 할 만하니, 동방의 선현들을 합하여 봉향(奉享)하였네. 창고가 텅 비었던 지난날엔 궁궐함의 치욕을 얼마나 받았던가. 사당을 새로 지은 오늘날엔 찬란한 상량(上樑)의 시를 기쁘게 읊네. 누가 마땅한 장소를 얻었다 하지 않으리오. 나는 진실로 운수가 정해져 있음을 아노라. 나무와 물을 베어내자 건물의 무궁함을 점칠 수 있고, 성현을 높이고 숭상하니 이곳 진경(眞境)이 부족함 없음을 알겠네.

의(義)가 높고 예(禮)가 중하다 하니, 급히 부족한 바를 구휼하여 넉넉하게 하였도다. 신보산(新甫山)의 잣나무와 조래산(徂徠山)의 소나무³⁴⁾가 재목을 모으는 고생을 잊게 하였고, 긴 기둥과 짧은 서까래는 수레로 실어 나르는 수고로움을 헤아리지 않게 하였네. 누가 알았겠는가, 8년의 전쟁을 겪고 일대의 성전(盛典)을 다시 보게 될 줄을. 노래하고 춤추며 잔치하는 누각 속에서도 찬미하고 기원하는 말이 있으니, 가르침을 몇몇이 하고 선(善)을 중시하는 집에서 어찌 칭찬하고 축수하는 예(禮)가 없겠는가. 이에 짧은 시를 지어 긴 들보를 들어 올리는 것을 돕게 하노라.

33) 천부(天府) :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재물이 풍부한 곳.

34) 조래산(徂徠山)의 소나무 : 시경 노송(魯頌) 비궁(闕宮)에서 인용한 말. 해사(奚斯)가 비궁을 수리할 때 이 산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베어 사용하였음.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부상(扶桑)³⁵⁾ 바라봄에 밝은 태양이 붉도다.
비 지나간 들판에 향기로운 안개 흩어지고
버들 따라 늘어선 꽃은 봄바람에 흔들리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연꽃 만 송이 연못에 가지런하네.
옥같이 밝은 연못에 가을달이 떠오르니
오랜 세월 숨은 선경(仙景)이 분명하구나.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잇닿은 산봉우리 쪽빛처럼 푸르네.
우뚝한 산 옛 모습 그대로 보려 하니
훈풍이 화창하게 산기운을 걷어내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금호강 한 줄기 낙동강으로 흘러가네.
팔공산은 세모(歲暮)에 늙연하게 높는데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아 성덕(聖德)이 생각나네.

어영차! 들보를 위로 올리니
화창한 바람과 햇살 한가로이 왕래하네.
하늘은 점잖아 본래 말이 없으니
한 기운 흘리며 만상(萬象)을 드러내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내리니
밝은 정성 만고(萬古)에 긴 밤 녹이네.

35) 부상(扶桑) : 동해의 해 뜨는 곳에 있다는 신목(神木).

봄가을 제사에 사당 문 열리니
한 줄기 향불 연기 기와에 엉기네.

엮드려 바라옵건대 상량한 뒤에 가르침의 혜택이 널리 퍼져 먼 곳에 있는 선비들이 샷갯을 쓰고 책상을 지고 모여들어 거문고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며, 문풍(文風)이 크게 떨치고, 예(禮)에 서고 시(詩)에 일어나게 하소서. 빼어난 선비들이 국가의 원기(元氣)를 돕고, 몇몇한 윤리로 유가의 도를 지키고,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여 장차 생용(笙鏞)³⁶⁾의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고, 적군과 싸워 이겨 적의 귀를 잘라 바쳐³⁷⁾, 바다와 태산같이 영원히 밝게 빛나기를 바라옵니다.

태암(苔岩) 이주(李柱)가 짓다.

연경서원(研經書院)

부(府)의 북쪽 20리 화암(畫巖) 아래에 있다. 가정(嘉靖) 계해년(1563)에 창건하고, 다음 해 갑자년(1564)에 문순공(文純公)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을 봉안하여 주향(主享)하고, 문목공(文穆公) 한강(寒岡) 정구(鄭述)선생과 문장공(文莊公)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선생을 배향(配享)하였다. 현종(顯宗) 경자년(1660) 3월에 도의 유림들이 상소를 올려 편액(扁額)을 하사받았다.

매암(梅巖) 이숙량(李叔樑)이 연경리(研經里) 화암(畫巖) 아래에 서당을 세워 생도들을 가르쳤다. 그 후에 본 고을의 유생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올렸다. 문목공은 퇴계의 문인으로서 배향되었고, 문장공은 본 고을의 수령으로 학교를 드러내어 밝게 하고 유교의 교화를 크게 일으켰던 까닭에 도의 유림들이 논의하여 추가로 배향하였다.

연경서원기(研經書院記)

가정(嘉靖) 계해년(1563) 여름에 고을의 선비로 학업을 익히는 자들이 글방에

36) 생용(笙鏞) : 제악(祭樂)에서 생(笙)은 동쪽에, 용(鏞)은 서쪽에 설치함. 각각 생장(生長)과 성숙(成熟)의 의미가 있음.

37) 적군과 싸워 이겨 적의 귀를 잘라 바쳐 : 시경 노송(魯頌) 반수(泮水)에 “씩씩한 장군들이 베어온 적의 귀를 반궁에서 바치네[矯矯虎臣, 在泮獻馘]”라 하였음.

모여 독서하고 글 짓던 여가에 팔짱을 끼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서원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무릉(武陵) 주세봉(周世鵬)선생이 백운동(白雲洞)에 처음으로 세웠다. 그것이 우뚝 모범이 되어 인재들을 새롭게 하니, 실로 우리나라에 위대한 일의 본보기가 되었다. 풍도를 듣고 세운 서원으로 해주(海州)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성주의 영봉서원(迎鳳書院),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같은 것이 있고, 크고 작은 고을에서도 다투어 경모하여 점점 넓어지고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모두 수령이 건립한 것이겠으며, 이것이 어찌 반드시 어진 이를 숭상하기 위해서만 세운 것이겠는가. 고을 사람들이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강론하는 장소로 세운 것이 또한 있을 것이니, 도의(道義)를 익히고 풍속을 격려하는 데 어찌 조금의 보탬만이 되었다고 말하겠는가.

우리 고을의 경우 도(道)의 중앙에 위치하여 양반의 후손이 많으나, 사람들이 그 몸을 사사로이 하고 선비들이 그 학문을 사사로이 하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겨하고 문예(文藝)에 힘쓰지 않았다. 그 중에 또한 호걸과 기특한 인물이 어찌 없겠는가마는 퇴폐한 풍속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자가 몇이나 있었겠는가. 풍속이 이로부터 아름답지 않고, 인심이 이것을 일삼아 날로 간사해지니, 다만 우리 고을의 큰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불행이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성군을 만났고 우리 고을도 어진 수령을 얻었으니, 이것은 실로 고을의 풍속이 옛것을 고쳐 새롭게 될 좋은 기회이다. 논어에 이르기를 "여러 공인(工人)도 공장[肆]에 있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고 하였다. 학문에서도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선비가 있어야 할 곳은 서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욕재계하고 사또께 나아가 서원 건립을 말씀드렸다. 당시 사또는 곧 태수 박응천(朴應川)이었다. 배움을 향한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고 남의 좋은 점을 이루어 주기를 즐겨하였는데, 곧 명하시기를 "내가 비록 전부 주관할 수는 없으나 그 일을 와서 고한다면 들어주리라."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건물을 세우는 여러 일들이 가장 큰 것이니 내가 담당하리라." 하고, 또 "무엇보다 먼저 유사(有司)가 있어야 하니 유사(有司)의 우두머리를 뽑아라"고 하셨다. 여러 선비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물러났다.

다음날 고을의 부로(父老)들을 향사당(鄉射堂)에 모이게 하고 또한 서원 건립의

뜻을 알리니 모두 말하기를 “어찌 감히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일을 주관할 사람을 정하고, 또 재력(財力)의 규모를 계산하고, 대소사(大小事)의 인원을 차례로 기록하여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돈과 곡식을 거두었으며, 노동력 제공도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일꾼들을 먹일 곡식과 품삯인 삼베가 며칠 만에 모였다. 적당한 터를 골라 팔공산 기슭에 건립을 시작하니, 고을로부터 20여리 떨어진 곳이다.

그 위에 마을이 있으니 지묘(智妙)이고, 아랫마을은 무태(無怠)이다. 서원 건물이 그 사이에 자리하니 마을 이름은 연경(研經)이다. 이곳은 처음에 풀이 우거진 들판이었으나, 지난번 사또가 공전(公田)으로 교환하였다. 맑은 시내가 그 남쪽으로 지나는데, 졸졸 흐르다가 산을 따라 서쪽으로 10리에 못 미쳐 금호강에 이른다. 그 상류에서 2리쯤에 왕산(王山)이 웅장하게 도사리거나 우뚝히 솟아 있는데, 아름다운 기운이 왕산(王山) 줄기를 감싸고 있다. 남쪽에는 층층이 어지럽게 늘어선 산줄기와 봉우리들이 용이 나는 듯 봉황이 춤추는 듯 하니, 꿈틀거리며 뒤섞여 하나가 된 산이 서원의 동남쪽 전망이다. 서원의 북쪽에는 성도산(成道山)이 있다. 산봉우리가 나지막하고 골짜기가 고요하며, 흰 돌과 푸른 소나무가 숨었다 나타났다 하며 서쪽으로 이어지다가, 문득 큰 바위가 있어 천 길이나 깎아지른 듯 하니 이것이 화암(畫巖)으로 서원의 서쪽을 지켜주는 곳이다. 붉고 푸른 절벽이 우뚝하게 솟아 기이한 형상이 절로 그림을 이루고 있어 화암(畫巖)이라고 불린다. 그 아래에 푸른 연못이 있어 깊고도 밝으니 노니는 물고기를 헤아릴 수 있다. 이곳은 서원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

갑자년(1564) 춘삼월에 상량을 하고 그 다음해 겨울 10월에 공사를 마치니 서원은 모두 40여 칸이었다. 그 정당(正堂)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건물이 우뚝하고 처마가 날아오르는 듯하며, 산의 형태와 지세가 모두 중앙으로 절하는 듯하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즐길 만한 곳이니 인지당(仁智堂)이라 하였다. 그 왼편은 집이 깊고 고요하며 체세(體勢)가 존엄하니 수방재(收放齋)라 하였고, 그 오른쪽은 시원하게 밝고 서늘하여 마음이 절로 밝아지니 경수재(警隋齋)라 하였다. 동쪽 채실은 보인재(輔仁齋)라 하고, 서쪽 채실은 시습재(時習齋)라 하였다. 긴 회랑(回廊) 가운데 초현문(招賢門)이 있고 문의 서쪽에 동몽재(童蒙齋)가 있다. 그 동쪽의 시원한 건물 두 칸은 양정재(養正齋)이고, 그 서쪽의 따뜻한 건물 세 칸은

유학재(幼學齋)이다. 부엌과 창고는 동쪽 담장에 붙어 있다.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합하여 연경서원(研經書院)이라 하였다.

건물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여러 용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권차(勸箴)를 내놓고 마을사람들로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의논하여 자원하는 대로 받아들였는데, 작게는 그릇 따위들과 크게는 돈 곡식 서책들을 형편에 따라 내놓았다.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한 것은 가당한 일이라 하겠다.

서원을 세운 것은 비록 지방민이 함께 원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일을 처리한 대략은 전후 사또의 힘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재물을 모으고 기와를 마련하던 초창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을 사또께서 담당하였으며, 명령을 엄하게 하고 순서를 바로잡고 태만하지 않게 하였으며, 심지어 밭과 노비를 내려주어 선비를 기르는 재물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책·기름·소금을 사들이는 법규에 대해서도 마음을 기울였는데, 조치하기도 전에 뜻밖의 전근으로 고을사람들의 실망이 산이 무너지듯 하였다. 사문(斯文)에 행운이 있어 곧 어진 사또께서 부임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직무를 열심히 마치시고, 아뢰어 올린 것을 흐르는 물처럼 들어주시고, 노역의 부조와 재물의 사용에도 한결같이 싫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고, 수비하는 장정과 밭짓는 여종에게까지 힘써 주셨다. 학문을 돕고 교화를 일으키려는 뜻은 전후 사또가 한결같았으니, 우리 고을 선비들의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두 사또의 공이 어찌 서원 건립과 사무 처리의 말단에만 있겠는가. 후일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서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두 사또의 서원 건립에 애쓴 뜻을 생각하여, 독서함에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을 근본으로 삼고 글을 지움에 구절이나 문장 다듬는 것을 말단(末端)으로 여기고, 배움에 자신을 먼저 수양하여 외부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진실로 알고 실천하여 다른 재주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맑은 물에 이르면 공자의 “흐르는 물은 이와 같구나”³⁸⁾라는 탄식을 사모하게 되고, 높은 바위를 보면 맹자의 높고 굳센 기상을 생각하고, 뛰어난 자는 마루에 올라 방으로 들어가고³⁹⁾, 못난 사람이라

38) 흐르는 물은 이와 같구나 : 논어 자한(子罕)에 “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도다.(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고 하였음.

39) 뛰어난 자는 ... 방으로 들어가고 :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자로(子路)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하여 “유(由)는 마루에는 올랐으나 방에는 들지 못하였다.(由也 升堂矣 未

도 착한 사람이 되는 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곤궁해도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고, 영달함에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충성하고 효도하는 인재가 많이 나오면 두 사또의 공이 커질 것이니, 장차 화암(畵巖)과 더불어 우뚝 서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사또는 이름이 박승간(朴承侃)으로 전번 사또와 성(姓)이 같고 아름다운 점을 계승하였다.

이때 고을 사람들이 나의 변변치 못함을 따지지 않고 이미 서원 건립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고, 서원이 완성되자 또다시 그 일의 자취를 갖추어 퇴계선생께 기문(記文)을 청하도록 하였다. 선생께서 병으로 사양하여 나의 졸작으로 일을 기록하니 거의 기문(記文)을 잘못 얻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선생께서 칭찬하시고는 글의 말미에 발문(跋文)을 붙여 깊이 치하하면서 반드시 문 위에 함께 걸리도록 하셨다. 내가 힘써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었는데, 나의 글이 졸문(拙文)이라 그 발문과 함께 두었다. 나의 글을 버리고 발문만 두고자 하였으나 서원이 이루어진 전말을 실제로 살필 수 없어 감히 졸렬한 글의 죄를 무릅쓰고 짓게 되었다. 뒷날의 군자들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버리지 말고 특별히 용서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융경(隆慶) 정묘년(1567)에 매암(梅巖) 이숙량(李叔樑)이 기문을 짓다.

서이대용기후(書李大用記後)

달성부(達城府)의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부(府)의 북쪽 연경리(硯經里) 화암(畵巖)에 서원을 건립할 때, 영천의 상사(上舍, 진사) 이대용(李大用)을 추대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서원이 완성되자 여러 사람들이 또다시 이대용이 평소에 나와 아는 사이라 하여 서원의 일을 갖추어 나에게 기문을 청하도록 하였다. 내가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어 그 기록을 받아 두었다가 때때로 읽어 보았다. 그 글은 밝고도 풍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가지런하였으며, 서술은 상세하면서도 실재를 기록하고, 끝부분의 의론은 또한 이치를 담고 있었다. 그러니 그 글은 이른바 녹(錄)이 아니고 기(記)였다. 비록 못난 나로 하여금 억지로 짓게 하여도 그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본래의 글에서 일부를 지적하여 몇 마디를 고쳐 돌려주면서 “이 글이 곧 기문(記文)인데 어찌하여 다른 것을 구하겠는

入於室也)”고 하였음.

가? 그대는 가서 이 글을 판각하라.”고 하였다. 대용(大用)이 다시 편지를 보내 굳이 사양하며 “선생의 말씀은 나를 놀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 답장하였다.

“대용은 여기에서 거의 실언을 하였다네. 학교 건립에 말로써 후세에 보이는 것은 아주 주요한 일인데 도리어 농담을 하겠는가? 진실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장난으로 대처하였다면 나의 맹랑함과 헤아리지 못함이 매우 심한 것이니, 제군들이 어찌 나에게 글을 짓도록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나의 말이 옳다면 기문 구하기를 여기서 하던 저기서 하던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대용이 한 말이 곧 내가 하려 한 말이었다. 또한 일찍이 생각해 보건대 지금은 학교가 중앙과 지방에 두루 있어 선비가 머물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런데 어째서 서원 건립에 정성스러움이 이와 같은가? 그것은 아마 학교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학문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곳의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크게 이 서원을 건립한 것이 어찌 공연히 그러하였겠는가? 남보다 먼저 일어나 자신의 수양을 위한 학문에 종사하여, 서로 보고서 착하게 되고 서로 도와 성취하게 한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 대용이 유가의 학문에 뜻을 두어, 올바른 책을 얻어 입으로 강론하고 마음으로 탐구하였으니, 옳은 학설을 알 것이다. 지금 또 여러 사람들로 부터 추대되어 이 서원을 건립하였으니, 제군을 창도하고 후생을 인도하여 옳은 일을 실천할 사람은 대용(大用)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진실로 나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네.”

대용(大用)이 말하기를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니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일을 함께 한 제군들도 또 이렇게 말하고, 이 서원에 머물 후생들도 또한 “부형과 선배들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다만 지금의 세대만이 그러할 뿐만이 아니라 후속 세대들도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것은 서원을 세우고 학문을 일으키는 뜻을 마침내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후세에 비록 문충공(文忠公) 서거정(徐居正) 같이 뛰어난 사람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또한 유도(儒道)의 규모를 얻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크게 서원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어찌 많이 있으리오?”라 하시고, 또 “인(仁)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仁)하고자 하면 인(仁)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셨다. 성간(成覿)이 제경공(齊景公)에게 말하기를, “저 성현들도 장부이며 나도 장부이니, 내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훌륭한 일을 행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다.”고 하였다. 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문왕(文王)은 나의 스승이다’라 하였으니, 주공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하였다. 아! 맹자께서는 성(性)의 선함을 말씀하시되 말씀마다 반드시 요순(堯舜)을 일컬어 증명하셨고, 또 반드시 세 사람의 말로써 계속하였고, “만약에 약이 독해서 아찔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로써 끝을 맺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람에게 비록 요순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본성이 있으나 도에 뜻을 두고 학문을 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이 분발해서, 강하고 용감하게 등에 짊어지고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공부가 피나는 전투와 같아야 비로소 그 경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쉬엄쉬엄 대충해서는 터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자께서는 후학을 만나 인도할 때에 항상 이 등문공장(滕文公章)과 수방심장(收放心章)⁴⁰⁾을 아울러 가리키며 반복해서 진심으로 거론하였으니, 굳이 말한다면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지만 알고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앎이 참된 앎이 아닌 것이다. 행하되 스스로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자에 포함되고, 힘쓰되 사사로운 견해를 고집하는 자는 도를 해치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이름을 피해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은 스스로 못난 무리에 처하는 것이요, 근심을 두려워해서 하류(下流)의 인간에 처하기를 달게 여기는 사람은 일부러 술에 취해 주정하는 무리와 같다. 제군의 뜻을 보건대 기문(記文)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 서원의 무게를 얻고자 하지만, 나는 서원의 경중(輕重)이 제군들에게 달려 있으며, 학문의 득실도 기문을 지은 사람과는 관계없다고 말하겠다. 나는 일찍이 십서원시(十書院詩)를 지었는데 연경서원도 그 중의 하나이다. 비록 서원의 경중과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제군들에게 감추고 싶지 않아 뒤에 삼가 기록한다. 제

40) 수방심장(收放心章) : 맹자 고자장 상(告子章上)에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고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고 하였다.

군들이 이로부터 힘써 노력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융경(隆慶) 원년(1567)에 진성(眞城) 이황(李滉)이 발문(跋文)을 쓰다.

방묘양현사적(傍廟兩賢事蹟)

전경창(全慶昌)의 자는 계하(季賀)이고, 호는 계동(溪東)이다. 일찍이 퇴계 이황(李滉)선생의 풍도를 듣고 사모하고 감발하여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주자서(朱子書)를 가지고 가야산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고요히 앉아 반복해서 끝까지 의미를 탐구하였다. 계유년(1573)에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좌랑에 제수되었다. 나라의 변무(卞誣)와 관련하여 상소를 올려⁴¹⁾ 극간하였는데, ‘진(秦)나라의 조정에서 밤낮 통곡한다[哭徹秦庭]’⁴²⁾, ‘연산(燕山)에다 뼈를 묻겠다[埋骨燕山]’⁴³⁾와 같은 말이 그 상소문에 있었으나 선조(宣祖)께서 가상히 여겨 받아들이시고, 또 변무사시(卞誣使詩)를 하사하였다. 그 시에 “국가는 천 년의 아픔을 견디어 왔고, 신하는 백세의 수치를 잊었네”라 하니 모두 전경창의 용기에 탄복하였다. 지평(持平)에 제수되었고 뒤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에 증직되었다. 천계(天啓) 을해년(1635)⁴⁴⁾에 도(道)의 여론에 의해 사당을 연경서원의 옆에 세웠다.

행록발(行錄跋)

시내가 달성부(達城府)의 남쪽 파잠(巴岑) 아래에 있는데 공이 그 동쪽에 살았

41) 나라의 변무(卞誣)와 관련하여 상소를 올려 : 종래에 일반 사신이 겹해서 말았던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계된 일을 전임 사신이 말도록 할 것을 상소하였다 한다. 그 결과 선조 때부터 종계변무사가 파견되었다.

42) 진(秦) 나라의 조정에서 밤낮 통곡한다[哭徹秦庭] : 초나라가 오나라의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되었을 무렵에 신표(申包胥)가 진(秦)나라의 조정에 찾아가 7일 밤낮을 통곡하며 구원을 요청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애절하게 호소한다는 뜻이다.

43) 연산(燕山)에다 뼈를 묻겠다[埋骨燕山] : 연산(燕山)은 중국 허북성(河北省)에 있는 산이름으로 연산에 뼈를 묻겠다는 것은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44) 천계(天啓) 을해년(1635) : 천계(天啓)는 승정(崇禎)의 오기로 보인다. 승정 을해년은 1635년이다.

기 때문에 계동(溪東)으로 호를 삼았다. 현광(顯光)이 어릴 때부터 달성을 왕래하다가 공이 문학과 풍도가 있음을 들은 지 오래 되었으나, 한 번도 만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한이 되었다. 근래 손처눌(孫處訥) 형이 공과는 스승의 은혜가 있어 세상을 떠나도 잊을 수 없어 언행의 대략과 공이 지은 가헌(家憲) 가령(家令) 약간 조목과 당시 여러 사람이 쓴 제문(祭文) 만사(輓詞) 등을 기록하여 책자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었다. 삼가 받들어 열람해 보니, 공의 지조와 행실이 확고하여 속유(俗儒)로 자처하는 사람과는 달랐다. 만년에 편액을 걸어 만오당(晩悟堂)이라 하였으니, 그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던가? 아마도 반드시 새로 얻은 바가 있어, 자신을 위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했던 까닭에 오(悟)자를 썼을 것이다. 만(晩)이라고 말하였으나 깨닫고 난 뒤 뜻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였으니 참됨을 성취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지금 그 집안의 법도를 살펴보니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풍속을 다스리는 훌륭한 규범이 아님이 없다. 고을에서 칭찬을 받고 조정에서 드러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손처눌 형이 일찍이 그 문하에 출입하여 실행을 익히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 이것이 그 좋아하는 것에 아부하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 분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그 착함을 사모한 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쓰인 듯하니, 어찌 지나치게 미화하여 거짓을 늘어놓은 것이겠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 그 절조와 곧고 독실한 행동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많다.

후대의 사람이 앞 사람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추켜올리지 않으면 반드시 눌러 쓰러뜨리는 데로 빠져드니, 이것은 모두 사람을 평가하는 폐단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난리 이후에 자라서 그 인물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을 어른의 올바른 평가를 듣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견문이 미치지 못함을 돌아보지 않고 선배를 망령되게 낮추어 본다면, 어찌 후함을 돈독히 하고 착함을 숭상하는 뜻이라 하겠는가?

손형(孫兄)이 나에게 행장을 부탁하였으니, 이 기록은 지금 믿을 만하고 후세에 전해질 것이니 어찌 반드시 행장을 다시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사모하고 생각하는 뜻을 그 기록의 끝에 붙인다.

천계(天啓) 병인년(1626)에 옥산(玉山) 장현광이 부지암(不知巖)에서 쓰다.

기문(記文)

이숙량(李叔樑)은 자가 대용(大用), 호가 매암(梅巖)이고, 효절공(孝節公)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의 막내아들이다. 퇴계의 문하에 종유하여 의리를 강마했으며, 조예(造詣)가 순정(純正)하였다. 효우(孝友)와 문장이 세상에서 추앙되었다. 중년에 예안(禮安)에서 대구로 이거하여 후학들을 기르고 도학을 밝혔다. 본고을에는 옛부터 서원이 없었으므로 서당을 창건하니 이것이 연경서원이다. 현종 때 왕세자사부(王世子師傅)에 제수되었다. 숙종 정해년(1707)에 사림의 공론에 따라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과 더불어 방묘(傍廟)에 배향되었다.

영조 갑오년에 홍수의 환란을 만나 옛터의 동쪽 40보로 이건하였다. 이건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갑오년(1774) 여름 6월에 큰 비가 내려 산이 무너져 묘우(廟宇)가 훼손되었다. 고을의 선비들이 급히 논의하여 서원을 동쪽 기슭으로 이건하기로 하였다.

이때 나는 마침 통판(通判)으로 재임하다가 약간의 재물과 곡식을 출연하였고, 도내(道內)의 향교와 서원에서 모두 부조를 하였다. 이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4월에 낙성(落成)하였다. 강송(講誦)하는 당(堂)과 학업을 익히는 재(齋)에서부터 부엌, 창고와 마굿간에 이르기까지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가지런하고 넓었으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사인(士人) 우명휴(禹命休)·채시용(蔡時容)·서도수(徐道洙)·곽원택(郭元澤) 등이 실제로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나에게 그 전말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

서원의 설립은 오래되었다. 서원은 본래 학자들이 경전을 연구하며 의리를 토론하고, 시례(詩禮)와 육례(六藝)의 글을 배우고, 제향의 절차를 밝히고, 여러 예절의 의식을 익히는 속이다. 이목(耳目)을 밝혀 심체(心體)를 편안하게 하고 그 일이 확대되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길흉군빈(吉凶軍賓)의 예(禮)에 이르러 마음속에 찬란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집에 거처할 때에는 효를 다하고, 임금을 섬길 때는 충을 다하니 이것이 그 실제이다. 제생(諸生)들은 여기에 힘쓰도록 하라. 이에 기문을 짓는다.

통판(通判) 이상진(李商進)이 기문을 짓다.

이건기 발문

가정 계해년(1563)은 지금 갑오년(1774)으로부터 212년 전이다. 서원의 창건은 계해년이고 이건은 지금 갑오년이다. 그 사이 지기(地氣)가 변하고 운수가 돌아갈 줄은 실로 알지 못하였다. 삼가 매암공(梅巖公, 李叔樸)의 옛 기문을 살펴보면 동쪽에 수방재(收放齋)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수방재를 미처 살피지 못함에 전인들은 한을 품었으니 이건하는 날 어찌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옛 모습을 갖추어 복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지당(仁智堂)에 두 칸을 증축하였다. 동서의 시습재(時習齋)와 보인재(輔仁齋), 양정헌(養正軒)·육수청(育秀廳)·부익 등을 차례대로 옮겨 세웠다. 편액의 명칭은 노선생[梅巖]이 친히 명명하신 것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지만 후학들이 노선생을 존모하는 도리는 더욱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사가 끝나자 고을의 공론이 모두 “창건할 때 기문과 발문이 있었으니 이건할 때도 기문과 발문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기록하라”고 하였다. 나는 사양했지만 어쩔 수 없어 주제 넘침을 잊고서 거칠고 졸렬한 글을 대강 엮어 기문의 끝에 붙인다.

향인(鄉人) 우명휴(禹命休)가 발문을 짓다.

화암(畵巖)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의 시

화암의 경치 그리기도 어려운데
서원 세워 선비 불러 육경을 외우네
이로부터 밝은 도학 듣게 되리니
어찌 잠든 이들 불러 깨우지 않겠는가

畵巖形勝畵難成
立院相招誦六經
從此佇聞明道術
可無呼寐得群醒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

우리나라의 도덕을 집대성하였으니
경전 연구의 공력을 응당 알리라
은근히 발문 짓고 시를 지은 뜻은

道德吾東集大成
須知功力在窮經
慇懃題跋留詩意

표충사(表忠祠)

부(府)의 북쪽 20리 지묘(智妙)마을 왕산(王山) 아래에 있다. 고려 때의 태사(太師) 신숭겸(申崇謙)은 조선 태조 때 장절공(壯節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현종 경술년(1670) 2월에 도의 여론으로 공이 순절한 장소에 사당을 세워 공을 주향(主享)하게 되었고, 임자년(1672)에는 편액(扁額)이 하사되었다. 숙종 병진년(1676)에 고려 때의 좌상(左相) 김락(金樂)이 배향되었는데 사적은 비문에 상세히 실려 있다. 영조(英祖) 병오년(1726) 10월에, 장절공의 후손인 문경현감 증직 승지(承旨) 신길원(申吉元)이 조정의 명에 의해 추가로 배향되었는데, 사적은 비문에 실려 있다.

사액제문(賜額祭文)

국왕(현종)께서 신(臣)을 보내 고려의 태사(太師) 장절공 신숭겸(申崇謙)의 영전에 제사지내도록 하셨다.

고려가 나라의 터전을 처음으로 열 때, 공이 실로 보호하고 받들며 의로운 깃발에 앞장서 응하셨고, 여러 번 정벌의 싸움에 따라나섰으니, 공업이 실로 많았도다. 팔공산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창을 들었을 때 군사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다네. 사태가 위급하여 여러 겹으로 포위를 당했는데, 위험에 직면하여 임금의 목숨을 구하셨도다. 죽음을 하찮게 여겼으니 한나라의 기신(紀信)이 초나라를 속인 절개⁴⁵⁾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보게 되었도다. 의로운 충성심은 해를 꿰뚫었고 장렬한 기운은 무지개를 이루었도다.

사당을 건립하여 복을 누리게 하였으니, 비와 이슬 맞던 황천이요 바람소리 들리는 곳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흠모하여 추앙하였네. 저 오동나무숲을 바라보니 곧 공이 돌아가신 곳이다. 사당을 세움에 다투어 주민들이 편액(扁額)을 요청하니, 의

45) 한나라의 기신(紀信)이 초나라를 속인 절개 : 한(漢)나라 고조 유방(劉邦)이 초나라 항우에게 포위되어 위급할 때 기신(紀信)이 유방의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잡혀 죽음으로써 유방을 구한 일을 말함.

로움을 기림에 그 뜻이 있도다. 여기에 내가 감탄하여 관리를 보내 일을 이루게 하노니, 한 칸의 사당은 만고의 모범이 되리라. 영혼이 잠들지 않았다면 이 술잔을 흠향하시옵소서.

사적(事蹟)

달성부(達城府)의 북쪽 공산(公山) 아래에 장절공의 사당이 있다. 장절공은 고려 태조의 충신이다. 태조 10년 정해년(927)에 견훤이 경주를 함락하여 왕을 죽이고, 그 자녀와 옥백(玉帛)과 무기를 거두어 서쪽으로 갔다. 고려 태조가 듣고서 정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 오동나무숲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적들이 고려 태조를 포위해 급박하게 되었다. 공이 한나라 기신(紀信)의 고사를 써서 왕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 싸우다가 죽었다. 태조는 날랜 말을 타고 도망갔다.

뒤에 고려 태조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공을 생각했으나 갇을 길이 없었으므로, 그가 죽은 자리에 지묘사(智妙寺)를 세우고, 등불을 달아 제사하며 명복을 빌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절은 오래 전에 없어지고 그 터만 남게 되었다. 부친께서 달성부의 통판(通判)이 된 다음 해에, 고을의 부모(父老)들을 모아 절이 있었던 옛터에 사당을 세울 것을 의논하셨다. 이때 관찰사 민시중(閔蓍重)과 절도사 신여철(申汝哲)께서 또한 건립의 비용을 마련해 주셨다. 사당이 완성되어 좋은 날을 가려 제향하니, 충절을 드러내고 백성의 뉘그러움을 돕기 위함이었다. 이 해 가을 9월에 내가 부모님을 뵈러 부(府)에 이르렀다가, 부모님을 모시는 여가에 사우(士友) 몇 사람과 더불어 사당을 배알하고, 경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이와 같이 기록한다.

승문원(承文院) 박사(博士) 권해(權諧)가 발문(跋文)을 짓다.

●중봉(重峯) 조헌(趙憲)선생의 시

오동숲에서 초군(楚軍)과 싸움⁴⁶⁾ 어느 해던가

桐蘄何年戰楚軍

46) 초군(楚軍)과 싸움 : 왕건과 싸운 후백제 견훤의 군사를 말함. 고려 태조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승겸을 찬양한 시. 한(漢)나라 고조 유방(劉邦)이 초나라 항우와 싸운 것에 비유하였음.

동문에서 죽으니 한왕(漢王)이 달아날 수 있었네
 분명하네 기신(紀信)이 유방(劉邦)을 살린 일
 악비(鄂飛)⁴⁷⁾와 견주어도 무공(武功) 크다네

東門一死漢王奔
 分明紀信存劉氏
 錯比鄂公玄武勳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의 시

고려 사직 개국을 도왔으니
 높은 벼슬 여러 대 이어졌네
 빼어난 문장은 문헌에 남아 있고
 무덕(武德)은 비석에 새겨져 있네
 거룩한 모습은 왕공(王公)⁴⁸⁾ 같고
 높은 충절은 기신(紀信)⁴⁹⁾과 짝하네
 천년 뒤에 사당에 돌아오시니
 기운이 사람과 하늘을 꿰뚫었네
 자손들 먼 곳에 살다가
 이제야 이역(異域)에서 돌아왔네
 예(禮) 갖추고 그 모습 바라보며
 크나큰 공업을 기억한다네
 뒤엎긴 산하는 웅장하고
 드넓은 바다에 해 걸려 있네
 머리 조아려 조상 추모하며
 무너진 성터에 홀로 서 있네

佐運開麗社
 移封卜世綿
 文魁詳籍記
 武德煥銘鐫
 偉表王公似
 孤忠紀信聯
 千年還席宇
 一氣貫人天
 遠有孱孫在
 纔從異域還
 典刑瞻鐵像
 基業憶鴻田
 磅礴山河壯
 蒼茫海日懸
 顙泚追祖烈
 獨立故城顛

●관찰사(觀察使) 조태동(趙泰東)의 시

아득한 사당에 제사 마치자 날은 한낮

奠罷茫祠日欲闌

47) 악비(鄂飛) : 송나라의 장수로서 금(金)과의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간신의 모략에 빠져 죽었음.

48) 왕공(王公) : 왕안석(王安石)을 말함. 송나라의 정치가문인.

49) 기신(紀信) : 한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봄 햇살 퍼진 현관에 푸른 산이 비치네
 현옹(玄翁)⁵⁰이 쓴 비석은 아직 우뚝한데
 고려 때부터 전해온 탑 반이나 부서졌네
 의열은 천추토록 누구와도 견줄 수 있으니
 대장군의 깃발 오늘 밤 이곳을 배회하리라
 후손이 다행히 이곳 빈객과 함께 하였으니
 영광스런 일 예원(藝苑)에 전할 수 있으리

春時華額耀青巒
 玄翁大筆碑猶屹
 麗代遺文塔半殘
 義烈千秋誰等列
 牙旌今夕此盤桓
 雲孫幸與賓僚曾
 勝事堪傳藝苑看

●동래부사(東萊府使) 박태항(朴泰恒)의 시
 고려 시대 이래로 세대가 번창했고
 충렬 빛난 유적지에 공의 업적 기록했네
 그날 밤의 피는 기신(紀信)을 본받았으나
 장대한 기상은 천추토록 사라지지 않았네
 봄날에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임금의 조서(詔書) 묘정을 환히 비추네
 못난 내가 후손의 반열에 들었으니
 저승에서 뵈기를 기대할 수 있으리

勝國歸來世代闌
 烈炎遺跡記公巒
 鴻圖一夕從他定
 壯氣千秋尚未殘
 春日皇華修祀典
 天書粉字照庭桓
 疎慵亦忝雲仍列
 可待西行許共看

●승문박사(承文博士) 권해(權瑬)의 시
 천고의 팔공산 아래
 새로 충렬사를 세웠네
 슬픈 바람 큰 나무에 부는데
 풀속에 묵은 비석 있다네
 기상과 절개는 산처럼 우뚝하고
 강상(綱常)은 일월같이 찬란하네
 저녁 구름 멀리 바위틈에서 피어오르니
 아마도 예전의 깃발인 듯 하네

千古公山下
 新開忠烈祠
 悲風吹大樹
 秋草有殘碑
 氣節峯巒立
 綱常日月麗
 暮雲生遠磧
 疑是舊旌旗

50) 현옹(玄翁) : 신흠(申欽)의 호.

큰 강은 영원토록 흐르고
벼랑은 천 길이나 우뚝하네
그 속에 장군의 사당 있으니
오래도록 지사의 옷깃을 적시네
천지간에 순수하고 굳센 기운이
당당히 고금에 이어져 오네
누대 옆 소나무 잣나무
여전히 세한(歲寒)⁵¹⁾의 마음일세

大江流萬劫
峭壁立千尋
中有將軍廟
長沾志士襟
天地純剛氣
堂堂亘古今
臺邊松柏樹
猶是歲寒心

낙빈서원(洛濱書院)

부(府)의 서쪽 40리 묘동(妙洞) 하빈(河濱)에 있으니, 곧 박팽년(朴彭年)선생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다. 병자년(1456)의 재앙⁵²⁾에 선생의 며느리 이씨가 친정인 대구에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자손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다. 선생의 현손(玄孫) 참봉 박계창(朴繼昌) 때에 이르러, 선생의 제삿날인 6월 7일 꿈에 사육신이 함께 이른 것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 깨달은 바 있어 다섯 분의 신위를 마련해 함께 제향하였다. 한강(寒岡) 정구(鄭述)선생이 말하기를, “사가(私家)에서 다섯 신위를 함께 제향하는 것은 예가 아니니 마땅히 따로 사당을 세워 병향(并享)함이 옳다.”고 하였다. 그 후에 사람이 박선생의 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원을 세워 봄가을로 제향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곧 낙빈서원(洛濱書院)이다. 숙종 갑인년(1674)에 창건하고, 기미년(1679)에 신위를 봉안하고, 갑술년(1694)에 편액(扁額)을 하사받았다.

박선생의 이름은 팽년(彭年)이고,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이다.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거주한 곳은 회덕(懷德) 흥농촌(興農村)이다. 관직은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1691)에 관직이 회복되고, 영조(英祖) 무인년

51) 세한(歲寒) : 논어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라고 하였다.

52) 병자년(1456)의 재앙 : 사육신(死六臣)이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하려다 죽임을 당한 사건.

(1758)에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충정공(忠正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성(成)선생의 이름은 삼문(三問)이고,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거주한 곳은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이다. 관직은 우승지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1691)에 관직이 회복되고, 영조(英祖) 무인년(1758)에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충문공(忠文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하(河)선생의 이름은 위지(緯地)이고, 자는 천장(天章), 호는 단계(丹溪)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은 사실을 기록할 때 선생을 선산 사람이라 하였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은 선생의 묘지명을 지을 때 선생의 관향은 진양(晉陽)이라고 하였다. 지금 선생이 직접 쓴 글을 살펴보니, 관향이 단계(丹溪)라 하고, 또 <삼각산연구(三角山聯句)>에서는 적촌(赤村)은 모두 단성(丹城)의 별칭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선생의 본관은 실제로 단성이고, 추강 남효온이 기록한 것은 거주한 곳을 말한 것이다. 거주한 곳은 선산 영봉리(迎鳳里)이다. 관직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1691)에 관직이 회복되고, 영조(英祖) 무인년(1758)에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충렬공(忠烈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李)선생의 이름은 개(塏)이고, 자가 청보(淸甫) 또는 백고(伯高)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거주한 곳은 서울이다. 관직은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직이 회복되고, 영조 무인년에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충간공(忠簡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유(柳)선생의 이름은 성원(誠源)이고, 자가 태초(太初)이다.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거주한 곳은 서울이다. 관직은 사예(司藝)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직이 회복되고, 영조(英祖) 무인년(1758)에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충경공(忠景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유(兪)선생의 이름은 응부(應孚)이고, 자는 신지(信之)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거주한 곳은 포천이다. 관직은 도총관(都摠管)에 이르렀다. 숙종 신미년에 관직이 회복되고, 영조(英祖) 무인년에 병조판서에 증직되고 충목공(忠穆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숙종 갑술년에 내려진 사액제문(賜額祭文)

국왕께서 신(臣) 좌랑(佐郎) 김우일(金遇一)을 보내 고(故) 박팽년(朴彭年) 등 육신(六臣)의 영전에 제사지내도록 하셨다.

훌륭하신 세종께서 크게 인재를 일으키자 여러 현인들이 기대에 부응하여 명신(名臣)이 되었도다. 박팽년과 하위지는 관직이 아경(亞卿)의 반열에 이르렀네. 이개는 시독(侍讀)이었고, 성삼문은 승선(承宣, 承旨)이었네. 유성원은 모범적인 선비였고, 유응부는 나라의 간성(干城)이었네. 모두 당시의 빼어난 인물들이요, 상서로운 세상의 영웅호걸들이로다. 혹은 문신(文臣)으로서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마음을 열어 넉넉하게 하더니, 왕이 돌아가실 때 육척의 어린 임금을 부탁하였네. 혹은 무신(武臣)으로서 타고난 충효가 있고 빼어난 풍도가 넘렘했으며, 지조가 얼음이 나 옥처럼 맑고 깨끗하였도다. 이들은 함께 관직에 나아가 왕실을 염려하였네.

성스러운 세조가 즉위함에 어린 단종이 자리를 양보하니, 하늘이 명한 바이고 사람이 귀의한 바라 누가 돕고 편들지 않았겠는가? 아! 사육신은 슬픔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여, 특립(特立)하여 구애되지 않았네. 죽음 보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겼으니, 용기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곰과 물고기처럼 나뉘어졌네. 술에 삶기는 형벌을 엿과 같이 달게 여겼으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섬기던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네. 무왕이 천명에 응하자 백이·숙제가 굶어 죽었고, 문황(文皇)이 천명을 받았을 때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멸족을 당하였네.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도다. 하늘은 덕이 있는 사람을 돌보나니, 그들이 어찌 그것을 몰랐겠는가? 다만 의가 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네. 충성스런 큰 절개는 만고에 우뚝하고, 기강을 받들어 세우니 인륜이 이로부터 밝아졌다네.

빛나는 조정에서 충성을 허여하여 후세를 깨우쳤네. 여러 대의 절개를 가상히 여겼고, 후손들을 찾아 기록하였네. 내가 그 뜻을 이어, 숭상하며 재물을 가지고 이르렀도다. 지난날에는 이슬 맞으며 돌봄을 받지 못했으니, 돌아보건대 탄식이 절로 나오네. 관직을 회복시키고 무덤에 제사하여, 저승의 영혼을 위로하며, 사당을 세우고 편액(扁額)을 걸게 하노라.

오직 박팽년의 자손이 영남에 내려와 살았다네. 그대들 흩어져 있는 영혼을 불러 한 사당에서 제사지냈는데, 처음에는 사적인 제향이었으나 마침내 공적인 제향이

되었도다. 영혼이 머물 집을 낙동강가에 세우니, 살아서 같은 집에 모였고, 죽어서 또다시 같은 사당(祠堂)에 머물게 되었도다. 영혼과 혼백이 여기에 함께 있으니, 인류에서 더불어 좋아할 것이네.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상소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하사받아 남다른 영광을 이루어하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특별히 여론에 따라 충성을 표창하고 의로움을 권장하며, 풍열(風烈)을 깊이 전하도록 하였네. 또한 예관(禮官)을 보내어 술잔을 올리니, 영혼이 잠들지 않았다면 흠향하시옵소서.

지제교(知製敎) 김성구(金聲久)가 지어 올린다.

숙종대왕(肅宗大王)의 어제(御製)와 어필(御筆)

강당의 주벽(主壁)에 높이 걸어 두었다.

●육신의 유고를 읽고 느낌을 기록하다[讀六臣遺稿志感]

나는 본래 사육신을 사랑하고 공경했는데	我本愛而敬
빛나는 조정에 절로 반듯한 신하 있었네	皇朝自有方
곧은 충성심은 해와 달을 꿰뚫었고	精忠貫日月
의로운 지조는 얼음처럼 늠름하였네	義烈凜冰霜

다섯 사람의 유고는 망실됨이 많으나	五稿應多失
세 권의 글이 다행히도 남아 있네	三編幸獨藏
더욱이 유응부는 씩씩한 무사이니	矧兪熊虎士
그 기개 시에서 상상할 수 있다네	氣槩想詩章

●육선생의 절구를 동서 벽에 걸어두다[六先生絕句揭東西壁]

십 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十年身在禁中天
오직 임금 향한 일편단심이었네	只有丹心魏闕懸
서쪽에서 흰 구름 피어나니	西望白雲生眼底

돌아가고픈 마음 임천을 감도네
-이것은 박선생[朴彭年]의 시이다.

不堪歸興遶林泉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옷을 입었으니
평소의 뜻 평생 동안 어김이 없었다네
한 목숨 바침을 충의로 알았으니
현릉(顯陵)⁵³의 송백은 꿈속에 뚜렷하네
-이것은 성선생[成三問]의 시이다.

食君之食衣君衣
素志平生莫有違
一死固知忠義在
顯陵松柏夢依依

남아의 득실은 예나 지금이나 한가지
머리 위엔 환하게 밝은 해 떠 있네
도롱이를 보내준 뜻 마땅히 있으리니
비내리는 오호(五湖)⁵⁴에서 만나자 하네
-이것은 하선생[河緯地]의 시이다.

男兒得失古猶今
頭上分明白日臨
持贈蓑衣應有意
五湖煙雨好相尋

우왕의 솥⁵⁵처럼 중할 때엔 삶도 또한 크지만
기러기 털처럼 가벼울 땐 죽음 또한 영광이라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문을 나서니
현릉(顯陵)의 송백(松柏)이 꿈속에 푸르네
-이것은 이선생[李塏]의 시이다.

禹鼎重時生亦大
鴻毛輕處死猶榮
明發未寐出門去
顯陵松柏夢中青

장백산은 바다를 끌어당겨 마천령에 이르고
흑룡강은 땅을 가로질러 두만강에 닿았네
여기는 이징옥이 말을 달리던 곳

白山控海磨天嶺
黑水橫坤豆滿江
此是李侯飛騎處

53) 현릉(顯陵) : 문종(文宗)의 능호(陵號).

54) 오호(五湖) : 중국의 태호(太湖) 근처에 있는 다섯 개의 호수. 춘추시대 월나라의 공신인 범려(范蠡)가 오나라를 정벌한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서 노닐었다고 함.

55) 우왕의 솥 : 우왕(禹王)이 만든 구정(九鼎). 옛말에, “생명이 구정보다 중한 경우가 있고 죽음이 기러기 털보다 가벼운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오랑캐가 항복한 것을 실컷 보리라
-이것은 유성원(柳誠源)의 시이다.

剩看胡虜自來降

장군이 부절을 쥐고 변방 오랑캐 진압하니
북쪽 변방에 전쟁 없어 사졸들은 졸고 있네
준마 오천 마리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울고
좋은 매 삼백 마리는 수루 앞에 앉아 있네
-이것은 유응부(兪應孚)의 시이다.

將軍持節鎮戎邊
沙塞塵晴士卒眠
駿馬五千嘶柳下
良鷹三百坐樓前

고적(古蹟)

-박팽년 선생이 친필로 쓴 초서 천자문이 목판에 새겨져 있다.

글씨 좋아하는 안평대군 즐거이 연못에 이르니⁵⁶⁾
송설체(松雪體)⁵⁷⁾의 풍류 당시에 유행하였네
빼어난 바탕에 꽃을 꽂으니 아름다움 그지없고
신령한 빛으로 해를 쓰니 더욱 기이하다
오래도록 세상에 드문 묘한 솜씨를 공경했더니
뛰어난 명성 천하가 알아줌을 보게 되었네
나는 큰 시내와 한 필의 비단을 가지고 있으니
붓을 적서 휘갈겨 주심을 아끼지 마소서

好書王子喜臨池
松雪風流又一時
美質插花無盡態
神光射日更多奇
久欽妙手人間少
果見高名天下知
我有鵝溪一匹絹
濡毫莫惜掃淋漓

섬계(剡溪)의 옥판에는 눈이 차가운데
송진을 마시고 나서 붓을 잡았네
소나기와 질풍처럼 마음대로 달리기도 하고
도사린 용 누운 범처럼 한가롭기도 하네
즐거 범식을 넘어 취한 듯이 썼으니

剡溪玉版雪膚寒
飲盡松腴栗尾頑
驟雨驚風隨意去
跳龍臥虎任身閒
好開鐵限濡頭醉

56) 글씨 ... 연못에 이르니 : 왕희지가 글씨를 연습할 때 연못을 가까이 하니 연못의 물이 먹물로 검어졌다고 함.

57) 송설체(松雪體) : 중국 원나라 때 서예의 대가 조맹부(趙孟頫)의 글씨체.

필법을 알고자 하면 눈을 씻고 보아라	要把銀鉤洗眼看
항상 중국사람들 부지런히 사 가지고 가니	每有華人勤買購
명성이 온 천하에 가득함을 알겠네	也知名譽滿朝端

한림(翰林)의 호기는 못사람에서 빼어나	翰林豪氣出群倫
스스로 중국에서 제일이라 하였어라	自倚中朝第一人
난곡(鸞鵠) 높이 나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鸞鵠翻雲應駭目
용사(龍蛇) 같은 글씨를 얻고는 깜짝 놀라네	龍蛇入手已驚神
몇 잔 술 주고받으며 은근한 정 나누더니	數杯酬酢殷勤久
만 리에 헤어져도 안부 묻기를 자주 하였네	萬里丁寧問訊頻
옥같은 인재 해외에서 태어남 이상히 여기지 마라	莫怪瓊材生海外
이전의 수많은 옥돌 태어남은 보배였다네	曾青丹矸有餘珍

—위의 시는 박선생[朴彭年]이 안평대군을 위해 지은 율시 3수이다.

●서예(書倪) 내한(內翰)과 사마(司馬) 우사(右史)의 두 중국 사신이 지어준 시를 후일에 판각했다. 삼편(三編)의 목판은 박씨 종가에 보관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묘골[妙洞]에 들어와 박선생의 사당에 불을 질렀는데, 불이 저절로 꺼지자 왜구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러갔다. 불탄 흔적과 도끼 자국은 지금도 뚜렷하다.

이강서원(伊江書院)

나라로부터 편액(扁額)을 하사받지 못하였다. 선사암(仙槎菴)이 있었던 터에 세웠는데,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 한 분만을 제향하였다. 송정(崇禎) 병자년(1636)에 서원을 세웠으나 병자호란 4년 뒤인 기묘년(1639)에 선생을 봉안하였다. 서원 이름은 홍문관 제학 오준(吳竣)이 썼다.

선생의 휘(諱)는 사원(思遠)으로 한강(寒岡) 정구(鄭逵)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선생과 더불어 도의로 사귀었다. 이천동(伊川洞) 선사암 옛터에 집을 짓고 당명(堂名)을 완락(玩樂)이라

하였다. 그 동쪽은 경재(敬齋)이고, 서쪽은 의재(義齋)인데, 날마다 학도들과 더불어 성리서(性理書)를 강론하였다.

선조 갑신년(1584)에 예조정랑에 추천 제수되었고 교정랑청(校正郎廳)에서 역학을 공부했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 4월 12일 밤에 선생이 홀로 연정(連亭)에서 자다가, 부산첨사(釜山僉使)의 상여가 뜰에 들어오는 것을 꿈에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나 이상하다고 탄식하였다. 13일에 비로소 왜적이 침입했다는 경보(警報)를 듣고 부(府)에서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았다. 16일에 부산성(釜山城)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해 7월에 선생이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불러 모으는 글을 지어 창의하여 적을 무찌르고, 쌀과 콩 300석을 모아 오례산성(五禮山城)의 군량을 도와주었다.

을미년(1595)에 신하의 추천으로 청안현감(淸安懸監)에 제수되었다. 청안현은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문교(文教)가 인멸되어 있었다. 그래서 먼저 공자의 사당을 만들고 재실을 수리하여, 소학으로 생도를 가르치고 어루만져 모여 살게 하였다. 청안현감을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 사림(士林)이 구봉서원(龜峯書院)을 건립하여 제향하였고, 후에 편액(扁額)이 내려졌다. 선생은 일찍이 태극도(太極圖)는 조화의 근원을 나타내는데 태극이 선천(先天)만 같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고, 서명도(西銘圖)는 나아가 이루는 방향을 드러내 보이는데 선천이 태극만 같지 않다고 하며, 이치를 궁구하고 근원을 탐색하는 데 더욱 힘썼다. 그 일의 자취는 묘갈문(墓碣文)에 상세히 실려 있다.

초집향병문(招集鄉兵文)

지금의 환란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 하늘과 땅이 다하도록 만고에 다시 없을 큰 변란이다. 나라는 부서지고 가정은 무너졌으며, 주상께서 피난을 가시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피를 뿌리며 눈물을 삼키지 않겠는가. 엎드려 주상께서 행재소에서 내리신 교지를 읽어 보니,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자신을 꾸짖은 말씀이었다. 백성을 깨우치고 선비를 격려하는 주상의 말씀이 지극히 애통하고 슬프도다. 신하로서 받들어 한 번 읽으니 목이 메도록 오열하며 눈물을 닦느라 차마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주상의 마음에 애통함이 어떠

하겠는가.

지금 낙동강 오른편의 여러 군(郡)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의령의 객재우이다. 여기에 호응하여 크게 일어난 사람은 고령의 좌랑(佐郎) 김면(金沔)으로, 함천군 고현(高縣)에서 일어나 스스로 의병대장이 되어 동지를 규합하고 의병을 규합하였다. 비록 평소에는 백면서생인 사람도 활을 메고 화살을 차고 모두 대열 사이에 서기를 원하였으니, 모인 군병이 14,000-15,000명에 이르렀다. 두 세 번 접전하여 물가에 있는 적을 죽임이 백여 명에 이르렀으니, 그 사방에 살던 사우(士友)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의를 오로지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낙동강 왼편에 있는 여러 고을들은 가만히 뻔뻔스럽게 숨어만 있겠는가? 높고 높으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몇몇한 도리를 어찌 시험해 보지도 않을 것인가? 오늘날 목숨만 생각한다면 다행히 살아남는다 해도 훗날 고을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으며, 조정에 설 수 있겠는가? 부모와 처자가 지금은 보존된다 하더라도 훗날 일이 마무리 될 때 죽음을 면할 수 있겠으며, 고을의 여론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평생 글을 읽어 배우는 게 무엇인가? 지난날 무리지어 살 때 향교의 법도가 지극히 아름다웠고, 서원의 규약을 정함이 매우 훌륭하였다. 충효를 권하여 실행하게 하여 큰 일을 해낼 만하더니, 난리가 난 오늘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 충의가 땅에 떨어졌다. 말이 여기에 이르자 슬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아!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는 인심이 구차하고 적군의 기세가 등등하였으니 산림에 엮드려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왕명이 내려 적군을 토벌하라 하니 군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경상좌도의 원수(元帥)께서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호령하여 임지로 돌아가라 하니 통제가 이미 새로워졌고, 영남 이북 지역은 적군을 섬멸하여 인심이 조금 안정되었으며, 사기가 올라 국토 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선악에 대한 상벌을 다시 거행하게 되었다. 우리 고을의 재군께서는 지나간 게으름을 뉘우치고, 장래의 추구할 일을 찾아 마음과 면모를 혁신하며,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도모를 하지 않겠는가?

엮드려 살펴보건대 임금의 유지(有旨)에 “너희 선비와 백성들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 때부터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하루아침에 변란을 당하여 나를 저버리고자 하는가? 나는 너희를 탓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버리겠

는가? 너희들은 곧 각각 그 자제와 노복을 거느리고 관군과 함께 힘껏 싸워서 나라의 치욕을 씻어 우리 조종(祖宗)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였다. 뚜렷한 왕의 말씀이 글자마다 통절하니, 섬돌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도다.

지금 의병을 일으킴에 또한 이 유지(有旨)로 맹세하는 첫번째 의리로 삼을 것이니, 죽고 삶을 판단함에 심력(心力)을 하나로 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면, 곧 성공할 것이다. 만약 임금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공론(公論)을 돌아보지 않아 지난날과 같이 움츠려 기약한 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른바 배반하여 적군에 빌붙는 자이니 군율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혹 군율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능히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배척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 하였으니, 오늘날 또한 “적을 토벌하는 자는 충신(忠臣)과 의사(義士)의 무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을의 제군들은 어찌 함께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죽음의 위험에서 떨쳐 나아가지 않겠는가? 신라 때 죽죽(竹竹)이 말하기를, “용감히 싸우다 죽을지언정 숨어서 삶을 도모하지는 않겠다.”고 하였으니, 우리 고을의 제군들이 어찌 숨어서 삶을 도모하느라 용감히 싸우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림은 평소에 익힌 바이니, 군자는 오늘날 그 해야됨을 신중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말하기를, “낙동강 오른쪽의 사람들은 훌륭한 장수를 얻었고 군량과 병기를 다 갖추었으나, 우리 낙동강 왼쪽의 사람들은 채주 있는 장수를 얻기 어렵고 군량과 병기가 모자라니 만약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동원한다면 헛되이 군사만 잃어버리고 일에는 무익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창을 거꾸로 잡은 불충한 무리이니 어찌 말할 만한 게 되겠는가?

만약 왜적이 우리 부형 앞에 들이닥친다면 그 옆에 있던 자제가 어찌 맹분(孟賁)⁵⁸⁾이나 오확(烏獲)⁵⁹⁾ 같은 용사라야만 적과 대항하겠으며, 어찌 밥을 먹고 배를 채운 뒤에야 가서 그들과 싸우겠으며, 어찌 긴 창과 강한 활을 찾은 뒤에야

58) 맹분(孟賁) : 전국(戰國)시대 제(齊)나라의 역사(力士)

59) 오확(烏獲) :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 무왕(武王) 때의 용사(勇士). 천균(千鈞)의 무게를 들어 올려 무왕의 총애를 받았다. 맹자 〈고자하(告子下)〉에 “그렇다면 오확이 들던 짐을 든다면 이 또한 오확이 될 뿐이니, 사람이 어찌 이기지 못함을 걱정하는가. 자기가 하지 않을 뿐이다.[然則舉烏獲之任 是亦爲烏獲而已矣 夫人豈以不勝爲患哉 弗爲耳]”라고 하였다.

그들과 맞서 싸우겠는가? 지금 우리는 200년 동안 보살핌을 받으며 휴양(休養)하였는데도, 임금의 수레가 피난지를 떠돌며 머물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이나 불 속에 빠져든 듯이 위급한데도 이웃 강대국은 구원해 주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니⁶⁰⁾, 조금이라도 신하된 마음이 있는 자라면 머리카락이 타고 수족을 적시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가서 구원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겠는가?

아! 의기가 넘치면 묘책은 절로 나올 것이며, 충분(忠憤)이 한 번 격동되면 빈 주먹으로도 떨쳐 일어날 것이다. 재주 있는 장수를 얻기 어려움을 근심할 것이 아니고 나의 계책이 부족함을 근심해야 하며, 군량과 무기가 부족한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고 나의 충의가 격동되지 않음을 근심해야 한다.

애통히 여기는 것은 당당한 일국의 신민(臣民)이 삶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로 심해지고 충성을 위해 용감히 죽으려는 마음은 씻은 듯이 없어진 것이다. 비록 평소에 ‘유(儒)’나 ‘사(士)’라고 하던 자들도 그 의논하는 바가 이것저것 따지며 살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모두 두려워하며 의기를 꺾게 하고, 충분(忠憤)을 누르게 하며, 임금을 잊어버리니, 어찌 우리 고을의 큰 수치가 아니겠는가? 무기가 없다, 군량이 없다고 하면서 왜적에 굴복되기를 앞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차라리 굶주리면서 몽둥이를 들고서 적과 맞서, 살아서는 의리를 잃지 않고 죽어서는 명분을 얻어, 조선의 매서운 귀신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 전쟁의 재앙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는가마는 그 더러운 치욕과 살육의 참혹함은 예전에는 없었던 바이니, 동해의 물을 기울여 쏟아 붓고 남산의 대나무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다 씻을 수 있으며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누가 부모와 처자가 없으며 누가 분묘와 살림이 없겠는가? 이것이 어찌 보통의 원수로 보아 넘길 것이며, 깊은 우물에 빠진 경우처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와서 고향치며 건져준 뒤에야 억지로 일어날 일이겠는가?

지금 듣건대, 우리보다 위쪽에 위치한 도(道)의 여러 고을과 마을은 장수와 유사(有司)를 정하였고, 생원 진사와 같은 과거 출신과 관직의 품계로 각 마을에서

60) 물이나 불 속에 ... 세월만 흘러가니 : 시경 패풍(邶風) 모구(旄丘)에 “높은 언덕의 첩덩굴은 얼마나 마디 사이가 넓어졌는가? 위나라 대부들이여! 얼마나 여러 날이 갔는가? [旄丘之葛兮 何誕之節兮 叔兮伯兮 何多日也]”라 하였다. 여(黎)나라 제후와 신하들이 오랑캐에게 쫓겨 위나라에 머물 때 위나라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음을 원망한 것이다.

의 계급을 정하였다. 백성과 공사노비를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신체의 강약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건장한 자는 전쟁에 나가게 하고, 노약자는 복병에 나아가게 하였으며, 사족(士族)이라도 또한 종군(從軍)에 자원하기를 싫어하지 않아 풀베기나 밭짓기라도 기꺼이 한다. 위쪽 도(道)에 사는 선비의 습관과 마을 풍속의 아름다움이 어찌 아래 도에서 본받아 간 것이 많지 않았겠는가?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은 또한 이런 뜻으로 동지들을 불러 모으고 마을의 서리(胥吏)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며, 부형은 자제들을 권면하고 자제는 부형을 깨우칠 것이며, 서로 격려하고 각자 충성심을 떨쳐야 한다. 온교(溫嶠)의 옷소매를 자른 용단(勇斷)⁶¹⁾을 본받고, 서천(西天)에 호걸이 모이듯⁶²⁾ 결집하여, 원충갑(元冲甲)⁶³⁾으로 하여금 앞에서 홀륭함을 혼자 하지 못하게 그보다 나은 공을 세우고, 김춘추(金春秋)가 오늘날 다시 살아난 듯 싸워야 할 것이다. 앞을 다투어 남쪽으로 나아가자.

병사를 받아들이는 데는 또한 법도가 있어야 하니 그 규약은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다. 다시 바라건대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임금을 속이지 말지어다. 모임에 빠진 병사가 없고 도모함에 빠뜨린 계책이 없도록 하여, 우리 임금께서 천리 먼 곳에서 원하시는 바에 부응하기를 천번만번 바라노라.

시경에서는 “산에는 개암나무 있고 습지에 감초 있네. 누구를 생각하는가? 서쪽에 있는 임금이로다.”⁶⁴⁾라 하였고, 서경에서는 “아! 어디로 돌아가리오? 나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리오?”⁶⁵⁾라고 애통한 마음을 말하였는데 누가 이 말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나의 글은 말이 줄렬하고 뜻이 산만하지만 우선 먼저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61) 온교(溫嶠)의 ... 용단(勇斷) : 온교(溫嶠)는 진(晉)나라 사람으로 서진(西晉)이 망하고 동진(東晉)이 일어날 무렵에 동진의 원제(元帝)에게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 그의 어머니가 옷소매를 잡고 만류하자 그는 옷소매를 자르고 떠났다고 한다.

62) 서천(西天)에 호걸이 모이듯 : 서천(西天)은 삼국시대 촉나라의 별칭. 촉나라를 세운 여러 호걸들이 모이듯이 의병의 진영으로 모이라는 뜻.

63) 원충갑(元冲甲) : 고려의 공신으로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10여 차례 적을 무찔러 원 주성을 고수하였다.

64) 산에는 ... 임금이로다 : 시경 패풍(邶風) 간혜(簡兮)에서 인용하였음.

65) 아! ... 의지하리오? : 서경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 태강왕(太康王)의 다섯번째 동생이 노래한 시구의 일부.

●오현(五賢)의 초상(肖像)과 낙재·여현 등 제현의 선유도(仙遊圖)가 봉안되어 있다.

선사(仙槎)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시

사방 산의 푸르름 문 앞에 이르고
낙수와 이천의 물줄기 여기서 모이네
한유(韓愈)⁶⁶의 문장 몸과 마음으로 본받았고
회옹(晦翁)⁶⁷의 학문 참으로 알고 터득하였네
벽오동 가지 낙엽 지고 난간에 서리 내리고
국화꽃 만개하고 달빛은 마루에 비치네
주인에게 즐거운 뜻 물으려다
취중에 무아지경 말조차 잊었네

四山蒼翠正當門
洛水伊川此會源
古貌古心韓子句
眞知眞得晦翁論
碧梧枝老霜侵檻
黃菊花繁月上軒
欲問主人彌樂意
醉中忘我又忘言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

갈대와 구름 산이 낮에도 문을 가려
나루를 못 찾아 진원(眞源) 물을 데 없어라
붉은 신 신고 꽃길 걸을 줄 어찌 알았으리
반가운 얼굴로 서로 만나 생각 나누었지
예의 갖추 겸양하니 집이 광채나고
귀한 말 주고받으니 마루가 빛나네
지나친 칭찬 분수에 넘쳐 부끄러우니
남쪽에 와서 말 실수할까 두렵다네

水竹雲山晝掩門
迷津無處問眞源
那期赤舄紆花逕
共對蒼顏接緒論
禮極撝謙光白屋
珠隨寶唾照幽軒
只慙謬獎多非分
恐或南來失一言

66) 한유(韓愈) : 당(唐)나라의 고문가(古文家).

67) 회옹(晦翁) : 주자의 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의 시

고질병이 얼음 녹듯 젊음을 회복하니
정녕 낙재(樂齋)에 기쁜 봄이 왔도다
백발에 다시 요 임금의 장수를 얻고
여생에 오래도록 순 임금의 봄을 지니소서
신선의 마음은 속세의 일 상관하지 않으니
가슴속에 모름지기 천하의 봄만 모으려 하네
동산의 대나무 벼랑의 소나무 아무 탈 없으니
즐거이 자연을 맞이하며 세월을 보내리라

沈痾冰渙壑回春
政是樂齋有喜春
白首重逢堯壽域
餘齡長保舜臺春
仙襟不關塵間事
方寸要收天下春
園竹崖松各無恙
好迎風有送秋春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

배 저어 나아가 호수 건너서
수풀 헤치고 새소리를 들었네
인간 세상의 낙재(樂齋) 서처사는
하늘에서는 소미성(少微星)⁶⁸⁾이었으리
유자는 동경에서 의자에 앉았으나⁶⁹⁾
아릉(阿陵)⁷⁰⁾에서는 매우 초췌하였다네
봄바람이 들과 늪에 가득 불어오니
향긋한 풀들 기쁨을 이기지 못하네

進艇涉湖水
披林聞鳥聲
人間徐處士
天上少微星
孺子東京榻
阿陵太瘦生
春風滿原隰
芳草不勝情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⁷¹⁾

물고기 뛰고 술개 나는 것은 절로 그런 것이니

魚躍鳶飛只自然

68) 소미성(少微星) : 처사(處士)를 상징하는 별.

69) 유자는 ... 앉았으나 : 유자(孺子)는 후한(後漢)의 인물 서치(徐穉)의 자(字). 이 당 시 홍주태수(洪州太守) 진번(陳蕃)은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는데 오직 서치에게만은 예외여서 그가 찾아오면 특별히 만든 의자에 앉게 하였다고 함.

70) 아릉(阿陵) :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지명.

71)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 : 연어음(鳶魚吟)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않으면 또한 그렇게 되리라
 처음부터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밝혀지는 게 아니니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음이 없다네

勿忘勿助亦同然
 初非因此還明彼
 於物於人莫不然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⁷²⁾

민산(閩山) 구곡(九曲)⁷³⁾ 맑은 놀이
 천년 전 뱃놀이 아득하게 되었네
 일엽편주에 여러 벗들과 함께 올라
 시 읊으며 물과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
 술은 알맞게 마시면 만취하지 않을 것이고
 시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좋은 글 아니 되네
 해 저물어 난가대에 올라 잠드니
 도골선풍(道骨仙風)에 이 밤이 길구나

閩山九曲清遊遠
 千載源遊墮渺茫
 一葉共登南北友
 長吟同入水雲鄉
 酒因隨量無多醉
 詩或沈思犯令章
 日暮爛柯臺上宿
 道風仙夢此宵長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

나그네로 금호강 지나가니
 서처사(徐處士) 집에 봄이 깊네
 기러기는 방초(芳草)에서 마중하고
 매화는 작은 창가에 비치네
 늙은이들 세상사 조심하라 일러도
 젊은이들 화려한 일 좋아한다네
 서처사 집으로 돌아온 뒤
 밤마다 신선 꿈꾼 것을 알겠네

客過琴湖路
 春深處士家
 雁迎芳草逕
 梅入小窓紗
 白首徵人事
 青年玩物華
 應知歸洛後
 夜夜夢南涯

구암서원(龜巖書院)

국가로부터 편액(扁額)을 하사받지 못하였다. 부(府)에서 서쪽으로 3리 남산(南

72)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 : 난가대(爛柯臺)

73) 민산(閩山) 구곡(九曲) : 무이구곡(武夷九曲). 주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가 있음.

山) 아래에 있다. 현종 을사년(1665)에 사론(士論)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사현(四賢)을 봉안하여 합향(合享)하고 있다.

구계(龜溪) 서(徐)선생은 이름이 침(沈)이고, 자가 성묵(聖默)으로, 대대로 달성에 살았다. 세종 때에 달성의 주거지를 옛 역터와 맞바꾸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보상하고자 하니 선생이 굳이 사양하고, 관청에서 빌린 곡식 다섯 되를 감하여 달라고만 청하였다. 그리고는 남산(南山) 마을로 옮겨가 살았는데, 몸가짐을 수양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였으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 후에 사람이 흠모하여 논의한 뒤에 사당을 세우고 주향(主享)하였다. 사적은 사당의 뜰에 있는 비석에 적혀 있다.

사가(四佳) 서(徐)선생은 이름이 거정(居正), 자는 강중(剛仲),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고 20년간 문형(文衡)을 맡았다. 동국통감·동인지화·필원잡기·태평한화 등은 모두 선생이 지은 책으로 세상에 널리 읽힌다. 서원에 배향(配享)되었다.

함재(涵齋) 서(徐)선생은 이름이 해(嶰)이고, 자는 정지(挺之)이다.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성리학에 침잠하였고, 겨우 약관의 나이에 문장과 덕행으로 퇴계선생의 허여를 받았고, 사림에서 높이 추앙되었다. 사적이 복주(福州, 安東)의 고명한 선비인 이중립(李中立)이 쓴 뇌문(誄文)에 상세히 실려 있다. 서원에 병향(并享)되었다.

약봉(藥峰) 서(徐)선생은 이름이 성(淸), 자는 현기(玄紀),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 선생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는데 타고난 바탕이 뛰어났다. 15세에 중국 사신이 오자 조정으로부터 황화집(皇華集)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령이 백부(伯父) 춘헌(春軒)에게 내려졌는데, 춘헌이 화답하는 시를 짓지 못하자 선생이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춘헌이 크게 놀라고 기특하게 여겼으며, 선생이 지은 시를 조정에 올리니, 문장이 일세에 풍미하였다. 정인홍(鄭仁弘)이 대사헌이 되어 세상을 풍미하였는데, 선생은 홀로 상소하여 “인홍은 나라를 망칠 소인이니, 청컨대 그 머리를 베어 귀신과 사람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영남지방의 안절사(按節使)가 되어 망우당 객재우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였다. 광해군 때에 백사(白沙) 이항복, 한음(漢陰) 이덕형과 같은 어진 사람들이 쫓겨남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자, 선생이 홀로 임금을 면대하여 직간하

였다. 행적은 국사(國史)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강서원(南崗書院)

국가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지 못하였다. 부에서 남쪽으로 70리 풍각현 남산(南山) 아래에 있다. 숙종 신미년(1691)에 도내의 유생들이 논의를 일으켜 서원을 건립하고, 갑술년(1694)에 오졸재(迂拙齋) 박한주(朴漢柱) 선생을 주향(主享)하고, 국담(菊潭) 박수춘(朴壽春) 선생을 배향하였다.

오졸재 박선생은 이름이 한주(漢柱), 자는 천지(天支)이다.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연산군 때에 헌납(獻納)으로서 상소하여 극간(極諫)하였고, 또 임사홍(任士洪)을 배척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무오사화 때에 공이 점필재(佔畢齋)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경신년(1500)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대궐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벼락이 내렸다. 갑자사화가 다시 일어났을 때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날은 낮인데도 크게 비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중종 때 여러 현인(賢人)과 함께 신원되었는데, 경오년(1510)에 왕명으로 도승지에 증직되었다. 정덕(正德) 정축년(1517)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정(金淨)·응교(應教) 조광조(趙光祖)·교리(校理) 이정(李靖)·부교리(副校理) 김구(金絿)·부수찬(副修撰) 기준(奇遵)·박사(博士) 정응(鄭膺)·정자(正字) 박윤경(朴潤卿) 등이 임금께 말씀드리기를, “박한주는 타고난 바탕이 영민하고, 어려서부터 큰 뜻을 가져 옛 성현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스스로 기약하였으며, 신의를 돈독히 하고 행실에 힘썼으며, 널리 배우고 힘써 기억하였습니다. 성종께서는 유술(儒術)을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정언(正言)에 임명하셨습니다. 연산군 때에 헌납(獻納)으로서 지나친 잔치와 놀이 등의 일을 극간하니 연산군이 크게 미워하였는데, 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하생이라 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학문의 고명함과 충렬의 늠름함은 실로 후인들의 사표가 되오니, 관직을 높여 그 원통함을 풀어 주시어 선비들의 본받음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께서 “옳다.” 하시고 도승지에 증직하였다. 행적은 비문에 상세히 실려 있다.

국담(菊潭) 박선생은 이름이 수춘(壽春)이고, 자는 경로(景老)이다. 일찍이 한강(寒岡) 정구(鄭逵)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성리학을 강론하였는데, 조예가 높

았다. 한가로운 곳에 오졸재를 세운 것을 보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 <유거십이영(幽居十二詠)>, <한중팔음(閑中八吟)>을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모시고 청송으로 피난하였는데, 밤에도 시간에 쫓겨 계속 길을 가다가 여러 번 맹수를 만났으나 해코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다고 말하였다.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체찰사 이원익(李元翼)과 방어사 곽재우의 군대에 합류하여 한 지역의 왜적을 방어해냈다. 무오년(1618)의 폐모사건(廢母事件)⁷⁴⁾ 때 상소를 올려 극간할 때 춘추(春秋)의 ‘아들은 어머니를 원수로 삼을 수 없다’는 뜻과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 등의 말로 증거를 삼으니, 말이 매우 곧고 분명하였다. 이때에 광해군이 상소문을 올리지 말도록 명하자 선생이 “서궁(西宮)의 문이 닫히니⁷⁵⁾ 인륜이 무너졌고, 궁궐에 구름이 깊어 일월이 어둡네”라는 시구를 지었는데, 듣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공이 격앙하여 자신의 뜻을 맹세하기를, “산 속에 들어가 기꺼이 숭정(崇禎)의 선비⁷⁶⁾가 될 것이요, 속세에 머물러 부끄러이 병자(丙子)의 백성이 되지 않으리라.” 하고, 세상사를 끊고 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치니, 세상에서 공을 숭정처사(崇禎處士)라 불렀다.

통판(通判) 조정암(趙廷庵)이 짓다.

청호서원 (靑湖書院)

국가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지 못하였다. 부에서 동쪽으로 20리 수동면(守東面)에 있다. 숙종 갑술년(1694)에 도내의 여론에 따라 창건하여,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선생을 봉안하여 주향(主享)하고, 사월당(沙月堂) 유시번(柳時藩) 선생을 봉안하여 배향하였다.

모당 손선생의 이름은 처눌(處訥), 자는 기도(幾道)로 일직(一直)사람이다. 호 조참의를 지낸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의 6세손이다. 한강 정구선생에게 사사

74) 무오년(1618)의 폐모사건(廢母事件) : 광해군이 모후(母后) 인목대비를 폐한 사건.

75) 서궁(西宮)의 문이 닫히니 : 인목대비가 서궁(西宮)에 유폐된 것을 말함.

76) 숭정(崇禎)의 선비 : 숭정(崇禎)은 명나라 의종(毅宗)의 연호(1628~1644)이다. ‘숭정(崇禎)의 선비’란 명나라를 받드는 선비라는 뜻이다.

하여 학행과 효우로 스승에게 인정을 받았다. 스승의 무덤 아래에 집을 지어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의탁하고 호를 모당(慕堂)이라 하였다. 투암(投巖) 채몽연(蔡夢硯)이 묘지명을 지었는데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타고난 바탕이 굳세고 결단력이 있으며, 가슴에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 한강 선생에게서 배우고, 낙재(樂齋)와 친구로 사귀었다. 글 배우기를 돈독하게 좋아하였고, 도학에 조예가 깊었다. 무리를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광해군 때에 사악한 논설이 유행하자, 바른 말로써 권세 있는 간신을 물리쳐 바른 전통을 견지하였다. 인조반정 때에 고을에서 임금께 천거하였으나, 시골에 조용히 살며, 스스로를 지키면서 밝은 복을 홀로 누렸다.”

82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과 함께 의병을 모아 적을 토벌하려고 함께 의논하였으나, 때마침 상을 당하여 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갑자년(1624)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군량을 모았는데, 난이 평정된 후에 군량을 국가의 쓰임에 보태주었다. 그리고 조정에 나아가 하례를 드리니 임금이 좋은 말씀으로 비답(批答)을 내렸다. 정묘호란 때에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하자, 군량을 조치하기를 갑자년 이괄의 난 때와 같이 하였다. 얼마 후 오랑캐들이 물러가자 군량을 호소사(號召使)에게 보고하고 경비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나라에서 오현(五賢)을 문묘에 배향⁷⁷⁾할 때 정인홍이 상소하여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 두 분을 배척하고자 하니, 선생은 인홍을 윗사람을 깔보는 자에 비유하고 <척사부정문(斥邪扶正文)>을 지어 도내에 돌려 그 사정을 밝혔다. 그러자 정인홍의 당파가 선생의 이름을 중학(中學)에서 삭제하여 화가 장차 미치려 하니 여러 벗들이 모두 근심하였다. 검간(黔澗) 조정(趙靖)이 말하기를, “손치놀이 중학(中學)에서 쫓겨난 후 날로 명예가 널리 퍼지니 축하할 일이지 위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문장공(文莊公) 우복 정경세는 “손기도(孫幾道)의 <척사부정문>은 은근히 넘치는 물결을 막은 공이 있으니 바름을 길러둔 바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사월당(沙月堂) 유(柳)선생은 이름이 시번(時藩)이고 자가 위중(衛中)이다.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문목공(文穆公) 한강 정구와 문강공

77) 나라에서 오현(五賢)을 문묘에 배향 : 광해군 2년(1610)에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다섯 분을 문묘에 배향하였음.

(文康公) 여헌 장현광의 문하에 종유하였고, 모당 손처눌에게 수학하였다. 학식이 탁월하고 조예가 순정(純正)하여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사림의 논의에 따라 추가로 서원에 배향되었다.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

오십에 아버이를 사모함에 순임금 같은 이 있으리	五十慕親誰繼舜
처자식과 임금과 여색 때문에 마음이 바뀐다네	子妻君艾摠因遷
풍수지탄(風樹之嘆)에 나는 길이 애통하는데	感風悲樹吾長慟
현판 걸고 집 세우기를 그대 ⁷⁸⁾ 가 먼저 하였구려	揭號成堂子克先
길이 사모하여 무덤가에 작은 집 짓고	永慕松楸開小戶
한결같이 해묵은 책 강명(講明)하였네	講明終始對塵編
어찌하면 시간을 되돌려 가르침을 이을까	何因縮地承佳誨
모든 행실의 근원에 대해 가르침 받고 싶네	百行源頭許執鞭

●관찰사(觀察使) 이시발(李時發)의 시

영남에는 훌륭한 선비 많으니	南國多佳士
스승과 벗으로부터 비롯되었네	淵源自友師
현가(絃歌) ⁷⁹⁾ 에도 겨를 없어 부끄러운데	絃歌愧未暇
글 읽기를 정녕 어느 때에 하리오	句讀正何時
석별함에 다투어 술을 들고 와	惜別爭持酒
정을 가득 머금고 이별시 짓노라	含情各賦詩
먼 곳에 있더라도 서로 그리워하며	相思在千里
덕을 높일 것을 기약하세나	崇德以爲期

격재(格齋) 손선생의 이름은 조서(肇瑞), 자는 인보(仁甫), 본관은 일직(一直), 처음 호는 면재(勉齋)이다. 세종 임진년(1432)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을묘년

78) 그대 : 모당 손처눌을 지칭함.

79) 현가(絃歌) : 논어 양화(陽貨)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을 예약으로써 다스리는 것을 뜻함.

(1435)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학사에 보임되었다가 후에 봉산군수가 되었다. 매죽헌 성삼문 · 취금헌 박팽년과 절의로 교유하였다. 세조 병자년(1456)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 <춘원(春怨)>이 있다.

두견새도 나와 같이	杜宇亦如我
무단히 밤낮으로 우네	無端晝夜啼
새들은 또한 날개 있어	飛禽還有翼
마음대로 날아다니네	隨意任東西

●시 <추야(秋夜)>가 있다.

항상 서북방 무너짐을 근심하여	常悶天圍西北傾
버티려 해도 그러지 못해 밤에 앉아있네	欲撐無計坐三更
가슴 막혀 이런 뜻 이루기 어렵고	填胸伊志誠難遂
우러러 보니 은하수는 기울어져 있네	仰面銀河徒自橫

●시 <소래(小几)>가 있다.

너를 기대니 단잠 들어 어느새 꿈속	賴爾甘眠倏交夢
주공과 내가 임금을 돕고 있네	周公與我佐孤君
꿈 깨어 진실한 일 아님을 깨달으니	覺來始覺非眞事
썩썩한 기강 오히려 하늘 높이 치솟네	壯氣猶存徹五雲

세조가 호조참의로 불렸으나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묘도에는 유명으로 다만 봉산군수(鳳山郡守)로 기록하게 하였다. 점필재와 더불어 창수하고 회포를 나누며 경서를 궁구하고 도리를 익혔다. 절의와 학문으로 세상에 크게 드러났다. 밀양에 거주하다가 만년에 대구부(大丘府)의 비슬산과 금호강 사이에 노닐며 완상하니 자손들이 이곳으로 이거하였다. 영조 을미년(1775)에 추가로 배향하였는데 모당선생의 선조로서 앞에 배향되었다.

양계(陽溪) 정선생의 이름은 호인(好仁), 자는 자견(子見)이다. 기미년(1619)

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정묘년(1627)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은 목사에 이르렀다. 모당의 고제(高弟, 수제자)이다. 영조 을미년에 추가로 배향되었다.

백원사(百源祠)

부의 북쪽 40리 백안리(百安里)에 있다. 숙종 임신년(1692)에 도의 여론에 의해 사당을 세우고 서시립(徐時立)선생만 봉안하여 제향하였다. 서선생은 이름이 시립, 자가 입지(立之), 호가 전귀당(全歸堂)이다. 어렸을 때 낙재 서사원 선생에게서 배웠고,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두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여러 선생이 효우(孝友)를 돈독히 행하는 선비로 칭찬하고 매우 존중하였다. 15세에 임진왜란을 당하였는데 어머니 강씨와 조부모를 모시고 몸소 신주를 지고, 팔공산 삼성암(三省菴)에 들어가 난을 피하였다. 조모가 병이 있었는데, 드릴 만한 음식이 없어 모친 강씨가 하늘을 향해 묵도(默禱)하니, 갑자기 새매가 장끼 한 마리를 앞에 떨어뜨리자 돌아와 조모에게 올렸다. 사인(士人) 배극념(裴克念)이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시 한 수를 지었는데, “홀룡하신 서씨집 며느리, 순수한 효성 하늘에 닿았네. 부지런히 밤낮으로 봉양하였으니, 응당 새매를 감동케 하였으리.”라고 하였다.

선생이 하루는 조모의 병환 치료를 위하여 산삼을 캐러 갔는데, 오도암(五道菴) 옆 개울에 푸른 옥항아리 같은 물건이 하나 있었다. 선생이 이상하게 여겨 주워서 집에 가져오니 곧 생금(生金)이었다. 학질을 앓은 자가 구하자 베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곧 효과가 있었다. 하양(河陽)의 사또 기경중(奇敬中)이 아버지의 병환 치료를 위해 구하므로 반을 나누어 주었다. 어떤 외국상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시험해 보기를 청하자, 선생이 그것을 주면서 의심하지 않았다. 3년 뒤에 상인이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선생이 굳이 사양하고 그 절반만 받았다. 고을에서는 정성스런 효도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겼다. 일의 자취는 삼성록(三省錄)에 상세히 실려 있다. 감사 이경증(李景曾)이 장계를 임금께 올리자, 선공참봉(繕工參奉) 남별전참봉(南別殿參奉)에 제수되었고, 뒤에 호조좌랑에 증직되었다.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 재상이 그 당명(堂名)을 전귀당(全歸堂)이라 하고, 발문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서시립 선생은 조부 때부터 달성에 본적(本籍)을 두고 거주하였다. 성품이 효도

를 돈독히 하여 마을 사람들이 효자라 불렀고, 명성이 조정에 알려져 두 번이나 벼슬이 내렸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의 어진 사대부들이 공의 집 앞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공의 안부를 물었고, 모두 감탄하며 아름답게 여겼으니, 세상을 교화하고 사람을 감동시킴이 이와 같았다.

지난해 가을에 우리 부친께서 이 땅의 통판(通判)이 되시자 나도 따라오게 되었는데, 날마다 이 고을 선비와 만나면서 공의 행적을 매우 소상히 듣게 되었고, 후손에게서 이 두루마리를 얻게 되었다. 이 첩자는 대개 여러 명망 있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고, 나의 조부 대사헌부군(大司憲府君)의 편지 두 장과 외증조부 이상국(李相國)의 편지 한 장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공이 명성을 얻게 된 바를 더욱 징험하게 되었고, 당세에 존중을 받았음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 집안의 선조(先祖)께서 공과 더불어 고아한 교분을 맺었고, 은근한 우의로 교유하여, 편지에 애뜻한 정을 드러낸 것이 이와 같이 근원이 깊으니, 선조(先祖)의 우의를 추념함에 사모하고 우러르는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편지를 묶은 두루마리가 오래되어 더러워졌고 낡았으므로 새 종이로 바꾸어 돌려주었다.”

대개 공의 효성은 타고난 것이지만 모친 강씨가 이끌어준 힘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니, 상국(相國) 오봉 이호민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이 돌아가시자 고을의 인사들이 사당을 세워 제향하였고, 또 유인(孺人) 강씨와 공의 지극한 행실을 여러 번 관청에 보고하여 정려(旌閭) 하사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의 부친께서 고을의 수령에게 공문서를 보내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회답을 받았다.

공의 후손들 중에 부지런하고 조심스런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손자 서달송(徐達崇)은 상례를 잘 지킨 것으로 칭송되었으니 공의 손자로서 부끄럽지 않았다. 삼대에 걸친 순수한 효성은 예전의 공문서에서도 드문 바였다. 그러니 그 집안을 다스리는 떳떳함과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아름다움은 실로 무너져가는 풍속을 격려하고 세상의 교화를 유지하였다. 어찌 끝내 표창하지 않아 민멸되어 전해지지 않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으로써 크게 느낀 바 있어 이 글을 쓴다.

판부사(判府事) 유척기(兪拓基)

상덕사(尙德祠)

예전에는 부의 남쪽 무천리(茂川里)에 있었으나, 지금은 동문(東門) 밖으로 옮겼다. 이상국(李相國)의 휘는 숙(翽), 자는 중우(仲羽), 호는 일휴(逸休)이다.

현종 신해년(1671)에 영남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 임금께서 특별히 명하여 공을 관찰사로 삼았다. 감영에 도임한 뒤에 봉급을 덜어내고 세금을 줄여 몸소 구제하였으며, 떠돌아다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였다. 양로(養老)하는 뜻과 향사례(鄉射禮)의 제도를 때때로 가르쳤다. 또 공무의 여가에 춘추를 권장하고, 시경과 서경을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에는 예악을 가르치니, 도내의 백성들이 크게 변화하여 새롭게 되었다. 숙종 임술년(1682)에 생사당이 세워졌으며, 계유년(1693)에 도내의 공론으로 서원이 세워져 제향되었다. 사적은 비문에 실려 있다. 상덕사(尙德祠)라는 이름은 문정공(文正公)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은 것이다.

유상국(兪相國)의 이름은 척기(拓基), 호는 수지재(守知齋), 시호는 문익공(文翼公)이다. 영조 정미년(1727)에 본도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 흉년을 만나자 녹봉을 덜어내고 세금을 줄여 유민을 구제하였으며, 학문과 교육을 장려하고 진흥하여 유풍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미년(1739)에 생사당이 세워졌으며 정조 정유년(1777)에 또한 도내의 공론으로 서원에 제향되었다.

김상국(金相國)의 이름은 희순(羲淳), 자는 태초(太初), 호는 산목헌(山木軒),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순조 을축년(1805)에 본도를 안찰할 때 현자를 존경하고 선비를 장려하고 창고의 곡식을 덜어내어 백성의 고통을 줄이니 부로(父老)들은 칭송하여 비를 세우고 사인(士人)들은 제기를 마련하여 제향하였다.

이상국(李相國)의 휘는 존수(存秀), 자는 성로(性老), 호는 금석재(金石齋)이다. 순조 갑술년(1814)에 본도를 안찰할 때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자 곡식을 북쪽 관문으로 옮기고 감영의 수요와 환곡의 이자를 줄이고 몸소 구제하며 말소리와 얼굴빛을 흘트리지 않으니 도내가 이에 의지해 안도하였다. 도내의 공론에 의해 제향되었다.

덕동서원(德洞書院)

부의 남쪽 20리 월배면(月背面)에 있다. 숙종 무자년(1708)에 도내의 공론에 의해 사당을 건립하고, 우배선(禹拜善)선생을 제향하였다. 편액(扁額)은 단암(丹菴)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선생이 썼다. 우배선은 자가 사성(師聖), 호가 월곡(月谷)으로 단양백(丹陽伯) 충정공(忠靖公) 우현보(禹玄寶)의 7대손이다. 사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공은 돌이 지난 때부터 고아가 되어 유모의 손에서 양육되었다. 하루는 유모가 공을 업고 나갔는데, 어떤 스님이 공의 관상을 보고는 “잘 보호해 기르시오. 훗날 그 이름을 온 나라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일곱 살 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글을 읽으면 곧 기억하였다. 열두세 살 때에는 글을 유창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반드시 격물(格物) 궁리(窮理)를 마음에 두었다. 성장해서는 과거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에 뜻을 오로지 하였다. 특히 주역에 잠심(潛心)하여 정밀하게 탐구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공의 역학(易學)은 채주공(蔡酒公)으로부터 근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에 공의 나이가 스물넷이었다. 왜적이 쳐들어와 여러 고을이 무너지자, 공이 비분강개하여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국은(國恩)을 입었으니, 내 비록 관직이 없으나 어찌 차마 나라를 위해 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재산을 기울여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건강하고 날랜 병사를 가려 세 등급으로 나누고, 말 먹이와 군량을 많이 모으고 무기를 만들었으며, 사졸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니 모두 즐거이 쓰이고자 하였다. 드디어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렸는데, 그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미친 오랑캐가 날뛰니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도다. 아무런 계책이 없으니 수백년 동안 길러둔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개미같이 천한 백성들이 제후하여 적과 싸우겠다는 맹약문을 펼치며 씩씩하고 용감한 군사들을 떨쳐 일어나게 하니, 출전할 뜻을 가진 사람이 그 누구인가?”

전투에 나아가 적의 머리 수백을 얻어 용맹한 명성을 크게 떨쳤으나 조금도 뽐내는 기색이 없었다. 초유사 김성일이 화원을 지나가다가 공을 만나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훌륭한 인재로다.” 하고 임금께 보고하기를, “의병장 우배선은 백면서생으로서 난중에 떨치고 일어나, 강하고 날랜 적을 여러 번 쳐서 이겼습니

다. 빨리 특별한 상을 내리시어 다른 사람이 본받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또 보고하기를, “우배선은 나이 겨우 스물이나 의를 위하여 적을 물리치니 충렬이 남보다 뛰어납니다. 비록 옛날의 열사라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을 특별히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왜적이 달성의 향교에 주둔하고, 대성전 위에 망루를 지어 원근을 살피니, 더러운 기운이 넘쳐나게 되었다. 공이 칼을 잡고 사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과 창의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왜적을 다 섬멸하지 못하여 성인의 사당이 더럽혀지게 되었다. 맹세하건대 이 왜적들과 함께 살아 있지 않으리라.” 하고, 밤에 습격하여 백여 명을 목 베니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이 임금께 보고하기를, “우배선은 일개 서생으로 왜난에 떨어져 일어났습니다. 의병이 이르는 곳마다 왜적이 모두 패하여 도망가니, 옛날의 명장 가운데서 이런 장수를 찾더라도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특별한 관직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드디어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광재우와 만나 전투복을 서로 주고받으며 힘을 합하여 적을 토벌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다음 해에 양가(養家) 조모상을 당하여 병사를 막료에게 넘겼다. 초유사 김성일이 다시 복직할 것을 권하였으나 공이 응하지 않았고, 순찰사 한효순(韓孝純)도 김면(金沔)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을 권하였으나 공이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군이 두 분 왕자를 붙잡고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성주의 의병장 이심일(李心一)과 군사를 합하여 적을 맞아 싸워 왕자를 되찾아 오려 하였는데, 천연두를 앓게 되어 이루지 못하였다.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체찰사 이원익이 임금께 글을 올려 “상을 당하고 병이 있는데도 적을 토벌하기를 잊지 않았으니 충효를 모두 온전히 했다고 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합천군수에 제수되어 유민들을 불러 모으고 군졸을 보살피니 고을이 편안하게 되었다. 중국 장수 이여송이 해인사에 머물러 있다가 편지를 보내 공을 불러 나이를 묻고, 또 병사(兵事)를 논하고는 “참으로 큰 장수의 재목이로다. 작은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 하고, 옥으로 만든 해오라기를 선물로 주었다.

김산군수(金山郡守)에 제수되었는데, 전란으로 공용(公用)이 켜진 듯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사비(私費)로 유민을 구휼하니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하였고, 관리의

성적 고과(考課)에서도 도내 제일의 평가를 받았다. 낙안군수(樂安郡守)에 제수되어 1년을 다스리고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는데, 백성들이 구리로 된 비석을 세웠다. 선무일등공신(宣武一等功臣)의 공훈을 받았다.

공은 고향 월곡리(月谷里)에 돌아와서 서낙재(徐樂齋, 徐思遠)·곽망우(郭忘憂, 郭再祐)·최인재(崔訥齋, 崔睨) 및 원근의 선비들과 더불어 경전을 강마하였다. 특히 주역에 힘을 쏟으며 “선비의 출처(出處)는 주역 한 권 속에 있다.”고 하였다.

의병을 일으키던 때에 정인홍이 노비들을 병사에 편입시키고 편지를 보내와 노비에서 면해주기를 청하자, 공이 준엄하게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정인홍의 아들 능(凌)이 그 고을의 사또가 되어 공을 찾아 왔을 때 <북풍가(北風歌)>를 지어 풍자했으니, 대개 정인홍을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정인홍의 집안은 이것으로 더욱 유감을 품게 되었다.

공은 시사(時事)를 보고 할 일이 없음을 알고, 물러나 한가히 지내려는 뜻을 품게 되었다. 백사 이항복이 글을 보내 출사(出仕)하기를 권하였으나, 공은 마침내 나아가지 않았다. 이로부터 10년을 한가롭게 지내며, 오직 경전으로 만년의 즐거움을 삼았다.

내가 생각해보니, 한 번 읽어 문득 기억했던 것은 거의 장수양(張睡陽)⁸⁰⁾이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상대한 것과 악무목(岳武穆)⁸¹⁾이 후세에 남긴 규범이었다. 활을 쏘되 갑옷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고⁸²⁾ 가만히 앉아서 낙동강 동쪽 지방을 진동시킨 것은 두정남(杜征南)⁸³⁾에 짝할 만한 것이었다. 권세 있는 간신이 국정을 담당하여 몇몇한 윤리가 무너지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강학에 전념하였으니, 비유하자면 한기왕(韓嬰王)⁸⁴⁾이 공을 이루고 나서 서호(西湖)로 한 필

80) 장수양(張睡陽) : 당나라의 충신 장순(張巡)의 별칭. 안녹산의 난 때에 장순이 수양성(睡陽城)을 지켰는데, 성이 함락되어도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

81) 악무목(岳武穆) : 송나라 고종 때의 무장으로 본명은 악비(岳飛). 금나라 군사와 싸워 여러 번 이겼으나 간신 진회(秦檜)의 화친책에 밀려 하옥되어 죽었다. 효종 때에 신원되어 무목공(武穆公)이란 시호를 받았다.

82) 활을 쏘되 갑옷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고 : 논어 팔일(八佾)에 나오는 “활을 쏘되 과녁을 꿰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射不主皮)”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전쟁에서 적을 죽여 공을 세우는 것만을 능사로 삼지 않았다는 뜻.

83) 두정남(杜征南) : 진(晉)나라 두예(杜豫)의 별칭. 오나라를 평정하였으므로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에 증직되었다.

의 나귀를 타고 돌아가 은거한 것과 흡사하다고 할 만하다. 어찌 주역에서 훈계한 ‘양이 물러나고 음이 나아옴[大往小來]’⁸⁵⁾의 형세에 군자는 영욕(榮辱)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전승실적』에는 친구들이 보낸 축하 편지가 있는데, 정인홍과 틈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 말한 편지가 있다.

참관 석문(石門) 윤봉오(尹鳳五)가 짓다.

양호당(養浩堂) 우선생(禹先生)의 이름은 현보(玄寶), 자는 원공(原功), 시호는 충정공(忠靖公)이고 문희공(文僖公) 역동선생(易東先生) 우탁(禹倬)의 손자이다. 공민왕 을미년(1355)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우시중(右侍中)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 때 단양백(丹陽伯)에 봉해졌다. 태종은 선생을 청백리로 선발하였으며, 손수 충정이라는 시호를 써서 하사하였고, 영의정에 증직하였다.

공민왕 때 선생은 정포은(鄭圃隱, 鄭夢周)과 마음을 같이 하여 공리·탐구하였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관복의 제도와 혼례·상례의 기록을 바로잡고 삼한의 누습을 혁파하고 동방의 문물을 새롭게 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고려사에 실려 있다. 고려의 운명이 끝나려 할 때 선생은 정포은·이목은(李牧隱, 李穡) 등과 함께 한 손으로 넘어지는 나라를 붙잡아 세우려하다가 실패하여 유배되자 맹세하여 절의를 지켰다. 태조대왕이 예전의 예로써 백의(白衣)를 인견하고 문밖에서 전송하고 창고에는 곡식, 부엌에는 고기가 이어지도록 하였으나 선생은 사양하고 초야에 은거하며 콩을 심어 죽을 끓여 먹다가 삶을 마쳤다.

사신(史臣)은 “콩죽 먹던 재상이 임종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망국의 대부로 스스로를 폄하하고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조상의 무덤 곁에 나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독총(獨塚)이라 불렀다. 정조 경자년(1780)에 추향되었으며, 갑진년(1784)에 유림의 상소에 의해 송경(松京)의 송양서원(崧

84) 한기왕(韓夔王) : 송나라 고종 때의 인물로 본명은 한세충(韓世忠)이다. 금나라의 침공 때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간신 진희(秦檜)가 화친책을 쓰자 그를 탄핵하다가 물러나게 되었다. 서호(西湖)에 은거하며 지냈는데, 효종 때 기왕(夔王)에 증직되었다.

85) 양이 물러나고 음이 나아옴[大往小來] : 주역 비괘(否卦)의 상사(象辭)에 나오는 말. 소인들이 득세하여 군자가 물러나게 되는 형상을 뜻한다.

陽書院)에 추향되었다.

서산서원(西山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북쪽 10리 동중면(東中面)에 있다. 순조(純祖) 갑신년(1824)에 도내의 공론에 따라 서원을 건립하고 채선생을 제향하였다.

채(蔡)선생은 이름이 귀하(貴河), 호가 다의당(多義堂)이고, 본관이 인천(仁川)이다. 타고난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문예(文藝)를 일찍 성취하였는데,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어려서부터 함께 교유하면서 경전(經傳)을 강론하고 도의(道義)를 연마하였다. 벼슬은 오랫동안 제학(提學)을 맡았으며 호조전서(戶曹典書)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학교를 부흥시키고 불교와 노장사상 배척을 앞장서서 주창하였다. 일찍이 해로(海路)를 통해 중국사행(中國使行) 길에 풍천(豐川)을 지나면서, 그 곳의 서루(書樓)를 황화루(皇華樓)라고 명명한 일이 있었다. 아마도 존주지의(尊周之義)⁸⁶⁾가 깃들어 있었던 듯하다. 그 당시 고려의 운명이 다하려 할 때, 선생은 통곡하면서, “모든 일이 다 끝났구나. 떠나야겠다.”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 영(泳)⁸⁷⁾에게는 ‘돌아가서 선조의 제사를 모셔라.’라고 당부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의관을 걸어둔 채 조정에 입조하지 않고, 동지제현들과 함께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갔다. 이 때 지은 시가 있다.

동국이 이제 우리 땅이 아니니	東非我土
어찌 또다시 밟을 수 있으리오	誰更再踏
서쪽으로 수양산을 바라보니	西望首陽
한결같은 마음 잊을 수 있으리	息忘一心

이후 공은 8전서(典書)⁸⁸⁾와 함께 벽란진(碧瀾津)에서 배를 타고 평산(平山)의

86) 존주지의(尊周之義) : 주(周)나라 왕실을 존숭하는 의리. 곧 천자국인 중국[明]을 존숭한다는 뜻이다.

87) 영(泳) : 공의 맏아들이다.

88) 8전서(典書) : 당시 전서(典書)에 있던 여덟 사람이니, 변숙(邊肅), 서보(徐輔), 이

다의현(多義峴)으로 숨어들었다. 이 때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만났는데, 선생께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망국의 몸이 되었으니, 그 한을 죽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끝맺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목은이 지은 탁영대(濯纓臺)라는 시에 차운한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가을 풍경 무르녹은 반월대	秋色迢迢半月臺
골짜기 깊은데 언제 열릴까	洞門深鎖幾時開
국화와 대나무 앞길에 있으니	黃花翠竹前路□
좋은 계절엔 날마다 왕래하리라	惟有良辰日往來

공은 매일 채미도(采薇圖)⁸⁹⁾를 바라보면서 끝내 산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홍무(洪武, 명나라太祖의 연호) 정축년(1397)에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이맹운(李孟芸)의 효자비를 세울 것을 명하였는데, 그 기록에는, ‘이맹운이 아침에 박심(朴謹)을 찾아갔고, 저녁에 채귀하를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다. 상주(尙州)의 웅연서원(熊淵書院)과 평산(平山)의 의현사(義峴祠)에 제향되었다.

채(蔡)선생은 이름이 응린(應麟), 호가 송담(松潭)이고, 다의당(多義堂) 귀하(貴河)의 7세손이다. 선조 을미년(159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한강(寒岡)과 사우(師友)의 관계로 지냈다. 학행과 문장으로 일세에 추앙을 받았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금호강(琴湖江)가에 두 개의 정자를 지어서 소유평(小有亭)과 압로정(狎鷺亭)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곳에서 생도들을 모아 의리를 강구하여 밝혔다. 당대의 명유현사(名儒賢士)들이 지은 시문이 남아 있다. 정조 갑진년(1784) 유희서원(柳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순조 갑신년(1824)에 서산서원(西山書院)으로 옮겨 모셔졌다.

채공(蔡公)은 이름이 선수(先修), 자가 경중(敬仲), 호가 달서재(達西齋)이고, 추월헌(秋月軒) 응룡(應龍)의 아들이다. 공의 나이 7세 때 여막을 지켰었는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처럼 일을 잘 처리하였다고 한다. 가학(家學)을

맹운(李孟芸), 박심(朴謹), 박침(朴忱), 조안경(趙安卿) 등이다.

89) 채미도(采薇圖) : 고죽국의 왕자였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주(周)나라를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 먹으면서 절의를 지켰다는 고사가 그려진 그림을 말한다.

공부하였으며 일찍부터 행동거지에 의기(誼氣)가 드러났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산(公山)으로 들어가면서 죽기를 맹세하며 지은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난세에는 의로운 죽음이 오히려 많거늘	亂世尙多死義身
다 함께 무기 들고 왜적들 쓸어버리세	共將矢石掃狂塵
공산의 병사 쉬는 날엔 잔을 높이 들고	舉杯公岳軍休日
금호강 재실 뒤 나루에서 칼을 씻으리라	洗劍琴湖齋後津

마침내 예사롭지 않은 기세로 ‘반드시 빨리 도착하리라’ 하고 떠났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예기(銳氣)를 마치 맹반(盟盤)에 새기고 피를 마시는 열혈남아들의 일을 한 듯 다시 새롭게 하였다. 화왕산성(火旺山城)에 들어가서는 망우당(忘憂堂)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왜적 토벌을 하늘에 맹세하고 여러 차례 공적을 세웠다. 그 후 신방(新坊)에 별서(別墅)를 세우고 달서재(達西齋)라는 편액을 붙이고, 날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 현사(賢士)들과 노닐며 강론하였다.

채공(蔡公)은 이름이 선견(先見), 자가 명보(明甫), 호가 양전軒(兩傳軒)이고, 송담(松潭) 응린(應麟)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경서와 역사서를 탐독하여 구도(求道)에 간절하게 뜻을 두었으며,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과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정사년(1617)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당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 등이 나라의 기틀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는데, 신유년(1621) 공이 많은 선비들을 창도하여 이들의 참수(斬首)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또 오적(五賊)의 처벌을 청하는 글을 다시 올렸다. 갑자년(1624) 이괄(李适)의 변란(變亂)이 일어났을 때는 창의하여 병사들을 모았으나, 토벌에 참가하기 전에 난이 평정되어 되돌아왔으며, 모아 두었던 의병들의 양식을 상소하여 군량으로 쓰도록 헌납하였다. 병인년(1626)에 조정에서 그 절의를 찾아내어 참봉(參奉)⁹⁰⁾에 제수하였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났을 때, 금탄공(琴灘公) 선길(先吉)이 고을의 의병장이 되자, 공은 형을 도와서 전략세우는 일을 주관하였다. 만년에 공산 아래 미계(美溪)가에 터를 잡아서, 서사(書社)를 지어 회재당(戲才堂)이라는 편액을 붙이고 수장지소(修藏之所)⁹¹⁾로 삼았다. 날마다 모당(慕堂) 손처눌(孫處

90) 참봉(參奉) : 당시 회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다.

訥),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 등 여러 현사들과 강학하고 토론하였다.

서계서원(西溪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북쪽 10리 동하면(東下面)에 있다. 정조 신축년(1781)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순조 기축년(1829)에 선비들의 공론에 따라 오천(烏川) 이(李)선생을 제향하였다.

이선생은 이름이 문화(文和), 자가 백중(伯仲)이고, 본관이 인천(仁川)이다. 선생은 건국 초기의 명신으로, 재기(才器)와 도량(度量)이 침착하고 중후하였으며, 학식이 깊고 넓어서 세종(世宗)의 사부가 되었다. 포은(圃隱) 도은(陶隱) 등의 제현들이 외우(畏友)로 추앙하였으며, 목은(牧隱) 이색(李穡)은자설(字說)을 지어주었다. 태조(太祖) 때에 이방원이 불러서 간의(諫議)가 되었다. 태종(太宗) 때에는 두 번의 영남안찰사(嶺南按察使)와 한 번의 호남안찰사(湖南按察使)에 제수되어 유학의 교화가 남쪽에 크게 부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참찬(參贊)과 대제학(大提學)에 발탁되었다. 선생은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외조부(外祖父)로, 청렴하고 검소한 성품과 삼가고 조심함으로써 임금의 외척들이 복응(服膺)하였다. 선생은 노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쉴 것을 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생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왕이 애석함과 슬픔으로 조회(朝會)를 하지 않았으며, 영의정(領議政)의 증직과 공도(恭度)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호남의 사림에서 금계서원(金溪書院)을 건립하자 사액(賜額)이 내려졌다.

육휴당(六休堂) 이(李)선생은 이름이 주(輞), 자가 경임(景任), 또 다른 호가 태암(苔巖)이고, 오천(烏川)선생의 8세손이다. 선생은 약관의 나이에 동당(東堂)⁹²⁾의 시험에 응시하여 『대학(大學)』을 외우던 중, 한 글자에 의심이 생겨서 곧 암송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때 시험에 참관하였던 공과 한 마을에

91) 수장지소(修藏之所) : 의리(義理)와 예의(禮義)를 강마하고 덕행(德行)을 수행하는 곳.

92) 동당(東堂) : 대궐 안의 편전(便殿) 동쪽에 있는 당이라는 말로, 임금이 직접 과거를 보이던 곳이다. 인신하여 과거의 문과(文科)를 동당시(東堂試) 또는 동당으로 칭하였다.

살았던 참시관(參試官)이 가족신에 글자를 손톱으로 긁어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선생이 정색을 하면서, “선비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장차 임금을 섬기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임금을 속일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면서 과거장을 나왔다. 이로부터 마침내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오로지 학문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선생은 한강(寒岡)과 여헌(旅軒)의 학문을 전승(傳承)하면서 우복(愚伏), 낙재(樂齋) 등과 교유하였으며, 도의를 강마하여 당대에 여러 차례 추앙되었다. 금호강가에 정자를 세우고 환성정(喚醒亭)이라는 편액을 붙였으며, 일봉(日峯) 아래에 재사(齋舍)를 세우고는 육휴당(六休堂)이라는 당호를 내걸었다. 도내의 명승지를 한가로이 거닐면서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이 있다.

지인의 마음 바다 같아 물결 일어나지 않고	至人胷海無翻浪
달사의 마음[靈臺] ⁹³⁾ 에도 먼지 일어나지 않노라	達士靈臺不起塵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의 창의로 팔공산(八公山)에 들어갔을 때, 선생은 공사원(公事員)으로 천거되어 의병들의 식량조달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이에 초유사(招諭使)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선생을 소모관(召募官)으로 임명하였다. 이 때 체찰사(體察使)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선생과 함께 군무에 대해 논해보고는, 그 큰 국량이 의망(擬望)⁹⁴⁾할 정도라고 판단하고 조정에 그 명성을 말하였다. 그러자 선생이, “저는 본래 서생으로 군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은총을 바랄만한 공적도 없으니 몸과 마음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후로는 서로 더욱 공경하고 존중하였다. 당시에 연경서원(研經書院)이 의병소(義兵所)로서 불에 터버렸는데, 선생이 그 옛터에 중창하여 퇴계선생을 배향하고, 매월 강학을 펼쳤더니 유풍(儒風)이 다시 진흥되었다. 관찰사(觀察使) 벽오헌(碧梧軒) 이시발(李時發)이 지은 기문(記文)이 있다. 선조 때 재랑(齋郎)⁹⁵⁾으로 특별히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도를 즐

93) 마음[靈臺] : 신령(神靈)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이니, 곧 마음의 별칭이다.

94) 의망(擬望) : 관원을 임명하기 위해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를 추천하여, 임금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낙점할 수 있게 하는 인사추천 제도를 말한다.

95) 재랑(齋郎) : 각 관아에 소속되어 종묘(宗廟), 사직(社稷)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직책.

겨 읊조리면서 은거하였다. 죽은 뒤에 대현(臺軒) 이상중(李相重)이 포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옥계서원(玉溪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남쪽 30리 대일촌(大逸邨)에 있다. 정조 무오년(1798)에 도내의 유생들이 서원을 세워 학암(鶴巖) 서(徐)선생을 주향으로 하고 용계(龍溪) 서(徐)선생을 배향하자고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학암(鶴巖)선생은 이름이 균형(鈞衡), 자가 상경(商卿)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중대광(重大匡) 달성군(達城君) 영(穎)의 아들로, 고려 충혜왕(忠惠王) 경진년(1340)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난계(蘭溪) 김득배(金得培)선생의 문하에서,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석탄(石灘) 이존오(李存吾), 원재(圓齋) 정추(鄭樞),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 월정(月亭) 임박(林樸)과 막역지교(莫逆之交)를 나누었으며, 함께 도덕(道德)과 의리(義理)를 연마하고 명분(名分)과 절개(節概)를 갈고 닦았다. 공민왕(恭愍王) 9년(1360)에 국자감에 진학하였으며, 이 해에 포은, 석탄, 삼우당, 원재, 월정 등과 함께 문과에 동방급제하였다. 이 때 사람들은 난계 김공이 지공거(知貢舉)로서 인재 선발을 잘 하였다고 칭찬하였다.

병오년(1366)에 사간(司諫)에 제수되었는데, 이 당시는 신돈(辛旽)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시절로, 그 위세가 하늘에 치솟아 조회에 왕과 나란히 앉을 정도로 떠받들어졌고, 모두 두려워하면서 굴복하여 감히 그 예봉을 꺾을 자가 없었다. 이 때 선생이 좌사의(左司議) 정추, 우정언(右正言) 이존오와 함께 신돈을 참수할 것을 항소하였는데, 그 직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진동하였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십여 년이나 출척(黜斥)을 당해 있었는데, 기미년(1379)에 간관(諫官)으로서 또 홍중선(洪仲宣)⁹⁶⁾의 탄핵을 주청하였으니, 선생의 마음에 품은 뜻이 다른 사람

96) 홍중선(洪仲宣) : 고려 우왕(禑王) 때 정당문학, 문하찬성사상의(門下贊成事商議)를 지냈다. 양백연(楊伯淵)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참수되었다.

과는 달랐다.

병인년(1386)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 겸 직제학(直提學)으로서, 성균관(成均館)의 학사를 선발하는 시험을 관장하였으며, 기사년(1389)에는 포은선생의 공양왕(恭讓王) 올림계획을 추종하였다. 이 때 순충논도좌명공신(純忠論道佐命功臣)이라는 칭호가 내려졌으며, 벼슬이 정당문학(政堂文學)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세자사부(世子師傅)에 이르렀다.

선생은 홍무(洪武) 23년(1391) 오월 갑오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때 임금이 깜짝 놀라서 애도하며 조회를 열지 않았으며, 예를 갖추어 제사와 장례를 치르게 하고 정평(貞平)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선생은 일찍이 대과에 급제하여, 청요직(淸要職)에 발탁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으며, 그 명성이 자자하여 포은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우뚝하게 중망(重望)되기에 이르렀다. 탁월한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유학의 본류로부터 나온 것이리라. 선생의 관직 이력과 선사(善事)와 덕행(德行)들은 우리나라 역사서와 조야의 명신록(名臣錄)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용계(龍溪)선생은 이름이 변(忭), 자가 자경(子慶)이고, 학암(鶴巖)선생의 9세 손이다. 타고난 자품이 어릴 때부터 영리하여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었으며,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에게 수학하였다. 한 때 동계(桐溪) 정온(鄭蘊), 계곡(谿谷) 장유(張維), 화포(花浦) 홍익한(洪翼漢),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등의 현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막역한 교분을 쌓았는데, 우암(尤庵) 동춘당(同春堂) 두 송(宋)선생과 가장 잘 지냈다. 인조 경오년(1630)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계유년(1633)에 문과에 급제하여 서학교수(西學敎授)에 제수되었다.

청나라가 화친을 요청해왔을 때, 임금은 직접 신하들에게 그 대책을 하문(下問)하였다. 선생은 특히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들어가며 전력을 다해 화친과 우호를 배척하면서 나라의 자강책(自強策)을 진주(陳奏)하였다. 이 때 임금은 선생을 경성통판(鏡城通判)으로 발탁하여 특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다. 이 당시 동계(桐溪)가 지어준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서름 속에 음산(陰山)⁹⁷⁾의 산색을 헤아렸더니

愁邊想見陰山色

97) 음산(陰山) : 오늘날의 하투(河套) 이북과 대막(大漠) 이남에 있는 여러 산의 통칭으로, 흔히 중국 북방의 산들을 가리킨다.

꿈속에서 여전히 발해의 소리 들려 놀랐다네	夢裏猶驚浹海聲
유능한 인재는 반착(盤錯) ⁹⁸ 에 종사하리니	利器必從盤錯別
그대의 앞날이 만사형통할 것임을 잘 알겠노라	知君前路向通亨

선생이 부임하였을 때는 병자호란⁹⁹이 일어나서 청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약탈하였고, 당시 양가의 부녀자들도 개시(開市)¹⁰⁰에 나가서 죽을 팔았다. 이 때 선생은 그들의 성도 이름도 묻지를 않고, 해마다 묵히는 창고의 곡식들을 꺼내어 구제해주었다. 여러 차례 군현(郡縣)을 맡아 다스리면서 그 치적(治績)이 뛰어났는데, 진해(鎭海)에서는 후임 현감이 비석을 세워서 기렸고, 안주(安州)에서는 누각(樓閣)을 세워서 사모하였다. 효종 신묘년(1651)에는 아전의 봉급, 해상의 방위[海防], 전거(戰車)에 관한 일 등을 상소하였다. 화포 홍익한이 청나라에 잡혀갔을 때, 선생이 슬퍼하면서 지은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이 있다.

장군은 오랑캐 평정책을 응당 알리니	元帥應知平虜策
직신들의 척화 상소 무슨 상관 있으리	直臣何害斥和書

임진년(1652)에 선생은 왕자 승선군(崇善君)과 낙선군(樂善君)의 무죄를 있는 힘을 다해 주장하였다. 병신년(1656)에 감사(監司)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冤)을 청해 올린 고소장(告訴狀)은 조야를 숙연하게 하였다. 이 해 여름, 승지(承旨) 유도삼(柳道三)이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실수로 신하라고 칭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유도삼 등¹⁰¹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가 파기되어 다시 소장을 올려 진술하였으나, 바로 인평대군의 세력에

98) 반착(盤錯) : 반착은 반근착절(盤根錯節)의 준말로, 어려운 일에 비유된다. 주로 외직(外職)으로 나가 맡기 어려운 고을을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99) 병자호란 : 원문에 ‘丁丙亂’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정묘호란(1627년)’과 ‘병자호란(1636년)’을 함께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생의 부임년도를 감안하여 병자호란으로 번역한다.

100) 개시(開市) : 외국과 통상 무역을 하는 시장으로, 조선시대 함경도와 평안도 국경 지역에 개설하여 중국의 물화와 교역하였다. 일본과는 왜관이 교역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101) 유도삼 등 : 유도삼과 함께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처남 오정일(吳挺一)을 비롯하여 허적(許積), 원두표(元斗杓), 한전(韓戡), 윤세교(尹世喬) 등이 역모를 꾸몄다고 고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막혀서 더 고할 수가 없었다. 이에 주상이 진노하여 국문장이 설치되고 혹독한 신문(訊問)이 이루어졌다. 당시 유철(兪撤)과 윤집(尹集)이 극구 간하며 구명을 펼쳐서, 마침내 죽음을 면하고 종성(鍾城)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선생은 유배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말았다. 당시 사람에서 탄식하면서 애석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숙종 경신년(1680)에 정(楨)과 남(楠)¹⁰²⁾이 역모를 꾀한 죄목으로 주살 당하게 되니, 사람들은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탄복하였다. 그리고 옛날 서복(徐福)의 경우에 ‘굴뚝을 구부러지게 내라고 충고하였던 고사’¹⁰³⁾를 인용하였던 일에 비유하면서, 묘당을 세우고 관작을 회복할 것을 주청하였다. 영조 때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증직되었고, 관직에 있을 때의 사적들은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과 묘갈문(墓碣文)에 수록되어 있다.

오천서원(梧川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남쪽 20리 상수서(上守西)에 있다. 영조 갑자년(1744)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정조 병오년(1786)에 선비들이 공론에 따라 대봉(大峯) 양(楊)선생을 제향하였다.

양(楊)선생은 이름이 희지(熙止), 자가 가행(可行)이고 본관은 중화(中和)이다.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성종 때 이름을 희지(稀枝), 자를 정보(楨父)로 지어 주었다. 후에 개명을 하였지만 초명이 오래도록 쓰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명석하고 깨우침이 빨라서 8, 9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다.

102) 정(楨)과 남(楠) :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들이다.

103) 서복(徐福) ... 충고하였던 고사 :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황후 곽씨(郭氏)의 집안에 과다한 은총을 베풀었다가 후에 곽씨 일족이 국법을 범하자 주살하였는데, 그전에 서복(徐福)이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다. 곽씨의 난이 종식된 후에, 난을 평정한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았으나 서복만은 상을 받지 못하자, 어떤 사람이 서복을 위해 상소하면서, ‘옛날에 어느 과객이 주인집의 곧추선 굴뚝 옆에 나뭇단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나뭇단을 옮기고 굴뚝을 구부러지게 내시오.’라고 말해주었는데도, 주인이 말을 듣지 않다가 마침내 화재를 당하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불을 끄고 난 뒤,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불을 끌 때 노고가 많은 사람 순으로 자리를 정하고, 당초에 굴뚝을 구부러지게 내라고 충고한 사람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 『한서(漢書)』 「곽광전(霍光傳)」

임오년(1462)에 생원(生員)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였다. 당시에 어떤 무당이 임금의 뜻을 청탁하면서 문묘(文廟) 바깥에서 기도를 올리며 제사지내는 일이 있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모두 화를 내 비난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떨면서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공이 안팽명(安彭命)과 함께 한목소리로 분격성토(奮激聲討)하며 몰아내었다. 공이 금오산(金鰲山)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며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을 만났을 때, 공은 “유교 가운데 안락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려고 계십니까?”라고 말하였다.

갑오년(1474)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을 때, 주상께서는 친히 시를 지어 내리면서 특별히 검열(檢閱)에 제수하였는데, 공은 이 때 보촉(寶燭)을 사양하고 돌아왔다. 문신 중에 연소하고 학문에 유망한 자를 뽑아 사가독서(賜暇讀書)¹⁰⁴⁾를 내릴 때, 공은 채수(蔡壽), 허침(許琛), 권건(權健), 조위(曹偉), 유효인(兪好仁) 등과 함께 선발되었다.

지제교(知製敎)에 제수¹⁰⁵⁾되었을 때, 공은 간신 임사홍(任士洪)의 참소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응교(應敎)에 재임할 때는 지평(持平) 김언신(金彦辛)을 신원(伸冤)하여 구제하였고,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재임할 때 내전(內殿)에서부터 원각사(圓閣寺)의 부처에 기원(祈願)을 올리며 배향(陪香)¹⁰⁶⁾하는 것을 옥당(玉堂)에서 행하게 하자, 공은 마침내 극언으로 상소하였다. 당시 상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들은 오히려 그 오만함을 문제 삼았다. 그 때 주상께서, “이 사람은 전에 태학에 있을 때도 이단(異端)을 물리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이 정면으로 직간을 하는 것을 보니, 산천의 간기(間氣)를 타고나서 그야말로 옥당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온비(溫批)¹⁰⁷⁾를 내려 교유(敎諭)하였다.

공이 대사간(大司諫)이 되었을 때는 무오사화(戊午史禍)로 인해 귀양 간 자들의

104) 사가독서(賜暇讀書) : 학자 양성의 한 방법으로, 젊은 관료 가운데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휴가를 주고 독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05) 지제교(知製敎)에 제수 : 당시 공은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 춘추기사관(春秋記事官)에 임명되었다.

106) 배향(陪香) : 임금이 내린 향(香)을 해당 제소(祭所)까지 책임지고 수송하던 일.

107) 온비(溫批) : 온화한 비답. 상주문(上奏文)에 대하여 임금이 내린 긍정적인 답변을 말한다. 부정적인 답변을 ‘엄비(嚴批)’라고 한다.

양이(量移)¹⁰⁸)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때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이수공(李守恭), 조위(曹偉) 등 서북도(西北道)에 귀양 간 자들이 이배(移配)되었다.

공은 갑자년(1504) 2월 어느 날 병에 걸렸다. 이 때 공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약과 음식을 물리면서, 간간이 들리는 말로 ‘중성자(鍾城者)는?’ 이라고 두어 번 연달아 물어보았다. 종성은 바로 정여창(鄭汝昌)이 귀양 간 곳으로, 경신년(1500)의 양이(量移)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종 정묘년(1507)에 와서 무오사화의 억울함이 추설(追雪)¹⁰⁹)되었다. 이 당시 사초(史草)를 진상하여 공이 올렸던 경신년의 계사(啓辭)를 주상이 열람하고는,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제문을 내렸다.

선릉(宣陵) ¹¹⁰)의 채위 시절에	往在宣陵
홀륭한 선비가 즐비하였거늘	髦士濟濟
유독 경계서 우뚝하게 솟아서	傑卓惟卿
견줄 만 한 자가 드물었노라	出類罕儔
성균관에 입학하였을 때부터	自入泮宮
이미 의로운 명성 드러났었고	已著義聲
애초에 벼슬에 나가면서부터	迨釋褐初
세속에 없는 영화를 입었도다	蒙不世榮
어제시와 이름이 내려지고	御詩錫名
연촉(蓮燭) ¹¹¹)이 보내어졌으며	蓮燭送院
예문관 청함(淸銜) ¹¹²)의 자리에	藝文淸銜
의를 간직한 채 선발되었도다	藏義別選
보무도 당당하게 청운을 품고	步武靑雲

108) 양이(量移) : 멀리 유배된 사람을 정상참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배(移配)하는 것.

109) 추설(追雪) : 죽은 뒤에 생전의 죄를 사면해주는 것.

110) 선릉(宣陵) : 성종(成宗)과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능호.

111) 연촉(蓮燭) : 황금연꽃 모양의 촛등(燭燈).

112) 청함(淸銜) : 청환(淸宦).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등 학식과 행실이 높은 사람에게 제수되던 벼슬.

요화직(要華職)을 두루 거치면서	歷別要華
잘못을 바로잡으며 보좌하였고	啓沃繩糾
이단과 사악한 무리를 척결하였네	闢異斥邪
입고출선(入告出宣) ¹¹³⁾ 을 잘 하여	入告出宣
경연(經筵)에 입시하였고	經幄藩維
정사와 문학에 관한 일에서도	政事文學
마땅하게 갖추어 보좌하였네	左右俱宜
산천의 빼어난 정기를 타고나	稟河嶽氣
문무에 훌륭한 재능이 있었고	令文武才
성조께서 신하를 알아보시고는	聖祖知臣
팔자타개(八字打開) ¹¹⁴⁾ 를 해주었네	八字打開
우뚝하게 세운 수훈이 있었으니	有嶷其樹
경신년의 계사로 재앙을 입은	戊庚之際
무오년의 현사들을 구원하였건만	因災救賢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였네	靡恤四體
그 충정 찬란하게 빛나고	耿耿其衷
정직한 의론 맹렬히 타오르네	烈烈其讜
잠시 쫓겨난 게 무슨 상관 있으리	暫出何傷
임금의 마음 돌렸으니 가상하도다	回天可尙
내가 사초를 열람하여	予閱史草
경이 남긴 계사를 보고	得卿遺章
여러 번 길게 탄식 하였으나	三復永嗟

113) 입고출선(入告出宣) : 입고출순(入告出順). 『서경』 「군진(君陳)」에, “너는 아름다운 피와 아름다운 계책이 있거든 들어와 안에서 네 임금에게 고하고, 너는 마침내 밖에 가르쳐 말하기를 ‘이 피와 이 계책은 우리 임금님의 덕이다.’라고 하라. 아! 신하가 모두 이와 같이 하여야 어질고 드리날 것이다.[爾有嘉謀嘉猷 則入告爾后于內 爾乃順之于外 曰 斯謀斯猷 惟我后之德 嗚呼 臣人 咸若時 惟良顯哉]”

114) 팔자타개(八字打開) : ‘팔자타개’란 여덟 글자로 확 열었다는 말로,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자가 유자징(劉子澄)에게 준 편지에, “성현이 이미 여덟 글자로 확 열었거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만 허황되게 달린다.[聖人已是八字打開了 人自不領會 却向外狂走耳]”라고 하였다.

구천[九原]이 아득하기만 하였네	九原芒芒
궁궐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憶在弘邸
만나볼 때마다 탄복을 하였나니	目觀心欽
상서로운 난새나 봉황 같기도 하였고	祥鸞瑞鳳
아름다운 옥과 정금 같기도 하였네	美玉精金
진퇴에 온화한 모습을 견지하시어	進止雍容
큰 소나무를 바라보듯 하였네	望若松喬
지금처럼 어려운 때	及茲履艱
같이 조회하지 못해 한스럽네	恨未同朝
되돌아보니 슬픔 지극하여	追惟盡傷
대신 음식과 술잔 올리나니	替奠洞酌
혼령이 계시다면	不昧者存
부디 오시어 흠향하소서	庶幾來格

사당의 뜰에 있는 비문(碑文)은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지었다.

청백서원(清白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북쪽 40리 해북촌(解北村)에 있다. 숙종 신미년(1691)에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영조 병오년(1726)에 도내의 공론에 따라 괘편당(掛鞭堂) 이(李)선생을 제향하였다.

이(李)선생은 이름이 영(榮), 자가 현보(顯父)이고, 본관이 영천(永川)이다. 선생은 나이 겨우 8세에 학문에 독실한 뜻을 두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향시[鄉解]에 여러 번 합격하였다. 공은 국량이 크고 원대하였으며, 용력(勇力)과 지략(智略)이 남달라서 학문을 닦는 여가에 무예를 함께 연마하였다.

중종 갑술년(1514)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그 후 회령부사(會寧府使)에 제수되었으며, 그 치적(治績)과 명성(名聲)을 들은 주상이 특별히 표리(表裏)¹¹⁵⁾를 하사하였다. 계축년(1553)에 함경남도(咸鏡南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115) 표리(表裏) : 의복을 만드는 옷감으로, 겉감과 속감으로 된 한 벌.

제수되었고, 갑인년(1554)에는 함경북도(咸鏡北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옮겼다. 이곳은 모두 육진(六鎭)의 본바탕이자 여진(女眞)의 옛 영토였던 곳이다. 요(遼)나라와 금(金)나라 이래로, 이들은 해마다 침입하여 노략질하며 사방 수 천리에 걸쳐 가시나무처럼 기생하며 살았다. 당시 조정에서 공에게 특별히 이 관직을 내린 것은 진실로 북쪽 변방을 걱정한 데서 나온 조치였다. 공은 대중들을 인(仁)으로 위무(慰撫)하였고, 인자함과 위엄을 병행하면서 다스리니, 변방이 안정되고 나라에 걱정이 없어졌다.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소환되어 귀경할 때, 주상은 공이 청렴하다는 소문을 듣고 선전관(宣傳官)¹¹⁶을 시켜서 길 가운데서 행장을 열어 점검해보도록 하였는데, 단지 혜진 이불 한 채가 있을 뿐이었다. 이에 주상은 감탄하면서 포상을 내리고 교시하기를, “공의 청렴함은 해와 달의 밝음과 견줄 만하다. 청렴함과 신중함으로 스스로를 자제하며 국사를 자임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노라.”고 하며 특별히 의복을 하사하였다.

무오년(1558)에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쓸쓸하게 손으로 쌀 정도의 작은 행장을 꾸렸다. 이 때 말채찍 하나를 관청의 물건이라고 꺼려하면서 관청에 걸어두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이에 제주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매월 초하루가 되면, 남기고 간 그 은혜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걸어둔 말채찍 아래에 모여서 참배를 올렸다.

임술년(1562)에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다. 재임 중에 앓고 있던 병이 위독해졌는데, 가정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늘 베개와 이불에다 손가락으로 ‘국(國)’자를 쓰곤 하다가, 계해년(1563) 2월에 병영에서 세상을 떠났다. 주상은 한없이 슬퍼하고 애석해 하며, 특별히 제물을 하사하시며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명(明)나라 만력(萬曆, 명나라 神宗의 연호) 시절에, 황제가 친히 내린 책문(策問)의 논제가 ‘조선은 작은 나라인데, 이영(李榮)과 같은 청렴한 관리가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鄭)선생의 이름은 수충(守忠)이고,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선대 대대로 해안현(解顔縣)에 거주하였다.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으며, 세종(世宗) 때 과거에

116) 선전관(宣傳官) : 조선시대 형명(刑名), 계라(啓螺), 시위(侍衛), 전명(傳命), 부신(符信) 등의 출납을 맡아보던 무관직.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고, 하원군(河原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유림의 논의에 따라 본 서원에 배향(配享)하였다. 영웅대군(永膺大君, 世祖의 아들)의 사부(師傅)로 제수되었을 때, 세조 역시 수학한 적이 있었으므로, “경(卿)은 영웅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곧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였다. 좌익공신(左翼功臣)에 녹훈(錄勳)되었을 때, 선생은 녹권(錄券)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주상이 이 일을 더욱 가상하게 여겼다. 일찍이 아들들에게 “인(仁)하려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려면 인할 수 없다.”라고 훈계하곤 하였다. 선생은 녹봉을 족척(族戚)이나 친구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바람과 햇볕을 겨우 가리는 허름한 집에서 소박하게 거처하였다. 향촌에서 그 청검(淸儉)한 덕을 칭송하였다.

금암서원(琴巖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서쪽 40리 하남(河南)에 있다. 영조 갑신년(1764)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정조 병오년(1786)에 임하(林下) 정(鄭)선생을 제향하였다.

정(鄭)선생은 이름이 사철(師哲), 자가 계명(季明)이고, 본관이 동래(東萊)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어른스러웠으며, 자라나서도 그 기상이 엄하고 굳세었다. 문장에서는 어휘가 넉넉하고 풍부하였으며, 낙천(洛川) 배신(裴紳), 참의(參議) 곽월(郭越) 등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한강(寒岡) 정구(鄭述)를 따라 교유하면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이 「거가잡의(居家雜儀)」¹¹⁷⁾에 잘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매일 동틀 무렵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가다듬은 후에 중당(中堂)에 앉아서, 자제들을 사당에 참배하게 하고, 마치면 경서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강론을 펼쳤다.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제례를 더욱 삼가 하였는데, 정지삭망(正至朔望)¹¹⁸⁾이

117) 「거가잡의(居家雜儀)」: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글로, 집안에서 지켜야 할 사소한 예절을 기록한 것이다. 『가례(家禮)』 「통례(通禮)」에 수록되어 있다.

118) 정지삭망(正至朔望): ‘正’은 정월 초하루, ‘至’는 동지, ‘朔’은 매월 초하루, ‘望’은 매월 보름날이다.

되면, 심의(深衣)¹¹⁹⁾와 복예건(幅禮巾)¹²⁰⁾을 차려입고, 가묘(家廟)에 차례를 올리고는 집밖에 단(壇)을 만들어 선영을 바라보면서 절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창의로 의병을 모집하여 관군이 패전하였을 때 병사들을 보충해주었다. 천성이 한적함을 좋아하여 임하(林下)에 서사(書社)를 짓고, 날마다 그곳에 지냈으므로 임하를 호로 삼았다. 또 금성산(錦城山) 속에 선사서재(仙槎書齋)를 세워서,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송재(松齋) 주유(朱惟) 등과 강학의 모임을 가졌다. 추천으로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낙애(洛涯) 정(鄭)선생은 이름이 광천(光天), 자는 자회(子晦)이고, 임하(林下) 선생의 아들이다. 문장에 능하여 향시에 여러 번 장원을 하였다. 아버지의 명으로 한강(寒岡) 정구(鄭述)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이전에 하던 모든 공부를 버리고 경전(經傳)의 가르침에 전심하였다.

효성으로 양친을 받들어 모시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뜻을 받들어 행하였고, 편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마련해드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양친을 모시고 강우(江右)로 들어가서, 구걸하며 양친을 부양하였다. 계사년(1593)에 임하공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역술(曆術)로 묘터를 잡고는, “길이 막혔습니다.” 라고 번갈아가며 고하였는데, 슬픔으로 ‘귀장(歸葬)¹²¹⁾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고하였다가 다시 곡(哭)을 하곤 하니, 그 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들리면서 보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난리 중에도 아침저녁으로 슬픔을 다하면서 그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그 후에 작은 재사(齋舍)를 지어서 영모재(永慕齋)라고 붙이고 우거(寓居)하였다.

유호서원(柳湖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북쪽 20리 해서부(解西部)에 있다. 정조 갑진년(1784)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병오년(1786)에

119) 심의(深衣) :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가 집에서 입던 상례복(常禮服).

120) 복예건(幅禮巾) : 복건(幘巾). 도복(道服)에 갖추어 쓰는 쓰개의 일종. 비단으로 만든 두건(頭巾)으로, 은사(隱士)들이 사용하였다.

121) 귀장(歸葬) :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으로 운구하여 장사지내는 것.

도내의 공론에 따라 괴헌(槐軒) 곽(郭)선생을 제향하였다.

곽(郭)선생은 이름이 재겸(再謙), 자가 익보(益甫)이고,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중부(仲父)인 관찰공(觀察公) 곽월(郭越)에게 수학하면서, 도(道)를 구하는데 전심하였다.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을 찾아뵈었을 때, 계동선생이 『근사록(近思錄)』한 부를 주시며, “이것이 진자(眞子)¹²²⁾의 책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한강(寒岡) 정구(鄭述)선생을 찾아가서 주자(朱子)의 책을 함께 강독하고 사색하면서 전수받으니, 선생은 감탄하면서, “나의 익우(益友)이다.”라고 하였다. 은거하여 지향하는 뜻을 구하면서 스스로功名(功名)을 바라지 않았으며, 유계(柳溪)가에 서사(書社)를 세워, 문을 걸어 잠그고 정좌(靜坐)하여 경전들을 외우며 낭송하곤 하였다. 계유년(1573)에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선생의 추천으로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초유사(招諭使)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선생을 찾아가서 뵈고, 장병을 모집하는 문제, 식량을 거두어들이는 문제, 적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적인 문제 등 병사(兵事)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을 따라 창의하여, 의병들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모집하였으며, 방어전술을 기획하여 작전에 성공한 실적이 많았다. 다음 해에, 명나라 장군 어왜총병관(御倭總兵官) 유정(劉綎)¹²³⁾을 진현(進見)하고, 휘하의 의병으로 그들의 군세(軍勢)를 도와주었다. 그해 겨울, 도원수(都元帥) 권륜(權慄)의 진영에 갔을 때, 그곳의 비장(裨將)이 술을 권하였다. 이에 선생이, “지금 주상이 몽진(蒙塵)을 가시고 이릉(二陵)¹²⁴⁾이 변을 당하였는데, 어찌 신하된 자로서 차마 술을 가까이 할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듬해 봄에 왜구들이 다시 쳐들어 왔을 때, 공은 종숙(從叔) 충렬공(忠烈公) 곽준(郭趨), 종제(從弟) 충익공(忠翼公)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병들을 이끌고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들어가서, 적도들에게 대항하여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이 때 관찰사가 이 소문을

122) 진자(眞子) : 진유(眞儒). 유학을 공부하여 그 근본 이치를 깨달은 참된 선비.

123) 유정(劉綎) : 1593년 명나라 원병 5천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던 명나라 무장.

124) 이릉(二陵) : 선릉(宣陵)과 정릉(靖陵). 두 능이 모두 광주(廣州)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 의해 파헤쳐졌다.

든고 특별히 부호군(副護軍)에 임명하였다.

난이 평정되고 난 후, 선생은 서사를 다시 수리하여 생도들을 모아서 강학을 펼쳤는데, 덕행과 문장으로 세상에 높이 존중받았다. 사당 뒤에 단(壇)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선영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는데, 이는 고향을 떠나 선영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한스럽게 여긴 것이었다.

그의 병환이 심해졌을 때, 한강(寒岡)선생이 그의 손을 잡고 영결(永訣)하기를, “오도(吾道, 儒學)가 외롭게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선생은 『훈자십육도(訓子十六圖)』를 저술하였다.

용호서원(龍湖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서쪽 20리 하동(河東)에 있다. 숙종 무자년(1708)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정조 경자년(1780)에 양직(養直) 도(都)선생을 제향하였다.

도(都)선생은 이름이 성유(聖兪), 자가 정언(廷彦)이고,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한강(寒岡) 정구(鄭逵)와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양 선생을 사사하여, 문장과 덕행에서 중망을 받았다. 당시에 『성리정학집(性理正學集)』을 저술하였고, 「오경체용합일도(五經體用合一圖)」와 「체용각분도(體用各分圖)」를 지었다. 낙재선생이 돌아가시는 날, 공을 재장(齋長)으로 삼아 생도들을 가르치도록하였다. 오졸(五拙) 손단(孫端)은, 공이 자신을 다스림에 매우 엄격함에 감탄하였다.

경술년(1610), 한강선생이 박이립(朴而立)에게 무고를 당하자, 둔봉(遯峯) 김녕(金寧), 종제(從弟)인 서재(鋤齋) 도여유(都汝兪)와 함께 구원의 상소를 두 번이나 올렸다. 신해년(1611), 정인홍(鄭仁弘)이 회재(晦齋) 퇴계(退溪) 양 선생을 무고하자, 선생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疏)를 올렸다.

임진왜란으로 낙재선생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선생이 왕래하면서 서로 상의를 하여 군량미를 거두곤 하였으나, 마침 부모의 상을 당하여 그만두고 여묘살이를 3년간 하였다. 병자년(1636), 남한산성의 치욕적인 화맹(和盟) 소식을 듣고는, 늘 비분강개하면서, “강상(綱常)과 의리를 부여잡고 오랑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정온(鄭蘊)¹²⁵ 한 사람 뿐이었구나.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 오직 오랑캐의

땅뿐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떠났다.

서재(鋤齋) 도(都)선생은 이름이 여유(汝兪)이고, 자가 해중(諧仲)이다. 일찍이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한강(寒崗) 낙재(樂齋) 양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덕행과 문장으로 세상에 추앙을 받았다. 한강선생이 “후생(後生) 중에 뜻을 세운 자는 도여유(都汝兪)뿐이로다.” 하고 칭찬하였다. 낙재선생이 새로 선사서재(仙槎書齋)를 세웠을 때, 공에게 『심경(心經)』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권장하였다.

불탄 뒤 작은 서재를 다시 지으니
바로 승당하고 입실¹²⁶⁾할 때라네

重營小屋劫灰餘
正是升堂入室初

건물 하나를 세워서 서재(鋤齋)라는 편액을 붙이고, 종형(從兄) 양직(養直)선생과 함께 강론하였으며, 늘그막에 더욱 독실해져 매화와 대나무처럼 맑은 향기와 고고한 절개의 풍모가 있었다. 갑자년(1624)에는 피난 온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선생과 함께 향병(鄉兵)을 모집하였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는 속세를 등지고 숨어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지암(止巖) 도(都)선생은 이름이 신수(愼修), 자가 영숙(永叔)이고, 서재(鋤齋)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질이 특이하여, 네 살에 손바닥 위에 팔괘(八卦)를 배열하였다. 그래서 한강(寒崗)과 낙재(樂齋)선생이 ‘도팔괘(都八卦)’라고 불렀으며, 이로부터 두 선생에게 글을 배웠다. 16세에 합천(陝川)으로 가서 정인홍(鄭仁弘)을 만나 뵈고, 절구 한 수를 지어서 시를 다듬어달라고 하였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바깥 명성 성하게 되면
훈유(薰蕕)¹²⁷⁾ 분명치 않다네
양자학(楊子學)¹²⁸⁾에 빠져

外譽時方盛
薰蕕不分明
傾人楊子學

125) 정온(鄭蘊) :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 적화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남한산성의 화맹(和盟)이 결정되자 자결을 시도하였다.

126) 승당(升堂)하고 입실(入室) : 마루에 올라야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학문이나 기예가 단계적으로 차츰 깊은 경지에 도달함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127) 훈유(薰蕕) : 향초(香草)와 누린내 나는 풀로, 선악(善惡), 미추(美醜), 군자와 소인 등의 비유로 쓰인다.

아마도 선악의 분별에 엄격하였던 듯하다. 일찍이 백매원(百梅園)에서 한강선생을 모시고 있을 때, 마침 매화가 만개하여 밝은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자, 공이 “전에 퇴계선생이 완락재(玩樂齋)에 기거하실 때, 밤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감탄을 하면서, ‘홍몽미판(鴻濛未判)¹²⁹⁾이로다’라고 하셨다는데, 그 속뜻이 이런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요?”라고 하니, 선생께서 칭찬을 하시며 공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하셨다.

여러 번 주군(州郡)의 수령으로 제수되어서는 언제나 학교를 급선무로 여겼다. 함주(咸州, 咸興)의 선비들은 일 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무예를 연마하는 풍속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재주를 이룬 사람이 70여 명이나 되었다. 어느 해에는 고을에 오래도록 끌어온 억울한 옥사(獄事)와 가뭄이 닥쳤는데, 공께서 신명을 감동시킬 만한 결단을 내렸더니, 이날 구름이 없었는데도 곧 비가 내렸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설원우(雪冤雨)’라고 지칭하였다. 울주(蔚州)에 부임해서는 그 치적(治績)이 특출하여 주상으로부터 훌륭한 포상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구마(內廐馬)¹³⁰⁾를 내려주었다. 그 후로는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금호강가에 지암정(止巖亭)을 세워 세상을 마칠 때까지 지낼 곳으로 삼았다. 공의 저술로 「오계잠(五戒箴)」, 「율신잠(律身箴)」이 있다.

병암서원(屏巖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서쪽 30리 성서면(城西面)에 있다. 영조(英廟) 갑신년(1764)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경인년

128) 양자학(楊子學) : 전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인 양주(楊朱)의 학설로, 자신을 중시하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며, 터럭 하나를 뽑아 천하가 이롭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기 혼자만이 쾌락하면 모든 게 좋다는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하였다.

129) 홍몽미판(鴻濛未判) : ‘鴻濛’과 ‘未判’은 같은 말로, 천지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상태를 말한다.

130) 내구마(內廐馬) : 궁중(宮中)의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말.

(1830)에 선비들의 공론에 따라 취애(翠厓) 도(都)선생을 제향하였다.

도(都)선생은 이름이 응유(應兪), 자가 해보(諧甫)이고, 본관이 성주(星州)이다. 낙재(樂齋) 서(徐)선생과 한강(寒岡) 정(鄭)선생에게 수학하여, 선조 때 진사(進士)에 합격하였다. 당시 한강의 문인이 “이른 나이에 가르침을 받아서, 몸가짐을 삼가며 조심성이 있었다.”라고 평하였고, 낙재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내려주었다.

밝은 창가에서 처음으로 내 두 제자를 만나고	明窓始見吾雙弟
비자나무 책상에 책 한 권을 새롭게 펼치노라	栴几新開第一書

정인홍(鄭仁弘)이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두 선생을 헐뜯고 배척할 때, 공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박이립(朴而立)이 한강선생을 무고하였을 때 역시 항소하였다. 갑자년(1624)에 이괄(李适)이 변란을 일으키자, 모당(慕堂) 손(孫)선생의 추천으로 분의장(奮義長)이 되었으나, 출전하기 전에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휘하에서 소모장(召募將)을 맡았다. 또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을 위한 상소를 올렸을 때 주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답을 받았다.

“조정의 위에서는 시비가 점차 바르게 될 것이고, 조정의 아래에서는 공론이 점차로 시행될 것이니라.”

그 후에 오현(五賢)¹³¹⁾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선생이 편집한 『오현예설(五賢禮說)』이 세상에 전한다.

낙음(洛陰)선생은 이름이 경유(慶兪), 자가 내보(來甫)이고, 취애(翠厓)의 동생이다. 어려서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에게 수학하였고, 장성하여서는 한강(寒岡) 정(鄭)선생과 낙재(樂齋) 서(徐)선생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학문의 조예가 정밀하고 깊어서, 인조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추천으로 금부도사(禁府都事)에 제수되었다.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남원(南原)으로 가는 세자의 수레를

131) 오현(五賢) : 동방오현(東邦五賢), 조선오현(朝鮮五賢) 등으로 칭해지는 조선시대 학덕이 높았던 다섯 명의 유학자. 곧,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그들이다.

호종(扈從)하고, 영사원종공신(寧社原從功臣) 일등에 녹훈(錄勳)되었다.

주군(州郡)의 수령을 지내면서 모두 치적(治績)이 있었는데,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재임할 때는 주상으로부터 포유문(褒諭文)과 함께 겹옷과 속옷 한 벌이 내려졌다. 갑술년(1634)에 조정에서 공에게 ‘심양(瀋陽)에 들어가서 오랑캐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 때 공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입었던 가죽옷을 벗어준 공적이 있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는 어가[大駕]가 파천(播遷)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필마(單騎匹馬)로 행재소(行在所)로 향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도백(道伯) 심연(沈演)을 만나 그 뜻을 고하였다. 심공(沈公)은 공의 손을 잡고, “공의 충의(忠義)는神明(神明)도 평가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곡하였다. 이 때 심공은 바로 공을 좌우영(左右營) 총독(總督)으로 임명하였다. 경진년(1640)에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었다.

봉암사(鳳巖祠)

대구부(大邱府)의 남쪽 10리 하수서(下守西)에 있다. 정조(正廟) 기미년(1799)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다.

손(孫)공은 이름이 린(遴)이고, 호는 문탄(聞灘)이며,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선생의 5세손이다. 나이 8세에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빈소(殯所)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곡읍(哭泣)을 하는 모습이 어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한강(寒岡) 정구(鄭逵)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자주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신주를 모시고 피난하여, 아침저녁으로 참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며, 경전 공부 또한 그만두지 않았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감(國子監)에 보임되었다. 이때는 정인홍(鄭仁弘)의 지위와 명망이 위세를 떨쳤는데, 정인홍은 공을 만나면 대청 아래에까지 내려와서 맞이하고 송별하였다. 공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찮은 관리를 대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관계를 끊었다. 신해년(1611)에 회재(晦齋)와 퇴계(退溪)의 문묘종사에 정인홍이 배척하고 나섰을 때, 공은 종질(從姪) 모당(慕堂) 처눌(處訥)과 함께 <부정척사문(扶正斥邪文)>을 만들어 도내

에 통문을 돌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고를 변호하는 의거(義舉)를 일으켰다. 이 일로 공은 한동안 벼슬에 나가지 못하다가, 계해년(1623) 옥좌가 바뀐 후에 단성현감(丹城縣監)에 제수되어 훌륭한 치적을 쌓았다.

정묘호란 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추천으로 의병장이 되자 적들이 소문만 듣고도 퇴각하였으며, 군장비와 군량미를 갖추는 일 등이 모두 공의 소관으로 처리되었다. 만년에 넷가에 우사(寓舍)를 세우고, 문탄(聞灘)이라는 편액을 붙여서 노년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정우복이 편지를 보내 벼슬에 나올 것을 권유하며 말하기를, “내 일찍이 ‘출사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선비이자 진정한 군자라면 시급한 일이라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끝내 나가지 않고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두 선생과 도의로 교유하였다.

평천사(平川祠)

대구부(大邱府)의 북쪽 20리 해서촌(解西村)에 있다. 정조(正祖) 정유년(1777)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다.

최(崔)공은 이름이 인(認),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한천(寒川)이다. 비분강개한 절개가 있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어왔으니, 지금이 바로 죽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하며, 동생 계(誠), 조카 동보(東輔)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화산(花山) 권응수(權應銖)와 함께 화원(花園) 전투에서 적들을 섬멸시키고, 망우당(忘憂堂)곽재우(郭再祐)를 따라 화왕산성(火旺山城)에 들어가서 방어하였다. 임신년(1632)에 지평(持平)에 증직되었다.

최(崔)공은 이름이 계(誠)이고, 호는 태동(台洞)이다. 충의로 세상에 추앙을 받았으며, 임진왜란 때 본 고을의 임시(義兵假將)을 하면서 공을 세우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중형(仲兄) 인(認), 조카 동보(東輔)와 함께 죽음으로써 보국할 것을 맹세하였다. 학봉(峯鶴) 김성일(金誠一)이 초유사(招諭使)가 되어 이곳에 와서 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지난번 화산진영(花山陣營)에서 보았는데, 오늘 공산진영(公山陣營)에서 다시 보게 되니 걱정이 없어졌구

나.”라고 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 자신에게는 검약(儉約)하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러웠으니, 백성들은 그를 마치 부모처럼 사랑하였다. 어떤 권세 있는 재상이 공의 둘째아들의 재예(才藝)를 듣고 관직에 천거하려 하자, 공이 둘째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을 내렸다. 얼마 지난 뒤에, 그 사람이 잘못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의 전택(田宅)을 뜻 있는 일에 기탁하고, 자식들에게는 경전(經傳)과 시부(詩賦)를 강송(講誦)하게 하였다.

병신년에 서찰과 폐백을 가지고 통신사(通信使)의 행차를 배종하였는데, 일본에 이르러 미개한 오랑캐 땅에 그 위엄을 한층 더 드러내었으며, 돌아와서는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되었다. 임신년(1812)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최(崔)공은 이름이 동보(東輔), 자는 자익(子翼)이고, 호는 우락재(憂樂齋)이다. 어려서부터 덕망이 있고 선견지명이 있어, 미리 창(鎗)과 검(劔)을 준비하여 예기치 못한 환란에 대비하였다. 공은 임진왜란 때 대송장군(大松將軍)이라고 불리었는데, 허벅지를 찢러 혈서를 써서 대중들에게 보이고 죽음으로써 많은 공적을 세웠다. 중부(仲父) 인(認)을 따라 화왕산성(火旺山城) 진영에 갔을 때, 적의 총알에 맞아 말 앞에 추락하였는데, 말이 옷깃을 물고 본진(本陣)으로 돌아가니, 적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다. 창암(蒼巖) 전투에서 적장 가등청정(加藤清正)을 격퇴시키고 경림(慶林) 화담(花潭)의 적들을 섬멸시키니, 적들은 깃발만 바라보아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영천(永川)의 창수(蒼水)에 정자를 세우고 우락(憂樂)이라는 편액을 붙였다. 입으로는 회서(淮西)를 평정한 고사를 말하지 않았고, 산건(山市)과 야복(野服)을 입고 살았다. 임신년(1812)에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되었다.

녹동서원(鹿洞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남쪽 40리 상수남(上守南)에 있다. 정조(正朝) 신해년(1791)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갑인년

(1794)에 도내의 공론에 따라 모하당(慕夏堂) 김(金)선생을 제향하였다.

김(金)선생은 이름이 충선(忠善), 자가 선지(善之)이고, 본관이 김해(金海)이다. 융경(隆慶, 明 穆宗의 연호) 신미년(1571)에 일본(日本)에서 태어났으며, 성은 사(沙)이고, 이름이 야가(也可)였다. 어려서부터 성인들의 책 읽기를 즐겨하면서 남몰래 중국을 동경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탄하며, “대부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로다. 그러나 오랑캐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탄하지 않으리오?”라 하며 흐느끼고 그치기를 반복하며 침식을 폐하였다.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加藤清正)이 우리나라를 침략함에 선봉으로 선발되었으나, 공은 마음속으로 당시의 거병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평소 조선(朝鮮)은 소중화(小中華)이자 예의의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 변란을 계기로 즉시 바다를 건너 격문을 지어 백성들을 깨우치고 칼날이 접전하기 전에 경상도 병마절도사 김응서(金應瑞)에게 강화를 청하는 투서를 넣었다. 이 때 귀화한 휘하의 무리가 삼천 명이었는데, 모두 한 마음으로 적을 토벌하여 증성(甞城)¹³²⁾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주상이 이 일을 듣고 급히 불러들여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제수하였다.

병마절도사 김응서가 울산의 왜적을 토벌할 때, 명나라 장수 마귀(麻貴)¹³³⁾가 김응서에게 군율을 어겼다는 구실로 죄를 물으려 하자, 공이 헌괘(獻馘)¹³⁴⁾ 수천으로 속죄(贖罪)를 청하였다. 이 때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조정에 알리니, 성과 이름을 내려 그 미행을 칭찬하였다.

당시에 공이 조총과 화약이 나라에 이로운 무기이니 마련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 사실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양의공(襄毅公) 김응서(金應瑞)의 시장(諡狀)에 기록되어 있다. 계묘년(1603)에 북방 경비를 자원하여 10년을 더 변방을 지키다가 돌아오니,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 포상하였다. 갑자년

132) 증성(甞城) : 시루성. 일명 도산성(島山城)이다. 지금의 울산 지역에 있었던 성으로, 왜적이 여기에 성을 쌓았는데, 모양이 시루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3) 마귀(麻貴) : 1597년에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발생하자, 명나라에서 조선을 지원하도록 파견한 제독이다. 이해 12월에 도원수 권율(權慄)과 합세하여 울산에 내려가서 도산성(島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적장 흑전장정(黑田長政)이 이끄는 왜군에게 패하여 경주로 후퇴하였다.

134) 헌괘(獻馘) : 적의 왼쪽 귀를 잘라 바치는 것.

(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휘하의 장수 서아지(徐牙之)를 참수하여 바쳤다. 그 공에 대한 상을 내리자 고사하였고, 사패지(賜牌地)를 내렸을 때도 여러 번의 상소로 반환하여 수어청(守御廳)의 둔전(屯田)으로 쓰도록 하였다. 병자호란 때 쌍암(雙巖) 전투에서 적의 코를 획득한 숫자가 거의 만 개에 이르렀다. 당시에 남한산성으로 호가(扈駕)하러 가다가 이미 화의(和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칼과 무기를 버리면서, “존주양이(尊周攘夷)¹³⁵가 춘추대의(春秋大義)이거늘, 주상이 욕을 당하는데도 죽지 못하는 것은 신하의 수치이다.”라 하고, 대구로 돌아와서 자양산(紫陽山) 아래 백록동(白鹿洞)에 거처를 정하였다. 공은 남달리 검약하면서 이웃을 가르쳤으며, 충효청검(忠孝淸儉)을 가훈으로 삼았다. 문간공(文簡公) 김희순(金羲淳)이 행장(行狀)의 서문을 지었다.

용강서원(龍崗書院)

사액(賜額)이 내려지지 않은 서원으로, 대구부(大邱府)의 서쪽 30리 성서면(城西面)에 있다. 숙종 병자년(1696)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갑자년(1804)에 선비들의 공론에 따라 상무헌(尙武軒) 허(許)선생을 제향하였다.

허(許)선생의 이름은 득량(得良)이다.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두 선생을 사사(師事)하여 강학하였다. 『근사록(近思錄)』을 힘써 공부하였다. 벼슬은 도총관(都摠管)에 이르렀다. 인조 병자년(1636)에 절도사(節度使) 민영(閔楳)과 함께 쌍령(雙嶺) 전투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임신년(1812)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산목헌(山木軒) 김희순(金羲淳)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었다.

낙암(洛菴) 허(許)선생은 이름이 복량(復良)이다.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두 선생을 사사(師事)하였으며, 벼슬이 부총관(副摠管)에 이르렀다. 병자년(1636)에 종형(從兄) 득량(得良)과 함께 절도사(節度使) 민영(閔楳)의 진영으로 가서, 쌍령(雙嶺) 전투에서 순절(殉節)하였다. 민공(閔公)

135) 존주양이(尊周攘夷) : 여기에서는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물리쳐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 지은 만시(輓詩)가 있다. 임신년(1812)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되었다. 경오년(1870)에 서원이 훼손되었다.

양사재(養士齋)

향교의 동신문(東新門) 밖에 있다. 봄가을로 재주를 시험하여 인원을 확정하여 양사재에 머물게 하였다. 병술년(1766)에 판관 김로(金魯)가 창건하였다.

상량문(上樑文)

사람이 가르침이 없으면 어찌 선비가 될 수 있으리오? 기르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도다. 향교의 대성전 옆 가까운 곳에 자리하여 선비들을 모아 사과(四科)¹³⁶⁾를 익히도록 하였네. 영남 지방에 여러 현(縣)과 읍(邑)이 있으나 오직 달성부(達城府)에 선비들이 가장 많도다. 수백 년 된 큰 고을에 가르치고 길러주지 못한 자가 무수하였는데, 세 칸의 부서진 집이 아름답게 고쳐졌네.

위로는 추로지향(鄒魯之鄉)¹³⁷⁾의 전통과 민락(閩洛)¹³⁸⁾의 풍도가 오래도록 황폐화되었으며, 아래로는 한유·구양수의 문장과 낙빈왕(駱賓王) 송옥(宋玉)의 시를 누가 본받았던가? 시골 글방과 서당에서 어린 후학을 길러 가르침이 없지 않았으나, 공부하는 벗이 서로 연마하고 이택(麗澤)¹³⁹⁾의 바탕을 가지게 하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재실을 세울 뜻을 널리 알려, 한 고을의 선배와 부로(父老)들이 재목을 모으고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되었네. 그리하여 15세 이상의 총명한 수재들이 학업을 연마할 장소가 있게 되었도다.

136) 사과(四科) : 공문사과(孔門四科)라 하여 공자의 문하생 가운데 빼어난 열사람이 두드러졌던 네 가지 분야. 곧 덕행(德行)·언어(言語)·정사(政事)·문학(文學)의 네 가지 분야.

137) 추로지향(鄒魯之鄉) : 추(鄒)는 맹자의 출생지, 로(魯)는 공자의 출생지이므로 '추로지향'이란 말은 공맹의 유풍이 살아있는 고을이란 뜻.

138) 민락(閩洛) : 정자(程子)는 민중(閩中)에 살았고, 주자는 낙양(洛陽)에 살았기 때문에 정자·주자를 일컫는 말.

139) 이택(麗澤) : 주역 태괘(兌卦)에 나오는 말. 벗이 서로 도와 학문과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함.

두보(杜甫)의 초당(草堂)¹⁴⁰⁾ 같은 넓은 집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거의 호안정(胡安定)¹⁴¹⁾의 동서(東西) 두 재실만큼은 되었다. 이곳에 거처하며, 또한 읊조리고 또한 글을 익히리라. 이윽고 건물이 우뚝히 완성되자, 스승과 제자가 돌아와 머물게 되었도다.

나이 들어 늙자 고정(考亭)¹⁴²⁾은 정사(精舍)를 지어 가르침을 베풀었고, 지기(志氣)가 점점 줄어들자 소학동자(小學童子)¹⁴³⁾는 초라한 집을 탄식하는 글을 지었도다. 어찌 도를 진유(眞儒)에게만 맡겨 행하기를 바라리오. 못난 선비라도 자신의 못남을 보고 스스로 수양하기를 바라노라. 도리와 염치를 아는 것은 예사로운 노력에서는 얻어지기 어렵고, 격물(格物) 치지(致知)에서 비롯되어야 수신·제가에 이를 수 있거늘, 누가 이런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궁구해보면 비록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나, 시경·서경 등 경전(經傳)을 공부해야, 도가 일상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네. 다른 사랑의 잘잘못을 손뼉을 치며 망령되이 이야기하지 말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과 나무람은 말없이 스스로 분별할 것이로다. 자기의 잘잘못은 남들의 평론에서 증험할 수 있고, 식견은 마음의 안정에서 절로 자라나게 되리라. 오직 성명(性命) 이기(理氣)의 말을 마땅히 탐구하여야 하노니, 성률(聲律)·사장(詞章)의 학문이 어찌 신기함이 있으리오. 영가(永嘉)의 공업(工業)¹⁴⁴⁾과 소동파의 권모(權謀)는 삼가 체득하지 말 것이요, 율리(栗里)의 상마(桑麻)¹⁴⁵⁾와 동자(董子)의 농사¹⁴⁶⁾ 지으며 글 읽음을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로다.

140) 초당(草堂) :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성도(成道)에 피난하였을 때 글을 읽은 초가집.

141) 호안정(胡安定) : 송나라 때의 학자로 본명은 호원(胡瑗). 호주(湖州)에서 글을 가르칠 때 학교에 경의(經義)와 치사(治事) 두 재실을 동서에 두었다.

142) 고정(考亭) : 주자가 만년에 거주했던 곳의 지명으로 그의 별호가 되었음. 주자는 이곳에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짓고 후학을 가르쳤다.

143) 소학동자(小學童子) : 김굉필의 별호. 그는 김종직의 문하에서 소학을 배우고, 그 책 속에 인간의 도리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하며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로 자처하였다.

144) 영가(永嘉)의 공업(工業) : 영가(永嘉)는 영가태수를 지낸 사령운(謝靈運)의 별호. 그는 영가태수가 되어 산수를 즐기며 수많은 산수시를 지었는데, 탄핵을 당하여 조정에서 체포하려 하자 반란을 꾀하다가 잡혀 죽었다.

145) 율리(栗里)의 상마(桑麻) : 율리(栗里)는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 이름. 상마(桑麻)는 뽕나무와 삼을 길렀다는 뜻.

옛글을 읽음에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과거시험 공부에만 전념함은 뜻을 잃게 되리니 경계할지어다. 마음이 혹 화려함으로 달려나가면 질박함을 깎아 진실됨을 잃을 것이요, 행실은 진실로 너그러움이 좋지만 자칫하면 혼탁함에 어울려 더러움에 빠질 것이로다. 이 건물에 들어와 사니 어찌 비워둬야 있겠는가? 집에서 편안히 지낸다면 무슨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남이 보지 않는 방의 귀퉁이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리라.

아! 건물이 성글게 이루어졌으나 몸이 누추한 데에 처함을 싫어하지 말 것이요, 또한 음식이 조출하더라도 쓰고 담박한 음식을 건더야 하리라. 백 리의 고을을 맡아 예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훗날 나라의 기둥이 될 재목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하노라.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어진 이 낡은 공효를 드리내도다.
사덕(四德)¹⁴⁷을 으뜸으로 선(善)을 기르니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궁하지 않으리라.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가을바람 드높고 낙동강물 나직하도다.
흐르는 물 쉬지 않으니 가는 것 이와 같네
성인(聖人)께서 감탄하셨다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양(陽)의 덕(德)이 자라고 성인의 교화가 펼쳐지네.
구산(龜山)¹⁴⁸의 도(道)가 이 고을의 풍속에 있으니

146) 동자(董子)의 농사 : 당나라의 동소남(董召南). 평생 벼슬하지 않고 주경야독하며 행실이 곧았다. 한유가 그를 칭송하여 <동생행(董生行)>을 지었다.

147) 사덕(四德) : 원(元)·형(亨)·이(利)·정(貞).

148) 구산(龜山) : 노나라에 있는 산. ‘구산에서 전래한 도’는 공자가 노나라 출신이므로 ‘공자의 도’를 뜻함.

추로지향(鄒魯之鄉)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대궐에서 인재들을 바라며 노래하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어두운 때를 만나면 들어가 편안히 쉬리라.

어영차! 들보를 위로 올리니
도가 하늘같이 높아 우리리 보기 어렵네.
더구나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감에랴!
대성전(大成殿)이 그 옆에 서 있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내리니
갓을 쓴 선비 많고도 많도다.
학문을 이루고 나아가 벼슬할 때
녹명장(鹿鳴章)¹⁴⁹을 노래하며 오리라.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량한 이후에 여러 선비가 많이 모여들어 이 재실이 융성해
지고,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등불을 밝혀 부지런히 공부하고, 겨울에 시를 배
우고 여름에 예를 배움에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할 것이며, 나의 축원대로 이 집이
영원히 보전되도록 하시옵소서.

통판 연안(延安) 김로(金魯)가 짓다.

양사재 기문

향교로부터 6,7보 떨어진 곳에 훤히 날아가듯 새로 지은 건물이 있으니, 달성의
통판(通判) 김로(金魯)가 세우고 재실을 양사재(養士齋)라 하였다. 매년 한번 시

149) 녹명장(鹿鳴章) : 시경 소아(小雅)에 있는 편명. 임금과 신하가 함께 잔치할 때, 또
는 손님을 맞이하여 잔치할 때 부르는 노래.

힘하여 선비를 선발하여 그곳에 거처하게 하고 또 공전(公田)을 거의 다 재실에 소속시켜 그 경비를 넉넉하게 하였으니, 아름다운 일이라 할 만하다.

달성에서 서울까지 거의 천리이고, 선배의 세대도 아득히 멀어져 학문에 뜻을 둔 선비가 본받을 곳이 없고, 과거에 뜻을 둔 자도 모두 가난하여 스스로 서울에 가지 못하고 있다. 마침내 포기하여 몰락해버리는 자가 간혹 있으니 또한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재실이 이루어진 뒤에 선발된 선비들은 성대하게 흥기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선발되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감탄하여 따라가고자 하였다.

아! 선비라는 자들이 어찌 모두 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선비로서의 본업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집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장차 유교의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통관이 후학에게 은혜 베풀 것을 어찌 다만 한 때 권장한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고을에 향교가 있는 것은 선비를 기르기 위함이다. 향교 옆에 재실을 두는 것은 급무(急務)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아! 이것은 통관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다. 태학(太學)에 동서의 재실이 있고, 또 벽입재(關入齋) 비천당(丕闡堂)이 있는데도 또 사학(四學)을 설치하여 넓혔으니, 이 양사재를 둔 뜻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청컨대 통관께서는 이런 말로 그 사람에게 답하면 될 것이다.

정해년(1767) 7월 관찰사 김응순(金應淳)이 기문을 짓다.

양사재 기문

재실이 세워진 지 지금 3년이 되었다. 고을의 선비가 나를 찾아와 “어찌 기문(記文)을 짓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이제 지을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재실이 창건될 때 가부(可否)의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부화뇌동을 싫어하였으니, 일에 대해 시비(是非)를 따지는 게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드디어 건물을 빠르게 지어 우뚝하게 완성되자 고을의 선비들이 모두 와서 그 완공을 즐거워하였고, 완공된 지 몇 년이 되자 이구동성으로 이론이 없었다. 처음에는 영성하지만 끝에는 찬란하게 된다는 말을 여기서 믿을 수 있으며, 선비를 기른 효과가 매우 빠름을 기뻐하게 되었다.

아!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선비는 자신이 간직한 것만을 지켜서는 안 되고, 남에게서 취하여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이 넓으면 모이지 않는 사물이 없고, 옛 것을 버리면 새로워지게 되니, 이 법칙은 오래된 것이다. 경솔하고 흐트러진 것은 넓게 배우고 듣는 데에 머물러야 하고, 지나치고 치우치며 완고한 것은 온화하고 순수하며 청명(淸明)한 데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하면 포박한 자는 어질어지고 게으른 자는 공경스러워져, 비록 문사(文辭)의 재주에 빠진 들뜬 사람이라도 진실해지고, 배우처럼 남의 글을 흉내 내는 사람이라도 고아(古雅)하게 되리니, 어찌 이 방에 들어오고 이 마루에 올라 힘쓰고 독실하게 하지 않겠는가? 더러움을 씻어내고 덕을 새롭게 하며, 가까운 것에서 먼 데까지 미쳐 안밖으로 수양하며, 양심(養心) 양기(養氣)로 법칙을 삼으면 선비의 수양이 여기에 이르러 공용(功用)이 확장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내가 원하는 바는 제군들이 혈기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의리로써 판단한다면 덕업의 진전과 학업의 수양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시험을 위한 글 짓기의 작은 재주에 대해서는 어찌 제군들을 위해 말하겠는가? 내가 이곳의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간 뒤에 영남에 재덕(才德)과 문학이 빼어난 사람이 있다고 듣게 된다면 반드시 이 재실에 있었던 사람이리라.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선비를 기르는 뜻이 어떤지를 알게 될 것이니, 이것으로써 기문(記文)을 삼는다.

무자년(1768) 늦봄에 통판 연안(延安) 김로(金魯)이 기문을 쓰다.

●목사(牧使) 이민보(李敏輔)의 시
 감영 안에서는 공무가 매우 많으나
 공무의 여가에 선비들을 기르노라
 풍속을 관찰하여 큰 변화 이끌고
 다스림에 어진 교화 볼 수 있네
 이 선비들 인도하면 천리마 되겠고
 재목을 키우면 큰 기둥이 되리라
 예악으로 널리 교화할 수 있는 곳
 옛부터 영남 고을이라고 하네

營下治曹劇
 公餘課士長
 觀風贊丕變
 爲政見循良
 引路能驍馱
 培林可棟樑
 洋洋絃誦化
 從古嶺南鄉

동계재(東溪齋)

부의 남쪽 30리 인흥면(仁興面)에 있다. 옛날에 인흥사(仁興寺)가 있었는데, 고려 공민왕이 편액(扁額)을 썼다.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선생이 이곳에 와서 시를 읊었는데 3수의 시가 남아 있다. 그 후에 한강(寒岡) 정구(鄭逵)선생이 인흥이라는 마을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고 도은선생의 유적을 계승하여 시냇가 바위 위에 서재(書齋)를 세우고 시를 지은 것이 전한다. 숙종 병인년(1686)에 중창(重創)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훼손되자 재실 건물이 허물어졌다. 영조(英祖) 갑술년(1754)에 진사 우홍구(禹洪龜)가 다시 지어 생도들의 학업을 닦는 장소로 삼았는데, 또한 기문과 발문이 있다.

사마재(司馬齋)

부의 동쪽 향교 옆에 있었다. 영조 경인년(1770)에 고을로부터 재물을 모아 창건하였다. 본 고을의 생원·진사시의 방을 여기서 기록하였다. 상량문과 제영이 불에 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근자에 심하게 퇴락되어 정해년(1827)에 수리하였다. 관관 조중순(趙鍾淳)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 지금은 무너져 버렸다.

관방(關防) 없음

진보(鎭堡) 없음

봉수(烽燧)

마천산(馬川山) 봉수

부(府)의 서쪽 30리 하북면(河北面)에 있다. 남쪽으로 화원면(花園面)의 성산봉(城山烽)에 응하여, 북쪽으로 성주(星州)의 각산봉(角山烽)에 알려준다. 거리가

30리이다. 을미년에 폐지되었다.

법이산(法伊山) 봉수

부(府)의 남쪽 10리 수동면(守東面)에 있다. 남쪽으로 청도(淸道)의 팔조령봉(八助嶺烽)에 응하여, 북쪽으로 경산(慶山)의 성산봉(城山烽)에 알려준다. 거리가 20리이다.

성산(城山) 봉수

부(府)의 서쪽 30리 화원면에 있다. 서쪽으로 성주의 덕산봉(德山烽)에 응하여, 북쪽으로 하북면(河北面)의 마천산봉(馬川山烽)에 알려준다. 거리가 20리이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부의 서쪽 7리 평산(坪山)에 있다. 재사(齋舍)를 만들어 승려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다. 신실(神室)은 임자년에 창건하였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다.

성황단(城隍壇)

부의 남쪽 2리 연귀산(連龜山)에 있다.

여제단(厲祭壇)

부의 북쪽 8리 침산(砦山)에 있다. 재사를 만들어 승려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다. 신실(神室)은 임자년에 창건하였다.

총묘(塚墓)

달성군(達城君) 서영(徐穎)의 무덤

부의 서쪽 하빈현(河濱縣)의 남쪽 봉계산(奉戒山)에 있다.

군자소감(軍資少監) 채영(蔡泳)의 무덤

동하면(東下面) 도덕산(道德山) 아래에 있다.

구계선생(龜溪先生) 서침(徐沈)의 무덤

공산(公山) 중심리(中心里)에 있다. 묘갈명이 비문의 조목 속에 있다.

증좌의정(贈左議政) 송선(宋璿)의 무덤

성서면(城西面) 능곡(陵谷)에 있다. 공은 의영고사(義盈庫使) 하승(夏勝)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두었다. 딸은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齋)에게 시집가서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봉해졌고, 원경왕후(元敬王后)를 낳았다.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의 무덤

수남면(守南面) 박곡리(朴谷里)에 있다.

하원군(河原君) 문절공(文節公) 정수충(鄭守忠)의 무덤

북촌(北村) 며골[脉谷]에 있다. 공은 아들 9명이 있었는데, 대부(大夫)에 제수된 자가 5명이고, 참상관(參上官)에 제수된 자가 2명이고, 참하관(參下官)에 제수된 자가 2명이다. 딸은 없다. 행적은 비문이 깎여 기록하지 못한다.

낙재선생(樂齋先生) 서사원(徐思遠)의 무덤

성서면 파산리(巴山里)에 있다. 묘갈명이 비문의 조목 속에 있다.

모당선생(慕堂先生) 손처눌(孫處訥)의 무덤

부의 동쪽 수동면(守東面)에 있다.

투암선생(投巖先生) 채몽연(蔡夢硯)의 무덤

부의 서쪽 하동면(河東面)에 있다.

전귀당선생(全歸堂先生) 서시립(徐時立)의 무덤

팔공산 중심리(中心里)에 있다.

이조판서 서섭(徐涉)의 무덤

수북면(守北面) 황청동(黃靑洞)에 있다. 묘갈이 있다.

괘편당선생(掛鞭堂先生) 이영기(李榮基)의 무덤

해북촌(解北村) 도곡리(道谷里)에 있다.

호조판서 백인관(白仁寬)의 무덤

서중면(西中面) 노로곡(老老谷)에 있다. 세계(世系)는 5세손 백거추(白巨鰵)의 묘갈문에 실려 있다.

전양군(全陽君) 증시양무공(贈諡襄武公) 이익필(李益秘)의 무덤

하남면(河南面) 독두리(禿頭里)에 있다.

예조판서 이재(李裁)의 무덤

하남면 종곡(宗谷)에 있다.

불우(佛宇)

동화사(桐華寺)

부의 북쪽 50리 팔공산 한가운데에 있다. 도사(道士)가 점치는 간자(簡字)를 던

졌는데, 오동나무 숲속의 작은 우물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고 동화사라 이름하였다. 방사(房舍)로는 심검당(尋劍堂)·인법당(仁法堂)·수월당(水月堂)·강생원(降生院)·약사전(藥師殿)·두월료(斗月寮)·관욕당(灌浴堂)·침계료(枕溪寮)·화우당(花雨堂)·서별당(西別堂)·서상실(西上室)·명월료(明月寮)·자비당(慈悲堂)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부도암(浮屠菴)·금당암(金堂菴)·내원암(內院菴)·염불암(念佛菴)·양진암(養眞菴)이 있다.

용연사(龍淵寺)

부의 남쪽 50리 비슬산에 있다. 골짜기 안에 못이 있는데,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어 절의 이름을 용연사라 하였다. 방사(房舍)로는 설선당(說禪堂)·심검당(尋劍堂)·동상실(東上室)·서상실(西上室)·함허당(含虛堂)·관정료(灌頂寮)·영류당(咏流堂)·두월료(斗月寮)·반상료(返常寮)·약사전(藥師殿)·명월당(明月堂)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은적암(隱寂菴)·명적암(明寂菴)·광선암(廣仙菴)·보리암(菩提菴)·법장암(法藏菴)·금당암(金堂菴)·내원암(內院菴)이 있다.

용천사(湧泉寺)

용천은 일명 옥천(玉泉)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내가 가뭄이나 홍수에도 넘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용천이라 하였다. 부의 남쪽 50리 비슬산에 있다. 방사(房舍)로는 승당(僧堂)·선당(禪堂)·서상실(西上室)·수월료(水月寮)·흥복료(興福寮)·양진당(養眞堂)·경장실(經莊室)·괘월당(掛月堂)·연백당(練白堂)·관음전(觀音殿)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극락암(極樂菴)·청련암(靑蓮菴)·남암(南菴)·관불암(觀佛菴)·백련암(白蓮菴)·내원암(內院菴)·서암(西菴)·부도암(浮屠菴)이 있다.

운흥사(雲興寺)

부의 남쪽 30리 최정산(最頂山)에 있다. 방사(房舍)로는 승당(僧堂)·선당(禪堂)·해운당(海雲堂)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내원암(內院菴)·심적암(尋寂菴)이 있다.

부인사(夫仁寺)

부의 북쪽 50리 공산(公山)에 있다. 신라 성덕왕 때에 창건했는데, 일명 대가람(大伽藍)이라고 한다. 방사(房舍)로는 적묵당(寂默堂)·설선당(說禪堂)·효성각(曉星閣)·동상실(東上室)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하선암(下仙菴)·흥인암(興仁菴)이 있다.

파계사(把溪寺)

부의 북쪽 40리 공산(公山)에 있다. 방사(房舍)로는 백화루(白花樓)·망월루(望月樓)·설선당(說禪堂)·적묵당(寂默堂)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금당암(金堂菴)·성전암(聖殿菴)이 있다.

남지장사(南地藏寺)

부의 남쪽 40리 최정산(最頂山)에 있다. 방사(房舍)로는 승당(僧堂)·선당(禪堂)이 있고, 부속 암자로는 청련암(靑蓮菴)이 있다.

북지장사(北地藏寺)

부의 북쪽 50리 팔공산에 있다. 방사(房舍)로는 승당(僧堂)·선당(禪堂)이 있고, 부속 암자로는 청련암(靑蓮菴)·도명암(道明菴)이 있다.

대산사(臺山寺)

일명 용봉사(龍鳳寺)라 한다. 부의 남쪽 80리 비슬산에 있다. 하나의 방사(房舍)가 있고, 부속 암자로는 청련암(靑蓮菴)이 있다.

임수사(臨水寺)

부의 남쪽 20리 성불산(成佛山)에 있다. 방사(房舍)로는 심검당(尋劍堂)이 있고, 부속 암자로는 내원암(內院菴)이 있다.

은적암(隱跡菴)

부의 남쪽 10리 성불산(成佛山) 줄기에 있다.

편양암(鞭羊菴)

부의 북쪽 10리 조아산(曹娥山)에 있다. 성벽을 보수할 때 감독관과 석공을 위로하기 위하여 무인년(1758)에 순찰사 조운규(趙雲逵)가 창건하였다.

자화사(慈華寺)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보리사(菩提寺)

부의 동쪽 30리 팔공산 기슭에 있었는데 법당은 없고 하나의 방사만 있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선사암(仙槎菴)

부의 서쪽 20리 마천산(馬川山)에 있다.

옥천사(玉泉寺)

부의 서쪽 15리 와룡산 아래에 있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공해(公廨)

객사(客舍)

관아의 북쪽에 있다. 편액의 명칭은 달성관(達城館)이다.

주홀헌(柱笏軒)

도사(都事)가 머물러 쉬는 곳이다.

팔달헌(八達軒)

동헌의 편액 명칭이다.

성상(聖上, 영조) 44년 무자년(1768) 가을 7월에 나라의 경사를 듣고 여러 고을 수령들과 함께 대구부(大丘府)의 객관(客館)에 모여 하례의 글을 올렸다. 헌(軒)의 기둥을 돌아보니, 제도가 모두 갖추어졌으나 다만 편액이 없기에 드디어 통판(通判) 김로(金魯)에게 이름을 짓게 하였다. 그러자 통판이 팔달헌(八達軒) 세 자를 써서 걸고는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 대구부는 지세가 평탄한 분지이고 성시(城市)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사방을 바라볼 수 없는데 헌(軒)을 팔달(八達)로 이름 지은 것은 그 의미를 어디에서 취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통판이 말하기를, “헌(軒)의 지세가 진실로 이와 같으나 이 부(府)에 거처하는 안찰사는 71고을을 총괄하니, 영남 수천 리에 인정(仁政)과 위엄이 미치는 것은 모두 여기로부터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자(朱子)는 ‘소요부(邵堯夫, 邵雍)는 공중의 누각과 같이 사통팔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안찰사의 정치가 평탄하고 통철(洞徹)하여 사방으로 널리 통함이 있으니, 헌(軒)이 비록 팔공산과 달성(達城)의 사이에 있더라도 그것이 공중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산의 이름을 합하여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헌(軒)의 이름을 취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주자의 말을 인용한 데에서 서로 면려하려는 뜻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는 대소에 관계없이 땅은 좁고 넓음에 관계없이 백 리에 걸친 고을이라도 구석저 밝지 않음이 없어야 하고 작아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부드럽게 보살피는 은택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동서남북에 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것 또한 통판이 스스로 힘쓴 것이다. 그러니 안찰사의 정치도 진실로 여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팔달(八達) 두 글자를 계승하여 정치하는 자들이 안찰사의 책무가 다만 통판이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이름을 지은 의미에 어찌 어긋나겠는가? 이것을 반복하고 아울러 기록하여 뒷날 보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하노라.” 라고 하였다.

관찰사 덕수(德水) 이은(李濼)이 짓다.

아사(衙舍)

임진왜란 후 처음으로 성의 동북쪽 모퉁이에 세웠다. 판관 조지정(趙持正)이 옛 관덕정(觀德亭) 터에 옮겨 세웠으니 곧 지금의 자리이다.

금학루(琴鶴樓)

객사의 동북쪽 모퉁이에 있다. 김요(金洮)의 기문(記文)은 다음과 같다.

옛 사람들이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에 혹은 그 지세에 따르거나 혹은 그 지명에 따른다. 파릉(巴陵)의 악양루(岳陽樓) 같은 것은 그 지세를 따른 것이다.

지금 금(琴)사또께서 다스림에, 고을에는 금호(琴湖)라는 강이 있고, 누각에는 학이 춤추는 형상이 있다. 이 누각에 오르면 하나의 금(琴)과 하나의 학(鶴)으로 시원하게 속세를 벗어나는 기상이 있으며, 거문고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의 조화로운 아취(雅趣)로 남풍(南風)에 속세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듯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이 누각을 금학(琴鶴)이라 이름 지은 것은 옳도다.

사또께서 드디어 나에게 기문을 명하셨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옛날에 백성을 잘 다스린 사람은 덕을 숭상하고 법을 숭상하지 않았으며, 너그럽게 하고 사납게 하지 않았다. 자유(子游)가 현가(弦歌)로써 다스린 것¹⁵⁰, 복자(宓子)가 거문고를 연주하여 교화한 것¹⁵¹, 영천(潁川)의 다스림¹⁵²은 그 효과가 봉황이 날아드는 데 까지 이르렀으니, 옛 사람의 다스림을 알 수 있다. 지금 사또께서 달구벌을 다스리자 믿음이 지켜지고 사람들이 화목하며, 교활한 자도 공경해서 속이지 못하고, 홀아비와 과부도 편안하여 원망이 없고, 예악이 일어나고 송사가 줄어들었다. 그러니 덕을 숭상하고 법을 숭상하지 않음과 너그러움을 따라 사납게 하지 않음을 이것으

150) 자유(子游)가 현가(弦歌)로 다스린 것 : 자유(子游)는 공자의 제자이다. 그가 무성(武城)의 수령이 되어 예악으로 다스리자 현가(弦歌) 소리가 거리에 넘치게 되었다고 한다. 현가(弦歌)는 거문고나 비파에 맞추어 노래한다는 뜻이다.

151) 복자(宓子)가 거문고를 연주하여 교화한 것 : 복자(宓子)는 공자의 제자이다. 그가 단보(單父)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거문고를 연주하며 고을을 다스렸는데, 마루를 내려가는 일이 없어도 저절로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152) 영천(潁川)의 다스림 : 한나라 때 황패(黃霸)가 영천(潁川)의 태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펼쳤다.

로써 알 수 있다.

●누각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강진덕(姜進德)의 시

대구 땅 넓으나 사람 뻘뻘 하고
누각은 높아 시야가 훤히 트이네
학은 높이 구름 사이로 날아가고
거문고 소리 달과 함께 맑구나

地大人居密
樓高眼界明
鶴能雲共去
琴與月俱清

●금유(琴柔)의 시

고을 다스리느라 피곤하였는데
누각에 오르니 시야가 훤히 트이네
금호강엔 새로운 물 가득 흐르고
누각엔 여름 바람 맑기도 하네
감히 예악의 다스림 바랄 뿐
벼슬살이의 영광 자랑하지 않으리라
삼년 동안 조금의 공적도 없으니
붓 잡고 속정만 읊을 뿐이네

爲郡身瘦倦
登樓眼豁明
琴湖新水滿
鈴閣暑風清
敢望絃歌治
休誇組綬榮
三年無寸效
操筆謾含情

●일본승(日本僧) 용장(龍章)의 시

단청한 누각 치솟은 옆에 그림자 보이고
붉은 난간 구비에 거문고 소리 들리네
청풍명월은 천년의 자태 그대로이고
유수고산은 태고의 마음 지니고 있네

畫棟飛邊看慶影
朱欄曲處聽遺音
清風明月千年態
流水高山太古心

낙민헌(樂民軒)

승정(崇禎) 무진년(1688)에 창건하였는데, 너무 좁아서 선칠당(先七堂)을 다시 더 보태어 지었다.

기문

현(軒)을 낙민(樂民)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백성의 근심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는 것을 내가 태수(太守)에게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태수 조지정(趙持正)은 정묘년(1687) 겨울에 이곳에 부임하였는데, 관사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에 장교(將校)의 한 청사에 머물게 되었다. 대개 이것은 오래된 관례였으나 청사의 주인이 머물 곳이 없어 원망하는 말이 많았다. 태수가 또한 서민들이 사는 시끄러운 곳에 살더라도 규제하여 금함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고, 금하지 않으면 사또의 위엄이 없어지게 된다. 태수가 개연히 분발해서 관사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마음을 굽혔으니, 잉여금을 들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것을 근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백성의 근심을 태수 자신의 근심으로 여긴 것이다.

고을 백성들 중에 수염이 드리워지고 백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어진 태수가 오셨는데, 공문서를 보실 장소를 마련해 드리지 못하여 마땅치 못한 곳에 거처하시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근심거리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이 태수의 근심을 그들의 근심으로 여긴 것이다. 그래서 힘을 모아 건물을 세우자는 마음이 꺾이지 않아도 합심이 되어, 감영에 아뢰니 감영에서 허락하였다. 상평(常平)에 물자를 요청하니 상평에서 물자를 조달해 주었고, 공장(工匠)들이 그 재주를 다하였고, 백성들이 그 힘을 다하였고, 승려들도 또한 자식처럼 달려와서 일하였다. 그리하여 얼마다 차곡차곡 진행되어 집이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으니 진실로 훌륭한 일이다.

공사를 마친 뒤에 백성들이 모두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례하기를, “백년 동안 버려두었던 곳을 하루아침에 다시 관부(官府)의 모양을 보게 하였으니 이것은 태수님의 공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공사를 시작할 때에 태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다그쳐 질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을 먼저 경험하시고 밥을 먹게 하고, 목마름을 먼저 경험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니 나무와 돌을 다루는 위험한 공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비와 햇볕 가운데 일했으나 아무도 병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상하가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또한 태수님의 덕입니다.”라 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이 태수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

움으로 여긴 것이다. 내가 이 현(軒)의 편액을 낙민(樂民)이라 한 것은 그 실재를 얻은 것이다. 만약 백성의 본성을 거스르고, 백성의 농사철을 빼앗고, 채찍질하면서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데도 밥 먹일 줄 몰라서 원망을 사면서 이 건물을 지어 홀로 그 즐거움을 누린다면, 비록 천만 칸이 되는 큰 집을 지었다 해도 어찌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천하의 일은 흥망이 무상하고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연이어 있어 옛날에 무너진 것이 지금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근심스럽다가 나중에 즐겁게 되었으니, 그 또한 기다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일어남이 있고, 근심스럽다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으니, 앞으로 태수의 즐거움이 끝이 없을 것이요, 백성의 즐거움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공사할 때 따뜻하게 사랑해 준 것과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어 백성들이 즐겁게 일하여 완공에 이르게 한 것은 다만 그 실마리일 뿐이다. 노역을 가볍게 하며, 물자 거둠을 적게 하고, 고생을 마음 아프게 여기고, 궁핍을 슬퍼하며 화목한 가운데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곳은 태수가 여유롭게 사무를 처리할 곳이다. 그렇게 한 연후에 백성을 즐겁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현(軒)의 이름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태수는 힘쓸지어다.

숭정(崇禎) 두번째 무진년(1688) 6월 하순에 관찰사 이세화(李世華)가 짓다.

●관찰사(觀察使) 이세화(李世華)의 시

짧은 시간에 성 한켠에 건물 완공되었으니	軒成不日倚城隅
유월의 찌는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네	六月炎蒸定有無
어찌 새 건물이 웅장하다고 할 수 있으랴	豈是新規誇壯麗
다만 옛 터전이 황폐했기 때문이라네	只緣舊址惜荒蕪
완공되자 모두 관리 머물게 된 것 축하하니	收功共賀官居奠
선(善)으로 인도하니 인심의 향배 알 수 있다네	導善方知俗尙趨
낙민현 편액의 뜻 알려거든	欲識樂民扁額意
거리에 가득 춤추는 사람들 보아야 하리	試看蹈舞滿街衢

선칠당(先七堂)

척금루(滌襟樓)

영조(英祖) 경술년(1730)에 판관 이세윤(李世瑄)이 창건하였는데, 선칠당(先七堂)과 지붕이 잇닿아 있었다. 비바람에 꺾이고 상하여 무자년(1768)에 판관 김로(金魯)가 다시 세웠다.

기문(記文)

누(樓)가 오래되어 무너져 편히 설 수 없으니 척금(滌襟)이라는 편액의 이름만 남았을 뿐이다. 앞사람들이 세운 뜻은 이러하지 않았을 터, 목공에게 명하여 재목을 다듬게 하여 고쳐지었다. 이때에 태수께서 가뭄을 근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완공되던 날 시원스레 소매를 적시는 비가 내리는 기쁨이 있었으니, 옛날을 상고해 보더라도 이러한 기쁜 일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글로 써서 이 사실을 기록해 두노라.

무자년(1768) 초여름에 통판(通判) 김로(金魯)가 기문(記文)을 쓰다.

●판관(判官) 이세윤(李世瑄)의 시

매죽헌 서쪽 금학루 동쪽으로	梅竹之西琴鶴東
누각이 지붕에 잇닿아 솟아있네	小樓連架起空中
팔공산 아득하고 구름 흘러가고	公山漂渺雲容淡
금호강 길푸르고 비 올 듯 하네	琴浦蒼茫雨意濛
여러 해 고질병에 더위로 지쳤는데	抱病多年困炎瘴
옷깃을 열고 오월의 청풍을 맞이하네	披襟五月得清風
이곳에 올라 근심 사라짐을 느끼니	登臨斗覺煩愁豁
반나절 공문서에서 벗어나 있노라	半日身超簿牒叢

●조하망(曹夏望)의 시

영서(嶺西) 영동(嶺東)에서 이름난 누대	亭臺可數嶺西東
기쁘게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었네	快意今看小架中
대지와 산하가 원래부터 상쾌하고	大地山河元爽塏

뜰에 회나무 대나무 무성하네
 집집마다 붉은 해 높이 솟아 있고
 난간으로 소매 가득 바람 불어오네
 천리 먼 고향 다시 바라보노라니
 계수나무 새로운 떨기 이루었으리

一庭槐竹更冥濛
 窮閭正赤臨頭日
 虛檻能生滿袖風
 千里故遠還入望
 想應團桂長新叢

●엄계장(嚴季長)의 시

관사와 누각 동서에 있는데
 새 누각 그림처럼 아름답네
 교외 멀리 푸른 산들 둘러 있고
 누각 너머 민가엔 이슬비 내리네
 한가로워도 청사 아님이 없는데
 누각에 오르니 상쾌한 바람 불어오네
 모름지기 태수의 초연한 뜻 알리니
 비단으로 수놓은 변화함에 있지 않다네

閑館珍臺西復東
 新樓如入畫圖中
 千峯蒼翠環郊遠
 萬井烟霏隔樓濛
 偃仰非無聽事閣
 登臨自有爽襟風
 須知太守超然意
 不在繁華錦繡叢

●조하망(曹夏望)의 시

번잡한 마음에 먼지가 백 장(丈)인데
 어느 곳에서 맑은 바람으로 씻어내리
 금호강 흐르는 곳에 오직 그대가 있어
 이 누대에 나와 함께 오르게 되었네
 사면의 산봉우리 한결같이 푸르고
 길다란 대나무 천 떨기로 푸르네
 태수는 속세를 말하지 마시게
 신선이 또한 이 가운데 있으리니

煩襟塵百丈
 何處濯清風
 湖海惟君在
 樓臺與我同
 面峯青一抹
 危竹碧千叢
 太守休云俗
 神仙亦此中

●천조랑(天曹郎) 이정보(李鼎輔)가 대구부는 그의 선친이 재직했던 곳이기 때문
 에 시호를 받드는 길에 대구부사와 함께 술자리를 열고 지은 시[天曹郎李鼎輔本府
 以其先君曾莅之地宣謚之路與主倅開酌賦詩]

때때옷 입고 영남 나들이 자주 했으니
 역마 맡겨두고 다시 달성에 들렀네
 새 성에 해 저물자 북소리 그치고
 옛 누각에 가을 깊어 풍악소리 울리네
 주렴 너머 먼 산들 다투어 자태 자랑하고
 비단 자리에 어여쁜 노래 또한 정이 가득하네
 신선 같은 태수 풍류 즐겨 손님과 함께 술 마시니
 오(吳)의 소금 초(楚)의 꿀에 좋은 술로 취했어라

彩衣曾慣嶠南行
 驛路歸驂又達城
 新堞日斜旗鼓靜
 舊樓秋晚管絃鳴
 疎簾遠出爭呈態
 綺席嬌歌復有情
 仙尉風流留客飲
 吳鹽楚橘醉華觥

●관찰사 이익보(李益輔)가 대구부에 찾아와 옛 일을 추억하며 중형(仲兄)의 시
 에 차운하다[觀察使李益輔往本府追念昔年事次仲氏韻]

고운 옷 입고 이곳에 온 지 언제였던가
 관찰사의 깃발 오늘 성곽을 둘렀네
 산천은 뚜렷하고 누대는 저물어 가는데
 마을과 성곽 한결같고 풍악소리 울리네
 옛길에 슬픔에 젖어 어린 시절 기억하는데
 선정비에 눈물 흘리며 민심을 보노라
 남은 생애 선정 못 이룰까 감회 무궁하니
 부질없이 옛날 추억하며 국화주 마시네

彩服何年此地行
 節旌今日擁重城
 山川歷歷樓臺晚
 村郭依依鼓角鳴
 舊躋傷心記髫歲
 遺碑墮淚見民情
 餘生不暨無窮感
 謾憶當時泛菊觥

●관찰사(觀察使) 이기진(李箕鎭)의 시

동료들 내가 떠나는 길 전송하느라
 돌아가다 선성(宣城)에서 다시 취하였네
 시원한 대자리 높은 누각에 더위 사라지고
 높은 처마에 가까운 오동잎 소리 울리네
 예의 격식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 있으리
 가거나 머무르거나 타향의 정을 느끼네
 천리 먼 곳으로 마침내 이별할 줄 알건만

爲有同人款我行
 臨歸聊復醉宣城
 簟清高閣炎氛遠
 梧近虛簷露葉鳴
 禮數何關吾輩事
 去留俱是異鄉情
 極知千里終須別

이름난 누대에서 함께 술 마시기를 기약하세나

思要名藍共把觥

관사에 찌는 더위 길손을 멈추게 하는데
높은 나무 푸르름 성곽을 둘렀네
뜨락에 붉은 햇살 갠 날이라 길어지고
주렴 속 뜨거운 바람 고요히 소리 없네
영남에서 선정 베풀지 못해 부끄럽고
여러 고을에 문득 이별의 정 맺혔네
강호로 떠나는 길 매우 청량하니
어찌 수고로이 술 권하겠는가

官閣炎天逗客行
喬林豐綠憑重城
庭心赤日晴仍永
簾額熏風靜不鳴
南國久慙無惠化
并州却思係離情
江湖此去清涼足
何用勞勞勸酒觥

고개 너머 가는 사람 북쪽 길 인도하니
저물녘 이별의 정 남성에서 일어나네
뜬구름 아득하게 무심히 흘러가고
길가는 말 쓸쓸히 유심하게 울어대네
그대와 함께 왔지만 원래 짝이 아니건만
지금 서로 이야기하니 정이 도타워지네
여강(驪江)가에 있는 나를 부디 방문하여
고깃배에 달빛 가득할 때 술이나 한 잔 하세

嶺表歸人啓北行
暮天離思動南城
浮雲杳杳無心去
征馬蕭蕭作意鳴
及爾同來元不偶
祇今相道若爲情
會須訪我驪湖上
月滿漁舟酒滿觥

●통판(通判) 이협(李峽)의 시

관찰사 깃발 펄럭이며 떠나가려 하는데
나그네 수심과 가을 생각 성안에 가득하네
선정(善政) 칭송하는 노래 널리 불리고
처마에 햇빛 기울자 풍악 소리 울리네
선칠당(先七堂)에서 사흘 밤 어찌 잊으리
이틀 동안 일가의 정을 함께 나누었네
지난날 산중에서 만나자 기약했는데
높은 누각에 모여 달빛 아래 술을 마시네

節旌翩翩欲發行
客愁秋意滿高城
棠謠載播嗟驪唱
簷旭將移奈角鳴
三夜那忘七堂話
二天兼以一家情
前期知是山中了
聚遠樓高月下觥

●통판(通判) 이권중(李權中)의 시

당시(唐詩) 한 권 날마다 읊조리다가
선잠에서 깨어나니 두건 비뚤어졌네
아전 흩어진 뜰에 봄은 저물어가는데
낮바람에 때때로 복숭아꽃 떨어지네

唐詩一卷日孤哦
睡起烏紗懶自斜
吏散庭空春半老
午風時落小桃花

●일명 윤경당(潤經堂)이라고 한다.

●정조가 지은 양로(養老)와 무농(務農)의 뜻으로 소학(小學)·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향음의식(鄉飲儀式)·향약조례(鄉約條例)를 반포하면서 내린 윤음(綸音)이 있다. 정사년(1797)에 베껴 벽 위에 걸었다. 그 윤음은 다음과 같다.

왕은 이르노라. 내가 들으니, 부자(夫子)는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보고서 왕도(王道)가 아주 쉽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정사를 관찰하는 것은 조정에 달려 있고 풍속을 관찰하는 것은 민간에 달려 있으니, 정사가 미치는 바는 얇고 풍속에서 얻는 바는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의 나라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민간을 먼저 보고 나서 그 조정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이 주신 복에 응하여 삼가 자궁(慈宮,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았기에 팔방의 신민(臣民)들과 그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노인을 높이고 효자의 덕행을 널리 알리는 전례(典例)에 최선의 방도를 다하였다.

그런데 조정의 정사를 보아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고 민간의 풍속을 보아도 새로워지지 않았으니, 오직 나 한 사람이 부덕하여 감히 선왕(先王)과 비교하여 볼 수 없다. 매일 한밤중이면 이를 생각하느라 자는 것도 잊고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근래의 풍속이 바로잡기 어려움을 우려하고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이 대부분 잊혀져 지켜지지 않았음을 개탄하게 되니, 내가 스스로 기약했던 바가 어찌 이와 같이 하려는 데 그쳤겠는가.

인심(人心)은 편안하면 안일해지고 안일하면 즐기게 되고 즐기다 보면 방종하여 망녕스럽게 마침내 깊이 빠져 들게 된다. 오랫동안 태평한 즐거움 속에서 짐승처럼 길러져 어려서는 올바르게 양성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는 도움이 되는

스승의 가르침이 없어, 자신을 잘 단속하는 것을 우월하다 여기고 그릇되고 거짓된 것을 생계의 방도라고 보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늘이 규정한 등급과 질서에 따른 오전(五典)과 오례(五禮)가 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석 잔 술을 나누며 읍양(揖讓)하는 것은 물론이고 풍류(風流)의 돈후함 또한 한 번 변하는 것으로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아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공경을 넓혀 근본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虞)·하(夏)·상(商)·주(周)가 서로 계승함에 덕(德)이 있는 이를 부유하게 하거나 작(爵)이 있는 사람을 친히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어도 나이 많은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빠뜨리지 않았으니, 대개 나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이를 섬기는 데 버금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빠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폐단으로 오품(五品)이 질서대로 되어 나가지 않는다.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선왕은 지극한 덕과 중요한 도를 지녀 천하를 따르게 하였다. 따라서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고 어른에게 순종할 수 있고 관직에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하였고, 맹자(孟子)에서는 “사람마다 그 아버이를 친히 하고 그 어른을 어른 대접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하였다. 공경을 넓혀 근본을 따르는 책임으로 내가 바야흐로 반성하느라 겨를이 없는데, 만물의 계절에 따른 변화가 다하면 천연적인 근본이 드러나게 되고, 익숙해진 습성이 다하면 진정(眞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생각전대, 화평해져 날로 새로워질 기회가 바로 지금일 것이다.

소학(小學)은 곧 학교(學校)에서 처음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의 단계적인 절목(節目)이다. 아는 것이 없어 사리에 분명치 못한 나도 오히려 선대왕께서 교도해주신 은혜에 힘입어 아동으로서 익힐 나이에 외워 두어 날로 강독하는 효력을 대략 거두었으니, 세속의 자제들도 비록 미쳐 육경(六經)에 두루 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 힘쓰고 힘써 처세(處世)의 본보기를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 학문이 날로 더욱 변하고 가르침이 날로 더욱 해이해져서 이 책도 따라서 등한히 내버려 두고 있으니, 나는 이것이 걱정스러웠다. 이에 내각(內閣)의 신하에게 명하여 훈의(訓義)에 따라 고증(攷證)하도록 하였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나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등의 책도 다스림을 돕고 세상을 권면하는 도구로서 소학

과 함께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정리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라고 이름하였다.

내가 또 생각건대, 하루 동안 예를 행하여 사방(四方)에 그 영향을 주어 교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오직 향음주례(鄉飲酒禮)가 근사한 것이다. 이 예는 노인을 쉬게 하고 농민을 위로하며, 기뻐하도록 하고 나이에 따른 질서를 바로잡으며, 귀하고 천함을 밝히고 높고 낮음을 변별하는 것이니, 몸을 바로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요점이 이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옛날 우리 세종(世宗)의 성대한 시절에 양로연(養老宴)을 창설하여 행하였는데,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것도 이때였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친한 이를 친히 하고 어진 이를 어질게 대하며 그 즐겁게 해 주신 것을 즐겁게 여기고 이롭게 해 주신 것을 이롭게 여기는 생각을 절실히 하면서 잊지 못하니, 나 소자(小子)가 감히 닦아 계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향약(鄉約)이 백성을 교화하여 훌륭한 풍속을 만드는 데 있어 또한 효력을 나타내기 쉬우니, 주부자(朱夫子)가 일찍이 초하룻날이면 향약을 읽고서 삼대(三代)의 제도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의 백성들을 옛 풍속으로 변화시켜 인의(仁義)로써 다스리고 근본을 보여 주는 데 있어 실로 향약의 효과가 향음주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 규례 또한 강구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겠기에 기무(機務)를 살피는 여가에 향음의식(鄉飲儀式)과 향약조례(鄉約條例)를 한데 모아 완성하였는데, 자세하고 진지하여 실질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 내 동포(同胞)의 백성들과 함께 가슴이 뭉클하게 감흥이 일어나고 숙연하게 차서를 알게 되었으면 하였다. 만약 이 일이 한갓 법조문이나 좋은 말에 그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완악한 사람이 감히 못되게 굴겠으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밝아지지 않겠는가.

아! 너희 백성들은 옛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말며 나의 말을 우환(迂闊)하다고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오직 이 향음주례와 향약을 강구하고 준수하라. 군자(君子)는 마치 요순(堯舜)·하우(夏禹) 삼대(三代)에 태어나 주례(周禮)를 지키듯이 하고, 소인(小人)은 네 발의 화살을 받들고 확상포(矍相圃)¹⁵³⁾에서 공자를

153) 확상포(矍相圃) : 중국 산둥성 곡부현 권리(闕里) 서쪽에 있었음. 공자가 대사례(大射禮)를 행했던 곳. 예기(禮記) 〈사의(射義)〉에 “공자가 확상포에서 활쏘기를 했는데

따라 모시듯이 하여, 모두 다 일상으로 먹는 곡식은 버릴 수 있어도 친한 이를 친히 하고 어른을 어른 대접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데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백성의 뜻이 하나가 되고 세상의 교화가 태평해지면 나와 너희 백성이 함께 무궁한 복조(福祚)를 누리 천지의 밝은 빛에 보답하여 드날리고 조종(祖宗)의 계책과 공적을 크게 이어받게 될 것인데, 능히 이를 믿어야 길이 의뢰할 바가 있어 조정과 민간에서 살펴보면 찬란히 보기에 달라질 것이니, 풍부한 복을 받아 공훈을 향유하는 것이 참으로 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제대로 노인 대접한 뒤에야 백성들이 효성을 일으킨다.” 하였고, 또 “나의 노인을 노인 대접하여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도록 한다.” 하였다.

새해 첫날의 좋은 때를 만나 자궁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는데, 우러러 고우신 안색을 바라보고는 늙지 않으심을 떨 듯이 기뻐하였다. 이를 미루어 넓혀 못 노인들을 기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니, 못 노인들이 기뻐하고 또 편안하게 되는 것은 풍년이 들어 온갖 곡식이 풍성해지는 데 달려 있지 않겠는가. 이에 농민을 위로하는 것으로 노인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근본을 삼는 것이다. 초나흘에 신일(辛日)이 들면 곡식이 잘 익고 열흘째에 신일을 맞으면 곡식이 잘 여문다고 한다. 곡식이 잘 익는 것은 이미 작년에 경험하였는데, 곡식이 잘 여무는 것은 올해 점칠 수 있다. 하늘이 이로써 나에게 백성을 편안히 하는 공을 내려 주셨으니, 나도 전공(田功)에 부지런히 할 것이니, 명을 따르는데 대한 백성들의 보응을 거의 절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작년같이 올해같이 되어 만년토록 이어진다면 무궁토록 농부의 경사가 자식의 경사가 되고 자식의 경사가 조정의 경사가 될 것이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윤음을 방백과 거류하는 신하에게 내려 각각 따라 실행하도록 하라. 성균관 대사성은 여러 학생들에게 보이고 경조윤(京兆尹)은 각 고을에 반포하고 책으로 간행하여 여러 권을 나에게 올리도록 하라. 내가 경외(京外)에 하사하도록 하겠노라.

가경(嘉慶) 2년(1797) 정월 초하루.

보는 사람들이 담장을 두른 듯이 많았다.[孔子射於矍相之圃 蓋觀者如堵牆]”라고 하였다.

연월루(戀月樓)

지금은 없다.

매죽헌(梅竹軒)

병오년(1666)에 판관 한수원(韓壽遠)이 창건하였다. 영조(英祖) 계미년(1763)에 화재가 나서 판관 이성진(李成鎭)이 다시 짓기 시작하였고 을유년(1765)에 지금의 판관 김로(金魯)가 완공하였다. 지금의 시사소(視事所)이다.

점풍루(占豐樓)

매죽헌(梅竹軒) 동쪽에 지붕이 잇닿아 있는 작은 누(樓)이다.

기문(記文)

임금께서 운한(雲漢)의 시¹⁵⁴⁾를 지어 안팎에 반포하셨으니, 모든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조심하며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나와 통판(通判) 이성진(李成鎭)이 날마다 만나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날씨의 징후와 흉풍(凶豊)의 조짐을 언급하였고, 항상 그 해의 농사를 쉽게 점칠 수 없음을 근심하였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여러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 경건하게 기우제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판관도 또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였다. 다행히 비를 얻게 되더라도 또한 큰 장마와 바람이 닥치게 되면 나와 판관은 이리저리 근심하였다. 늦가을이 되어 서리가 조금 물러갈 때, 누운 곡식이 되살아나고 이삭이 영글어 마치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듯하니 한 해 농사의 성공을 비로소 점칠 수 있었다.

누각이 완성된 것이 마친 이러한 때였다. 누각은 판관이 머무르면서 사무를 보던 옛 관사의 동쪽 건물인데, 화재를 입어 새로 짓고 그 동쪽 건물을 조금 다듬어 누각으로 만든 것이다. 판관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청하기에 점풍루(占豐樓)라는 세 글자를 써서 주었는데,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편액을 걸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판관이 승진하여 떠나가게 되어 지금의 김판관(金判官)이 와서 그 공사를

154) 운한(雲漢)의 시 : 운한(雲漢)은 시경 대아(大雅)에 있는 편명으로 가뭄이 심하여 임금이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며 호소한 시.

마무리 하였고,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아! 지난번에는 농사일을 근심하였는데 지금은 훌륭한 건물을 청송하는 글을 짓게 되었네. 만약에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려 한 해의 농사가 크게 망쳐져, 백성이 아래에서 굶주리게 되고, 임금이 위에서 고생하시게 된다면, 근심을 나누어 맡은 자가 비록 좋은 누각에 머물게 되더라도 어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목동이 꿈을 꾸니, 많은 물고기였네. 점치는 이가 점쳐 보니, 실로 풍년이 되리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관관과 함께 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누각에 오르는 자는 비록 꿈을 꾸는 순간이라도 오직 풍년을 점친다면, 아마도 우리 임금께서 백성과 사직을 부탁한 뜻을 어기지 않을 것이며, 시경의 시인이 풍년을 기원한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각의 경치에 대해서는 한가한 날에 올라보면 때때로 경관이 달라 여름엔 보리가 물결처럼 일렁이고 가을엔 벼가 구름처럼 펼쳐지리라. 해마다 계속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고을의 어른들과 잔치하고 노래하며, 우리 임금의 장수를 축원하고 끝없는 경사를 점치는 것이 여기에 있으리라.

을유년(1765) 3월에 관찰사 정존겸(鄭存謙)이 기문을 쓰다.

읍북루(揖北樓)

부의 서쪽 3리에 있다. 일명 북후정(北喉亭)이라 한다.

향사당(鄉射堂)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3인이 있었다. 을미년에 혁파되고 군주사(郡主事) 1인을 두었다. 병신년에 혁파되고 향장(鄉長) 1인을 두었다.

훈련당(訓練堂)

별장(別將) 1인, 천총(千總) 1인, 파총(把總) 1인, 초관(哨官) 9인을 두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무학당(武學堂)

교수(敎授) 1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교련당(敎鍊堂)

집사(執事) 2인, 기패관(旗牌官) 19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찬주당(贊籌堂)

출사군관(出使軍官) 193인, 선무군관(選武軍官) 291인, 수첩군관(守堞軍官) 1,000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순교(巡校) 10인이 병신년에 4인을 감축하여 다만 6인이 남아 있다.

도훈도청(都訓導廳)

도훈도(都訓導) 90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부사(府司)

멜감·숯을 담당하는 곳이다.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인리청(人吏廳)

아전[人吏] 126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고원(雇員) 15인을 두었다. 병신년에 혁파되고 지금 서기(書記) 8인이 있다.

소동방(小童房)

지인(知印)¹⁵⁵⁾ 39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통인(通引) 2인을 두었다. 병신년에 1인을 추가하여 지금 3인이 있다.

사령방(使令房)

사령(使令) 25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14인을 감축하여 11인이 되었다. 병신년에 또 3인을 감축하여 지금 8인이 남아 있다.

155) 지인(知印) : 지방관의 관인(官印)을 보관하며 날인하는 일을 맡아보던 향리.

군뢰방(軍牢房)

군뢰(軍牢)¹⁵⁶⁾ 23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관노방(官奴房)

관노(官奴) 40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사용(使傭) 4인과 사동(使童) 3인을 두었다.

교방(敎坊)

기생 31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조장(操場)¹⁵⁷⁾

부의 남쪽 8리에 있었다. 오래되어 전복되었다.

선화당(宣化堂)

일명 약림당(若臨堂)이라 한다. 영조의 어필이 있는데 ‘民惟邦本 本固邦寧 八十一 爲民書¹⁵⁸⁾’라는 14자이다. 갑오년(1774) 6월에 썼는데 비단으로 덮어 두었다.

상량문(上樑文)

관사(官舍)가 재앙을 입어 다시 짓게 되었는데, 정당(政堂)의 제도도 바꾸고 외관도 새롭게 하였네. 옛것보다 사치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또한 형세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네.

우리 영남 지방을 돌아보면 진한(辰韓)이 있었던 오래된 땅이라네. 겹친 고개에

156) 군뢰(軍牢) : 죄인을 다스리는 군졸

157) 조장(操場) : 습조장(習操場). 군사훈련장

158) 民惟邦本 本固邦寧 八十一 爲民書 :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81세에 백성을 위하여 쓴다”라는 뜻이다.

싸여 있고, 두 개의 호수에 가깝고, 바다에 잇닿아 있고, 여러 고을이 늘려 있네. 천년의 문물은 신라의 풍속에서 알 수 있고, 풍랑에 떠 있는 작은 배들은 여러 섬에 붙어 있네. 크고 작은 주(州)·부(府)·군(郡)·현(縣)은 모두 70여개이고, 남북과 동서의 길이는 거의 3,000리나 뻗어 있네. 산하의 험하고 견고함은 겉과 속이 모두 금성탕지(金城湯池)¹⁵⁹⁾의 형세이고, 인구의 많음은 멀고 가까운 곳과 상관없이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들리네. 지세의 이로움을 믿을 수 있고, 백성의 풍속도 순후하도다. 절약하며 부지런히 농사지음은 빈(邠)땅 기산(岐山) 아래¹⁶⁰⁾ 살던 백성의 풍속과 거의 같고, 경전을 궁구하고 행실을 도탑게 함은 추로(鄒魯)¹⁶¹⁾의 풍속이로다. 조와 쌀, 삼과 실의 공납은 농민들이 힘썼기 때문이라네. 유현(儒賢)과 석학을 배출하여 인재가 많이 나는 고장이라는 칭송이 있다네.

이곳은 나라의 보물창고이니 관리를 임명하여 방백(方伯)을 두었네. 처음엔 문서와 장부의 송사가 번다하여 두 개의 도로 나누어 좌감사와 우감사를 두었는데, 나중에는 통제와 명령이 여러 갈래가 되어 한 사람이 순찰사와 관찰사를 겸직하였네. 이윽고 행영(行營)의 제도가 바뀌어, 드디어 정사(政事)를 펴는 관청을 건립하였네.

이곳 달성은 본래 훌륭한 부(府)라고 일컬어졌네. 여러 산들이 둘러 있는 형상은 하늘가에 연꽃을 깎아 놓은 듯하고, 하나의 강물이 돌아 흘러 기름진 들판에 옷깃이나 띠처럼 뻗어 있다네. 도(道)의 이수(里數)가 균형 맞게 배치됨은 거의 낙양의 반듯함과 같고, 막부(幕府)가 삼엄하니 관찰사가 항상 머물러 있다네. 한 지방의 군사와 백성을 아울러 통괄하니 맡아 다스리는 직책이 매우 높고, 사방의 지체 높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니 체모가 절로 남다르게 되었네.

어찌하여 선화당(宣化堂)이 초라해져 원수(元帥)의 위엄이 서지 않게 되었단 말인가? 대개 임진왜란 초기에 소박하게 지었거늘, 하물며 지금 건물이 낡아 서까래가 부러지고 훼손됨에 있어서라! 복을 올리고 피리를 불자 반듯하게 절도 있는 감영이 이루어졌고, 짙막한 처마와 평평한 섬돌은 규모가 엄정한 집을 이루었네. 관사의 위엄을 드러냄이 없으면 관찰사의 무거운 업무를 줄일 수 없기에, 다시 건립

159) 금성탕지(金城湯池) : 매우 견고한 성.

160) 빈(邠)땅 기산(岐山) 아래 : 주나라를 건국했던 문왕과 무왕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161) 추로(鄒魯) : 맹자가 태어난 추(鄒)나라와 공자가 태어난 노(魯)나라.

하자는 의견이 앞사람이나 뒷사람이나 같았다네. 다만 건립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이라네.

나는 변변찮은 인물인데 이곳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네.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우낭중(虞郎中)¹⁶²⁾과 같은 솜씨가 없고, 가벼운 갓옷에 느슨한 띠를 두른 양태부(羊太傅)¹⁶³⁾ 같은 풍류도 없다네. 그래서 과연 잘못된 정치가 재앙을 불러,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네. 하늘 가득한 뜨거운 불길에 백년 건물이 타버렸는데, 날아가는 재를 끝까지 바라보니 아득히 일겁(一劫) 환각의 세계였다네. 곤산(崑山)의 옥같은 건물이 함께 타버렸으나, 다만 노전(魯殿)은 홀로 남았네.

모두 나에게 말하기를, “허물기를 의논한 지 오래 되었으니 다시 지을 때가 되었다네. 어찌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래된 뜻을 이루어, 새로 좋은 날을 골라 일을 시작하였네. 금호강에서 돌을 가져 오고, 화산(花山)에서 목재를 잘라 왔다네. 일꾼에게 천금의 돈을 뿌리고, 공인에게 백일(百日)의 기한을 정하였네. 바람과 달을 도끼로 삼아 건물을 완성하고, 기둥과 들보를 색칠하고 아로새겨 드디어 찬란한 건물을 완성하였네.

삼단(三段)의 층계는 대개 백성들이 찬란히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여섯 기둥은 차례대로 늘어선 손님의 자리와 같다네. 임금께서 궁실을 검소하게 한 뜻을 생각하여 감히 사치스러운 경관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외부의 사람들에게 건물의 존엄함을 알게 한 것은 왕명을 받들어 펼치는 관찰사의 체모를 무겁게 하고자 한 것이라네.

짧은 기간에 건립을 마치고 어찌 뒷사람들에게 일깨우는 말을 하지 않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한 도를 맡아 다스리는 신하의 임무가 가장 큰 것이네. 한 지방의 풍교(風敎)가 그로부터 비롯되고 백성의 고락이 그로부터 연유하여 달라지게 된다네. 진실로 자기를 바르게 하여 남을 인도하지 않고, 고을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엄과 은혜를 베풀어 민생을 편안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하다

162) 우낭중(虞郎中) : 후한의 우후(虞詡). 후한서(後漢書) 우후전(虞詡傳)에 “복잡한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재능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不遇盤根錯節 何以別利器乎)라고 하였다.

163) 양태부(羊太傅) : 진(晉)나라의 양호(羊祜). 진서(晉書) 양호전(羊祜傳)에 “군대에 있을 때에도 항상 가벼운 갓옷에 느슨한 띠를 두르고 몸에 갑옷을 입지 않았다(在軍常輕裘緩帶 身不被甲)”고 하였다.

면 이 건물에 머물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텅텅한 법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훗날의 군자들은 힘써 노력하여 게으르거나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능름하게 얼음을 지닌 듯 엄하게 하고, 연못에 빠질 듯 조심할지어다.

인(仁)은 과부나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손길이 뻗치도록 해야 하며, 무(武)는 굳세고 마음대로 날뛰는 자를 제압해야 한다네. 넓은 집에 높이 자리했을 때는 궁한 선비를 잘 보살필 것을 생각해야 하며, 깊은 관사 안에 머물 때는윗사람의 뜻이 아랫사람들의 실정과 통하게 해야 한다네. 재앙과 경사의 이치는 매우 분명하니,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이고, 명분과 실제의 사이는 현혹되기 쉬우니, 강등과 승진을 공평하게 할 것이로다. 무기를 수리하고 병사를 모집해 두는 것은 뜻밖의 재난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고, 유학(儒學)을 높이고 학문을 권장함은 교화의 근원과 관계되리라. 스스로 능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로다.

아! 높다란 처마에 큰 깃발이 휘날리니 대장부의 벼슬이 이만하면 영화롭다 하겠고, 반듯하고 넓고 좋은 집에 거처하니 처자를 봉양함이 또한 두텁다네. 이러한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라네.

짙막한 글을 덧붙여 칭송의 말로 삼고자 하노라.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오사카의 붉은 관문이 바다 너머에 있네.
나의 허리에 삼 척(尺)의 칼이 있으니
고래의 피로 해뜨는 곳을 붉게 물들이려 하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가을바람에 조령(鳥嶺)의 여덟 산봉우리 가지런하네.
어찌하면 저 오랑캐를 쫓아낼 수 있으리
임진왜란의 자취 다시 뱉었으니 후회할 일이라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만 리의 푸른 바다 물속에 하늘을 담았네.

임금의 은혜 깊다 알아 건주지 말지어다
때때로 새들도 물속에 깊이 들어가노니.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여러 별들이 뚜렷이 북극성을 둘러싸고 있네.
성군(聖君)께서 윤리의 강령을 하사하셨으니
어찌 집집마다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영차! 들보를 위로 올리니
하늘은 넓고 넓어 이름 지을 수 없네.
하느님이 복을 내려주길 바란다면
먼저 백성들 원망 없도록 해야지.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내리니
백성은 곧 임금의 간난아이라네.
감히 보살피 기르지 않을 수 있으리
조심하여 썩은 줄로 말을 몰듯해야지.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량(上樑)한 뒤에 바람과 비가 순조롭고, 정치와 교화가 잘 이루어져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농사에 편안히 종사하게 하며, 임금의 신령스러움이 먼 곳까지 미쳐 변방에 전쟁의 근심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이 짓다.

●병인년(1806)에 불타 버리자 관찰사 윤광안(尹光顔)이 다시 세워 현판을 걸고
기문은 옛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약림당(若臨堂)

기문(記文)

왕께서 태실(太室)¹⁶⁴⁾에서 기우제를 올리니 곧 비가 왔으나, 오히려 흡족하지 못함을 근심하시어 하늘에 비를 기원하는 글을 지어 8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내리시고 타일러 말씀하시기를, “도(道)를 맡아 다스리는 신하는 선화당(宣化堂)에 임금이 있는 듯 여겨, 지성으로 가뭄을 근심하고 구제할 뜻을 지녀라”고 하셨다. 신(臣) 존겸(存謙)이 공손히 유지(有旨)를 읽으니, 용안을 바로 가까이에서 뵈 듯 황홀하였다.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일어나서 “크도다, 왕의 말씀이여! 이것은 왕께서 몸소 행하시고 마음에 체득한 뒤 하신 말씀이로다.” 하였다.

존겸(存謙)이 숭문당(崇文堂)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왕께서 벽에 걸린 편액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살펴봄이 바로 여기에 있노라”고 하셨다. 여기에 우리 성상(聖上)의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학문의 근본이 있으며, 이리저리 행하시는 중에도 항상 하느님이 여기에 있는 듯이 하시며, 날마다 조치하는 중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40년을 한결같이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왕의 앎이 참되고 경험하신 것이 절실하였기에 “임금이 옆에 있는 듯이 하라”고 신하들을 타이르신 것이다.

아! 왕께서는 하늘을 임금으로 삼고, 신하는 왕을 하늘로 삼나니, 지방의 관찰사가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책임을 맡은 자가 언제나 우리 왕께서 엄하게 계신 듯이 한다면, 우리 임금의 백성에게 죄를 얻지 않으리라.

달성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670리이니 대궐이 아득히 하늘처럼 멀다. 왕과 가까운 반열에서 지방으로 임명되어 나온 자가, 종남산(終南山)¹⁶⁵⁾으로 고개를 돌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군들 없겠는가마는, 여러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나누어지기 쉽고, 번잡한 곳에 처하면 그 뜻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편안히 있을 때에 임금 앞에 나아가던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음이 있겠는가? 마음에 두기를 게을리 하고 일을 처리함에 소홀히 하면 한결같은 소망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 궁궐에 계신 임금께서 근심하는 바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잘못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임금의 교화를 펴고 백성의 생명 구제를 맡

164) 태실(太室) : 종묘의 다섯 방 가운데 중앙에 있는 큰 방.

165) 종남산(終南山) : 당나라의 장안 가까이에 있는 산.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서울.

은 자는 반드시 구름 속의 태양이 위에 있으면서 밝은 빛을 두루 미침을 보고 우리 임금의 그 태양같이 항상 위에 있는 듯 여길 것이며, 우리 임금이 하느님을 대하는 정성을 본받은 뒤에야 타일러 말씀하신 임금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당의 편액을 약림당(若臨堂)이라고 한 것은 우리 임금께서 하사해 주신 것이 아닐 수 없으니, 곳은 날이나 밝은 날이나 항상 풍년의 즐거움이 있는 듯하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때가 없으니, 어찌 병들었거나 가뭄이 있더라도 그침이 있겠는가? 훗날 군자들이 항상 이 편액을 바라보고 그 뜻을 생각한다면 공덕이 백성에게 많이 미칠 것이다.

갑신년(1764)에 관찰사 정존겸(鄭存謙)이 기문을 쓰다.

징청각(澄清閣)

정조 기유년(1789)에 불에 타 버리자 관찰사 이조원(李祖源)이 다시 세웠다. 또 병인년(1806)에 불에 타 버리자 관찰사 윤광안(尹光顔)이 증건하였다.

옥령루(玉靈樓)

징청각 동루(東樓)의 편액 명칭이다.

여수각(如水閣)－일명 경우각(慶雨閣)

병인년에 불에 타 버리자 관찰사 윤광안(尹光顔)이 다시 세웠다. 일명 영풍루(迎風樓)라 한다. 관찰사 이기진(李箕鎭)이 지은 소지(小識)와 시가 있다.

소지(小識)

징청각(澄清閣)과 선화당(宣化堂) 사이에 작은 누각이 있는데 편액은 여수각(如水閣)이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 바람이 많으니 더운 여름날 피서하기에 가장 좋아 영풍(迎風)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 두 수의 읍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마음이 물과 같다면
 어찌이 누각에 오르기를 기다리랴
 여기에 오르면 바람 쐬기 쉽고
 더위 피하에 아주 좋다네
 처마 가까이에 오동나무 일렁이고
 흔들리는 섬돌에 대나무 향기 퍼지네
 앉아서 지는 해 보내노라니
 북쪽에 운산 빼곡히 보이네

但令心似水
 何待陟茲樓
 爲是迎風易
 偏宜避暑留
 近簷梧影轉
 撓砌竹香浮
 坐送斜陽盡
 雲山北望稠

대지 더위에 타들어 갈 때
 맑은 바람 누각에 불어오네
 늘상 이곳에서 노닐며 쉬고
 머무르며 시를 읊조리네
 난간에는 샘물 소리가 들리고
 먼 산엔 석양 노을 비치네
 초연히 절로 흥취 일어나는데
 공문서 많다고 누가 말하리오

大地方焦土
 清風有小樓
 尋常此遊息
 嘯咏爲淹留
 細檻泉聲落
 遙山暝色浮
 超然自成趣
 誰道簿書稠

—기미년 늦여름에 여상귀인(驪上歸人)이 짓다.

●판본(板本)은 불에 타 지금은 없다.

경우각(慶雨閣)

기문(記文)

정해년(丁亥年) 겨울에 특별히 이 지방에 보임(補任)되었는데, 다음 해 6월에 큰 가뭄이 들었다. 내가 통판과 분주히 번갈아가며 사직단과 큰 산에서 기도했으나 비를 얻지 못하였다.

내가 칠곡의 가산(架山)에서 여섯 번 기도하자 임금이 향을 내려주시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일을 거행한 날 저녁에 큰 비가 내렸다. 사방의 들판이 폭젖었고 곡식이 쭉쭉 자라나게 되었으니, 아! 나의 정성에 진실로 하늘이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농부의 기쁨을 태수(太守)가 기뻐하고 태수의 기쁨을 자사(刺史)가 기뻐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서로 말하며 급히 장계를 올려 임금께 아뢰었다. 조정에서 신묘일(辛卯日)에 일을 함께 한 사람들을 맞이하여 여수각(如水閣)에서 작은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기쁜 일을 기록하는 것은 나라에 경사와 은택이 있는 때이니 소동파의 희우정기(喜雨亭記)와 같은 것이다. 이 모임에 기록이 없을 수 없기에 드디어 경우(慶雨)로써 누각에 편액하고 통판 김로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다. 그래서 변변찮은 나의 경축하는 뜻을 붙이노라.

관찰사 덕수(德水) 이은(李濈)이 짓다.

●판본(板本)은 불에 타 지금은 없다.

관풍루(觀風樓)

기문(記文)

누각도 내가 지은 것이요, 이름도 내가 지었는데, 이곳에 누각을 짓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2년 동안 지방의 관찰사가 되어 실제로 직책에 부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경치만 감상하였으니 마음에 부끄러운 게 많다. 이후에 이 직책을 맡아 이 누각에 오르는 사람은 나를 보고 스스로 경계하여 직책에 부응한다면 나도 더불어 다행이겠다. 누각은 지난해 가을에 완성했는데 지금까지 기문을 쓰지 못하였다. 지금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기에 누각이 이루어진 대강을 줄렬한 구절 뒤에 덧붙여 둔다.

관찰사 이상진(李尙眞)이 기문을 짓다.

●관찰사 이상진(李尙眞)의 시

칠십 고을을 돌아보고서	巡回七十州
다시 관풍루에 올랐네	更上觀風樓
마음이 끌리는 일 다소 있으나	多少關心事
눈에 가득 산하는 가을이로세	山河滿目秋

●관찰사 이세재(李世載)의 시

명성을 촉주(蜀州) ¹⁶⁶ 에서 떨치시더니	盛名嚴蜀州
백상루(百祥樓) ¹⁶⁷ 에 자취 남기셨네	遺跡百祥樓
부질없는 세상에 존망이 한스러운데	浮世存亡恨
어느덧 삼십 년이 흘러갔구나	居然三十秋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의 시

높은 누각 관풍루라 현관을 달았는데	高樓華額揭觀風
칠십 고을 명승지 중 으뜸이로세	七十名區領略中
세우고 기문 지은 관찰사 이상진(李尙眞)	傑構記從全地李
작은 정성은 대궐의 기둥 되고자 하였네	微誠欲望玉宸楓
관찰사의 멋진 흥취 진실로 알지 않은데	元規逸興眞非淺
왕찬(王粲) ¹⁶⁸ 의 글솜씨 공교롭지 못하네	王粲雄詞奈未工
주홀현(柱笏軒) ¹⁶⁹ 은 밤에 밝은 기운 맞이하고	柱笏清霄迎爽氣
하나의 밝은 달 먼 허공을 돌고 있네	一款明月輟遙空

●관찰사 이정제(李廷濟)의 시

맑은 가을 금오산(金鰲山) ¹⁷⁰ 에 장마비 그치고	秋浮鰲山積雨晴
---	---------

166) 촉주(蜀州) : 촉(蜀)은 중국의 서북쪽에 있으므로 촉주(蜀州)는 우리나라의 서북쪽 지방을 뜻함.

167) 백상루(百祥樓) : 청천강에 있는 누각.

168) 왕찬(王粲) : 중국 위(魏)나라의 문인. 여기에서는 글쓴이 자신을 비유한 말.

169) 주홀현(柱笏軒) : 대구부 내에 있던 건물로 관찰사가 머물던 관사.

남쪽 누각에 밝은 보름달이로다
둘러보니 봉래(蓬萊) 바다¹⁷¹)에 물결 잠잠
손님들 맞이하여 술잔을 기울이네

南樓明月十分明
回看萊海波濤息
且引賓僚倒酒觥

포정문(布政門)

덕애당(德愛堂)

비장청(裨將廳)이다. 비장(裨將) 10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주사(主事) 15명을 두었다. 병신년에 10명을 감축하였다.

관덕당(觀德堂)

성 남쪽에 있다. 별무사(別武士)와 선무군관(選武軍官)의 통합시험장이다.

기문(記文)

영조(英祖) 을축년(1745)에 경상도 관찰사 김상로(金尙魯)가 조정에 청하여 별무사(別武士) 좌우열(左右列)을 설치했는데, 도내의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힌 자를 모아 과거 급제자와 벼슬하는 자는 좌열(左列)로 하고, 과거를 거치지 않은 자는 우열(右列)로 하였다. 그리고 매년 모두 모아놓고 말타기를 점검하고 활쏘기를 살펴 재주를 시험하여 좌우열에서 가장 우수한 한 사람을 뽑아 벼슬을 주거나 과거에 급제시켰다. 정묘년(1747)에 관찰사 남태량(南泰良)이 절목(節目)을 다시 다듬어 시행하였고, 기사년(1749)에 관찰사 민백상(閔百祥)이 도시청(都試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겨 성의 남쪽에 당을 세워 관덕당이라 크게 써 붙이고, 벽에 그 일의 대략을 기록하였다.

170) 금오산(金鰲山) : 신선이 산다는 전설상의 산. 여기서는 팔공산을 비유.

171) 봉래(蓬萊) 바다 : 동해 신선이 있다는 전설상의 산인 봉래산이 있는 바다. 여기서는 금호강을 비유.

심약당(審藥堂)

심약(審藥)¹⁷²⁾ 1명을 두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검률당(檢律堂)

검률(檢律)¹⁷³⁾ 1명을 두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간성당(干城堂)

재가청 군관(在家廳軍官) 80명을 두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부료청(付料廳)

매월 초하루에 10명을 뽑아 차례로 들어와 숙직하게 하였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교련당(敎鍊堂)

깃발과 북을 담당하는 관리와 활을 담당하는 관리를 각각 2명씩 두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용일당(用一堂)

별장(別將) 2명, 천총(千總) 3명, 파총(把總) 6명이 매월 초하루에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와 숙직하였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도훈도청(都訓導廳)

도훈도(都訓導) 22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172) 심약(審藥) : 조선 때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하던 종9품의 벼슬.

173) 검률(檢律) : 조선 시대에 형조(刑曹) 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되어 사법행정의 실무와 교육에 종사하던 종9품의 벼슬.

공북헌(拱北軒)

무사청(武士廳)이다. 좌열(左列) 222인과 우열(右列) 700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영리청(營吏廳)

영리(營吏) 103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청사에 지금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어 있다.

인리청(人吏廳)

아전[人吏] 307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고원(雇員) 10인을 두었다. 병신년에 혁파되고 지금 서기(書記) 10인이 있다.

소동방(小童房)

지인(知印) 142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지금은 통인(通引) 4인이 있다.

관노방(官奴房)

관노(官奴) 81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사용(使傭) 8인과 사동(使童) 8인을 두었다. 청사는 지금 전보사(電報司)가 되었다. 사용(使傭)은 앞의 중영(中營) 대솔청(帶率廳)으로 옮겨 두었다.

교방(敎坊)

기생(妓生) 35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사령방(使令房)

사령(使令) 78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고 지금 청사(廳使) 15인을 두었다.

군뢰방(軍牢房)

군뢰(軍牢)¹⁷⁴⁾ 50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제승당(制勝堂)

중영(中營)이다. 정해년에 혁파되었고 정유년에 경무서(警務署)가 되었다.

응수당(應酬堂)

지금은 없다.

대솔청(帶率廳)

군관(軍官) 90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청사는 지금 본부의 사용청(使備廳)이 되었다.

도훈도청(都訓導廳)

도훈도(都訓導) 15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사령방(使令房)

사령(使令) 30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군뢰방(軍牢房)

군뢰(軍牢) 30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진영(鎭營)

부의 동문 안에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무용당(撫戎堂)

174) 군뢰(軍牢) : 죄인을 다스리는 군졸.

진영(鎭營)이다. 정유년에 참령(參領)의 장소가 되었다.

속읍(屬邑)

부(府) : 셋으로 대구부 밀양부 인동부이다.

군(郡) : 하나로 청도군이다.

현(縣) : 다섯으로 자인현 경산현 현풍현 창녕현 영산현이다.

군관청(軍官廳)

병방군관(兵房軍官) 2인, 군관 173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도훈도청(都訓導廳)

도훈도(都訓導) 5인, 보(保) 6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영리청(營吏廳)

영리(營吏) 1인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진리청(鎭吏廳)

진무리(鎭撫吏) 21인, 보(保) 5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소동방(小童房)

소동(小童) 9인, 보(保) 4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사령방(使令房)

사령(使令) 25명, 보(保) 7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군뢰방(軍牢房)

군뢰(軍牢) 21명, 보(保) 8명이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심성당(心城堂)

지방대(地方隊)

광서(光緒) 정해년(1887)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이호준(李鎬俊)이 진휼창(賑恤倉)을 중수하여 친군남영(親軍南營)으로 삼았다가 정유년(1897)에 지방대 중대실(中隊室)로 삼았다. 정위(正尉) 1인, 참위(參尉) 1인, 부위(副尉) 1인, 정교(正校) 2인, 참교(參校) 10인, 부교(副校) 15인, 병정(兵丁) 340인, 곡호수(曲號手)¹⁷⁵⁾ 8인이 있다.

전보사(電報司)

무자년에 낙육재(樂育齋)에 창건하였으며 병신년에 이전 감영 관노방(官奴房)으로 옮겨 세웠다. 관원으로는 주사(主事) 1인, 위원(委員) 1인, 서리(書吏) 1인, 사령(使令) 3명, 공두(工頭) 2인, 순변(巡弁) 2인, 순졸(巡卒) 9명이 있었다. 을미년 12월에 폐지되고 다만 주사 1인, 서리 1인, 사령 2명, 공두 1인만 남아 있다. 병신년에 주사 3인, 공두 7인, 보방직(報房直) 1인, 전보부(電報夫) 4인을 다시 두었다.

경무서(警務署)

을미년에 제승당(制勝堂)에 창설하였다.

제승당(制勝堂)

총순(總巡) 2인이 있다.

행정소(行政所)

순검(巡檢) 8인이 있다.

서기소(書記所)

175) 곡호수(曲號手) :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군인.

순검(巡檢) 2인이 있다.

동지소(東支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동소문지소(東小門支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남지소(南支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서지소(西支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서소문지소(西小門支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북지소(北支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본부(本府) 보호소(保護所)

순검(巡檢) 2인이 있다.

신문소(訊問所)

순검(巡檢) 4인이 있다.

감옥소(監獄所)

청사(廳使) 6인이 있다.

주일헌(主一軒)

우체사(郵遞司)이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이전 영리청(營吏廳)에 창설되었다. 관원으로는 사장(司長) 1인, 주사(主事) 1인, 체전부(遞傳夫) 18인이 있다.

누정(樓亭)

하목당(霞鵞堂)

부(府)의 서쪽 낙동강 가에 있다. 현감 이종문(李宗文)이 세웠다.

전귀당(全歸堂)

부의 북쪽 20리에 있다. 효자인 참봉 서시립(徐時立)이 세웠다.

세심정(洗心亭)

금호강 가에 있다. 지난날 도사(都事) 전응창(全應昌)이 세웠다. 지금은 없어졌다.

압로정(狎鷺亭)

부의 북쪽 금호강 가에 있다. 지난날 참판 이영(李榮)이 세웠다.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은 그의 외손으로, 여기에 생도를 모아 의리를 강명(講明)하였다. 지금 중수하였다.

환성정(喚醒亭)

부의 북쪽 금호강(琴湖江) 가에 있다. 태암(苔巖) 이주(李輶)가 세웠다. 공은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두 선생의 문하에서 종유하였고, 도학과 문장으로 세상에 추앙되었으며, 생도들에게 의리를 강론하였다.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선생이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정신은 가을물 같고 마음은 눈 위 달빛 같으며	秋水精神雪月襟
눈썹은 그린 듯 하고 말소리는 쇠소리 같네	芝眉如畫語聲金
충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중망을 얻었고	聰明雋譽傾羣望
빠어나고 고상함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았네	英邁高風起衆欽
왜적 물리치자 하셨으나 재주 이르지 못했 ¹⁷⁶	命與仇謀才未達
곤궁함이 병마로 이어지니 이치 알기 어렵네	窮隨病極理難謀
친한 숙질 관계라 겸하여 정도 도타웠는데	親兼叔姪情蘭契
애통함으로 저승에서 깊은 정 나누세	一慟餘期地下深

사당을 세우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정자는 없어졌다.

아금정(牙琴亭)

부의 서쪽 30리 하남면(河南面) 죽곡리(竹谷里)에 있었다. 이곳은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이 은거해 있던 곳이었다. 공의 아들 낙애(洛涯) 정광천(鄭光天)이 한강 정구 · 여헌 장현광 · 낙재 서사원이 함께 중유한 뜻을 본받아 정자를 짓고, 함께 노닐고 공부하는 선비들과 의리를 밝혔다. 효도와 우애가 남달랐으니 두 세대의 도덕과 문장이 세상에서 높이 추앙되었다. 사당을 세우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정자는 없어졌다.

이락정(伊洛亭)

부의 서쪽 30리 성서면 파산(巴山) 아래에 있다. 이곳은 한강 정선생과 미락재(彌樂齋) 서선생[徐思遠]이 노닐던 곳이다. 임술년에 도내의 사림이 창건하였다. 정자의 동쪽 서재를 모한재(慕寒齋)라고 하고 서쪽 서재를 경미재(景彌齋)라 한 것은 두 선생을 경모(景慕)한 뜻이다. 이천(伊川)은 낙동강이 감돌아 합류되는 곳으로 12경의 형승이 있다.

176) 왜적 ... 재주 이르지 못했고 : 이주(李輶)는 서사원(徐思遠)과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농연정(壟淵亭)

부의 북쪽 부인동(夫仁洞)에 있다. 대암(臺巖) 최동집(崔東集)의 유허지(遺墟地)이다. 5세손 백불암(百弗庵) 흥원(興遠)이 중건하였다.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비문을 지었다.

태고정(太古亭)

부의 서쪽 40리 하서면(河西面) 묘골[妙洞]에 있다. 부총관 박충후(朴忠後)가 세웠다.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가 있다.

도례정(道禮亭)

부의 북쪽 15리 동하면(東下面)에 있다. 소감(少監) 채영(蔡泳)이 노닐며 시를 읊던 곳이다.

추원정(追遠亭)

부의 남쪽 20리 파잠(巴岑)의 무릉동(武陵洞)에 있다. 대봉(大峯, 楊熙止)의 5세손인 송재(松齋) 양세흥(楊世興)이 세웠다. 팔경(八景)이 있다.

사우정(四友亭)

부의 남쪽 60리 각북(角北)의 남산(南山) 아래에 있다. 박규징(朴奎徵)·몽징(夢徵)·태징(泰徵)·성징(聖徵)이 세웠다.

성재정(盛才亭)

부의 북쪽 30리 해북촌(解北村)에 있다. 양전현(兩全軒) 채선견(蔡先見)이 세웠다.

영벽정(映碧亭)

부의 서쪽 40리 낙동강 가에 있다. 사인(士人) 윤인협(尹仁浹)이 세웠다.

금호정(琴湖亭)

부의 동쪽 금호강가에 있다. 사인(士人) 권성윤(權聖允)이 세웠다.

와룡정(臥龍亭)

부의 북쪽 20리 용암(龍巖) 위에 있다. 처사(處士) 남명신(南命新)이 세웠다. 자손인 현령(縣令) 남석로(南碩老)가 중건하였다. 석문(石門) 윤봉오(尹鳳五)가 편액을 썼다.

속계재(涑溪齋)

부의 북쪽 동하면 지평(持平)에 있다. 행휴(行休) 이약채(李若采)가 강학하던 곳이다.

적지정(赤池亭)

부의 동쪽 20리 동촌에 있다. 석병(石屏) 이휴운(李休運)이 세웠다.

용담정(龍潭亭)

부의 북쪽 7리 동중면(東中面) 연암(鰲巖) 아래에 있다. 용담거사(龍潭居士) 서식(徐栻)이 학문을 연마하던 곳이다. 공의 타고난 자질이 영리하고 효우(孝友)가 순수하고 지극하였다. 심재(心齋) 송환기(宋煥箕) 선생의 문하에 수학하여 경전을 깊이 탐구하여 학식이 탁월하였다. 날마다 생도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고 이끌어 주어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우모재(寓慕齋)

부의 동쪽 20리 동촌의 행동(杏洞)에 있다. 류양선(柳養善)이 강학하던 곳이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하였다. 이학(理學)에 정심하였고 더욱 예학(禮學)에 심오하였다. 덕행과 문장으로 추앙받았다. 생도들을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달성재(達城齋)

부의 북쪽 5리 달성 아래에 있다. 가학정(稼學亭) 서유민(徐有敏)이 날마다 생도들과 함께 강학하던 곳이다. 갑술년(1814)에 금석재(金石齋) 이존수(李存秀) 선생이 도내를 안찰할 때 그의 행의와 문장을 아름답게 여겨 10포대의 감영 곡식을 매년 보조로 정하여 매달 강습의 비용으로 삼도록 하였다.

화암정(花巖亭)

부의 서쪽 20리 건법동(建法洞)에 있다. 사인(士人) 백윤채(白允采)가 강학하던 곳이다.

화산정(華山亭)

부의 남쪽 80리 각초동(角初洞)에 있다. 동암거사(桐菴居士) 서경문(徐景汶)이 강학하던 곳이다. 10경을 읊은 시가 있다.

오암재(梧巖齋)

부의 북쪽 20리 해북촌에 있다. 연정(蓮亭) 류요신(柳堯臣)이 강학하던 곳이다. 그의 아들 사월당(沙月堂) 류시번(柳時蕃)이 세웠다.

도로(道路)

서울까지 거리는 670리, 통영(統營)까지는 340리, 병영(兵營)까지는 270리, 수영(水營)까지는 300리, 우병영(右兵營)까지는 270리이다. 동쪽으로 경산의 경계까지 18리, 동남쪽으로 성현역(省峴驛)까지 50리, 남쪽으로 청도의 경계까지 50리, 서남쪽으로 현풍의 경계까지 40리, 서쪽으로 성주의 경계까지 40리, 북쪽으로 칠곡의 경계까지 10리, 동북쪽으로 신녕의 경계까지 50리이다.

교량(橋梁)

달서교(達西橋)는 부의 서쪽에 있다. 병진년에 관찰사 이태영(李泰永)이 돈을 내어 돌다리를 쌓았다. 금호진(琴湖津)은 칠곡의 경계와 통한다. 을축년에 관찰사 김희순(金義淳)이 돈을 내어 작미(作米)로 삼자 칠곡부에서 매년 모미(耗米) 8석 6말 4되를 취하여 다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삼았다. 기축년에 관찰사 정기선(鄭基善)이 별회모(別會耗) 가운데 18석 14말 4되를 매년 보충용으로 정하였다. 검정진(檢汀津)은 경산의 경계와 통한다. 살내[箭灘]는 신녕의 경계와 통한다. 신장진(新場津)은 성주의 경계와 통한다. 이 네 개의 나루는 봄과 여름에는 배로 건너고 가을과 겨울에는 다리를 설치하였다.

도서(島嶼) 없음

제언(堤堰)

송라제(松羅堤) : 동상(東上)에 있다. 둘레가 1,368척(尺)이고 수심(水深)이 3척 2촌이다.

대동제(大同堤) : 동상에 있다. 둘레가 760척이고 수심이 4척이다.

산대제(山大堤) : 동상에 있다. 둘레가 69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대불상제(大佛上堤) : 동중(東中)에 있다. 둘레가 4,295척이고 수심이 5척 3촌이다.

소불상제(小佛上堤) : 동중에 있다. 둘레가 660척이고, 수심이 3척 4촌이다.

길고제(吉古堤) : 동하(東下)에 있다. 둘레가 475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정제(鼎堤) : 동하에 있다. 둘레가 660척이고, 수심이 5척 5촌이다.

적율제(狄栗堤) : 북촌(北村)에 있다. 둘레가 460척이고 수심이 4척이다.

능성제(能城堤) : 북촌에 있다. 둘레가 27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송정제(松亭堤) : 북촌에 있다. 둘레가 51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아로곡제(阿老谷堤) : 서부(西部)에 있다. 둘레가 90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대명제(大明堤) : 서부에 있다. 둘레가 60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적지제(赤地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487척이고 수심이 2척이다.

나리제(羅里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1,230척이고 수심이 3척 5촌이다.
 어리제(於里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580척이고 수심이 4척이다.
 사월제(沙月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1,500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소을제(所乙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60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부곡제(釜谷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1,090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판교제(板橋堤) : 수북(守北)에 있다. 둘레가 1,250척이고 수심이 4척이다.
 사동제(蛇洞堤) : 수북에 있다. 둘레가 515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지계제(枝界堤) : 수북에 있다. 둘레가 1,30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범어제(凡於堤) : 수북에 있다. 둘레가 1,78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주곡제(注谷堤) : 수북에 있다. 둘레가 40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황청제(黃靑堤) : 수동(守東)에 있다. 둘레가 405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황청제(黃靑堤) : 수동에 있다. 둘레가 852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조곡제(照谷堤) : 수동에 있다. 둘레가 60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궂계제(串界堤) : 수동에 있다. 둘레가 882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둔동제(屯洞堤) : 수동에 있다. 둘레가 1,429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봉당제(奉堂堤) : 상수(上守)에 있다. 둘레가 214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원정제(元亭堤) : 하수(下守)에 있다. 둘레가 290척이고 수심이 12척이다. 판관
 김로(金魯)가 쌓았다.
 지치제(地峙堤) : 하수남(下守南)에 있다. 둘레가 497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지
 금은 없어졌다.
 삼정동제(三丁洞堤) : 하수서(下守西)에 있다. 둘레가 1,045척이고 수심이 7척
 이다.
 산대제(山大堤) : 하수서에 있다. 둘레가 675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지계제(地界堤) : 하수서에 있다. 둘레가 30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지금은 없
 어졌다.
 해동제(解東堤) : 하수서에 있다. 둘레가 493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매작동제(梅作洞堤) : 하수서에 있다. 둘레가 33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사평제(沙坪堤) : 하수서에 있다. 둘레가 1,22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판관 김

로(金魯)가 쌓았다.

연신제(蓮信堤) : 서상(西上)에 있다. 둘레가 1,527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연신신제(蓮信新堤) : 서상에 있다. 둘레가 1,370척이고 수심이 3척 9촌이다.

연화제(蓮花堤) : 서상에 있다. 둘레가 1,98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사리제(沙里堤) : 서중(西中)에 있다. 둘레가 1,84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지리곡제(知里谷堤) : 서중에 있다. 둘레가 1,835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구천동제(舊泉洞堤) : 서중에 있다. 둘레가 1,224척이고 수심이 8척이다.

일제(一堤) : 서중에 있다. 둘레가 1,102척이고 수심이 8척이다.

이제(二堤) : 서중에 있다. 둘레가 530척이고 수심이 8척이다.

성당제(聖堂堤) : 달서(達西)에 있다. 둘레가 3,290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감삼제(甘三堤) : 달서에 있다. 둘레가 6,410척이고 수심이 9척이다.

미륵당제(彌勒堂堤) : 달서에 있다. 둘레가 78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신방제(新坊堤) : 달서에 있다. 둘레가 79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괘이방제(掛耳坊堤) : 달서에 있다. 둘레가 34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성당신제(聖堂新堤) : 달서에 있다. 둘레가 632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판관 김로(金魯)가 쌓았다.

칠제(柒堤) : 성서(城西)에 있다. 둘레가 731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율제(栗堤) : 성서에 있다. 둘레가 1,000척이고 수심이 3척 5촌이다.

부모제(夫毛堤) : 성서에 있다. 둘레가 715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수통제(水桶堤) : 성서에 있다. 둘레가 675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신제(新堤) : 성서에 있다. 둘레가 1,60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박곡제(朴谷堤) : 하동(河東)에 있다. 둘레가 390척이고 수심이 1척이다.

세천제(世川堤) : 하동에 있다. 둘레가 1,257척이고 수심이 1척 8촌이다.

방천제(防川堤) : 하동에 있다. 둘레가 480척이고 수심이 1척 8촌이다.

마의곡제(馬衣谷堤) : 하남(河南)에 있다. 둘레가 457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경화제(京火堤) : 하남에 있다. 둘레가 525척이고 수심이 2척 5촌이다.

삼화제(三禾堤) : 하서(河西)에 있다. 둘레가 356척이고 수심이 2척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감문제(甘文堤) : 하서에 있다. 둘레가 436척이고 수심이 2척이다.

도채제(道采堤) : 하서에 있다. 둘레가 792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마천동신제(馬川洞新堤) : 하서에 있다. 둘레가 600척이고 수심이 19척이다. 판관 김로(金魯)가 증축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탄제(灘堤) : 하북(河北)에 있다. 둘레가 434척이고 수심이 4척 5촌이다.

노색제(蘆色堤) : 하북에 있다. 둘레가 48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겸동제(鎌洞堤) : 하북에 있다. 둘레가 1,038척이고 수심이 2척이다.

마천동제(馬川洞堤) : 하북에 있다. 둘레가 1,058척이고 수심이 9척이다.

산대제(山大堤) : 감물천(甘勿川)에 있다. 둘레가 668척이고 수심이 2척 5촌이다.

송현제(松峴堤) : 감물천에 있다. 둘레가 746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죽림제(竹林堤) : 감물천에 있다. 둘레가 526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원지제(院旨堤) : 감물천에 있다. 둘레가 664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대야제(大野堤) : 감물천에 있다. 둘레가 444척이고 수심이 4척이다.

범삼제(凡三堤) : 조암(租岩)에 있다. 둘레가 46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신제(新堤) : 월배에 있다. 둘레가 1,108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우리제(于里堤) : 월배에 있다. 둘레가 522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효성제(曉星堤) : 화원현내(花園縣內)에 있다. 둘레가 757척이고 수심이 8척이다.

마이제(馬耳堤) : 화현내(花縣內)에 있다. 둘레가 700척이고 수심이 1척이다.

지삼제(池三堤) : 화현내에 있다. 둘레가 777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인현제(仁峴堤) : 성평곡(省平谷)에 있다. 둘레가 120척이고 수심이 5척이다.

마비제(馬飛堤) : 인흥(仁興)에 있다. 둘레가 551척이고 수심이 13척이다. 판관 김로(金魯)가 쌓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성재제(聖在堤) : 각현내(角縣內)에 있다. 둘레가 700척이고 수심이 10척이다.

극락제(極樂堤) : 각이동(角二同)에 있다. 둘레가 880척이고 수심이 20척이다.

건촌제(巾村堤) : 각이동에 있다. 둘레가 386척이고 수심이 9척이다.

부곡제(釜谷堤) : 각초동(角初同)에 있다. 둘레가 1,221척이고 수심이 11척이다.

가양제(加陽堤) : 각초동에 있다. 둘레가 330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판관 김로

(金魯)가 쌓았다.

사외제(沙外堤) : 각초동에 있다. 둘레가 510척이고 수심이 8척이다. 판관 김로(金魯)가 쌓았다.

신천언(新川堰) : 부의 남쪽 10리에 있다. 정조 무술년(1778)에 판관 이서(李潑)가 향교터와 읍터에 홍수의 염려가 있어 신천 일대에 높이 2척 가량, 길이 10여 리로 제방을 쌓았다. 제방 위에 언홍정(堰虹亭)을 만들었는데 신축년(1781)에 바람을 만나 쓰러져 버렸다. 무진년(1808)에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고 이공제(李公堤)라 하였다.

낙민제(樂民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1,030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가산제(架山堤) : 동촌에 있다. 둘레가 604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지장동제(地藏洞堤) : 수북(守北)에 있다. 둘레가 1,070척이고 수심이 3척이다.

목평제(木平堤) : 각북(角北)에 있다. 둘레가 521척이고 수심이 11척이다.

우산제(牛山堤) : 각북에 있다. 둘레가 368척이고 수심이 6척이다.

방보(防洑)

지인보(知仁洑) : 동상(東上)에 있다.

신보(新洑) : 동상에 있다.

개보(介洑) : 동상에 있다.

선하보(船下洑) : 동상에 있다.

자을비보(自乙非洑) : 동상에 있다.

무학당보(武學堂洑) : 동상에 있다.

대부리보(大夫里洑) : 동상에 있다.

신보(新洑) : 동중(東中)에 있다.

신양보(新陽洑) : 동중에 있다.

무태보(無怠洑) : 동하(東下)에 있다.

북암보(北巖洑) : 동하에 있다.

길곡보(吉谷洑) : 동하에 있다.

연경보(硯經湫) : 동하에 있다.
 대평보(大坪湫) : 서촌(西村)에 있다.
 지묘보(智妙湫) : 서촌에 있다.
 식목보(植木湫) : 서촌에 있다.
 대보(大湫) : 수동(守東)에 있다.
 유보(柳湫) : 수현내(守懸內)에 있다.
 덕토보(德吐湫) : 수현내에 있다.
 포사정보(抱祀亭湫) : 하수남(下守南)에 있다.
 휴암보(鵠巖湫) : 하수남(下守南)에 있다.
 정대보(亭代湫) : 상수서(上守西)에 있다.
 당산보(堂山湫) : 상수서에 있다.
 가전보(家前湫) : 상수서에 있다.
 유곡보(楡谷湫) : 상수서에 있다.
 아을오평보(阿乙吾坪湫) : 상수서에 있다.
 제인당보(濟人塘湫) : 상수서에 있다.
 사랑보(沙樑湫) : 하수서(下守西)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대야보(大也湫) : 서상(西上)에 있다.
 임연보(臨淵湫) : 서중(西中)에 있다.
 삽연보(鎗淵湫) : 서중에 있다.
 금당보(金堂湫) : 서중에 있다.
 신보(新湫) : 서중에 있다.
 대곡보(大谷湫) : 인흥(仁興)에 있다.
 대중보(大中湫) : 인흥에 있다.
 우리보(于里湫) : 월배에 있다.
 상구라보(上仇羅湫) : 화현내(花懸內)에 있다.
 대평보(大坪湫) : 옥포(玉浦)에 있다.
 목평보(木坪湫) : 각북(角北)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금곡보(金谷湫) : 각북에 있다.
 나립보(羅立湫) : 각북에 있다.

북별보(北別湫) : 각북에 있다.
 장북보(牆北湫) : 각북에 있다.
 상덕보(上德湫) : 각이동(角二同)에 있다.
 진정보(眞亭湫) : 각이동에 있다.
 국우보(國宇湫) : 각이동에 있다.
 지경보(地境湫) : 각초동(角初同)에 있다.
 금산보(金山湫) : 각초동에 있다.
 우막보(牛幕湫) : 각초동에 있다.
 원당보(元堂湫) : 서부(西部)에 있다.
 북평보(北坪湫) : 서부에 있다.
 가리보(加利湫) : 서부에 있다.
 태종정보(太宗亭湫) : 서부에 있다.
 가자부리보(加自夫里湫) : 서촌에 있다.
 송부리보(松夫里湫) : 서촌에 있다.
 오곡부리보(五谷夫里湫) : 서촌에 있다.
 주동보(蛛洞湫) : 상수남(上守南)에 있다.
 전지보(田地湫) : 상수남에 있다.
 상보(上湫) : 상수남에 있다.
 중보(中湫) : 상수남에 있다.
 하보(下湫) : 상수남에 있다.
 사근보(沙斤湫) : 상수남에 있다.
 신보(新湫) : 상수남에 있다.
 양동보(良洞湫) : 상수남에 있다.
 지장보(地藏湫) : 상수남에 있다.
 삼천보(三千湫) : 상수남에 있다.
 매하보(梅下湫) : 하수남(下守南)에 있다.
 동하보(東下湫) : 하수남에 있다.
 냉천보(冷泉湫) : 하수남에 있다.
 지인보(知印湫) : 하수서(下守西)에 있다.

패보(貝湫) : 서중(西中)에 있다.
 녹갈보(綠葛湫) : 조암(租巖)에 있다.
 대천보(大泉湫) : 월배에 있다.
 임휴보(臨休湫) : 월배에 있다.
 대보(大湫) : 화현내(花縣內)에 있다.
 어화룡보(於火龍湫) : 성평곡(省平谷)에 있다.
 송지보(松旨湫) : 각북에 있다.
 조율보(早栗湫) : 각현내(角縣內)에 있다.
 천정보(天井湫) : 각현내에 있다.
 외가보(外加湫) : 각현내에 있다.
 너리토보(牢里吐湫) : 각현내에 있다.
 양부리보(楊夫里湫) : 각현내에 있다.
 신부리보(新夫里湫) : 각현내에 있다.
 조산보(造山湫) : 각현내에 있다.
 칠평보(柒坪湫) : 각이동(角二同)에 있다.
 지제보(知堤湫) : 각이동에 있다.
 중보(中湫) : 각이동에 있다.

장시(場市)

시장을 연 곳이 열 군데이다. 일곱 곳은 남아 있고 세 곳은 없어졌다.

읍장(邑場)

부의 서쪽으로 2리 떨어진 서상(西上)에 있다. 매월 2일과 7일에 열리는 장이다.

화원장(花園場)

부의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화현내(花縣內)에 있다. 매달 3일과 8일에 열리는

장이다.

하빈장(河濱場)

부의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하북(河北)에 있다. 매달 5일과 10일에 열리는 장이다.

범어장(凡於場)

부의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수북(守北)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오동원장(梧桐院場)

부의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하수남(下守南)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풍각장(豐角場)

부의 남쪽으로 70리 떨어진 각현내(角縣內)에 있다. 매달 1일과 6일에 열리는 장이다.

해안장(解顔場)

부의 북쪽으로 70리 떨어진 해서부(解西部)에 있다. 매달 5일과 10일에 열리는 장이다.

무태장(無怠場)

부의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동하(東下)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백안장(百安場)

부의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해북촌(解北村)에 있다. 매달 3일과 8일에 열리는 장이다.

신장(新場)

남문 밖에 있다. 매달 4일과 9일에 열리는 장이다. 신해년에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 동문 밖 신동(新洞)으로 옮겼다.

역(驛)

4개 역(省峴道에 속함)과 1개 원(院)

범어역(凡於驛) : 부의 동쪽 9리에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금천역(琴川驛) : 부의 서쪽 30리에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설화역(舌化驛) : 부의 서남쪽 30리에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유산역(幽山驛) : 부의 남쪽 70리에 있었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낙중역(洛中驛) : 부의 남쪽 3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대로원(大櫓院) : 부의 서쪽 6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사구원(沙丘院) : 부의 서쪽 1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관방원(觀方院) : 부의 서쪽 2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마천원(馬川院) : 부의 서쪽 3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남천원(南川院) : 부의 서쪽 3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오동원(梧桐院) : 부의 남쪽 30리에 있다. 남으로는 청도 오서참(烏棲站)까지 40리에 이르고, 북으로는 칠곡 고평참(高平站)까지 50리에 이른다.

박곡원(朴谷院) : 부의 서쪽 26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목장(牧場)

없음. 말 3필을 나누어 길렀다. 말 먹이는데 따르는 대전(代錢) 114냥 9전을 무오년부터 매년 10월에 사복시(司僕寺)에 상납하였는데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형승(形勝)

낙동강과 금호강이 감싸듯 돌면서 합류하니 서남쪽으로 띠처럼 둘러고, 비슬산

과 최정산(最頂山)이 수려하게 두루 겹쳤으니 동남쪽에서 절하는 듯하다. 팔공산이 그 북쪽을 누르고 신천(新川)이 그 동쪽을 감돌다가 금호강물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곳에서 합류한다.

고적(古蹟)

동수(桐藪)

부(府)의 북쪽 팔공산에 있다. 견훤의 난리에 고려 태조가 단신으로 적병을 피하여 푸른 숲에 숨었다가 염불하였다. 암자에 입석(立石)이 있으므로 그 위에 앉았더니, 암자의 스님이 나와서 “이 돌은 일인석(一人石)인데 누가 와서 앉았는가?”라고 하였다. 태조가 “군사가 패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하니, 스님이 맞아들이면서 귀로(歸路)를 가리켜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일인석이라 이름하였다.

공산성(公山城)

부의 동쪽으로 50리 밖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560척이고 높이가 4척이다. 2개의 샘과 3개의 도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미리사(美理寺)

해안현(解顔縣)에 있다. 어떤 사람은 미리(美理)가 곧 해안(解顔)의 이름이라고 한다. 견훤이 신라의 도성 밖을 죄어 오자 경애왕이 고려에 구원을 청하였다. 견훤이 갑자기 경주에 침입하여 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왕위에 올리고, 국탕(國帑)의 진보(珍寶), 무기, 자녀, 백공(百工)을 취하여 자신이 거느리고 돌아갔다. 고려 태조가 정병 5천을 거느리고 미리사(美理寺) 앞에서 견훤을 기다렸다. 큰 싸움에 힘이 다하자 장군 신승겸이 어거(御車)를 대신 타고 나아가서 항복하니, 견훤이 불태워 죽였고 이 때 김락(金樂)도 따랐다. 태조는 겨우 빠져나와 도성으로 돌아온 뒤 목숨 바쳐 죽은 곳에 절을 세우고 연등을 달고서 제사지냈다. 수층의 백탑(白塔)만 우뚝 남아 있고 절은 지금 없어졌다.

자이소(資已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성불산(成佛山) 고성(古城)

수성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화원현(花園縣)

부(府)의 서쪽 30리 밖에 있다. 본래 신라의 설화현(舌化縣)이다. 경덕왕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수창군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현종 때에는 성주의 속현이 되었고, 뒤에 본부(本府)의 속현이 되었다가 다시 성주의 속현이 되었다. 또 다시 본부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성주의 속현이 되었고, 지금은 본부의 속현이다. 옛날에 인흥사(仁興寺)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숙종 을축년(1685)에 감사 서문중(徐文重)이 장계를 올려 본 현의 군자미곡(軍資米穀)을 비축하게 하였고, 세조 때 특별히 창사(倉舍)를 세워 왜국(倭國) 사신이 갖고 오는 동철(銅鐵)과 소목(蘇木) 등의 잡물(雜物)을 모두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였다가 지출하여 쓰게 하였다. 지금은 다만 환곡(還穀) 창고가 되었다.

성산(城山)

화원의 북쪽 5리에 있다. 작은 산이 큰 강을 베개 벤 듯한데 그 위는 평평하고 넓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신라왕이 꽃을 완상하던 곳이라 하니, 인하여 화원(花園)이라 부른다.

동서(東西)에 옛 무덤이 있는데 높이와 크기가 언덕 같은 것이 10여 개나 된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국의 왕릉이라고 한다. 그 아래에 금강정(錦江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옛터만 남아있다. 금성(錦城)이라 부르기도 한다. 북쪽에 상국리(上國里)와 세자지(世子旨) 등의 지역이 있으니, 모두 신라왕이 거동하여 장막을 펼쳤던 곳이다. 지금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금계대방산(金鷄大方山)과 법화선혜동(法化宣惠洞)이 있으니, 세인들이 그 이름을 기이하게 여긴다.

대견사(大見寺)

부(府)의 남쪽 성평곡(省平谷)에 있다. 그 곳에 조화봉(照華峯)이 있고, 산봉우리 위에 최치원의 유적이 있으며, 샘 하나가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용사(龍寺)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용봉사(龍鳳寺)

신라 흥덕왕 을묘년(835)에 해구(海寇)가 출몰하여 왕이 크게 근심하였다. 왕의 꿈에 이인(異人)이 공중에서 부르며 말하기를, “서역 땅 월씨국(月氏國)에서 네 개의 금불(金佛)을 만들어 석함(石函)에 담아 바다에 띄웠는데 중국을 넘어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어 맞이하여 동래의 금정산(金井山) 아래에 안치하고, 7일간 밤낮으로 화엄경을 읽으면 향화동자(香火童子) 40명이 나와서 반드시 신명의 도움으로 왜구의 칼날을 막아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동해가에서 기다리니 과연 석선(石船)이 네 개의 금불(金佛)을 실고 정박하였는데, 한 몸에 천 개의 손이 달린 금불이었다. 왕이 기이하게 여기고 한결같이 꿈속에서 가르친 대로 하자 적병이 과연 물러갔다.

임진년 변란에 왜적이 절을 불사르고 금불(金佛)을 끌어내자 그 금불의 발에서 피가 나왔다. 이때 왜적은 곧 피를 토하면서 죽었고 불도 저절로 꺼져버렸으니, 세상에서 신령의 이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의 대산사(臺山寺)가 이것이다.

선사(仙槎)

하서(河西)의 하빈(河濱) 금호강 가에 있다. 문창후 최치원이 노닐며 쓴 곳이다. 난가대(爛柯臺)·무릉교(武陵橋)·세연지(洗硯池)가 있기 때문에 선사(仙槎, 신선이 타는 뗏목)라고 부른다. 뒷날 이강서원(伊江書院)을 세웠다.

쌍학산(雙鶴山)

부(府)의 남쪽 인흥면(仁興面)에 있다. 처음에는 쌍학리라 하다가 중간에는 쌍학사라고 하였다. 지금은 쌍학리(雙鶴里)라고 한다. 석탑이 논 가운데에 서 있

다.

이문(異聞)

김충선(金忠善)은 일본인이다. 본성이 사(沙)이고 이름은 야가(也可)였는데, 항상 예의의 나라에 태어나서 예절을 갖춘 선비와 훌륭한 문물의 교화 입기를 원하였다.

만력(萬曆) 임진년에 가등청정의 우선봉장이 되었는데, 병사 3천 명을 거느리고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투항하였다. 김응서가 장계를 올려 아뢰자 선조(宣祖)께서 불러들여 보시고는 절충(折衝)에 제수하고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였다. 증성(甌城)의 전투에 참가하여 왜적 5백여 급(級)을 베니,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어 임금이 특별히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과 이름을 내려주고, 그의 군사들을 수어호위친군(守禦扈衛親軍)에서 거느리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조총(鳥銃)이 없었으나 김충선으로 인하여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비로소 조총을 만들었으니, 팔도의 군기(軍器)에 조총이 갖추어 진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갑자년(1624)에 반역한 이괄의 비장(裨將) 서아지(徐牙之)는 용맹과 힘이 있었다. 그가 달아나서 숨으니 누구도 감히 잡지 못했으나, 충선(忠善)이 낙동강 나루에서 잡아 조정에 바쳤다. 그래서 조정에서 서아지(徐牙之) 소유의 전지와 백성을 내려주었으나 사양하여 받지 않고 수어청(守禦廳)에 귀속시키니, 둔전(屯田)으로 삼았다.

북방에 변란이 자주 일어나자 10년 동안 변경을 지키기를 청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체찰사가 장계를 올려 보고하자 인조께서 기특하게 여기고 정헌대부(正憲大夫)로 품계를 올려주었다.

또 병자년(1636)에 북쪽 삭녕(朔寧)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나라에서 그가 교화를 따라 의리로 돌아온 정성과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마음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그 자손에게 복호(復戶)를 내려주고 수남면(守南面) 우록리(友鹿里)에서 살게 하였다. 그의 사적(事蹟)은 봉조하(奉朝賀) 서종급(徐宗汲)이 지은 김씨 족보 서문에 상세히 실려 있다.

의로운 누이 이씨[義姊 李姓]

부친이 병들어 밖에 우거하자 모친이 죽을 끓여 부친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씨는 12살의 아이로 젖먹이 동생을 안고 힘이 약해 밖으로 나올 수 없자 몸으로 덮어 겨우 동생을 구하고 자신은 불에 타 죽었다. 판관 조종순(趙鍾淳)이 묘비에 새기기를, “감라(甘羅)¹⁷⁷와 같은 나이로 섭앵(聶嬰)¹⁷⁸의 지조를 실천하였네. 동생 대신 죽은 것은 부모의 후사를 잇기 위함이라네.”라 하였다.

호장(戶長) 이재창(李再昌)

대대로 아전으로서 공무에 청렴하고 신중하니 읍민들이 비석을 세워 다음과 같이 새겼다.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고	盡心奉公
정성을 넓혀 만물을 사랑하였네	推誠愛物
백성을 인자함으로 품으니	懷民以仁
그 덕성 맑고 깨끗하였네	清白其德
아! 이 사람이여	歆歟伊人
지금에도 예전에도 으뜸이라네	冠今邁昔
무엇으로 은덕에 보답하리오	何以報之
한 조각 이 돌에다 새기노라	一片斯石

177) 감라(甘羅) : 전국 시대 진(秦)나라 사람인 감무(甘茂)의 손자로, 여불위(呂不韋)의 가신(家臣)이었다. 일찍이 여불위에게 등용되어 12세 때 조(趙)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조나라를 설득하여 다섯 개의 성을 할양받고 연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영토를 획득하였다. [史記 卷71 甘茂列傳]

178) 섭앵(聶嬰) : 섭정(聶政)의 누이. 전국시대 한(韓)의 자객(刺客) 섭정이 한경(韓卿)인 엄중자(嚴仲子)를 위하여 한(韓)의 승상 협루(俠累)를 죽이고 자신도 얼굴 가죽을 벗겨 자살하니,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누이가 그 말을 듣고는 “우리 아우가 지극히 어지니, 내 몸을 아끼어 그 이름을 없앨 수 없다.” 하고, 곧 가서 시체를 안고 울며 “나의 아우 섭정이다.” 하고, 자신도 시체 옆에서 자살하였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聶政]

토산(土産)

오징어·은구어(銀口魚)·황어·백복령·감·해송자[海松子, 지금은 없음]·송이버섯·죽전[竹筴, 지금은 없음]·호도(胡桃)·입초(笠草)·지황·잉어·지초(芝草)·웃·석류·구기자·인삼[지금은 없음]·우슬(牛膝)

진공(進貢)

인삼·백출·백작약·적작약·천남성·산약은 2월 초3일에 내의원에 바치고, 포황(蒲黃) 2냥은 6월 15일에 내의원에 바치고, 인삼·백출·백작약·적작약·구기자·속수자(續隨子)·감국(甘菊)·시호(柴胡)·과루인(瓜蒌仁)·모과·모향(茅香)·천남성(天南星)은 10월 초3일에 내의원에 바치고, 단오 건치[乾雉, 지금은 없음]·동지 생치(生雉)는 10월에 받들어 영문(營門)에서부터 사옹원에 바친다.

봉름(俸廩) 179)

사객에게 대주던 쌀[使客支應米] 95석.

아록위(衙祿位) 90결(結), 쌀 20석.

공수위(公須位) 15결, 쌀 9석 3말.

관수미(官需米) 340석.

아사수(亞使需) 50석.

아사수는 갑술년에 시행하지 않았고 사객수(使客需)는 무진년에 경관(京關) 180)으로 절반을 상납하고 절반은 사객수의 노자(路資)에 사용하였다. 을미년에 모두 혁파되었다.

179) 봉름(俸廩) : 관리에게 주는 봉급.

180) 경관(京關) : 서울에서 내려온 공문.

환적(宦蹟)

본조(本朝)

금유(琴柔)·옥고(玉沽) : 모두 군수였다. 군의 아전인 배설(裴泄)은 기지가 있고 총명하였으나 사람됨이 교활하여 법을 멋대로 남용하니, 수령들이 대부분 그에게 기대어 정치를 하였다. 배설이 만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전후의 수령들은 내가 모두 거느리고 살았는데, 오직 금유와 옥고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였다.

신엄(申儼)·이현보(李賢輔) : 청백(淸白)과 선정(善政)으로 가장 드러났다.

정경세(鄭經世) : 임진왜란에 사농(士農)이 생계를 잃게 되자, 문아(文雅)한 정치를 숭상하여 고을의 교화를 일으켰고, 농사짓고 누에치는 정치에 힘써 백성들이 의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박응천(朴應川) : 신명(神明)한 정치를 하였다고 한다.

신처화(申處華) : 맑고 간이(簡易)한 정치에 힘쓰고, 선비답고 바른 다스림을 숭상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웠으나 조정의 명으로 훼손되었다.

이징해(李徵海) : 계미년 9월에 부임하여 병술년 8월에 교체되었다. 갑신년·을유년의 흉년에 백성을 구휼함으로써 당상(堂上)의 지위에 올랐다.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웠으나 조정의 명으로 훼손되었다.

유명악(俞命岳) : 엄정하고 명확한 다스림을 숭상하였고,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에 힘썼다. 자신의 녹봉을 내어 석빙고를 쌓아서 크게 백성의 병을 구제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여 유애사(遺愛祠)를 세웠으나, 신유년에 조정의 명으로 훼손되었다.

이협(李峽) : 을묘년 4월에 부임하였다. 자식을 돌보듯이 은혜로운 정치를 행하고 유가의 가르침에 젖는 교화를 펴니, 대신이 조정에 아뢰어 그대로 재임하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여 생사당을 세웠으나 조정의 명으로 훼손되었다.

영선생(營先生)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로부터 제왕이 백성과 근심을 함께 하여 교화를 펼칠 때

반드시 사신(使臣)을 보내 그 일을 맡게 하였다. 삼대(三代)에 명령한 바는 “그대가 임지에 부임하여 삼가 사방의 일을 조화롭게 하라”는 것이었고, 주나라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할 때 민간 가요를 통하여 정치의 득실을 풍자하게 하였다. 한나라는 직지수의(直指繡衣)¹⁸¹⁾를 보내 주군(州郡)에 위엄을 떨치게 하였고, 당나라는 절도사를 파견하면서 다시 행대(行臺)¹⁸²⁾의 권한을 주었다. 송나라는 관찰사를 두고 또한 출입할 때 노력을 균등하게 하는 뜻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일을 상고해 보면, 고려 초에는 재상을 파견하여 제도절제사(諸道節制使)로 삼았는데 한 지방의 정사를 독단으로 처리하여 출척(黜陟)¹⁸³⁾의 권한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에 3품 이하의 관원으로 도부서사(都部署使)·안찰사·안렴사의 소임을 맡겨 여러 가지 일을 밝게 살피도록 하였으니, 그들의 소임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자 원수(元帥)로부터 방진(方鎭), 목사, 부사에 이르기까지 안렴사를 대함에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품계가 낮고 절조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싫어하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바 없이 직책을 수행함에 삼가 하지 않았다. 안렴사가 된 자도 한갓 문서와 금전과 곡식을 돌보는 일에만 매이고 그 출척(黜陟)의 권한을 시행하지 못했으니, 그 직책의 위풍이 점점 쇠퇴하여 한 잔의 물이 하늘을 뒤덮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 태조께서 무진년 거의(舉義)¹⁸⁴⁾ 후에 폐정(弊政)을 새롭게 하고자 양부(兩府) 이상으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삼고, 조정의 관원을 가려 경력도사(經歷都事)를 삼아 군민(軍民)의 일을 통괄하여 살피게 하였으니, 이는 전최(殿最)¹⁸⁵⁾를 밝히는 방법이었다. 2품 이상은 감옥에 가두어 두고 조정에 처분을 청하게 하였고, 3품 이하는 법에 의하여 직접 처단하게 하였다. 또한 안렴사를 두어

181) 직지수의(直指繡衣) : 직지(直指)는 한나라 무제 때의 관명(官名)으로 암행어사. 비단옷을 입었기 때문에 직지수(直指繡衣)라고 함.

182) 행대(行臺) : 군사가 출정할 때, 주둔지에 설치하는 중앙의 행정기구.

183) 출척(黜陟) :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함.

184) 무진년 거의(舉義) : 1388년에 있었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185) 전최(殿最) : 각 고을 수령(守令)의 치적을 조사하여 우열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말한다. 치적을 고과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교대로 파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로부터 무너진 기강이 진작되어 오늘 같은 태평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는가?

나는 보잘 것 없는 자질을 지닌 사람으로 외람되어 중책을 받들게 되었다. 그래서 전현(前賢)의 통적(通籍)을 다른 체재로 정리하고자 하여 전해 오는 문적을 찾았으나 모두 왜적으로 인하여 민멸되었다고 한다. 본영(本營)인 경주에 명하여 공사(公私)의 문적을 수집하게 하니, 주부(主簿) 손희(孫熙)가 집에 보관하던 기록을 가지고 왔다. 지금 다행히 이를 얻어서 통적(通籍)을 만드니, 위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보를 기록하고 아래로는 관리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영주제명기(營主題名記)라 부르고, 2부를 정서하여 한 부는 본영(本營)에 보관하고 한 부는 행영(行營)에 두어 뒷날 상고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아! 재상의 직분은 임금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관리의 임무는 임금의 은택을 받들어 덕을 펼치는 것이니, 여기에 정치의 득실과 백성의 고락이 달려 있는 것이다. 역대의 치란(治亂)과 이 직책을 둔 이유에 대하여 삼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대의 옳고 그름을 살펴 오늘의 일에 아름답게 시행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채록하여 이름 붙인 것이 어찌 뒷날의 군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나 또한 이름이 등재되어 이 책 가운데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에 얼굴이 붉어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서문을 쓴다.

황명(皇明) 홍희(洪熙) 원년(元年, 1425) 윤 7월 병진일에 경재(敬齋) 진양하연(河演) 연량(淵亮)이 쓴다.

중수발문(重修跋文)

시조영부(寺曹營府)¹⁸⁶⁾에 선생안(先生案)¹⁸⁷⁾이 있음은 오래 되었으니, 안으로는 각사(各司)로부터 밖으로는 방진(方鎭)에 이르기까지 선생안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전란을 겪은 뒤로 공사(公私)의 문적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

186) 시조영부(寺曹營府) : 중앙의 행정단위인 시(寺)와 조(曹), 지방의 행정단위인 영(營)과 부(府).

187) 선생안(先生案) : 관청에 임명된 책임자의 명단.

고, 경외(京外)의 선생안은 단지 몇 백년 간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매년 그 나머지에 대하여 징험할 길이 없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기해년에 아우 명항(命恒)이 영남지방의 안찰사가 되자 내가 글을 보내고 수레를 따라 오게 되었다. 본도의 영주안(營主案)을 취하여 살펴보니, 실로 송나라 신종 원풍(元豐) 원년, 곧 고려 문종 33년에서 시작되었다. 그 세월을 헤아려보면 거의 천년에 가까우니, 이 책이 어찌 귀하지 않으며 미덥지 않겠는가?

영남은 문헌의 지방이다. 서로 애호하여 손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이 전해진 것이다. 다만 이 영주안(營主案)은 종이가 낡고 글자가 이지러졌기에 보는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내가 도백(道伯)을 돌아보며 “이것은 보배롭고 완미할 만한 책입니다. 어찌 또한 중수(重修)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도백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마침내 새롭게 간행한다면 뒷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손볼 것이니, 영남의 산천과 함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책이 이루어지자 도백이 나에게 발문을 청하였다. 내가 무자년과 병신년 두 해에 걸쳐 경상도 안찰사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모두 유고(有故)로 달려가지 못하였으니, 도백이 청한 까닭은 어찌 내가 두 번이나 임명을 받았는데도 이 영주안(營主案)에 이름을 신지 못함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 옛날 한창려(韓昌黎, 韓愈)가 등왕각기(滕王閣記)를 지으면서 자기 이름이 그 위에 실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이 영주안을 돌아보니 어질고 이름난 신하들의 발자취가 서로 이어져 있는데 나 또한 그 사이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니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드디어 사양하지 않고 즐거이 발문을 쓴다.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후 기해년(1659)에 수양(首陽) 오명준(吳命峻) 보경(保卿)이 발문을 쓰다.

도부서사(都部署使)

이제원(李齊元) : 송나라 신종 원풍(元豐) 원년(1078), 요나라 도종(道宗) 대강(大康) 4년 무오년(1078)에 재임(在任)하였다.

노사상(盧師像) : 고려 문종 33년 기미년(1079) 춘하(春夏)에 재임하였다.
 김수(金壽) : 기미년(1079) 추동(秋冬)에 재임하였다.
 김의중(金義仲) : 경신년(庚申年) 춘하에 재임하였다.
 백거청(白居易) : 경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임연소(任延邵) : 신유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왕승명(王承命) : 신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강백지(康白之) : 임술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충눌(金忠訥) : 임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양영충(梁榮冲) : 문종이 죽고 순종이 즉위한 지 4달 만에 죽자 선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 해 계해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조간충(趙簡冲) : 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수향(朴收向) : 갑자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인(崔駟) : 갑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순원(李順元) : 요나라 도종 대안(大安) 을축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남궁란(南宮蘭) : 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우정(金禹廷) : 송나라 철종 원우(元祐) 병인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홍석민(洪錫民) : 병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유근(崔惟謹) : 정묘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류장(柳莊) : 정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송덕선(宋德先) : 무진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정운(金鼎雲) : 무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양훈(崔揚訓) : 기사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문경신(文景臣) : 기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공익(崔公翊) : 경오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계응(李繼應) : 경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송공보(宋公甫) : 신미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권창(權暢) : 신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류장(柳莊) : 임신년(1092)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최방준(崔方俊) : 임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윤계형(尹繼衡) : 선종이 죽고 헌종이 즉위한 계유년(1093)에 재임하였다.

박상부(朴尙夫) : 송나라 철종 소성(紹聖) 원년 갑술년(1094)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수신(崔守臣) : 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석송현(石崇現) : 요나라 도종 수창(壽昌) 원년 을해년(1095)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계응(李繼應) : 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공익(崔公翊) : 병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양류간(楊柳間) : 정축년(1097) 춘하에 재임하였다.

고영신(高令臣) : 정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견수(李堅守) : 송나라 철종 원부(元符) 원년 무인년(1098) 춘하에 재임하였다.

문관(文冠) : 무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양호(楊顥) : 기묘년(109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재(李載) : 기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허경(許景) : 경진년(1100)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자공(安子公) : 경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선영(李善英) : 송나라 휘종 건중(建中) 원년 신사년(1101), 요나라 예왕(豫王) 건통(乾統) 원년(1101)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현원(朴現元) : 신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자정(金子廷) : 송나라 휘종 승녕(崇寧) 원년 임오년(1102) 춘하에 재임하였다.

한상(韓相) : 임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복유(崔福儒) : 계미년(1103)에 재임하였다.

박상부(朴尙夫) : 갑신년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이기(李琦) : 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한준(韓俊) : 숙종이 죽고 예종이 즉위한 을유년(1105)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복유(崔福儒) : 을유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윤우상(尹禹相) : 병술년(1106) 춘하에 재임하였다.

서우(徐祐) : 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지록연(智祿延) : 송나라 휘종 대관(大觀) 원년 정해년(1107)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해(尹諧) : 정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진경(李晉卿) : 무자년(1108) 춘하에 재임하였다.

고진명(高晉明) : 무자년 추동에 재임하다.

박신현(朴申現) : 기축년(110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충린(李寵叢) : 기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유인(李惟駟) : 경인년(1110) 춘하에 재임하였다.

허지기(許之奇) : 경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유(崔儒) : 송나라 휘종 치화(致和) 원년 신묘년, 요나라 예왕 천경(天慶) 원년(1111)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해(尹諧) : 신묘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안찰사(按察使)

한중(韓仲) : 임진년(1112) 춘하(春夏)에 재임하였다.

최자성(崔資成) : 임진년 추동(秋冬)에 재임하였다.

이유인(李惟駟) : 계사년(1113)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최유(崔儒) : 계사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민세린(閔世叢) : 갑오년(1114)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진경(李晉卿) : 갑오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유양현(劉揚現) : 을미년(1115) 춘하에 재임하였다.

양영(梁永) : 을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보신(金輔臣) : 병신년(1116)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염(宋琰) : 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응문(鄭應文) : 정유년(1117)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보신(金輔臣) : 정유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백이종(白易宗) : 송나라 휘종 중화(中和) 원년 무술년(1118) 춘하에 재임하였

다.

이상(李像) : 무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양영(楊永) : 송나라 휘종 선화(宣化) 원년 기해년(1119) 춘하에 재임하였다.

진숙(陳叔) : 기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백이종(白易宗) : 경자년(1120)에 다시 재임하였다.

최홍략(崔弘略) : 경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장양(李長陽) : 신축년(1121) 춘하에 재임하였다.

정준후(鄭俊侯) : 신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안직승(安稷崇) : 예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한 임인년(1122) 춘하에 재임하였다.

임존(林存) : 임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경린(朴景麟) : 계묘년(1123)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이(李頤) : 계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양제보(梁齊寶) : 갑진년(1124) 춘하에 재임하였다.

서남영(徐南永) : 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홍략(崔弘略) : 을사년(1125) 춘하에 재임하였다.

노원승(盧元崇) : 을사년 추동에 재임하다.

강영준(康英俊) : 송나라 함종(欽宗) 정강(靖康) 원년 병오년(1126) 춘하에 재임하였다.

황보양(皇甫讓) : 병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점(鄭漸) : 송나라 고종 건염(建炎) 원년 정미년(1127) 춘하에 재임하였다.

임원순(任元順) : 정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중(李仲) : 무신년(1128)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식(安軾) : 무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홍원(崔弘元) : 기유년(1129)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언이(尹彦頤) : 기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택(金擇) : 경술년(1130)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지저(李之著) : 경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하기(河器) : 송나라 고종 소흥(紹興) 원년 신해년(1131) 춘하에 재임하였다.

황보허(皇甫許) : 신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준의(鄭俊宜) : 임자년(1132) 춘하에 재임하였다.
 정지상(鄭知常) : 임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황보양(皇甫讓) : 계축년(1133)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윤숙(崔允叔) : 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인실(李仁實) : 갑인년(1134) 춘하에 재임하였다.
 문공윤(文公允) : 갑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안식(安軾) : 을묘년(1135)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영석(金永錫) : 을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왕정섭(王廷燮) : 병진년(1136) 춘하에 재임하였다.
 원준(元俊) : 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원미(李元美) : 정사년(1137)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함(金咸) : 정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정(金靖) : 무오년(1138)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의(尹諲) : 무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유봉(劉逢) : 기미년(1139)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함(金咸) : 기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술중(崔述中) : 경신년(1140)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중제(李仲齊) : 경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자영(崔子英) : 금나라 희종(熙宗) 황통(皇統) 원년(1141) 춘하에 재임하였
 다.
 곽동순(郭東珣) : 신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양승(李陽升) : 임술년(1142)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칭(崔稱) : 임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귀부(金龜夫) : 계해년(1143) 춘하에 재임하였다.
 고영부(高瑩夫) : 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사영(崔思永) : 갑자년(1144)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정수(安正修) : 갑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조진약(曹晋若) : 을축년(1145) 춘하에 재임하였다.
 임중(林仲) : 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임경(林敬) :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한 병인년(1146)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유(金諭) : 병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원장(李元長) : 정묘년(1147) 춘하에 재임하였다.
 조가인(趙可仁) : 정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사영(崔思永) : 무진년(1148)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신숙(申叔) : 무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광승(李光升) : 기사년(1149) 춘하에 재임하였다.
 신숙(申叔) : 기사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고영부(高瑩夫) : 경오년(1150)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민각(閔角) : 경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허순(許純) : 신미년(1151)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양(金陽) : 신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수전(崔守全) : 임신년(1152)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인첨(尹麟瞻) : 임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인유(金仁諭) : 계유년(1153) 춘하에 재임하였다.
 서공(徐公) : 계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지심(李知深) : 갑술년(1154)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누백(崔婁伯) : 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양신(李陽伸) : 을해년(1155)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황문(金黃文) : 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사효(金思孝) : 병자년(1156)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누백(崔婁伯) : 병자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서공(徐恭) : 정축년(1157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오중정(吳中正) : 정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존부(金存夫) : 무인년(1158)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광중(金光中) : 무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육화(朴育和) : 기묘년(1159) 춘하에 재임하였다.
 오중정(吳中正) : 기묘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박회준(朴懷俊) : 경진년(1160)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우명(金遇明) : 경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윤인첨(尹麟瞻) : 금나라 세종 대정(大定) 원년(1168)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문저(李文著) : 신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돈(李敦) : 임오년(1162)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존부(金存夫) : 임오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정인수(鄭仁壽) : 송나라 효종 융흥(隆興) 원년 계미년(1163) 춘하에 재임하였
 다.
 고진준(高陳俊) : 계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허세수(許勢修) : 갑신년(1164) 춘하에 재임하였다.
 한경(韓經) : 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한너필(韓賴弼) : 송나라 효종 건도(乾道) 원년(1165)에 재임하였다.
 조화(趙華) : 병술년(1166)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광서(金光紱) : 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장사우(張思祐) : 정해년(1167)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정요(朴庭堯) : 정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필서(金必瑞) : 무자년(1168) 춘하에 재임하였다.
 소양우(蘇良遇) : 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문저(李文著) : 기축년(116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자선(李子先) : 기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양문영(梁文瑩) : 의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한 경인년(1170) 춘하에 재임하였다.
 서추(徐誡) : 경인년 추동(秋冬)에 재임하였다.
 박진(朴晉) : 신묘년(1171)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릉(李菱+生) : 신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경백(李景伯) : 임진년(1172)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의린(金義麟) : 임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신려(金臣礪) : 계사년(1173) 춘하에 재임하다.
 최광세(崔光世) : 계사년 가을에 부임하였으나 유고(有故)로 그만두었다.
 김주(金柱) : 계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전신영(田臣永) : 송나라 효종 순희(淳熙) 원년 갑오년(1174) 춘하에 재임하였

다.

현리후(玄利候) : 갑오년 여름에 재임하였다.
이장(李璋) : 갑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손응시(孫應時) : 을미년(1175)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익(李益) : 을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임정식(林正植) : 병신년(1176)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정후(宋正厚) : 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오세공(吳世功) : 정유년(1177)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준선(李俊善) : 정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소광빈(邵光賓) : 무술년(1178) 춘하에 재임하였다.
우영필(于英弼) : 무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조인경(趙藺卿) : 기해년(1179) 춘하에 재임하였다.
진사룡(陳士龍) : 기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성(李成) : 경자년(1180) 춘하에 재임하였다.
황보탁(皇甫卓) : 경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장(李章) : 신축년(1181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신경(崔信卿) : 신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문청(崔文淸) : 임인년(1182)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세강(李世康) : 임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윤광보(尹光甫) : 계묘년(1183)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기후(崔基厚) : 계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류택승(柳擇升) : 갑진년(1184)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효저(崔孝著) : 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적완(崔迪完) : 을사년(1185) 춘하에 재임하였다.
채보문(蔡甫文) : 을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오돈신(吳敦信) : 병오년(1186)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계장(李桂長) : 병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충헌(崔忠獻) : 정미년(1187)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돈례(崔敦禮) : 정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소양미(蘇良美) : 무신년(1188)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거정(李居正) : 무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중리(李仲利) : 기유년(1189)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평(金平) : 기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주유저(周惟底) : 송나라 광종(光宗) 소희(紹熙) 원년 경술년(1190) 춘하에 재
 임하였다.
 현덕수(玄德秀) : 경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득광(鄭得光) : 금나라 장종(章宗) 명창(明昌) 2년 신해년(1191) 춘하에 재
 임하였다.
 유원의(庾元義) : 신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적후(金迪侯) : 임자년(1192)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위(宋偉) : 임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광제(金光齊) : 계축년(1139)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홍적(宋弘迪) : 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서영수(徐英守) : 갑인년(1194)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광재(崔光宰) : 갑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극보(李克甫) : 송나라 영종(寧宗) 경원(慶元) 원년 을묘년(1195) 춘하에 재
 임하였다.
 반취정(潘就正) : 을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유(金儒) : 병진년(1196)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봉미(金鳳尾) : 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광저(崔光著) : 금나라 장종 승안(承安) 2년 정사년(1197) 춘하에 재임하였
 다.
 최효사(崔孝思) : 정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진(金晉) : 무오년(1198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장원문(張元文) : 무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교이필(佼利弼) : 명종이 죽고 신종이 즉위한 기미년(119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유(李侑) : 기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손공례(孫公禮) : 경신년(1200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전을균(田乙均) : 경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강순의(康純義) : 신유년(1201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보순(崔輔淳) : 신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양신(鄭良臣) : 금나라 장종 태화(太和) 2년 임술년(1202) 춘하에 재임하였다.

지자심(池資深) : 임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노시(盧試) : 계해년(1203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백여단(白汝丹) : 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인석(朴仁碩) : 송나라 영종(寧宗) 개희(開禧) 원년 갑자년(1204)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광려(金光麗) : 갑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조진공(趙晉公) : 신종이 죽고 희종이 즉위한 을축년(1205) 춘하에 재임하였다.

공영필(孔永弼) : 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채정(蔡靖) : 병인년(1206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돈미(朴敦美) : 병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일(李侁) : 정묘년(1207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적(李積) : 정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의(李儀) : 송나라 영종(寧宗) 회정(禧定) 원년 무진년(1208) 춘하에 재임하였다.

전천존(全千存) : 무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백수정(白守貞) : 금나라 동해후(東海侯) 태안(泰安) 원년 기사년(1209) 춘하에 재임하였다.

현군제(玄君悌) : 기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연수(李延壽) : 경오년(1210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중구(金仲龜) : 경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안모(安王+兕) : 희종이 죽고 강종이 즉위한 신미년(1211) 춘추에 재임하였다.

임광주(林光柱) : 신미년 가을에 부임하였으나 유고(有故)로 그만두었다.

송안국(宋安國) : 신미년 겨울에 부임하였고, 임신년(1212) 여름까지 유임하였다.

정공수(丁公壽) : 임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대명(李大明) : 금나라 선종(宣宗) 정우(正祐) 원년 계유년(1213)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양승(李陽升) : 계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공량(金公亮) : 강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갑술년(1214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석정(安石貞) : 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주정(金周鼎) : 을해년(1215) 춘하에 재임하였다.

황용필(黃龍弼) : 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온주(金溫珠) : 병자년(1216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숙룡(金叔龍) : 병자년 추동에 재임하고 정축년(1217) 춘하까지 유임하였다.

김군수(金君綏) : 정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적(李勣) : 무인년(1218)에 재임하였다.

최종번(崔宗蕃) : 기묘년(1219)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극수(金克修) : 기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공로(李公老) : 경진년(1220)에 재임하였다.

유승단(俞升旦) : 신사년(1221)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정(李廷+貢) : 임오년(1222) 춘하에 재임하였다.

잡보구(雜甫龜) : 임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유탄현(庾誕玄) : 계미년(1223)에 재임하였다.

송순(宋恂) : 갑신년(1224)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광서(金光敍) : 갑신년 추동에 다시 재임하였다.

권응경(權應經) : 송나라 이종(理宗) 보녕(寶寧) 원년 을유년(1225)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송조(崔崇操) : 을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심문준(沈文濬) : 병술년(1226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선대유(鮮大有) : 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백돈전(白敦實) : 정해년(1227년)에 재임하였다.

이희문(李希文) : 송나라 이종 소정(紹定) 원년 무자년(1228) 춘하에 재임하였

다.

최임수(崔林壽) : 무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한영인(韓令仁) : 기축년(1229년)에 재임하였다.

이방무(李方芳) : 경인년(1230년)에 재임하였다.

강보(康保) : 신묘년(1231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세화(李世華) : 신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취성(金就成) : 임진년(1232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민인균(閔仁均) : 임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윤복규(尹復珪) : 계사년(1233년) 봄에 재임하였다.

손습경(孫襲卿) : 계사년 여름·가을·겨울 및 송나라 이종(理宗) 단평(端平) 원년
인 갑오년(1234)에 재임하였다.

안영연(安永延) : 을미년(1235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홍균(洪均) : 을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유석(庾碩) : 병신년(1236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효인(金孝印) : 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설모(薛模) : 송나라 이종 가희(嘉熙) 원년 정유년(1237)에 재임하였다.

신선(申宣) : 무술년(1238)에 재임하였다.

최춘명(崔椿命) : 기해년(1239)에 재임하였다.

왕해(王諧) : 경자년(1240)에 재임하였다.

박■¹⁸⁸(朴■) : 송나라 이종 순우(淳祐) 원년인 신축년(1241)과 임인년
(1242)·계묘년(1243)에 재임하였다.

박경필(朴景弼) : 갑진년(1244)에 재임하였다.

이양준(李陽俊) : 을사년(1245)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계효(李繼孝) : 을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첨(李瞻) : 병오년(1246)에 재임하였다.

김지대(金之岱) : 송나라 이종 보우(寶祐) 원년 정미년(1247)에 재임하다.

김광재(金光宰) : 무신년(1248)에 재임하였다.

188) 원문에 누락되어 있음. 누락된 글자는 ■로 표시함.

권위(權韙) : 기유년(124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응(李凝) : 기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희(李禧) : 경술년(1250)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윤개(崔允愷) : 경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손희(孫薺) : 신해년(1251)에 재임하였다.

한옥(韓立+尤) : 임자년(1251)에 재임하였다.

임인(任駟) : 송나라 이종 개경(開慶) 원년 계축(1253)에 재임하였다.

박수(朴隨) : 송나라 이종 경정(景定) 원년 갑인(1254)에 재임하였다.

홍희(洪熙) : 을묘년(1255)에 재임하였다.

김지석(金祗錫) : 병진년(1256)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언상(宋彦庠) : 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치룡(李致龍) : 정사년(1257)에 재임하였다.

김■(金■) : 무오년(1258)에 재임하였다.

박견(朴堅) : 송나라 도종(度宗) 함순(咸淳) 원년, 원나라 세조 개도(開道) 원년, 고종이 죽고 원종이 즉위한 기미년(1259)에 재임하였다.

홍귀(洪+歸) : 원나라 세조 중통(中統) 원년 경신년(1260)에 재임하였고, 신유년(1261)까지 연임하였다.

김지석(金祗錫) : 임술년(1262) 춘하에 재임하였다.

한천안(韓千顔) : 임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장■(張■) : 계해년(1263)에 재임하였다.

이■(李■) : 지원(至元) 원년 갑자년(1264)에 재임하였다.

민황(閔+晃) : 송나라 도종 함순 원년 을축년(1265) 춘하에 재임하였다.

곽■(郭■) : 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주열(朱悅) : 병인년(1266)에 재임하였다.

홍자반(洪子潘) : 정묘년(1267)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金■) : 정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항(朴恒) : 무진년(1268)에 재임하였다.

최소(崔沼) : 기사년(1269)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지경(金之卿) : 기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유(崔濡) : 경오년(1270)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숙정(李叔貞) : 경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지경(金之卿) : 신미년(1271)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최유후(崔有侯) : 신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노■(盧■) : 임신년(1272)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유부(崔有浮) : 임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여■(呂■) : 계유년(1273) 춘하에 재임하였다.
 엄■(嚴■) : 계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감(朴臧) :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한 갑술년(1274) 춘하에 재임하였다.
 금훈(琴薰) : 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반부(潘阜) : 송나라 유주(幼主) 덕우(德祐) 원년 을해년(1275)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金■) : 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윤형(尹衡) : 송나라가 망한 병자년(1276) 춘하에 재임하였다.
 권저(權日+且) : 병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요(崔堯) : 정축년(1277) 춘하에 재임하였다.
 민환(閔萱) : 정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응립(金應立) : 무인년(1278)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덕손(李德孫) : 무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권의(權宜) : 기묘년(1279)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서(崔瑞) : 기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양(崔諒) : 경진년(1280)·신사년(1281)·임오년(1282)에 재임하였다.
 송석(宋惜) : 계미년(1283) 춘하에 재임하였다.
 임주(任澍) : 계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숭(鄭崇) : 갑신년(1284)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동길(崔東吉) : 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숭(崔崇) : 을유년(1285)에 재임하였다.
 설■(薛■) : 병술년(1286)에 재임하였다.
 국성윤(鞠成允) : 정해년(1287)에 재임하였다.

진조(陳調) : 무자년(1288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린(朴隣) : 무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유호(劉顥) : 기축년(1289)·경인년(1290)·신묘년(1291)·임진년(1292)에 재임하였다.

류■(柳■) : 계사년(1293)에 재임하였다.

박홍수(朴洪秀) : 계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황수경(黃守卿) : 갑오년(1294)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태현(金台炫) : 갑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조간(趙簡) : 원나라 성종 원정(元貞) 원년 을미년(1295) 춘하에 재임하였다.

황경(黃瓊) : 을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원(崔遠) : 병신년(1296) 춘하에 재임하였다.

오장(吳藏) : 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지공(朴至公) : 정유년(1297)에 재임하였다.

심봉길(沈逢吉) : 대위왕(大尉王)이 즉위한 무술년(1298) 춘하에 재임하였다.

정형(鄭珩) : 무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선종계(宣宗桂) : 충렬왕이 복립(復立)된 기해년(1299) 춘하에 재임하였다.

채희중(蔡希仲) : 기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송극연(宋克連) : 경자년(1300)에 재임하였다.

주인원(朱印遠) : 신축년(1301) 춘하에 재임하였다.

조영렬(曹英烈) : 신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견(金堅) : 임인년(1302)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견간(李堅幹) : 임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백겸(李伯兼) : 계묘년(1303)에 재임하였다.

이■(李■) : 갑진년(1304)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송홍(尹宋弘) : 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원유(李元濡) : 을사년(1305) 춘하에 재임하였다.

봉군절(奉君節) : 을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교산(金敎山) : 병오년(1306)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서지(金瑞之) : 병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백륜(崔白倫) : 정미년(1307)에 재임하였다.

제찰사(提察使)

정숙문(鄭肅文) : 원나라 무종 지대(至大) 원년 무신(1308)에 재임하였다.

육희쇄(陸希瑣) : 충렬왕이 죽고 대위왕(大尉王)이 복립(復立)된 기유년(1309)에 재임하였다.

강 경(姜 瓊) : 경술년(1310)에 재임하였다.

이 눌(李 訥) : 신해년(1311)에 재임하였다.

오방우(吳方祐) : 임자년(1311)에 재임하였다.

금 숙(琴 淑) : 송나라 인종 황경(皇慶) 2년, 충숙왕이 즉위한 계축년(1313)에 재임하였다.

채유길(蔡惟吉) : 계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 리(朴 理) : 연우(延祐) 원년 갑인(1314) 춘하에 재임하였다.

한충희(韓冲熙) : 갑인년 추동과 을묘년(1315)에 재임하였다.

박효수(朴孝修) : 병진년(1316)에 재임하였다.

정안준(鄭安俊) : 정사년(1317)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 광(李 旼) : 정사년 추동과 무오년(1318)에 재임하였다.

박숙정(朴叔貞) : 기미년(1319)에 재임하였다.

최함일(崔咸一) : 경신년(1320)에 재임하였다.

허 빈(許 頻) : 원나라 명종 지치(至治) 원년, 대위왕(大尉王)이 복립된 신유년(1321)에 재임하였다.

안 비(安 庇) : 임술년(1322)과 계해년(1323)에 재임하였다.

설문우(薛文遇) : 원나라 철목이(鐵木耳) 태정(泰定) 원년, 충숙왕이 복립된 갑자년(1324)·을축년(1325)에 재임하였다.

윤요첨(尹堯瞻) : 병인년(1326)에 재임하였다.

이경안(李景安) : 정묘년(1327)에 재임하였다.

조방인(趙邦珣) : 무진년(1328)과 기사년(1329)에 재임하였다. 원나라 문종 천력(天曆) 2년에 충혜왕이 즉위하였다. 이 해부터 지순(至順)이라는 연호를 사용

하였다.

김영후(金永煦) : 경오년(1330)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원간(李元幹) : 경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주휘(金朱暉) : 신미년(1331)에 재임하였다.

박송생(朴松生) : 충숙왕이 복립된 임신년(1332)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 경(金 岡) : 임신년 추동·계유년(1333)·갑술년(1334)에 재임하였다.

조충좌(趙忠佐) : 원나라 순제(順帝) 지원(至元) 원년 을해년(1335)에 재임하였다.

민상백(閔祥伯) : 병자년(1336)에 재임하였다.

장 이(張 耳) : 정축년(1337)에 재임하였다.

전 계(全 啓) : 무인년(1338)에 재임하였다.

박량계(朴良桂) : 충혜왕이 복립된 기묘년(1339) 봄에 재임하였다.

윤 등(尹 登) : 기묘년 여름에 재임하였다.

임원유(林元濡) : 기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충좌(朴忠佐) : 경진년(1340) 춘하에 다시 재임하였다.

심문식(沈文湜) : 경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조영회(趙齡晦) : 지정(至正) 원년 신미(1341)에 재임하였다.

김자돈(金子敦) : 임오년(1342)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여경(李餘慶) : 임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신인거(辛引裾) : 충혜왕이 낙양으로 유배되고 충목왕이 즉위한 계미년(1343)에 재임하였다.

백문보(白文寶) : 갑신년(1344)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 두(金 斗) : 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유문(朴有文) : 을유년(1345)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 구(宋 構) : 을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만영(李萬榮) : 병술년(1346)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 집(安 輯) : 병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배중(李培中) : 정해년(1347) 춘하에 재임하였다.

조문형(趙文衡) : 정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 재(崔宰) : 무자년(1348)에 재임하였다.
 이몽정(李蒙正) : 기축년(134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 위(李偉) : 기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유겸(金有謙) : 경인년(1350) 춘하에 재임하였다.
 송광언(宋光彦) : 경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하운원(河允源) : 공민왕이 즉위한 신묘년(1351)에 재임하였다.
 홍중원(洪仲元) : 신묘년 추동에 재임하다.
 김한룡(金漢龍) : 임진년(1352)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한룡(崔漢龍) : 임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곽충수(郭忠守) : 계사년(1353)에 재임하였다.
 안종원(安宗源) : 갑오년(1354)에 재임하였다.
 정광도(鄭光道) : 을미년(1355년)에 재임하였다.
 박 정(朴珽) : 병신년(1356년) 춘하에 재임하였다.
 김달상(金達祥) : 병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이유신(李由信) : 정유년(1357)에 재임하였다.
 김성갑(金成甲) : 무술년(1358) 춘하에 재임하였다.
 윤민선(尹閔璿) : 무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승구(金承矩) : 기해년(1359) 춘하에 재임하였다.
 곽충실(郭忠實) : 기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안극인(安克仁) : 경자년(1360)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중미(朴中美) : 경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윤 음(尹廔) : 신축년(1361)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 강(李綱) : 신축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성원규(成元揆) : 임인년(1362)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보림(李寶林) : 임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오중륙(吳中陸) : 계묘년(1363)에 재임하였다.

안렴사(按廉使)

최안영(崔安穎) : 갑진년(1364) 춘하에 재임하였다.
 탁광무(卓光茂) : 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박 순(朴 純) : 을사년(1365)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 자(李 資) : 을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우현보(禹賢寶) : 병오년(1366)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승리(安承履) : 병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 우(鄭 寓) : 정미년(1367) 춘하에 재임하였다.
 신계령(申系令) : 정미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송명의(宋明誼) : 대명(大明) 태조 홍무(洪武) 원년 무신(1368) 춘하에 재임하였다.
 진평중(陳枰仲) : 무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귀수(金龜壽) : 기유년(1369)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 이(李 頤) : 기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곽 의(郭 儀) : 경술년(1370)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걸생(李傑生) : 경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곽충룡(郭翀龍) : 신해년(1371) 춘하에 재임하였다.
 최원유(崔元濡) : 신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김 주(金 湊) : 임자년(1372)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동귀(朴東貴) : 임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류 구(柳 珣) : 계축년(1373)에 재임하였다.
 정몽주(鄭夢周) : 위왕(僞王) 신우(辛禡)가 즉위한 갑인년(1374)에 재임하였다.
 윤방언(尹邦彦) : 기묘년(1375) 춘하에 재임하였다.
 안 익(安 翊) : 기묘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최 림(崔 濂) : 병진년(1376) 춘하에 재임하였다.
 강 은(姜 隱) : 병진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백군영(白君瑛) : 정사년(1377)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길조(李吉祚) : 정사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강득화(康得和) : 무오년(1378)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가흥(朴可興) : 무오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하충국(河忠國) : 기미년(1379)에 재임하였다.
 이복시(李復始) : 경신년(1380) 춘하에 재임하였다.
 전오륜(全五倫) : 경신년 추동과 신유년(1381) 춘하에 재임하였다.
 박덕상(朴德祥) : 신유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여극인(呂克湮) : 계해년(1383) 춘하에 재임하였다.
 손경생(孫慶生) : 계해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조익수(曹益修) : 갑자년(1384) 춘하에 재임하였다.
 이문화(李文和) : 갑자년 추동에 재임하였다.
 정 홍(鄭 洪) : 을축년(1385)과 병인년(1386)에 재임하였다.
 이 구(李 龜) : 명나라 조정에 복색(服色)의 개정을 청하여 중국의 복제(服制)를 따랐다. 정묘년(1386)에 재임하였다.
 안희덕(安希德) : 신창(辛昌)이 즉위하고, 조선 태조가 거의(舉義)하여 회군(回軍)¹⁸⁹⁾한 무진년(1388)에 재임하였다.
 최 공(崔 兢) : 무진년 가을에 재임하였다.

도관찰사출척사(都觀察使黜陟使)

장 하(張 夏) : 고려 신창(辛昌) 원년 무진년(1388) 9월에 부임하였다.
 김 주(金 湊) : 기사년(1389) 10월에 부임하였다.
 안 익(安 翊) : 신미년(1391)에 부임하여 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 형옥병마공사(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 刑獄兵馬公事)를 겸하였다.
 이거인(李居仁) : 신미년 10월에 부임하여 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 형옥병마공사를 겸하였다.

안렴사(按廉使)

189) 조선 태조가 거의(舉義)하여 회군(回軍)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최운사(崔雲嗣) : 조선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이 즉위한 임신년(1392) 6월에 부임하였다.

심효생(沈孝生) : 임신년 10월에 부임하였다.

민 개(閔 開) : 계유년(1393) 10월에 부임하였다.

최유경(崔有慶) : 중국황제가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쳐서 내려준 갑술년(1394) 10월에 부임하였다. 효행이 뛰어나 나라에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고, 평도공(平度公)이라 시호하였다.

심효생(沈孝生) : 을해년(1395)에 부임하여 다시 재임하였다.

한상질(韓尙質) : 병자년(1396) 10월에 부임하였다.

이 지(李 至) : 정축년(1397) 2월에 부임하였다.

임 경(林 敬) : 공정대왕(恭靖大王)이 즉위한 무인년(1398) 3월에 부임하였다.

조 박(趙 璞) : 건문(建文) 원년 기묘년(1399) 8월에 부임하였다.

전백영(全伯英) : 태종 공정대왕이 즉위한 경진년(1400) 8월에 부임하였다.

안노생(安魯生) : 중국황제가 조선국왕 즉위에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을 내린 신사년(1401) 4월에 부임하였다.

허 주(許 周) : 신사년 9월에 부임하였다.

이문화(李文和) : 임오년(1402) 정월에 부임하였다.

정 부(鄭 符) : 임오년 10월에 부임하였다.

남 재(南 在) : 명나라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 영락 원년 계미년(1403) 6월에 부임하였다.

안 원(安 瑗) : 갑신년(1404)에 부임하였다.

박자안(朴子安) : 갑신년에 부임하였다.

김희선(金希善) : 을유년(1405) 5월에 부임하였다.

함부림(咸傅霖) : 병술년(1406) 10월에 부임하였다.

안 성(安 省) : 정해년(1407) 2월에 부임하였다.

권 진(權 軫) : 무자년(1408) 2월에 부임하였다.

이 원(李 原) : 무자년 8월에 부임하였다.

안 순(安 純) : 기축년(1409) 8월에 부임하였다.

안 등(安 騰) : 신묘년(1411) 5월에 부임하였다.

한 용(韓 雍) : 임진년(1412) 6월에 부임하였다.

이귀산(李貴山) : 국가의 여러 업무를 육조(六曹)에 나누어 맡기고, 중대 사안은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였다. 갑오년(1414) 7월에 부임하였다.

안 등(安 騰) : 을미년(1415) 정월에 부임하여 다시 재임하였다.

이 은(李 殷) : 을미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이지강(李之剛) : 병신년(1416) 10월에 부임하였다.

박 습(朴 習) : 정유년(1417) 6월에 부임하였다.

우 균(禹 均) : 정유년 9월에 부임하였다.

신 상(申 商) : 세종대왕이 즉위한 무술년(1418) 8월에 부임하였다.

이 발(李 潑) : 기해년(1419) 4월에 부임하였다.

최 이(崔 迤) : 경자년(1420) 3월에 부임하였다.

서 선(徐 選) : 경자년 9월에 부임하였다.

최사강(崔士康) : 신축년(1421) 12월에 부임하였다.

김 겸(金 謙) : 임인년(1422년) 12월에 부임하였다. 영락(永樂) 21년(1423) 12월 초7일에 이조(吏曹)에서 교지를 받았다.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당나라 개원(開元) 22년(734)에 십도채방처치사(十道採訪處置使)를 두었는데 어사중승(御史中承) 노현(盧絢) 등이 그 직책을 맡았다. 송나라 경력(慶曆) 4년(1044)에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으로 집현원(集賢院)에 근무했던 두기(杜杞)가 광남서로(廣南西路)의 전운사(轉運使)·안찰사(按察使)·안무사(安撫使)가 되었다. 본조(本朝)의 옛 제도도 또한 경관(京官)이 도관찰사(都觀察使)와 안렴사를 겸하게 하였다. 지금부터 이 제도에 의하여 각 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와 도관찰사·경력(經歷)·도사(都事)는 모두 경직(京職)을 겸하여 제수하였다. 이 해 12월 초9일에 이조(吏曹)에서 교지를 받았는데, 각 도의 감사(監司)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 일컫고, 한 도의 공사(公事)를 모두 총섭(摠攝)하게 하였다. 또 관함(官啣) 안의 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 형옥병마공사(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 20자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숙묘(李叔畝) : 계묘년(1423) 12월에 부임하였다.

하 연(河 演) : 갑진년(1424) 12월에 부임하였다.

신 개(申 槩) : 홍희(洪熙) 원년 을사년(1425) 12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427) 정월에 이임하였다.

최 부(崔 府) : 선덕(宣德) 2년 정미년(1427) 1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427) 12월에 이임하였다.

이승직(李繩直) : 정미년(1427) 12월에 부임하여 무신년(1428) 12월에 이임하였다.

홍여방(洪汝方) : 무신년(1428) 12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429) 12월에 좌군총제(左軍總制)로 옮겨갔다.

심도원(沈道源) : 기유년(1429) 12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430) 12월에 예조참판으로 옮겨갔다.

조 치(曹 致) : 경술년(1430) 윤 12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431) 12월에 이임하였다.

이맹진(李孟珍) : 신해년 12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432) 12월에 이임하였다.

신인손(辛引孫) : 임자년 12월에 공조참의(工曹參議)로서 부임했다가 종전의 품계로 인하여 갑인년(1434) 4월에 병조참의(兵曹參議)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으로 옮겨갔다.

김효정(金孝貞) : 선덕(宣德) 9년 갑인년(1434) 6월에 부임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도관찰사출척사의 명칭을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상도도관찰사출척사(慶尙道都觀察使黜陟使) 겸 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 형옥병마공사(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로 고쳤다. 이때부터 경직(京職)을 겸임하지 않게 하였다.

박 규(朴 葵) : 을묘년(1435) 7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436) 11월에 이임하였다.

민의생(閔義生) : 정통(正統) 원년 병진년(1436) 11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437) 12월에 이임하였다.

조서강(趙瑞康) : 정사년 12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438) 12월에 이임하였다.

이 선(李 宣) : 무오년 12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439) 11월에 이임하였다.

남 지(南 智) : 기미년 11월에 호조참의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고, 경신년

(1440) 12월에 형조판서로 옮겨갔다.

조극관(趙克寬) : 경신년(1440) 12월에 부임하였고, 신유년(1441) 12월에 공조참의로 옮겨갔다.

권맹손(權孟孫) : 신유년(1441) 12월에 부임하였고, 임술년 11월에 이조참판으로 옮겨갔다.

성염조(成念祖) : 임술년(1442) 11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443년) 6월에 이임하였다.

이 희(李 嘻) : 계해년 6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444) 2월에 죽었다.

성봉조(成奉祖) : 갑자년 2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445) 정월에 이임하였다.

류수강(柳守剛) : 을축년 정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이임하였다.

이계린(李季麟) : 을축년 7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446) 8월에 이임하였다.

김 조(金 銚) : 병인년 8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447) 7월에 이임하였다.

민 공(閔 恭) : 정묘년 7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450) 정월에 이임하였다.

이인손(李仁孫) : 경태 원년, 문종대왕이 즉위한 경오년(1450) 정월에 부임하여 임신년(1452) 2월에 형조참의로 옮겨갔다.

이승지(李崇之) : 단종대왕이 즉위한 임신년(1452) 정월에 부임하여 갑술년 7월에 이임하였다.

김 순(金 淳) : 갑술년(1454) 7월에 부임하여 같은 달에 강원감사로 옮겨갔다.

황수신(黃守身) : 갑술년 7월에 부임하여 을해년 7월에 의정부 우참찬으로 옮겨갔다.

원효연(元孝然) : 단종대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세조대왕이 즉위한 을해년(1455) 7월에 부임하여 병자년 9월에 이임하였다.

조효문(曹孝門) : 천순(天順) 원년 병자년(1456) 8월에 부임하여 정축년(1457) 7월에 이임하였다.

이극배(李克培) : 정축년(1457) 7월에 부임하여 기묘년(1459) 7월에 이임하였다.

김 순(金 淳) : 기묘년(1459) 7월에 병조참판으로 있다가 부임하여 같은 해 9월에 경창부사(慶昌府使)로 옮겨갔다.

김연지(金連枝) : 기묘년 9월에 부임하여 경진년 7월에 중추부사로 옮겨갔다.

김 순(金 淳) : 경진년(1460) 7월에 부임하여 신사년 6월에 이임하였다. 세 번째 재임.

노숙동(盧叔仝) : 신사년(1461) 6월에 부임하여 임오년 6월에 중추부사로 옮겨갔다.

권 개(權 愷) : 임오년(1462) 6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463) 4월에 이임하였다.

이효장(李孝長) : 계미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6월에 죽었다.

이함장(李誠長) : 계미년 윤 7월에 부임하여 갑신년(1464년) 3월에 이임하였다.

윤 흠(尹 欽) : 갑신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정문형(鄭文炯) : 갑신년 11월에 부임하여 을유년(1465년) 8월에 이임하였다.

함우치(咸禹治) : 성화(成化) 원년 을유년(1465) 9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466) 9월에 동원군(東原君)에 책봉되어 이임하였다.

강윤범(姜允範) : 병술년 9월에 부임하여 정해년(1467) 8월에 이임하였다.

김 질(金 磧) : 정해년 8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468) 2월에 이임하였다.

김겸광(金謙光) : 예종대왕이 즉위한 무자년 3월에 부임하여 기축년(1469) 5월에 이임하였다.

김종순(金從舜) : 성종대왕이 즉위한 기축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윤 자(尹 慈) : 기축년(1469) 10월에 부임하여 경인년(1470) 5월에 이임하였다.

이서장(李恕長) : 경인년(1470) 2월에 부임하였다.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6자로 관인(官印)을 개조하였다. 신묘년 7월에 한성좌윤으로 옮겨갔다.

오백창(吳伯昌) : 신묘년(1471) 7월에 부임하여 임진년(1472) 4월에 이임하였다.

윤필상(尹弼商) : 임진년 4월에 부임하여 계사년(1473) 정월에 이임하였다.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정효상(鄭孝常) : 계사년 정월에 부임하여 갑오년 2월에 이임하였다.

김영유(金永濡) : 갑오년(1474) 2월에 부임하여 을미년(1475) 2월에 이임하였다.

윤 호(尹 壕) : 을미년(1475) 2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476) 4월에 이임하였다.

류 경(柳 輕) : 병신년 4월에 부임하여 정유년(1477) 3월에 이임하였다.

윤효손(尹孝孫) : 정유년 3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478) 5월에 이임하였다.

박 건(朴 楨) : 무술년 5월에 부임하여 기해년(1479) 5월에 이임하였다.

안관후(安寬厚) : 기해년 5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480) 5월에 이임하였다.

윤계겸(尹繼謙) : 경자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김자행(金自行) : 경자년 12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481)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철건(李鐵堅) : 신축년 10월에 부임하여 임인년(1482) 7월에 이임하였다.

김자정(金自貞) : 임인년 7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483) 7월에 이임하였다.

한 한(韓 儻) : 계묘년 7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484)에 이임하였다.

이 른(李 陸) : 갑진년 7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485) 정월에 이임하였다.

이극기(李克基) : 을사년 2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486) 정월에 이임하였다.

손순효(孫舜孝) : 을사년 12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487) 정월에 이임하였다.

이세좌(李世佐) : 정미년 정월에 부임했고 무신년(1488)에 한원군(漢原君)에 책봉되어 이임하였다.

성 숙(成 俣) : 홍치(弘治) 원년 무신(1488) 윤 정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489) 정월에 이임하였다.

김여석(金礪石) : 기유년 정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490) 2월에 이임하였다.

정 괘(鄭 佺) : 경술년 2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491) 정월에 이임하였다.

정숭조(鄭崇祖) : 신해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이 해에 하삼도(下三道)의 병사 1만 3천을 본도의 7천 병사와 합하여 임아거(林阿車) 우지함(亏知哈)을 정벌하였다. 임자년(1492) 2월에 이임하였다.

이극돈(李克墩) : 임자년 2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493)에 광원군(廣原君)에 책봉되어 이임하였다.

이계남(李季男) : 계축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이임하였다.

이극균(李克均) : 계축년 10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494) 10월에 이임하였다.

김제신(金悌臣) : 연산군이 즉위한 갑인년(1494) 10월에 부임하여 을묘년(1495) 11월에 이임하였다.

이 의(李 誼) : 을묘년 11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495) 11월에 이임하였다.

안처량(安處良) : 병진년 11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497) 8월에 이임하였다.

김 심(金 諶) : 정사년 8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498) 10월에 이임하였다.

허 침(許 琛) : 무오년 11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499) 11월에 이임하였다.

김수동(金壽童) : 기미년(1499) 11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501) 정월에 이임하였다.

김응기(金應箕) : 신유년 정월에 부임하여 임술년(1502) 2월에 이임하였다.

안윤덕(安潤德) : 임술년 2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503) 3월에 이임하였다.

이 점(李 玷) : 계해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권 주(權 柱) : 계해년 3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504) 윤 4월에 이임하였다.

홍자아(洪自阿) : 갑자년 6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505) 5월에 이임하였다.

임유겸(任由謙) : 을축년 11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506) 8월에 이임하였다.

김 감(金 勘) : 정덕(正德) 원년 병인년 8월에 부임하였다. 9월 초2일에 중종(中宗)이 모후(母后)의 전지(傳旨)를 받들어 즉위하고, 연산군을 폐위하여 교통(喬桐)에 옮겨 살게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어명을 받들어 이임하였다.

장순손(張順孫) : 병인년 10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507) 10월에 이임하였다.

윤 순(尹 珣) : 정묘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진년(1508) 12월에 이임하였다.

강 혼(姜 渾) : 무진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510) 정월에 이임하였다.

윤금손(尹金孫) : 경오년 정월에 부임하여 신미년(1511) 3월에 이임하였다.

송천희(宋千喜) : 신미년 3월에 부임하여 임신년 4월에 이임하였다.

안 당(安 瑯) : 임신년 5월에 순흥군(順興君)으로 있다가 부임하여 계유년(1513) 6월에 본직으로 갔다.

한형운(韓亨允) : 계유년 7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514) 7월에 이임하였다.

조계상(曹繼商) : 갑술년 7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515) 정월에 이임하였다.

홍 숙(洪 淑) : 을해년 2월에 부임하여 병자년(1516) 정월에 이임하였다.

손중돈(孫仲墩) : 병자년 2월에 부임하여 정축년 3월에 이임하였다.

김안국(金安國) : 정축년(1517) 3월에 부임하여 무인년(1518) 3월에 이임하였다.

한세환(韓世桓) : 무인년 3월에 부임하여 기묘년(1519) 4월에 이임하였다.

문 근(文 瑾) : 기묘년 4월에 부임하였다. 6월에 본도(本道)의 일이 번다하여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 낙수(洛水) 동쪽을 좌도에, 서쪽을 우도에 소속시켰다. 8월에 비로소 좌도와 우도의 관인(官印)을 사용하였다. 좌도 관찰사 이항(李沆)은 6월에 임명을 받아 8월에 임지에 이르렀다. 12월에 좌도와 우도가 다시 통합되었다. 경신년(1520) 3월에 이임하였다.

김극성(金克成) : 경진년(1520) 5월에 우도병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신사년(1521) 4월에 이임하였다.

신공제(申公濟) : 신사년 5월에 부임하여 임오년(1522) 6월에 이임하였다.

한효원(韓效元) : 가정(嘉靖) 원년 임오년 5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523) 6월에 이임하였다.

김 평(金 磁) : 계미년 6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이임하였다.

방유녕(方有寧) : 계미년 8월에 부임하여 갑신년(1524) 6월에 이임하였다.

성세창(成世昌) : 갑신년 7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김 당(金 璫) : 을유년(1525) 정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526) 2월에 이임하였다.

김희수(金希壽) : 병술년 2월에 부임하여 정해년(1527) 3월에 이임하였다.

신 상(申 鎰) : 정해년 3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528) 정월에 이임하였다.

성 운(成 雲) : 무자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3월에 죽었다.

박 호(朴 壕) : 무자년 5월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이 기(李 玘) : 무자년 윤 10월에 부임하여 기축년(1529) 5월에 이임하였다.

최세절(崔世節) : 기축년 6월에 부임하여 경인년(1530) 7월에 이임하였다.

임 추(任 樞) : 경인년 8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531) 8월에 이임하였다.

김인손(金麟孫) : 신묘년 8월에 부임하여 임진년(1532) 3월에 이임하였다.

윤인경(尹仁鏡) : 임진년 4월에 부임하여 계사년(1533) 7월에 이임하였다.

윤은필(尹殷弼) : 계사년(1533) 7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534) 4월에 이임하였다.

남효의(南孝義) : 갑오년 5월에 부임하여 을미년(1535) 6월에 이임하였다.

이사균(李思鈞) : 을미년 6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536) 6월에 이임하였다.

권 예(權 輓) : 병신년 7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이현보(李賢輔) : 병신년 12월에 부임하여 정유년(1537) 2월에 이임하였다.

송 겸(宋 璫) : 정유년 2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538) 3월에 이임하였다.

권 벌(權 機) : 무술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6월에 이임하였다.

강 현(姜 顯) : 무술년 7월에 부임하여 기해년(1539) 8월에 이임하였다.

김정국(金正國) : 기해년 8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540) 정월에 이임하였다.

심연원(沈連源) : 경자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이임하였다.

송 순(宋 純) : 경자년 9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541) 10월에 이임하였다.

이 청(李 淸) : 신축년 10월에 부임하여 임인년(1542) 6월에 이임하였다.

임백령(林百齡) : 임인년 8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543) 8월에 이임하였다.

이언적(李彦迪) : 계묘년 8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544) 5월에 이임하였다.

권응창(權應昌) : 인종대왕이 즉위한 갑진년 5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545) 10월에 이임하였다.

상 진(尙 震) : 명종이 즉위한 을사년 10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546) 정월에 이임하였다.

안 현(安 玆) : 병오년 2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547) 3월에 이임하였다.

임호신(任虎臣) : 정미년 3월에 부임하여 무신년(1548) 3월에 이임하였다.

정만중(鄭萬鍾) : 무신년 3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549) 4월에 이임하였다.

심통원(沈通源) : 기유년 4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550) 4월에 이임하였다.

조사수(趙士秀) : 경술년 6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551) 6월에 이임하였다.

이몽량(李夢亮) : 신해년 6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552) 7월에 이임하였다. 6세손 종성(宗成)이 홍문관 정자(正字)로서 본도를 엄찰(廉察)하였는데 감사 박문수가 임금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병부(兵符)를 받아 방백(方伯 : 감사)이 가고 오는 동안에 감사의 일을 수행하였다. 이 때가 청나라 옹정(雍正) 6년(1728) 가을이었다.

정응두(丁應斗) : 임자년(1552) 6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553) 9월에 이임하였다.

정언각(鄭彦慤) : 계축년 9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554) 9월에 이임하였다.

권 철(權 轍) : 갑인년 9월에 부임하여 을묘년(1555) 10월에 이임하였다.

조광원(曹光遠) : 을묘년 11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556) 9월에 이임하였다.

유 강(兪 絳) : 병진년 9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557) 9월에 이임하였다.

김광진(金光軫) : 정사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558) 2월에 이임하였다.

오 겸(吳 謙) : 무오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이 감(李 勘) : 기미년(1559) 정월에 부임하여 경신년(1560) 2월에 이임하였다.

홍 담(洪 曇) : 경신년 2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561) 3월에 이임하였다.

남궁침(南宮忱) : 신유년 3월에 부임하여 임술년(1562) 3월에 이임하였다.

정종영(鄭宗榮) : 임술년 3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563) 3월에 이임하였다.

심수경(沈守慶) : 계해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이임하였다.

오 상(吳 祥) : 계해년 9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564) 2월에 이임하였다.

이우민(李友閔) : 갑자년 2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565) 2월에 이임하였다.

이 택(李 澤) : 을축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이임하였다.

송 찬(宋 贊) : 을축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강사상(姜士尙) : 을축년 11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566) 11월에 이임하였다.

류창문(柳昌門) : 목종(穆宗)이 즉위하고 연호를 개정한 융경(隆慶) 병인년(1566) 11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567) 9월에 이임하였다.

박계현(朴啓賢) : 선조대왕이 즉위한 정묘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진년(1568) 6월에 이임하였다.

정유길(鄭惟吉) : 무진년 7월에 부임하여 기사년(1569년) 2월에 이임하였다.

강 섬(姜 暹) : 기사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이임하였다.

이양원(李陽元) : 기사년 윤 6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570) 4월에 이임하였다.

박대립(朴大立) : 경오년 5월에 부임하여 신미년(1571) 6월에 이임하였다.

송 찬(宋 贊) : 신미년 6월에 부임하여 임신년(1572) 정월에 이임하였다.
두 번째 재임.

임 열(任 說) : 만력(萬曆) 임신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노 진(盧 禎) : 계유년(1573) 정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6월에 이임하였다.

김계휘(金繼輝) : 계유년 9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574) 10월에 이임하였다.

윤근수(尹根壽) : 갑술년 10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575) 10월에 이임하였다.

박근원(朴謹元) : 을해년 10월에 부임하여 병자년(1576) 2월에 이임하였다.

박소립(朴素立) : 병자년 3월에 부임하여 정축년(1577) 3월에 이임하였다.

이 름(李 遴) : 정축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이임하였다.

유 흥(俞 泓) : 정축년 윤 8월에 부임하여 무인년(1578) 정월에 이임하였다.

최 웅(崔 顥) : 무인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정지연(鄭芝衍) : 무인년 10월에 부임하여 기묘년(1579) 5월에 이임하였다.

허 엽(許 曄) : 기묘년 6월에 부임하여 경진년(1580) 2월에 이임하였다.

정언지(鄭彦智) : 경진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이임하였다.

홍성민(洪聖民) : 경진년 8월에 부임하여 신사년(1581년) 9월에 이임하였다.

윤탁연(尹卓然) : 신사년 10월에 부임하여 임오년(1582) 8월에 이임하였다.

류 훈(柳 埴) : 임오년 9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583) 8월에 이임하였다.

류성룡(柳成龍) : 계미년 12월에 부임하여 갑신년(1584) 7월에 이임하였다.

권극례(權克禮) : 갑신년 7월에 부임하여 을유년(1585) 8월에 이임하였다.

이산보(李山甫) : 을유년 4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586) 8월에 이임하였다.

류영립(柳永立) : 병술년 8월에 부임하여 정해년(1587) 8월에 이임하였다.

권극지(權克智) : 정해년 8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588) 9월에 이임하였다.

김 수(金 睟) : 무자년 9월에 부임하여 경인년(1590) 6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홍성민(洪聖民) : 경인년 6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591) 7월에 이임하였다. 재임.

김 수(金 睟) : 신묘년 6월에 부임하였다. 임진년(1592) 3월에 선조대왕이 왜변 때문에 용만(龍灣)으로 피난하였고, 본도에는 왜적이 가득하여 도로가 통하지 못하였다. 임진년 8월에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관찰사가 순찰사의 직무를 겸하

였고, 계사년(1593) 10월에 다시 하나로 통합하였다. 을미년(1595) 2월 27일에 지역이 넓어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여 다시 좌우도로 나누었고, 병신년(1596) 6월에 다시 하나로 통합하였다. 임진년(1592) 8월에 이임하였다.

한효순(韓孝純) : 임진년 9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594) 8월에 이임하였다. 재임.

김성일(金誠一) : 임진년(1592) 8월에 초유사(招諭使)로 있다가 감사에 제수되었고, 임지에 도착한 3일 후에 우도감사(右道監司)로 이배(移拜)되어 9월에 부임하였다. 계사년(1593)에 가선대부에 올랐는데 4월 일에 별세하였다.

김 룩(金 玊) : 계사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이 해 5월에 선조대왕이 용만(龍灣)으로 피난하였다.

홍이상(洪履祥) : 갑오년(1594) 8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596) 4월에 이임하였다.

서 성(徐 渚) : 을미년(1595) 3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596) 6월에 이임하였다.

이용순(李用淳) : 병신년 4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598) 2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윤승훈(尹承勳) : 무술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4월에 이임하였다.

정경세(鄭經世) : 무술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류영경(柳永慶) : 무술년 12월에 부임하여 기해년(1599년) 3월에 이임하였다.

한준겸(韓浚謙) : 기해년 3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600년) 3월에 이임하였다.

김신원(金信元) : 경자년 3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601년) 10월에 이임하였다. 만력(萬曆) 29년 신축년에 대구(大丘) 유영(留營)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시발(李時發) : 신축년 10월에 부임하여 황정(荒政)¹⁹⁰⁾, 변방의 일, 일본의 정세, 책응(責應)이 모두 긴급하여 또 1년을 더 재직하다가 갑진년(1604) 9월에 이임하였다.

이시언(李時彦) : 갑진년 9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605) 9월에 이임하였다.

190) 황정(荒政) :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

류영순(柳永詢) : 을사년 9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607) 3월에 이임하였다.

정사호(鄭賜湖) : 정미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이상신(李尙信) : 정미년 12월에 부임하여 광해군이 즉위한 무신년(1608) 9월에 이임하였다.

최 관(崔 瓘) : 무신년 9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609) 2월에 이임하였다.

신경진(辛慶晉) : 기유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이임하였다.

강 첨(姜 籤) : 기유년 5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610) 3월에 이임하였다.

이정신(李廷臣) : 경술년 윤 3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611) 3월에 이임하였다.

윤 방(尹 昉) : 신해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송영구(宋英耆) : 신해년 12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612) 2월에 이임하였다.

윤 휘(尹 暉) : 임자년 12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613) 5월에 이임하였다.

권 반(權 盼) : 계축년 5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614) 6월에 이임하였다.

장 만(張 晩) : 갑인년 7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심 돈(沈 惇) : 갑인년 12월에 부임하여 을묘년(1615) 6월에 이임하였다.

성진선(成晉善) : 을묘년 8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617) 4월에 이임하였다.

윤 환(尹 暄) : 정사년(1617) 4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618) 7월에 이임하였다.

박경신(朴慶新) : 무오년 7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619) 11월에 이임하였다.

정 조(鄭 造) : 명나라 만력 48년 경신년(1620)에 신종황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여 태창(泰昌)을 연호로 삼았으나 광종황제가 즉위 원년에 죽으니, 연호가 천계(天啓)로 바뀌었다. 기미년(1619) 12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621) 11월에 이임하였다. 대역죄로 주살되었다.

김지남(金止男) : 신유년 12월에 부임하였다. 천계(天啓) 3년 계해년(1623) 3월에 인조대왕이 소성정의대왕비(昭聖貞懿大王妃)의 교지를 받들어 즉위하여 광해군을 폐위하고 강도(江都)로 옮겨 살게 하였다. 계해년(1623) 7월에 이임하였다.

민성휘(閔聖徽) : 계해년 7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624) 3월에 이임하였다.

이민구(李敏求) : 갑자년 3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625) 4월에 이임하였다.

김 치(金 緻) : 을축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이임하였다.

원 탁(元 鐸) : 을축년 7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626) 5월에 이임하였다.

정 온(鄭 蘊) : 병인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6월에 이임하였다.

김시양(金時讓) : 병인년 8월에 부임하여 무진년(1628) 12월에 이임하였다.

홍 방(洪 霧) : 무진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630) 정월에 이임하였다.

이 명(李 溟) : 경오년 정월에 부임하여 신미년(1631) 정월에 이임하였다.

조희일(趙希逸) : 신미년 정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오 숙(吳 翮) : 신미년 10월에 부임하여 임신년(1632) 9월에 이임하였다.

정세구(鄭世矩) : 임신년 10월에 부임하여 계유년(1633) 12월에 이임하였다.

홍명구(洪命耆) : 계유년 12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634) 7월에 이임하였다.

이기조(李基祚) : 갑술년 8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635) 8월에 이임하였다.

유백증(俞伯曾) : 을해년 8월에 부임하여 병자년(1636년) 3월에 떠나다.

심연(沈演) : 병자년 3월에 부임하였다. 이 해 11월에 청나라 군사가 도성 아래에 이르자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고 정축년(1637)에 도성으로 돌아왔다. 병자년부터 비로소 청나라의 숭덕(崇德)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축년 4월에 이임하였다.

이경여(李敬輿) : 정축년 윤 4월에 부임하여 무인년(1638) 2월에 이임하였다.

이경증(李景曾) : 무인년 2월에 부임하여 기묘년(1639) 4월에 이임하였다.

이명웅(李命雄) : 기묘년 4월에 부임하여 경진년(1640) 7월에 이임하였다.

구봉서(具鳳瑞) : 경진년 7월에 부임하여 임오년(1642) 6월에 이임하였다.

정태화(鄭太和) : 임오년 6월에 부임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평양감사가 용장(龍將)¹⁹¹을 섬겨 봉황성(鳳凰城)에 있었는데 임금이 불러들이고 정태화에게 교대하도록 하니 급히 상경하였다.

임 담(林 潭) : 임오년 10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643) 11월에 이임하였다.

원두표(元斗杓) : 계미년 11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임 담(林 潭) : 갑신년(1644) 정월에 비로소 순치(順治) 연호를 사용하였다. 을유년(1645) 2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유 철(俞 撤) : 을유년 2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646) 정월에 이임하였다.

191) 용장(龍將) : 중국의 장수. 용골대

허 적(許 積) : 병술년 정월에 부임하여 임기가 끝난 뒤 연임되었다. 정해년(1647) 7월 왜국으로 가는 사신을 접견할 때 조정의 명을 전달하지 않은 일로 파직되었다.

목성선(睦性善) : 정해년 7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9월에 별세하였다.

조수익(趙壽益) : 정해년 9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648) 2월에 이임하였다.

이 만(李 曼) : 효종대왕이 즉위한 무자년 3월에 부임하여 기축년(1649) 11월에 이임하였다.

민응협(閔應協) : 청나라 황제[世祖]의 아버지가 섭정하면서 왕비를 구하는 일 때문에 6번이나 칙명을 내렸다. 경인년 3월에 입경하여 몇 달을 관사에 머물면서 종친 금림군(錦林君)의 딸을 선정하였다. 시녀를 처음 정할 때에 양반과 공천(公賤)¹⁹²⁾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를 골랐는데, 본도의 여천(呂泉)·성산(星山) 두 고을의 시녀 중에서 뽑았다. 다섯 명을 추가로 뽑을 때에는 경기와 양서(兩西) 및 서울의 의녀(醫女)·수모(首母)에서 취하여 보냈다. 기축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인년(1650) 11월에 이임하였다.

남 선(南 銑) : 경인년 11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651) 7월에 이임하였다.

류 심(柳 滄) : 신묘년 9월에 부임하여 임진년(1652) 10월에 이임하였다.

조계원(趙啓遠) : 임진년 10월에 부임하여 계사년(1653) 10월에 이임하였다.

권 우(權 堦) : 계사년 10월에 부임하여 을미년 2월에 이임하였다.

남 선(南 翽) : 을미년 2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656) 정월에 이임하였다.

홍처후(洪處厚) : 병신년 정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윤 5월에 이임하였다.

서원리(徐元履) : 병신년 6월에 부임하여 정유년(1657) 7월에 이임하였다.

임의백(任義伯) : 정유년 7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658) 9월에 이임하였다.

홍 위(洪 葳) : 무술년 9월에 부임하여 현종대왕이 즉위한 원년 기해년(1659) 9월에 이임하였다.

홍처후(洪處厚) : 기해년 9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661) 7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민 희(閔 熙) : 신축년 7월에 부임하여 강희(康熙) 원년 임인년(1662) 9월

192) 공천(公賤) : 관청의 노비

에 이임하였다.

정만화(鄭萬和) : 임인년 9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663) 2월에 이임하였다.

이상진(李尙眞) : 계묘년 2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664) 8월에 이임하였다.

임의백(任義伯) : 갑진년 8월에 부임하였다. 을사년(1665) 4월에 임금이 충청도 온양에 행차하여 온천욕을 하고 5월에 어가(御駕)를 돌려 10월에 환궁하였다. 을사년 8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김 휘(金 徽) : 을사년 8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666) 정월에 이임하였다.

민 점(閔 點) : 병오년 3월에 부임하였다. 이 해 3월에 왕대비가 온양에 행차하여 온천욕을 하고 윤 4월에 수레를 돌려 환궁하였다. 같은 해 7월에 이임하였다.

이태연(李泰淵) : 병오년 7월에 부임하였다. 정미년(1667) 4월에 왕대비와 대전(大殿)이 온양에 행차하여 온천욕을 한 후 수레를 돌려 환궁하였다. 정미년 8월에 이임하였다.

남용익(南龍翼) : 정미년 8월에 부임하였다. 이 해 8월에 왕이 온양에 행차하여 온천욕을 하고 9월에 어가를 돌려 환궁하였다. 무신년(1668) 4월에 이임하였다.

심 재(沈 梓) : 무신년 4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669) 6월에 이임하였다.

민시중(閔蓍重) : 2년 임기로 부사(府使)를 겸임하고 설권(挈眷)한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기유년 6월에 부임하여 임자년 정월에 이임하였다.

이 숙(李 翺) : 임자년 정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673) 4월에 이임하였다.

이관징(李觀徵) : 계축년 4월에 부임하여 숙종대왕이 즉위한 2년 뒤 을묘년(1675) 3월에 이임하였다.

정중휘(鄭重徽) : 을묘년 5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676) 9월에 이임하였다.

김덕원(金德遠) : 부사(府使)를 겸임하게 하는 제도를 다시 없앴다. 병진년 9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677) 5월에 이임하였다.

정 박(鄭 樸) : 정사년 5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678) 2월에 이임하였다.

이단석(李端錫) : 무오년 3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679) 6월에 이임하였다.

박신규(朴信圭) : 기미년 6월에 부임하여 경신년(1680) 8월에 이임하였다.

윤지완(尹趾完) : 경신년 8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681) 4월에 이임하였다.

이 익(李 翊) : 신유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이임하였다.

이수언(李秀彦) : 신유년 8월에 부임하여 임술년(1682) 9월에 이임하였다.

권시경(權是經) : 임술년 9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683) 11월에 이임하였다.

서문중(徐文重) : 갑자년(1684) 3월에 다시 부사를 겸임하게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계해년 11월에 부임하여 갑자년 9월에 이임하였다.

윤지완(尹趾完) : 갑자년 9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685) 9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이규령(李奎齡) : 을축년 9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686) 4월에 이임하였다.

박태손(朴泰遜) : 병인년 4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687) 9월에 이임하였다.

이세화(李世華) : 정묘년 9월에 부임하여 기사년(1689) 3월에 이임하였다.

이현석(李玄錫) : 기사년 윤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오시대(吳始大) : 기사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690) 8월에 이임하였다.

이담명(李聃命) : 경오년 8월에 부임하여 신미년(1691) 7월에 이임하였다.

민창도(閔昌道) : 신미년 7월에 부임하여 임신년(1692) 10월에 이임하였다.

이현기(李玄紀) : 임신년 10월에 부임하여 계유년(1693)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서우(李瑞雨) : 계유년 10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694) 윤 5월에 이임하였다.

이인환(李寅煥) : 갑술년 윤 5월에 부임하여 병자년(1696) 5월에 이임하였다.

이선부(李善溥) : 병자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이언기(李彦紀) : 병자년 12월에 부임하여 무인년(1698) 9월에 이임하였다.

김세익(金世翊) : 무인년 9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세재(李世載) : 무인년 11월에 부임하였다. 왜관(倭館)을 수리하는 일로 몇 달 유임하다가 신사년(1701) 2월에 이임하였다.

최석항(崔錫恒) : 신사년 2월에 부임하여 임오년(1702) 10월에 이임하였다.

조태동(趙泰東) : 임오년 10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703년) 7월에 이임하였다.

박 권(朴 權) : 계미년 7월에 부임하여 갑신년(1704) 6월에 이임하였다.

김 연(金 演) : 갑신년 6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706) 7월에 이임하였다.

이 야(李 堧) : 병술년 7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708) 3월에 이임하였다.

홍만조(洪萬朝) : 무자년 3월에 부임하여 기축년(1709년) 11월에 이임하였다.

이사상(李師尙) : 기축년 11월에 부임하였다. 경인년(1710) 6월에 임금의 체후(體候)가 편하지 못할 때 수연(壽宴)을 베풀었다. 이에 이상성(李相成)의 장계로관직을 삭탈당하고 문출(門黜)¹⁹³⁾되었다.

유명홍(俞命弘) : 경인년 6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711) 8월에 이임하였다.

이의현(李宜顯) : 신묘년 8월에 부임하여 임진년(1712) 6월에 이임하였다.

이 탄(李 坦) : 임진년 6월에 부임하였다. 임기가 만료된 후 금육(禁肉)의 영(令)을 어겼다는 우도 암행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홍우녕(洪禹寧) : 강희(康熙) 갑오년(1714) 3월에 임금이 눈병이 심해져 영남 김산(金山)으로 행차할 때, 그 곳에 나아가 모셨다. 갑오년(1714) 6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716) 5월에 임기가 끝났으나 흉년 때문에 가을까지 그대로 유임되었다. 정유년(1717) 4월에 결원의 보충으로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5월에 별세하였다.

권 업(權^ㅅ+業) : 정유년 6월에 부임하였다. 무술년(1718) 4월 이전에 재직했던 남양(南陽)의 전결(田結)을 누락시킨 일로 잡혀갔다.

이 집(李 堦) : 무술년 4월에 부임하였고, 기해년(1719)에 양전(量田)의 일을 회피하여 파직되었다. 같은 해 4월에 사면되어 호조참의에 서용(敍用)¹⁹⁴⁾되었다.

오명항(吳命恒) : 경종대왕 즉위 2년 기해년 5월에 감영에 도입하였다. 우도균전사(右道均田使)를 겸임하여 양전(量田)을 고치고 별회곡(別會穀) 만여 석을 덜어서 좌우도의 양료(量料)로 지급하였다. 다음 해에 이 일을 마치고, 방노(防奴, 속오군의 별칭)의 궤액(闕額) 5200여명을 모두 채워 넣었다. 방안(防案)을 고치고 절목(節目)을 완성하여 장계를 올리니, 비변사에서 다시 임금께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가산(架山)·독용(禿用)·축석(矗石)·조령(鳥嶺)의 네 산성을 처음으로 쌓고, 수성소(修城所)에 각각 본전(本錢, 원금) 1만 수천 냡을 두었다. 조정의 명

193) 문출(門黜) : 죄인을 성문 밖으로 내쫓는 형벌.

194) 서용(敍用) : 죄가 있어 면직되었던 사람을 다시 임용함.

령으로 인하여 별관청(別官廳)을 없애고 보선청(補船廳)을 설치하였다. 운문(雲門)·이천(利川)의 영둔(營屯)과 고마둔(雇馬屯)에 대하여 장계를 올려 세금을 면하게 하였다. 장계로 왜선창(倭船倉)의 폐단을 논하여 영구히 백성을 동원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경자년(1720) 9월에 진정사(陳情使)에서 교체되어 호조참의에 제수되었다가 또 우승지에 제수되었다. 10월에 선전관으로 내려왔다가 임금의 긴급한 부름을 받고 곧바로 서울에 들어갔다. 뒤에 대부인의 상을 당했다.

조태억(趙泰億) : 경자년 11월에 부임하여 병 때문에 3번 상소를 올리니, 교체되어 신축년(1721) 8월에 이임하였다. 낙육재(樂育齋)를 창건하였다.

홍우전(洪禹傳) : 신축년 8월에 부임하였다. 임인년(1722) 4월에 통영(統營)과 서로 비교되는 일로 장계를 올리자 교체되었다.

유명응(俞命凝) : 임인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정제(李廷濟) : 임인년 10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723) 8월에 이임하였다. 청나라 강희황제가 임인년 10월에 죽었다. 옹정(雍正) 원년은 계묘년이다.

이세근(李世瑾) : 계묘년 8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724) 3월에 이임하였다.

김동필(金東弼) : 갑진년 3월에 부임하여 영조대왕 즉위 원년 갑진년 9월에 이임하였다.

권이진(權以鎭) : 갑진년 9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725) 6월에 이임하였다.

조영복(趙榮福) : 을사년 6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726) 5월에 이임하였다.

유척기(俞拓基) : 병오년 5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727) 7월에 이임하였다.

황 선(黃 璿) : 정미년 7월에 부임하여 무신년(1728)에 합천 고을 등의 역난(逆亂)을 평정하였으나, 4월에 갑작스런 병으로 별세하였다.

박문수(朴文秀) : 무신년(1728) 4월에 경상도별견어사(慶尙道別遣御史)로 있다가 승배(陞拜)되어 조사(朝辭, 하직인사)를 면제받고 곧바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에 수충갈성결기분무이등공신(輸忠竭誠決幾奮武二等功臣)에 책록되고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다. 경술년(1730) 2월에 관직의 교체를 주청하였으나, 북관(北關)으로 옮길 물품을 즉시 보내지 않은 일로 파직되었다가 6월에 특별히 서용(敍用)의 명이 내려졌다. 7월에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조현명(趙顯命) : 경술년 7월에 풍원군(豐原君)의 신분으로 부임하였다. 동쪽 물가에 백여 간의 창고를 설치하고 3만 석의 곡식을 모아, 배로 싣는 곡식의 완급

을 조절하고 흉년에 기민을 구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민폐로 인하여 장계를 올려서 수정전(修城錢)을 없애고 별도로 만 냥의 은화와 2천 곡(斛)의 쌀과 2만 전의 돈을 축석성(矗石城)과 가산성(架山城)에 보관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하였다. 70 고을의 330,000명의 기민을 단기(單騎)로 친히 구휼하여, 한 명도 굶어 죽은 이가 없었다. 영사(營舍)가 소실되자 일체를 고쳐 지으니, 이전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 임자년(1732) 4월에 관직의 교체를 주청하였으나 마침 전정(田政) 업무의 마무리 때문에 유임되었다. 민역(民役)을 덜어 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어구(語句)가 임금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특별히 파면시켰다. 감사의 직무를 인계하기 전에 좌상(左相)으로 재직하고 있는 형의 병이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도사(假都事)에게 인부(印符, 인장과 부절)를 전해 주게 하고는 10월에 필마(匹馬)로 떠났다.

김시형(金始炯) : 임자년 10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734) 7월에 이임하였다.

김재로(金在魯) : 갑인년 7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민응수(閔應洙) : 옹정(雍正) 황제가 을묘년(1735) 9월에 죽었다. 건륭(乾隆) 원년은 병진년(1736)이다. 을묘년(1735) 3월에 부임하였다. 영성(營城)이 옛날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병진년 정월에 옛 성터를 약간 넓히고 설축(設築)을 시작하였다. 군정(軍丁)은 육진(六鎭)의 속오군, 산성아병(山城牙兵), 감영 소속의 잡색군(雜色軍), 대구·칠곡의 연군(烟軍), 도내의 승군(僧軍)으로 도합 78,584명이 동원되었고, 물력[재원]은 이리저리 조달하여 맞추었다. 같은 해 6월에 공사를 마쳤는데, 성(城)의 둘레가 2,224보(步)이고 높이가 22척이며 담이 955타(垛)이다. 성의 안에 창고를 설치하여 돈과 곡식을 넣어두었다. 축성에 관한 사실을 돌에 새겨 성의 남쪽에 세웠다. 병진년 12월에 관직의 교체를 주청하여 정사년(1737)에 부제학으로 옮겨갔다.

유척기(兪拓基) : 정사년 3월에 판윤(判尹)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외직에 보임을 받아 4월에 부임하였다. 무오년(1738) 정월에 솔권(率眷)을 지나치게 하여 문책을 받자 급히 장계를 올려서 자신을 탄핵하였으나, 5월에 다시 조사받고서 파직되었다. 6월에 서용(敍用)되어 판윤(判尹)에 제수되었다. 얼마 후에 안동의 청음서원(淸陰書院)을 조정에 아뢰지 않고 건립을 허락한 일로 인하여 임금이 특별히 견책하고 파면시켰다. 7월에 서용(敍用)되어 행(行) 사직(司直)으로 옮겨갔다. 재

임(再任).

윤양래(尹陽來) : 무오년 7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9월에 이임하였다.

이기진(李箕鎭) : 무오년 9월에 부임하였다. 기미년(1739) 4월에 이전 북관의 관찰사로 있을 때, 변방 백성이 국경을 넘은 일로 인하여 전후의 도신(道臣)들이 모두 파면되었다. 모월 모일의 조사에 의하여 그 일이 재임 후에 있었는데도 파직된 것이 밝혀졌고, 대신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본직(本職)에서 교체되어 비변사 선혜청의 당상(堂上)으로 발탁되었고, 7월에 부호군(副護軍)으로 옮겨갔다.

조명겸(趙明謙) : 기미년 6월에 부임하였는데, 곧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자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같은 해 9월에 이임하였다.

정익하(鄭益河) : 기미년 11월에 부임하였고, 신유년(1741) 4월에 성산서원(星山書院)의 일 때문에 대신의 연주(筵奏)¹⁹⁵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심성희(沈聖希) : 신유년 6월에 부임하였다. 임술년(1742) 5월에 장기현감(長鬐縣監)이 군작미(軍作米)를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누어 준 일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같은 해 6월에 임금이 봄·가을에 전최(殿最)할 때 대신이 아뢰어 서용(敍用)되어 같은 해 9월에 이임하였다.

김상성(金尙星) : 임술년 9월에 부임하여 4번 사직을 아뢰는 상소[陳辭疏]를 올렸다. 갑자년(1744) 5월에 대신이 임금께 직접 아뢰므로써 교체되어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김상로(金尙魯) : 갑자년 5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745) 5월에 이임하였다.

권 혁(權 赫) : 을축년 5월에 강원도 감사로 있다가 부임하였다. 병인년 11월의 시노비(寺奴婢)에 관한 법과 경신년의 비총(比摠)¹⁹⁶에 관한 관례에 의하여 을축·병인 두 해의 조(條)를 동시에 거행함으로써 민폐가 매우 컸기 때문에 3번 장계를 올리고 조정의 명을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금이 특별히 파면시켰는데, 정묘년(1747) 정월에 서용(敍用)되지 못하고 이임하였다.

남태량(南泰良) : 정묘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무진년(1748) 10월에 관직의 교체를 주청하였다. 뒤에 아들의 상을 당하자, 대신의 진달(陳達)로 차관(次官)으로

195) 연주(筵奏) : 임금의 면전에서 아뢰.

196) 비총(比摠) : 지역단위로 세금을 할당하여 징수함.

출대(出代)¹⁹⁷⁾하라는 명이 있었다. 도헌(都憲)에 제수되었다가 12월에 교체되었다. 기사년(1749) 2월에 부사직(副司直)으로 옮겨갔다.

민백상(閔百祥) : 기사년(1749) 2월에 부임하였다. 경오년(1750) 8월에 왕세손이 탄생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임금이 온양으로 행차하여 서울을 떠난 지 5일 후에 온양에 도착하여 7일을 머물고 나서 어가(御駕)를 돌려 환궁하였다. 같은 달에 관직의 교체를 주청하니, 특별히 일단 출대(出代)하지 말라는 교지가 내려졌다. 신미년(1751) 정월에 교체되어 대사성에 제수되었고, 윤5월에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축산(丑山)·칠포(漆浦)·감포(甘浦)·영등(永登)·상주포(尙州浦)·곡포(曲浦)·풍덕(豐德) 등 7보(堡)를 상소를 올려서 혁파하였다. 거기에 소속된 방졸(防卒)에게 포(布)를 거두어 각 읍의 방미(防米)를 충당하게 하여, 나누어 정한 할당액을 대신하게 하였다.

조재호(趙載浩) : 신미년(1751) 6월에 부임하였다. 임신년(1752) 3월에 왕세손이 죽었다. 같은 해 5월에 영돈녕(領敦寧)의 죽음으로 특별히 직책이 바뀌어 6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같은 달에 병조판서로 옮겨갔고, 7월에 특별히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윤동도(尹東度) : 임신년 7월에 부임하였고, 계유년(1753) 11월에 대신이 병을 아뢰어 교체되었다. 이어서 세 고을 수령의 해세(海稅) 조사에 대한 보고를 지체시켰기 때문에 균당(均堂)에서 임금께 직접 아뢰어 파직되었다. 곧 또 임금께 진달(陳達)하여 잡아들이라는 명이 있었으나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로 용서를 받았다. 갑술년(1754) 정월에 관덕당(觀德堂)에서 관찰사의 업무를 인계하였다.

이이장(李彝章) : 갑술년 정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755) 8월에 관직의 교체를 청하였으나, 곧 단성(丹城)에 재임할 때 사형시켜야 할 죄인을 조금 가볍게 처벌한 일로 특별히 파직되었다. 9월에 서용(敍用)되었고 10월에 사직(司直)으로 옮겨갔다.

이익보(李益輔) : 감사가 부사를 겸임하는 제도를 없앴다. 을해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일도(一道)에 구휼을 크게 펼쳐 304,000명의 기민(飢民)을 구제하였다. 이 일이 끝난 뒤에 3번이나 사직서를 올렸다. 병자년 10월에 대신이 직접 왕에게

197) 출대(出代) : 결원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함.

아되어 교체되었고, 11월에 사직(司直)으로 옮겨갔다.

이성중(李成中) : 병자년(1756) 10월에 예조판서에서 특별히 보임되었다가 부임하였다. 정축년(1757) 7월에 임금이 특별히 교지를 내려 내직으로 옮기게 하였고, 9월에 이조판서로 옮겨갔다.

조운규(趙雲逵) : 정축년 12월에 다시 부사의 직책을 겸임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 부임하였다. 무인년(1758) 12월에 부모의 병으로 인하여 대신이 직접 아되어 교체되었고, 기묘년(1759) 정월에 행(行) 사직(司直)으로 옮겨갔다.

조엄(趙 曷) : 무인년 12월에 동래부사에서 관직을 옮겨 제수되자, 조사(朝辭)를 면제받고 기묘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경진년(1760)에 비로소 해운(海運) 20읍과 경지(京地)의 토선(土船)을 없애고, 좌조창(左漕倉)과 속창(屬倉)을 창원·마산포·거제·견내량(見乃梁)에 설치하고 우조창(右漕倉)과 속창(屬倉)을 진주·가산포(駕山浦)·남해·노량에 설치하였다. 새로 조선(漕船) 54척을 만들어 좌우의 조창(漕倉)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조운(漕運)의 법을 비로소 시행하였다. 묵정밭 7천여 결(結)에 세금을 감해 주되 농사를 짓는 땅에는 세금을 거두었다. 시노비(寺奴婢) 만여 명에 빠진 부분을 조사하고, 방노(防奴)로써 양민의 부담을 대신하게 하는 일을 장계로 아되어 법식을 정하게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관직의 교체를 청하자, 12월에 윤허를 받았고 신사년(1761) 정월에 부제학(副提學)으로 옮겨갔다.

황인검(黃仁儉) : 신사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임오년(1762) 5월에 대신이 직접 임금께 아되어 내직인 좌유선(左諭善)에 제수되어 같은 해 6월에 이임하였다.

김상철(金尙喆) : 임오년 6월에 동경연(同經筵)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계미년(1763) 11월에 한성판윤으로 승진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또 지돈녕부사 동지겸경연사(知敦寧府使同知兼經筵事)에 제수되어 갑신년(1764) 정월에 이임하였다.

정존겸(鄭存謙) : 갑신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을유년(1765년) 9월에 관직의 교체를 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윤허를 받았고 병술년(1766) 정월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으로 옮겨갔다.

김응순(金應淳) : 병술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대신이 임금께 직접 아되어 정해년(1767) 윤 7월에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조 돈(趙 墩) : 정해년 7월에 부임하였다. 고집(固執)으로 특별히 교체되어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이 은(李 漑) : 정해년(1767) 12월에 부임하여 기축년(1769) 3월에 이임하였다.

김한기(金漢耆) : 기축년(1769)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이 미(李 瀾) : 기축년 12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771) 2월에 이임하였다.

이명식(李命植) : 신묘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상주(尙州) 사녀(士女)의 상언(上言)으로 파직되었다.

이 담(李 潭) : 신묘년 12월에 부임하여 임진년(1772) 4월에 이임하였다.

김화진(金華鎭) : 임진년 4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774) 6월에 이임하였다.

민홍렬(閔弘烈) : 갑오년 6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9월에 이임하였다.

윤양후(尹養厚) : 갑오년 9월에 부임하여 을미년(1775) 4월에 이임하였다.

김재순(金載順) : 을미년 5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776) 5월에 이임하였다.

이연상(李衍祥) : 정조대왕이 즉위한 원년 병신년 5월에 부임하여 정유년(1777) 8월에 이임하였다.

이성원(李性源) : 정유년 8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778) 8월에 이임하였다.

이재간(李在簡) : 무술년 8월에 부임하여 기해년(1779) 10월에 이임하였다.

홍낙빈(洪樂彬) : 기해년 10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780) 2월에 이임하였다.

조시준(趙時俊) : 경자년 2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781) 정월에 이임하였다.

이문원(李文源) : 신축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조시준(趙時俊) : 신축년 10월에 부임하여 임인년(1782) 12월에 이임하였다. 재임(再任).

이병모(李秉模) : 임인년 12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785) 2월에 이임하였다.

정창순(鄭昌順) : 을사년 2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786) 9월에 이임하였다.

김상집(金尙集) : 병오년 9월에 부임하였다. 정미년(1787) 5월에 상주에서 조 사하여 보고한 일로 파직되었다.

김광묵(金光默) : 정미년 6월에 충청감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기유년(1789) 2월에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홍 역(洪 億) : 기유년 2월에 충청감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어떤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조원(李祖源) : 기유년 12월에 병조참의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신해년(1791) 3월에 병조참의로 옮겨갔다.

정대용(鄭大容) : 신해년 3월에 사직(司直)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계축년(1793) 6월에 하양현감(河陽縣監)이 파직된 일로 인하여 체포되었다.

조진택(趙鎭宅) : 계축년 6월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을묘년(1795) 6월에 이임하였다.

이태영(李泰永) : 을묘년 6월에 병조참의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정사년(1797) 3월에 곤양(昆陽)의 송전(松田)에 대한 금령을 늦춘 일로 파직되었다.

이형원(李亨元) : 가경(嘉慶) 2년 정사년 3월에 형조참의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무오년(1798) 6월에 암행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의강(李義綱) : 무오년 6월에 형조판서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기미년(1799) 정월에 별세하였다.

신 기(申耆) : 기미년 정월에 한성우판(漢城右判)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순조 즉위 원년 경신년(1800) 8월에 방면(放免)과 미방면(未放免)에 대한 장계의 일로 파직되었다.

김이양(金履陽) : 경신년 8월에 충청감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임술년(1802) 3월에 이임하였다.

남공철(南公轍) : 임술년 3월에 직제학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갑자년(1804) 3월에 대사간으로 옮겨갔다.

김희순(金羲淳) : 갑자년 정월에 예조참판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병인년(1806) 정월에 형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윤광안(尹光顔) : 병인년 2월에 호군(護軍)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무진년(1808) 정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여 이임하였다.

정동관(鄭東觀) : 무진년 정월에 도승지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기사년(1809) 5월에 이임하였다.

정만석(鄭晩錫) : 기사년 5월에 충청감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경오년(1810) 9월에 신병(身病)으로 업무를 폐하고 가도사(假都事, 임시도사)를 정한 일로 체포되었다.

김회연(金會淵) : 경오년 9월에 부호군(副護軍)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임신년(1812) 8월에 예조참의로 옮겨갔다.

김노응(金魯應) : 임신년 8월에 동래부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갑술년(1814) 7월에 대사성으로 옮겨갔다.

이존수(李存秀) : 갑술년 7월에 경기감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병자년(1816) 12월에 이임하였다.

김노경(金魯敬) : 병자년 12월에 경기감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무인년(1818) 12월에 병조참판으로 옮겨갔다.

김이재(金履載) : 무인년 12월에 비국(備局, 備邊司) 유사(有司) 당상관(堂上官)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경진년(1820) 11월에 이임하였다.

이재수(李在秀) : 경진년 12월에 좌부승지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도광(道光) 2년 임오년(1822) 정월에 별세하였다.

김상휴(金相休) : 임오년 2월에 공조판서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계미년(1823) 12월에 도총관으로 옮겨갔다.

이지연(李止淵) : 계미년 12월에 비국(備局, 備邊司) 유사(有司) 당상관(堂上官)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을유년(1825) 4월에 부친상을 당해 이임하였다.

조인영(趙寅永) : 을유년 5월에 동부승지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정해년(1827) 2월에 이임하였다.

이학수(李鶴秀) : 정해년 2월에 직제학(直提學)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정세(情勢)가 위태롭게 되자 업무를 폐하고 곧장 돌아갔다.

정기선(鄭基善) : 정해년 9월에 이조참판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기축년(1829) 7월에 이조참판으로 옮겨갔다.

이면승(李勉昇) : 기축년 7월에 대호군(大護軍)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신묘년(1831) 5월에 이조판서로 옮겨갔다.

박기수(朴岐壽) : 신묘년 정월에 호군(護軍)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임진년(1832) 5월에 이임하였다.

김양순(金陽淳) : 임진년 5월에 부임하여 계사년(1833) 5월에 이조참판으로 옮겨갔다.

서희순(徐熹淳) : 계사년 5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834) 12월에 이임하였다.

조병현(趙秉鉉) : 갑오년 12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836) 10월에 이임하였다.

윤성대(尹聲大) : 병신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838) 4월에 이임하였다.

권돈인(權敦仁) : 무술년 5월에 부임하여 기해년(1839) 3월에 이임하였다.

김도희(金道喜) : 기해년 4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840) 9월에 이임하였다.

홍재철(洪在喆) : 경자년 9월에 부임하여 임인년(1842) 4월에 이임하였다.

이경재(李景在) : 임인년 4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843) 11월에 이임하였다.

홍종영(洪鍾英) : 계묘년 11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845) 11월에 이임하였다.

이계조(李啓朝) : 을사년 11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847) 4월에 이임하였다.

김공현(金公鉉) : 정미년 4월에 부임하여 무신년(1848) 8월에 이임하였다.

김대근(金大根) : 무신년 8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849) 9월에 이임하였다.

서기순(徐箕淳) : 기유년 9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850)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정신(李鼎臣) : 경술년 10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851) 2월에 이임하였다.

이기연(李紀淵) : 신해년 3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852) 2월에 이임하였다.

홍열모(洪說謨) : 임자년 2월에 금백(錦伯, 충청도관찰사)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계축년(1853) 정월에 파직되었다.

조석우(曹錫雨) : 계축년 4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854) 윤7월에 기백(畿伯, 경기도관찰사)으로 옮겨갔다.

김학성(金學性) : 갑인년 윤7월에 부임하여 을묘년(1855) 11월에 이임하였다.

신석우(申錫愚) : 을묘년 11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857) 7월에 이임하였다.

조병준(趙秉駿) : 정사년 8월에 부임하였다. 국상(國喪)을 듣고 무오년(1858) 3월에 이임하였다.

심경택(沈敬澤) : 무오년 3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859) 3월에 완백(完伯, 전라도관찰사)으로 옮겨갔다.

홍우길(洪祐吉) : 기미년 3월에 부임하여 경신년(1860) 6월에 이임하였다.

김세균(金世均) : 경신년 6월에 부임하여 임술년(1862) 2월에 이임하였다.

이돈영(李敦榮) : 임술년 2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863) 3월에 이임하였다.

서헌순(徐憲淳) : 계해년 3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865) 3월에 한성판윤으로 옮겨갔다.

이삼현(李參鉉) : 을축년 3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867) 2월에 이임하였다.
 오취선(吳取善) : 정묘년 2월에 부임하였다.
 김세호(金世鎬) : 기사년(1869) 8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874) 2월에 이임하였다.
 유치선(兪致善) : 갑술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별세하였다.
 홍 훈(洪 圻) : 갑술년 7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875) 7월에 이임하였다.
 박제인(朴齊寅) : 을해년 7월에 부임하여 무인년(1878) 2월에 이임하였다.
 이근필(李根弼) : 무인년 2월에 부임하여 신사년(1881) 2월에 해백(海伯, 황해도관찰사)으로 옮겨갔다.
 윤자승(尹滋承) : 신사년 2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883) 2월에 이임하였다.
 조강하(趙康夏) : 계미년 2월에 부임하여 을유년(1885) 정월에 전라도관찰사로 옮겨갔다.
 남일우(南一祐) : 을유년 정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886) 6월에 별세하였다.
 이호준(李鎬俊) : 병술년 7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888) 8월에 이임하였다.
 김명진(金明鎭) : 무자년 8월에 부임하여 경인년(1890) 6월에 별세하였다.
 민정식(閔正植) : 경인년 7월에 참판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신묘년(1891) 2월에 전라도관찰사로 옮겨갔다.
 이현영(李金+憲永) : 신묘년 2월에 부임하여 계사년(1893) 3월에 이임하였다.
 이용직(李容直) : 계사년 3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894) 7월에 이임하였다.
 조병호(趙秉鎬) : 갑오년 7월에 부임하여 을미년(1895) 6월에 이임하였다.
 이중하(李重夏) : 을미년 6월에 부임하였다.
 엄세영(嚴世永) : 병신년 9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898) 8월에 이임하였다.
 조한국(趙漢國) : 무술년 8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김직현(金稷鉉) : 기해년(1899) 2월에 부임하였다.

읍선생(邑先生)

금 유(琴 柔) : 연대 미상.

옥 고(玉 沽) : 연대 미상. 이하의 기록은 빠져 있다.

부사(府使)

권문해(權文海) : 6년에 1년을 더하였다.

최 희(崔 禧)

윤 현(尹 暉) : 문과(文科). 만력 경인년(1590년)에 읍성(邑城)을 쌓을 때
선산·군위·인동 등의 세 고을을 축성 공사에 참입시켜 민력(民力)의 동원을 완수하
였다. 임진왜란으로 성이 깨뜨려졌다.

이봉춘(李逢春) : 무과(武科)

조호익(曹好益) : 남반(南班)

이기백(李起白) : 무과

이 상(李 祥) : 무과

박홍장(朴弘長) : 무과. 선정비가 세워졌다.

김준계(金遵階) : 무과

이흥종(李興宗) : 무과

김여표(金汝標) : 무과

김구정(金九鼎)

배응경(裴應褰) : 문과

판관(判官)

이시정(李時楨)

조홍립(曹弘立)

정영국(鄭榮國)

윤 후(尹 洵)

조 정(趙 靖) : 문과.

김 인(金 寅)

부사(府使)

정경세(鄭經世) : 문과. 정치를 청렴하고 명확하게 하여 선정(善政)이 있었다. 정미년(1607) 5월에 도임(到任)하여 무신년(1608) 5월에 상소를 올려 교체되었다.

안 희(安 熹) : 태실(胎室)의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당상관에 올랐다. 무신년(1608년) 8월에 도임하여 계축년(1613) 3월에 별세하였다.

김윤안(金允安)

이 박(李 博)

조응인(曹應仁) : 무오년(1618) 12월에 도임하여 기미년(1619) 12월에 붙잡혀갔다.

허 민(許 旻)

신의립(辛義立) : 임술년(1622) 3월에 도임하여 계해년(1623) 4월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한명옥(韓明勗) : 문과. 정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사사로움이 없었고, 늙은이를 잘 보살폈으며, 명륜당을 조성하였다.

박명부(朴明溥) : 계해년(1623) 5월에 도임하여 갑자년(1624) 2월에 교체되었다. 겸향사(兼餉使)로 당상관에 올랐다.

조국빈(趙國賓)

홍사효(洪思敷)

이 제(李 穡) : 무진년(1628) 7월에 도임하여 신미년(1631) 5월에 별세하였다.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사랑하였고, 토적을 붙잡아 당상관에 올랐다.

김상복(金尙必) : 남반(南班)

홍리일(洪履一)

이시담(李時聃) : 남반

성 과(成 錢) : 무과. 신사년(1641) 8월에 도임하였다. 갑신년(1644) 정월에 감사의 호상(護喪)을 신중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장계에 따라 파직되었다.

이익선(李益善) : 역적을 피하여 이웃 부(府)로 달아났기 때문에 붙잡혀갔다.

박한남(朴翰男) : 갑신년(1644) 9월에 도임하여 을유년(1645) 정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유겸(李有謙) : 남반

이위국(李緯國) : 무자년(1648) 10월에 도입하여 기축년(1649) 10월에 관직을 버렸다. 그 해에 암행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박 철(朴 徹) : 남반

이 정(李 淀)

신승구(申崇耆) : 병신년(1656) 9월에 김산군수(金山郡守)에서 옮겨왔고, 정유년 9월에 승중상(承重喪)을 당하여 교체되었다.

심장세(沈長世)

이수강(李守綱)

윤종지(尹宗之)

한수원(韓壽遠) : 남반

최응천(崔應天) : 무신년(1668) 8월에 도입하였고, 기유년(1669) 7월에 판관(判官)으로 강등되었다. 같은 해 9월에 진주목사로 옮겨갔다.

판관(判官)

권대재(權大載) : 문과. 기유년(1669) 12월에 도입하였고 신해년(1671) 12월에 방물(方物)을 즉시 상납하지 않은 일로 파직되었다.

박 신(朴 紳) : 문과

김태일(金兌一)

부사(府使)

정수석(鄭洙碩) : 정사년(1677) 2월에 김제군수에서 옮겨왔고, 무오년(1678)에 암행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붙잡혀갔다.

조세환(趙世煥) : 문과. 기미년(1679) 정월에 고성현령에서 옮겨왔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적소(謫所)¹⁹⁸를 방문한 일로 파직되었다.

박이문(朴以文) : 문과.

이규징(李奎徵) : 남반.

이 항(李 恒) : 남반. 임술년(1682) 7월에 영천군수에서 옮겨왔고, 갑자년

198) 적소(謫所) : 장기(長鬐)

(1684) 2월에 판관(判官)으로 강등되었다

판관(判官)

강 침(姜 琛) : 남반.

이세갑(李世甲) : 남반.

조지정(趙持正) : 남반.

이 무(李 楸)

이정태(李廷泰) : 남반.

신처화(申處華) : 남반.

김 순(金 洵) : 남반.

이언유(李彦維) : 남반. 기묘년(1699)에 도임하여 경진년(1700) 8월에 선산 부사로 옮겨갔다.

류술(柳 述) : 문과.

김중우(金重禹) : 남반.

이징해(李徵海) : 남반. 계미년(1703) 9월에 도임하여 병술년(1706) 8월에 교체되었다. 갑신년(1704)과 을유년(1705)의 흉년에 백성을 잘 구휼하여 당상관에 올랐고 또 호랑이를 잡았기 때문에 마부(馬府)를 하사받았다.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웠으나 조정의 명으로 훼손되었다.

박세집(朴世集) : 남반. 병술년(1706) 9월에 도임하여 무자년(1708) 2월에 암행어사에 의해 봉고파직(封庫罷職)되었다.

한배주(韓配周) : 문과. 무자년(1708) 3월에 도임하여 기축년(1709)에 지평으로 옮겨갔다. 대구부사를 지낸 한수원(韓壽遠)의 손자이다. 선정비가 세워졌다.

이세회(李世會) : 남반.

조정엄(趙廷淹) : 남반.

유명악(俞命岳) : 남반. 계사년(1713)에 개령현감(開寧縣監)에서 옮겨왔다. 갑오년(1714)에 처음으로 석빙고를 쌓았다. 병신년(1716) 정월에 순흥부사로 옮겨갔다.

한성일(韓聖一) : 남반.

신 석(申 皙) : 남반. 정유년 11월에 청산현감(靑山縣監)에서 옮겨왔다. 무

술년 10월에 문과 정시(庭試)를 거쳐 정언(正言)에 올랐다.

이우신(李雨臣) : 남반. 무술년 12월에 인제현감(麟蹄縣監)에서 옮겨와 신축년 정월에 함양군수로 옮겨갔다.

이희주(李熙疇) : 남반. 신축년 3월에 도임하여 임인년 8월에 밀양부사로 옮겨갔다.

오수현(吳遂顯) : 남반. 임인년 8월에 사직령(社稷令)에서 제수되었고, 갑진년 10월에 김산군수로 옮겨갔다.

오명서(吳命瑞) : 남반. 갑진년 12월에 도임하였다. 을사년 8월 여름철의 포폄(褒貶)에서 하(下)에 해당되었다.

심중현(沈重賢) : 남반.

윤소(尹瀟) : 남반. 정미년 7월에 도임하여 무신년 3월에 암행어사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세운(李世琬) : 남반. 지례현감(知禮縣監)에서 옮겨왔다. 경술년 7월에 외아들의 상을 당하자 감영에 사유를 올리고 관직을 그만두었다.

한덕필(韓德弼) : 경술년 8월에 예산현감에서 옮겨왔다. 신해년 7월에 승중상(承重喪)을 치루기 위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언회(鄭彦恢) : 남반. 신해년 8월에 도임하여 임자년 12월에 대간(臺諫)에 의해 파직되었다.

윤경일(尹慶一) : 남반. 계축년 정월에 도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장계에 따라 파직되었다.

박사순(朴師順) : 문과. 계축년 11월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대간(臺諫)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윤면교(尹勉敎) : 남반. 계축년 12월에 문경현감에서 품계를 올려 제수되었고, 을묘년 2월에 병으로 인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협(李峽) : 남반. 을묘년 4월에 도임하였다. 무오년 7월에 신병(身病)으로 파직을 아뢰었으나 대신의 진달로 유임되었고, 기미년 7월에 청도군수로 옮겨갔다.

이권중(李權中) : 남반. 기미년 9월에 도임하여 경신년 윤 6월에 부모의 병환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었다.

정신검(鄭愼儉) : 남반. 경신년 윤달에 호조좌랑(戶曹佐郎)에서 본직으로 제수

되었고, 계해년 3월에 별세하였다.

심린지(沈隣之) : 남반. 계해년 윤 4월에 도입하였고, 을축년 3월에 신병으로 파직을 아뢰었다.

조재연(趙載淵) : 남반. 을축년 5월에 도입하여 기사년 정월에 고양군수로 옮겨갔다.

송순명(宋淳明) : 남반. 기사년 2월에 도입하여 신미년 7월에 김산군수로 옮겨갔다.

윤계동(尹啓東) : 신미년에 도입하였고, 을해년에 판관을 부사로 승격함에 따라 4품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교체되었다.

부사(府使)

최경흥(崔景興) : 을해년에 도입하였고 정축년에 전정(田政)의 일로 경차관(敬差官)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홍익대(洪益大) : 정축년에 도입하여 신축년에 울산부사로 옮겨갔다.

판관(判官)

이성진(李成鎭) : 신사년에 도입하여 갑신년에 안성군수로 옮겨갔다.

김 로(金 魯) : 을유년(1765) 정월에 진위현령(振威縣令)에서 옮겨와 기축년(1769)에 삭녕군수(朔寧郡守)로 옮겨갔다.

정석달(鄭錫達) : 기축년 정월에 백천군수(白川郡守)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신묘년에 서흥부사(瑞興府使)로 옮겨갔다.

이상진(李商進) : 임진년 정월에 안산군수(安山郡守)에서 옮겨와 을미년 5월에 경과(慶科)에 급제하여 교체되었다.

신광건(申光健) : 을미년 6월에 부임하여 병신년 7월에 교체되었다.

이 서(李 淑) : 병신년 7월에 부임하여 무술년 7월에 남원부사로 옮겨갔다.

구 응(具 膺) : 무술년 12월에 의령현감에서 옮겨와 경자년 3월에 사직하였다.

홍원섭(洪元燮) : 경자년 4월에 연안부사에서 옮겨와 갑진년에 교체되었다.

어용원(魚用元) : 갑진년 2월에 순안현령에서 옮겨와 같은 해 5월에 별세하였다.

이복섭(李復燮) : 갑진년 5월에 부임하여 정미년 5월에 김제군수로 옮겨갔다.

서퇴수(徐退修) : 정미년 6월에 도임하여 경술년 3월에 별세하였다.

이희인(李羲寅) : 경술년 4월에 문의현령(文義縣令)에서 옮겨와 신해년 6월에 파직되었다.

심공저(沈公著) : 신해년 7월에 도임하여 임자년 윤4월에 파직되었다.

이단형(李端亨) : 임자년 윤4월에 함열현감(咸悅縣監)에서 옮겨와 갑인년 3월에 별세하였다.

정창기(鄭昌耆) : 갑인년 4월에 거창현령에서 옮겨와 을묘년 9월에 금위(禁衛) 상변군(上番軍)의 말을 지치게 한 일로 붙잡혀갔다.

홍이간(洪履簡) : 을묘년 10월에 임실현감에서 옮겨와 무오년 7월에 암행어사의 장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홍경두(洪景斗) : 무오년 7월에 도임하여 경신년 12월에 진산군수(珍山郡守)로 옮겨갔다.

박수형(朴壽亨) : 신유년 정월에 사천현감에서 옮겨와 계해년 6월에 파직되었다.

서유승(徐有升) : 계해년 6월에 경모궁령(景慕宮令)으로 제수되었다가 부임하여 병인년 11월에 장성부사로 옮겨갔다.

정면수(鄭冕綏) : 병인년 11월에 합천군수에서 옮겨와 신미년 정월에 청도군수로 옮겨갔다.

박종민(朴宗民) : 경오년 12월에 면천군수에서 옮겨와 갑술년 정월에 울산부사로 옮겨갔다.

조진구(趙鎭球) : 갑술년 정월에 의령현감에서 옮겨와 같은 해 7월에 감영의 상피(相避)로 인하여 교체되었다.

장 한(張 瀚) : 갑술년 7월에 원주판관에서 옮겨와 정축년 8월에 청송부사로 옮겨갔다.

정시용(鄭是容) : 정축년 8월에 신녕현감에서 옮겨와 경진년 12월에 합천군수로 옮겨갔다.

이장현(李章顯) : 경진년 12월에 김포군수에서 옮겨와 임오년 6월에 별세하였다.

조제만(趙濟晩) : 임오년 6월에 덕산현감에서 옮겨와 갑신년 12월에 영천군수로 옮겨갔다.

조종순(趙鍾淳) : 갑신년 12월에 옥천군수에서 옮겨와 정해년 12월에 파직되었다.

조자경(趙滋畊) : 정해년 12월에 함창현감에서 옮겨와 기축년 7월에 감영의 상피(相避)로 인하여 교체되었다.

조형복(趙亨復) : 기축년 7월에 온양군수에서 옮겨와 신묘년 12월에 영천군수(榮川郡守)로 옮겨갔다.

조진민(趙鎭敏) : 신묘년 12월에 부임하여 을미년 5월에 이임하였다.

조석현(曹錫玄) : 을미년 5월에 부임하여 정유년 12월에 이임하였다.

정시용(鄭始容) : 정유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자년 11월에 이임하였다.

임영철(林穎喆) : 경자년 11월에 부임하여 계묘년 6월에 이임하였다.

서인순(徐麟淳) : 계묘년 6월에 부임하여 갑진년 정월에 별세하였다.

이병두(李炳斗) : 갑진년 정월에 부임하여 병오년 12월에 이임하였다.

김기현(金箕絢) : 병오년 12월에 부임하여 기유년 6월에 이임하였다.

서유교(徐有喬) : 기유년 7월에 부임하여 신해년 11월에 이임하였다.

이장오(李章五) : 신해년 12월에 부임하여 계축년 7월에 이임하였다.

심영택(沈英澤) : 계축년 8월에 부임하여 갑인년 4월에 봉고파직되었다.

김기순(金夔淳) : 갑인년 5월에 부임하여 을묘년 8월에 이임하였다.

김기순(金琦淳) : 을묘년 8월에 부임하여 정사년 3월에 이임하였다.

박승규(朴承圭) : 정사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1월에 이임하였다.

김교성(金敎性) : 정사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신년 2월에 이임하였다.

김병우(金炳愚) : 경신년 3월에 부임하여 임술년 8월에 이임하였다.

이헌기(李憲夔) : 임술년 9월에 순안현령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갑자년 10월에 파직되었다.

정헌조(鄭憲朝) : 갑자년 11월에 부임하여 병인년 6월에 이임하였다.

박봉하(朴鳳夏) : 병인년 6월에 부임하여 정묘년 12월에 이임하였다.

조희필(趙熙弼) : 정묘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진년 5월에 어사에 의해 봉고파직되었다.

송태진(宋泰鎭) : 무진년 6월에 도임하여 기사년 12월에 이임하였다.

홍순형(洪淳迥) : 경오년 2월에 은율현감(殷栗縣監)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임신년 7월에 영천군수로 옮겨갔다.

임철수(林徹洙) : 임신년 8월에 부임하여 을해년 7월에 이임하였다.

김유현(金有鉉) : 을해년 8월에 부임하여 정축년 12월에 이임하였다.

조면하(趙冕夏) : 무인년 정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이임하였다.

유치익(兪致益) : 무인년 10월에 부임하여 기묘년 윤3월에 이임하였다.

이태진(李泰鎭) : 기묘년 윤3월에 제수되어 4월에 도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이임하였다.

김병우(金炳右) : 기묘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진년 4월에 이임하였다.

이보인(李輔仁) : 경진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이임하였다.

이학년(李鶴年) : 임오년 4월에 부임하여 계미년 12월에 이임하였다.

이응우(李膺愚) : 갑신년 2월에 부임하여 을유년 8월에 이임하였다.

조필영(趙弼永) : 을유년 9월에 도임하였다.

이성렬(李聖烈) : 병술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자년 2에 이임하였다.

김직현(金稷鉉) : 무자년 2월에 전주판관에서 옮겨왔다.

홍용관(洪用觀) : 무자년 10월에 부임하여 기축년 11월에 이임하였다.

이용화(李容和) : 경인년 2월에 도임하였다.

이희익(李熹翼) : 경인년 2월에 도임하여 임진년 7월에 이임하였다.

신학휴(申學休) : 임진년 7월에 부임하여 갑오년 8월에 파직[啓罷]되었다.

지석영(池錫永) : 갑오년 9월에 부임하여 을미년 4월에 이임하였다.

윤성원(尹成垣) : 을미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9월에 이임하였다.

한만용(韓晩容) : 을미년 9월에 도임하여 병신년 7월에 교체되었다.

이범선(李範善) : 병신년 7월 28일에 도임하였다가 수원군수로 옮겨갔다.

김영호(金榮浩) : 기해년 3월 3일에 도임하였다.

도사(都事)

경력(經歷)

이문화(李文和) : 고려 위왕(僞王) 즉위 3년 신미년(1391)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남 금(南 琴) : 같은 해에 부임하였다.

이 룡(李 瑄) : 같은 해 10월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최득경(崔得冏) : 조선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 즉위 원년인 임신년(1392) 6월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김시용(金始用) : 중국 황제가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쳐 하사한 갑술년(1394)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전백영(全伯英) : 을해년(1395)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황진덕(黃進德) : 같은 해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맹사성(孟思誠) : 병자년(1396)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이 제(李 悌) : 같은 해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최 개(崔 開) : 정축년(1397)에 부임하였다.

송자교(宋子郊) : 같은 해에 부임하였다.

현맹인(玄孟仁) : 무인년(1398)에 부임하였다.

전 리(田 理) : 기묘년(1399)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김중곤(金重坤) : 경진년(1400)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류 의(柳 儀) : 임오년(1402)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김 경(金 庚) : 같은 해에 부임하였다.

허 지(許 遲) : 명나라 태종 영락(永樂) 원년 계미년(1403)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정 전(鄭 俊) : 갑신년(1404)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권 상(權 詳) : 같은 해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한유문(韓有紋) : 을유년(1405년)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김 기(金 弃) : 병술년(1406)에 부임하였다.

경력(經歷)

김유성(金由性) : 정해년(1407)에 부임하였다.
진 호(秦 浩) : 무자년(1408)에 부임하였다.
유 면(俞 勉) : 기축년(1409)에 부임하였다.
최자해(崔自海) : 신묘년(1411)에 부임하였다.
송 치(宋 寔) : 임진년(1412)에 부임하였다.
서 적(徐 勣) : 갑오년(1414)에 부임하였다.
은여림(殷汝霖) : 을미년(1415)에 부임하였다.
이운상(李允商) : 병신년(1416)에 부임하였다.
정 포(鄭 包) : 정유년(1417)에 부임하였다.
강거보(康居寶) : 갑술년(1417)에 부임하였다.
김상녕(金尙寧) : 무술년(1418)에 부임하였다.
배 윤(裴 閔) : 기해년(1419)에 부임하였다.
권 전(權 專) : 경자년(1420)에 부임하였다.
김명리(金明理) : 경자년(1420)에 부임하였다.
최종리(崔宗理) : 신축년(1421)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정지담(鄭之澹) : 임인년(1422)에 부임하였다.
박 융(朴 融) : 갑진년(1424) 2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425) 3월에 이임하였다.

경력(經歷)

남 지(南 智) : 을사년 3월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나유수(羅有綬) : 병오년(1426) 2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이임하였다.

경력(經歷)

이견기(李堅基) : 정미년(1427) 정월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강진덕(姜進德) : 무신년(1428) 2월에 부임하였다.

류지함(柳之涵) : 기유년(1429년) 정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이사증(李師曾) : 기유년 12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431) 정월에 전농판관(典農判官)으로 옮겨갔다.

안 질(安 質) : 신해년 정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432) 정월에 이임하였다.

정 석(鄭 錫) : 임자년 정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433) 3월에 이임하였다.

박 근(朴 根) : 계축년 4월에 부임하여 공조정랑(工曹正郎)으로 옮겨갔다.

경력(經歷)

안수기(安修己) : 갑인년(1434) 6월에 부임하였다. 이때부터 경관(京官)의 겸직을 없앴다.

안엄경(安淹慶) : 을묘년(1435)에 부임하였다.

이보정(李補丁) : 병진년(1436) 8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437) 6월에 이임하였다.

조강(趙講) : 정사년 6월에 전농소윤(典農少尹)에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무오년(1438) 6월에 부정직(副正直)으로 옮겨갔다.

도사(都事)

정 설(鄭 榘) : 무오년(1438) 6월에 부임하였다.

이영견(李永肩) : 기미년(1439) 8월에 부임하여 12월에 교리(校理)로 옮겨갔다.

경력(經歷)

김문기(金文起) : 기미년 12월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박효삼(朴效參) : 교리(校理)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권 지(權 枝) : 성균박사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봉상판관(奉常判官)으로 옮겨갔다.

경력(經歷)

홍원용(洪元用) : 임술년(1442)에 군기부정(軍器副正)으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계해년(1443)에 한성소윤(漢城少尹)으로 옮겨갔다.

도사(都事)

정자원(鄭自源) : 계해년 12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444) 7월에 상을 당하여 이임하였다.

이전지(李全之) : 갑자년 8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445년) 7월에 이임하였다.

김안생(金安生) : 을축년에 부임하여 병인년(1446)에 이임하였다.

김영원(金永源) : 병인년 8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447) 4월에 이임하였다.

김윤복(金潤福) : 정묘년 7월에 부임하여 무진년(1448) 7월에 이임하였다.

신 전(愼 詮) : 무진년 7월에 부임하여 기사년(1449) 7월에 이임하였다.

조계평(趙季砵) : 기사년 7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450) 8월에 이임하였다.

김계희(金係熙) : 경오년 8월에 부임하여 신미년(1451) 2월에 이임하였다.

강자신(姜子愼) : 신미년 8월에 부임하여 임신년(1452) 2월에 이임하였다.

홍경손(洪敬孫) : 임신년 2월에 부임하였다.

최선복(崔善復) : 임신년 12월에 부임하여 계유년(1453) 12월에 이임하였다.

이효장(李孝長) : 계유년 12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454) 12월에 이임하였다.

조섭룡(曹燮隆) : 갑술년 12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455) 12월에 이임하였다.¹⁹⁹⁾

경력(經歷)

김계로(金季老) : 병자년(1456) 정월에 부임하여 정축년(1457) 정월에 이임하였다.

주백손(朱伯孫) : 정축년 정월에 부임하여 3월에 이임하였다.

조원지(趙元祉) : 정축년 3월에 부임하여 장령(掌令)으로 옮겨갔다.

도사(都事)

정 침(鄭 忱) : 무인년(1458년) 2월에 부임하여 교리(校理)로 옮겨갔다.

경력(經歷)

이시원(李始元) : 기묘년(1459) 8월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정 은(鄭 垠) : 기묘년 9월에 부임하여 교리(校理)로 옮겨갔다.

경력(經歷)

정종소(鄭從韶) : 경진년(1460)에 8월에 부임하였다.

도사(都事)

오 응(吳 凝) : 신사년(1461) 7월에 부임하였다.

김수광(金秀光) : 임오년(1462) 7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463)에 헌납(獻納)으로 옮겨갔다.

경력(經歷)

윤자영(尹子榮) : 계미년 윤7월에 부임하여 갑신년(1464) 3월에 이임하였다.

양순석(梁順石) : 갑신년 3월에 부임하여 을유년(1465)에 장령(掌令)으로 옮겨

199) 갑술년 12월에 ... 12월에 이임하였다. : 원문에는 ‘甲戌去’로 되어 있음. 대구읍지(1768)에 따라 보충하였음.

겨갔다.

정충기(鄭忠基) : 을유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이임하였다.

도사(都事)

허 적(許 迪) : 을유년 8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9월에 이임하였다.

김 초(金 軺) : 을유년 9월에 부임하여 병술년(1466)에 사의(司議)로 옮겨갔다.

성 숙(成 淑) : 병술년 12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468) 3월에 이임하였다.

이영부(李永敷) : 무자년에 부임하여 기축년(1469)에 서윤(庶尹)으로 옮겨갔다.

표영중(表永中) : 기축년에 부임하여 경인년(1470)에 서령(署令)으로 옮겨갔다.

노 분(盧 盼) : 경인년 5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471) 6월에 이임하였다.

김극검(金克儉) : 신묘년에 부임하여 임진년(1472)에 이임하였다.

박숙달(朴叔達) : 임진년에 부임하여 계사년(1473)에 이임하였다.

김경조(金敬祖) : 계사년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세좌(李世佐)

김영령(金永嶺) : 을미년(1475)에 부임하여 병신년(1476)에 이임하였다.

홍자아(洪自阿) : 병신년에 부임하여 정유년(1477)에 이임하였다.

이계남(李季男) : 정유년에 부임하여 무술년(1478)에 이임하였다.

허 황(許 篁) : 무술년에 부임하여 기해년(1479)에 이임하였다.

이세우(李世祐) : 기해년에 부임하여 경자년(1480)에 이임하였다.

하형산(河荊山) : 경자년 4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481) 6월에 이임하였다.

김 종(金 悰) : 신축년 6월에 부임하여 임인년(1482)에 직강(直講)으로 옮겨갔다.

양순경(梁舜卿) : 임인년 6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483) 7월에 이임하였다.

윤희손(尹喜孫) : 계묘년 7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484)에 직강(直講)으로 옮겨갔다.

반우형(潘佑亨) : 갑진년 7월에 부임하여 을사년(1485)에 직강으로 옮겨갔다.

김 선(金 瑄) : 을사년 정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486) 6월에 이임하였다.

이 집(李 緝) : 병오년 6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487)에 교리(檀理)로 옮겨갔다.

황 정(黃 玎) : 정미년 7월에 부임하였다.

박선손(朴善孫) : 무신년(1488) 9월에 부임하여 기유년(1489) 겨울에 이임하였다.

김윤신(金潤身) : 홍치(弘治) 2년 기유년(1489)에 부임하여 경술년(1490) 겨울에 이임하였다.

윤 장(尹 璋) : 경술년 겨울에 부임하여 신해년(1491) 12월에 이임하였다.

이종준(李宗準) : 신해년 12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493) 3월에 이임하였다.

김의동(金意仝) : 계축년 3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494) 3월에 이임하였다.

남궁관(南宮燦) : 갑인년 3일에 부임하여 을묘년(1495)에 전적(典籍)으로 옮겨갔다.

손중돈(孫仲墩) : 을묘년 4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496) 4월에 이임하였다.

이원성(孝元成) : 병진년 4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497) 7월에 이임하였다.

서극철(徐克哲) : 정사년 7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498)에 첨정(僉正)으로 옮겨갔다.

정종보(鄭宗輔) : 무오년 9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499) 10월에 이임하였다.

이원적(李元迪) : 기미년 12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501)에 직강(直講)으로 옮겨갔다.

방유녕(方有寧) : 신유년 정월에 부임하여 임술년(1502)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조세보(趙世輔) : 임술년 정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503년)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정 환(鄭 煥) : 계해년 4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504)에 장령(掌令)으로 옮겨갔다.

박기수(朴期壽) : 갑자년 4월에 부임하였다.

문 근(文 瑾) : 갑자년 6월에 부임하였다.

신영홍(申永洪) : 병인년(1506) 9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507) 6월에 이임하였다.

김양진(金揚震) : 정묘년 6월에 부임하여 무진년(1508)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김세우(金世瑀) : 무진년 8월에 부임하여 기사년(1509) 10월에 이임하였다.

윤 탕(尹 宕) : 기사년 10월에 부임하여 경오년(1510) 겨울에 이임하였다.

어득강(魚得江) : 경오년 정월에 부임하여 신미년(1511) 2월에 이임하였다.

경 숙(慶 俣) : 신미년 3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이임하였다.

신 연(申 淵) : 신미년 4월에 부임하여 임신년(1512)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박 전(朴 詮) : 임신년 5월에 부임하여 계유년(1513)에 교리(校理)로 옮겨갔다.

소세량(蘇世良) : 계유년(1513) 6월에 부임하여 갑술년(1514) 7월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채소권(蔡紹權) : 갑술년 7월에 부임하여 을해년(1515) 8월에 이임하였다.

이효언(李孝彦) : 을해년 9월에 부임하여 병자년(1516) 9월에 이임하였다.

류윤덕(柳潤德) : 병자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신맹경(辛孟卿) : 정축년(1517) 12월에 부임하여 무인년(1518) 12월에 이임하였다.

황사우(黃士祐) : 무인년 12월에 부임하여 경진년(1520)에 지평으로 옮겨갔다.

송세충(宋世忠) : 경진년 3월에 부임하여 신사년(1521)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심언경(沈彦慶) : 신사년 3월에 부임하여 11월에 병환으로 이임하였다.

조 적(趙 績) : 임오년(1522) 2월에 부임하여 계미년(1523) 3월에 이임하였다.

박형린(朴亨麟) : 계미년 4월에 부임하여 갑신년(1524)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이복로(李福老) : 갑신년 4월에 부임하여 을유년(1525) 4월에 이임하였다.

태두남(太斗南) : 을유년 4월에 부임하였다.

정만중(鄭萬鍾) : 병술년(1526) 6월에 부임하였다.

허백기(許伯琦) : 정해년(1527) 7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528)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표 빈(表 贊) : 무자년 9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임백령(林伯嶺) : 무자년 10월에 부임하여 기축년(1529) 4월에 이임하였다.

강 전(姜 銓) : 기축년 5월에 부임하여 경인년(1530)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안 현(安 玹) : 경인년 7월에 부임하여 신묘년(1531)에 직강(直講)으로 옮겨갔다.

임 봉(林 鵬) : 신묘년 7월에 부임하여 임진년(1532)에 교리(校理)로 옮겨갔다.

형사보(邢士保) : 임진년 9월에 부임하여 계사년(1533) 7월에 이임하였다.

소 봉(蘇 逢) : 계사년 7월에 부임하여 11월에 이임하였다.

박광좌(朴光佐) : 계사년 12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534) 5월에 이임하였다.

김응두(金應斗) : 갑오년 6월에 부임하여 을미년(1535) 4월에 이임하였다.

김백순(金伯醇) : 을미년 7월에 부임하여 병신년(1536) 8월에 이임하였다.

권 찬(權 纘) : 병신년 9월에 부임하여 정유년(1537)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이세건(李世健) : 정유년 10월에 부임하여 무술년(1538) 9월에 이임하였다.

정 환(丁 煥) : 무술년 12월에 부임하여 기해년(1539) 2월에 상을 당하여 이임하였다.

고 습(高 習) : 기해년 2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540) 2월에 이임하였다.

정언각(鄭彦慤) : 경자년 2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541)에 헌납(歌納)으로 옮겨갔다.

남응룡(南應龍) : 신축년 3월에 부임하여 임인년(1542) 4월에 이임하였다.

장응선(張應旋) : 임인년 4월에 부임하여 계묘년(1543) 5월에 이임하였다.

이천계(李天啓) : 계묘년 5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544)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강 위(姜 偉) : 갑진년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6월에 이임하였다.

류 수(柳 洙) : 갑진년 7월에 부임하여 신병(身病)으로 이임하였다.

전 순(全 珣) : 병오년(1546) 9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이임하였다.

정 준(鄭 浚) : 병오년 11월에 부임하였다.

김수옹(金守雍) : 정미년(1547) 11월에 부임하여 무신년(1548) 2월에 이임하였다.

이종규(李宗逵) : 무신년 3월에 부임하여 을유년(1549) 4월에 이임하였다.

신 일(辛 駟) : 을유년 4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550) 9월에 이임하였다.

조 정(趙 澄) : 경술년에 부임하였다.

신 룬(辛 崙) : 경술년에 부임하여 신해년(1551) 10월에 상을 당하여 이임하였다.

진 관(陳 瓘) : 신해년 정월에 부임하여 8월에 전적(典籍)으로 옮겨갔다.

이희검(李希儉) : 신해년 9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522) 9월에 이임하였다.

이 명(李 銘) : 임자년 10월에 부임하여 계축년(1553) 7월에 이임하였다.

한여철(韓汝哲) : 계축년 7월에 부임하여 갑인년(1554)에 파직되었다.

장문보(張文輔) : 갑인년 정월에 부임하여 을묘년(1555)에 정랑(正郎)으로 옮겨갔다.

양응태(梁應台) : 을묘년 2월에 부임하여 전적(典籍)으로 옮겨갔다.

손 식(孫 軾) : 병진년(1556) 10월에 부임하여 11월에 이임하였다.

양 희(梁 喜) : 병진년 12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558)에 전적(典籍)으로 옮겨갔다.

한성원(韓性源) : 무오년 정월에 부임하여 기미년(1559)에 주부(主簿)로 옮겨갔다.

김극일(金克一) : 기미년 정월에 부임하여 경신년(1560) 2월에 이임하였다.

이의신(李義臣) : 경신년 2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561) 3월에 이임하였다.

조희문(趙希文) : 신유년 5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이임하였다.

박거인(朴居仁) : 임술년(1562) 정월에 부임하여 계해년(1563) 3월에 이임하였다.

김우홍(金宇弘) : 계해년 3월에 부임하여 갑자년(1563) 3월에 이임하였다.

곽 두(郭 赴) : 갑자년 3월에 부임하여 을축년(1565) 5월에 이임하였다.
 조유성(趙維誠) : 을축년 6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566) 5월에 이임하였다.
 장 범(張 範) : 병인년 7월에 부임하여 정묘년(1567) 8월에 이임하였다.
 김일준(金逸俊) : 정묘년에 부임하여 무진년(1568)에 이임하였다.
 최흥원(崔興源) : 무진년에 부임하여 기사년(1569)에 이임하였다.
 이응기(李應麒) : 기사년에 부임하여 경오년(1570)에 이임하였다.
 유대수(俞大脩) : 신미년(1571)에 부임하여 임신년(1572)에 이임하였다.
 이 충(李 聰) : 계유년(1573)에 부임하였다.
 기 령(奇 苓) : 계유년에 부임하였다.
 주 박(周 博) : 갑술년(1574)에 부임하여 을해년(1575)에 이임하였다.
 최 황(崔 滉) : 을해년에 부임하였다.
 정희번(鄭姬蕃) : 을해년에 부임하여 병자년(1576)에 이임하였다.
 김천일(金千鎰) : 정축년(1577)에 부임하였다.
 송정순(宋庭荀) : 정축년에 부임하여 무인년(1578)에 이임하였다.
 김 한(金 僞) : 기묘년(1579)에 부임하였다.
 남궁지(南宮芷) : 기묘년에 부임하여 경진년(1580)에 이임하였다.
 정경달(丁景達) : 경진년에 부임하여 신사년(1581)에 이임하였다.
 윤 기(尹 箕) : 신사년에 부임하였다.
 어운해(魚雲海) : 임오년(1582)에 부임하였다.
 안사현(安士鉉) : 임오년에 부임하여 갑신년(1584)에 이임하였다.
 김이경(金履慶) : 갑신년에 부임하여 을유년(1585)에 이임하였다.
 윤안성(尹安性) : 을유년에 부임하여 병술년(1586)에 이임하였다.
 이 함(李 鎬) : 병술년에 부임하여 정해년(1587)에 이임하였다.
 이 희(李 熹) : 정해년에 부임하였다.
 심우승(沈友勝) : 무자년(1588) 7월에 부임하였다. 공문서를 전달할 때 사용
 하는 말을 점검하면서 형벌을 지나치게 시행하였기 때문에 파면되었다.
 허 혼(許 昕) : 무자년 9월에 부임하였다. 기축년(1589) 9월에 이르러 반역
 의 변란으로 인하여 유임되었다가 경인년(1590)에 이임하였다.
 이 원(李 瑗) : 경인년에 부임하여 신묘년(1591)에 이임하였다.

이 철(李 鐵) : 신묘년에 부임하여 임진년(1592)에 이임하였다.
 김영남(金穎男) : 임진년에 부임하여 갑오년(1594)에 이임하였다.
 김홍징(金弘徵) : 임진년에 부임하여 계사년(1593)에 이임하였다.
 김영남(金穎男) : 계사년에 재임(再任)하였다.
 정사신(鄭士信) : 갑오년(1594)에 부임하여 을미년(1595)에 이임하였다.
 이 준(李 璿) : 을미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이유성(李惟誠) : 을미년에 부임하여 병신년(1596)에 이임하였다.
 이 로(李 魯) : 정유년에 부임하였다.
 김구정(金九鼎) : 정유년에 부임하여 무술년(1598)에 이임하였다.
 조 즈(趙 潏) : 무술년에 부임하여 기해년(1599)에 이임하였다.
 정사신(鄭思愼) : 기해년에 부임하여 경자년(1600)에 이임하였다.
 권 진(權 縉) : 경자년에 부임하였다.
 조 탁(曹 倬) : 신축년(1601)에 부임하여 임인년(1602)에 이임하였다.
 박여량(朴汝樑) : 임인년에 부임하여 계묘년(1603)에 이임하였다.
 김질간(金質幹) : 계묘년에 부임하였다.
 남복규(南復圭) : 기사년(1605)에 부임하여 병오년(1606)에 이임하였다.
 이언영(李彦英) : 병오년에 부임하였다.
 윤조원(尹調元) : 병오년에 부임하였다.
 황근중(黃謹中) : 정미년(1607)에 부임하였다.
 윤 정(尹 縉) : 무신년(1608)에 부임하였다.
 하수일(河受一) : 무신년에 부임하여 기유년(1609)에 이임하였다.
 조명옥(曹明勗) : 기유년에 부임하였다.
 배대유(裴大維) : 기유년에 부임하여 경술년(1610)에 이임하였다.
 조 익(趙 翊) : 경술년에 부임하였다.
 류중룡(柳仲龍) : 신해년(1611)에 부임하였다.
 김 물(金 岫) : 신해년에 부임하여 임자년(1612)에 이임하였다.
 김 혜(金 憲) : 임자년에 부임하여 갑인년(1614)에 이임하였다.
 박선장(朴善長) : 갑인년에 부임하였다.
 유효증(俞好曾) : 갑인년에 부임하여 을묘년(1615)에 이임하였다.

정문진(鄭文振) : 을묘년에 부임하였다.
 임 정(林廷貞) : 을묘년에 부임하였다.
 안 도(安 璫) : 병진년(1616)에 부임하여 무오년(1618)에 이임하였다.
 이종언(李宗彦) : 무오년에 부임하였다.
 김 감(金 鑑) : 기미년(1619)에 부임하였다.
 정 숙(鄭 淑) : 경신년(1620)에 부임하였다.
 김 혜(金 惠) : 경신년에 부임하였다.
 임효달(任孝達) : 신유년(1621)에 부임하였다.
 김양선(金揚善) : 임술년(1622)에 부임하였다.
 정 립(鄭 瑩) : 계해년(1623)에 부임하였다.
 김봉조(金奉祖) : 계해년에 부임하였다.
 이유일(李維一) : 갑자년(1624)에 부임하였다.
 김명열(金鳴說) : 갑자년에 부임하였다.
 곽천구(郭天衢) : 을축년에 부임하였다.
 김덕승(金德承) : 병인년(1626)에 부임하였다.
 이광춘(李光春) : 정묘년에 부임하였다.
 이 분(李 丕分) : 무진년(1628)에 부임하여 9월에 파직되었다.
 심 연(沈 演) : 무진년에 부임하여 기사년(1629)에 이임하였다.
 김 수(金 遂) : 경오년(1630) 4월에 부임하여 8월에 논핵(論覈)을 당해 파
 직되었다.
 권 칭(權 稱) : 경오년에 부임하여 신미년(1631)에 파직되었다.
 신응망(辛應望) : 신미년에 부임하였다.
 송석운(宋錫胤) : 임신년(1632)에 부임하였다.
 이경항(李慶恒) : 계유년에 부임하여 파직되었다.
 손필대(孫必大) : 계유년에 부임하여 갑술년(1634)에 이임하였다.
 이필행(李必行) : 갑술년에 부임하여 을해년(1635)에 병환으로 파직되었다.
 임뢰지(任賚之) : 을해년에 부임하여 병자년(1636)에 이임하였다.
 성태구(成台壽) : 병자년에 부임하여 정축년(1637)에 이임하였다.
 여위로(呂渭老) : 무인년(1638)에 부임하였으나 재상(災傷)으로 인하여 바로

교체되었다.

심대부(沈大學) : 무인년에 부임하여 경진년(1640)에 수찬(修撰)으로 옮겨갔다.

채성구(蔡聖龜) : 경진년에 부임하다.

이이존(李以存) : 신사년(1641)에 부임하여 임오년(1642)에 떠나다.

박 환(朴 璦) : 임오년에 부임하다.

정창주(鄭昌胄) : 임오년에 부임하여 계미년(1643)에 떠나다.

이순암(李純菴) : 갑신년(1644)에 부임하여 을유년(1645)에 떠나다.

임유후(任有後) : 을유년에 부임하였으나, 병술년(1646)에 시관(試官)으로 공정하지 않아 파직되었다.

노후설(盧后高) : 병술년에 부임하였다가 파직되었다.

윤익형(尹益亨) : 병술년에 부임하여 정해년(1647)에 파직되었다.

류인량(柳寅亮) : 정해년에 부임하였으나 파직되었다.

최진명(崔振溟) : 정해년에 부임하여 무자년(1648)에 파직되었다.

이정즙(李廷楫) : 무자년에 부임하여 기축년(1649)에 이임하였다.

이여택(李汝澤) : 기축년에 부임하여 경인년(1650)에 이임하였다.

김 위(金 瑋) : 경인년에 부임하였으나 병 때문에 파직되었다.

김여원(金汝源) : 경인년에 부임하여 신묘년(1651)에 이임하였다.

오두인(吳斗寅) : 신묘년에 부임하여 임진년(1652)에 이임하였다.

오이규(吳以奎) : 임진년에 부임하여 계사년(1653)에 별세하였다.

남용익(南龍翼) : 계사년에 부임하였으나 파직되었다.

안후직(安後稷) : 계사년에 부임하여 갑오년(1654)에 파직되었다.

정시심(鄭時諶) : 갑오년에 부임하여 을미년(1655)에 이임하였다.

임 중(任 重) : 을미년에 부임하였고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성후설(成後高) : 병신년(1656)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홍주삼(洪柱三) : 정유년(1657)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정창도(丁昌燾) : 정유년에 부임하여 무술년(1658)에 이임하였다.

이후선(李厚先) : 기해년(1659) 정월에 부임하여 경자년(1660) 정월에 이임

하였다.

정 박(鄭 樸) : 경자년 2월에 부임하여 4월에 장령(掌令)으로 옮겨갔다.

목래선(睦來善) : 경자년에 부임하여 신축년(1661)에 이임하였다.

이휘진(李彙晉) : 신축년에 부임하여 임인년(1662)에 이임하였다.

경 최(慶 叡) : 임인년에 부임하여 계묘년(1663)에 이임하였다.

윤 심(尹 深) : 계묘년에 부임하여 갑진년(1664)에 이임하였다.

김하현(金夏鉉) : 갑진년에 부임하였다.

이경과(李慶果) : 을사년(1665) 4월에 부임하여 7월에 이임하였다.

조성보(趙聖輔) : 을사년 4월에 부임하여 병오년(1666)에 이임하였다.

이단석(李端錫) : 병오년 8월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박 지(朴 贇) : 병오년에 부임하여 정미년(1667)에 이임하였다.

최후상(崔後尙) : 정미년에 부임하여 무신년(1668)에 이임하였다.

정중휘(鄭重徽) : 무신년 7월에 부임하였고, 12월에 병으로 파직되었다.

조헌경(曹憲卿) : 기유년(1669)에 부임하여 경술년(1670)에 이임하였다.

류상운(柳尙運) : 경술년 2월에 부임하여 신해년(1671) 장계로 인하여 파면되었다.

민홍도(閔弘道) : 신해년 9월에 부임하여 임자년(1672)에 장계로 인하여 파면되었다.

정도성(鄭道成) : 임자년에 부임하여 계축년(1673)에 이임하였다.

안후태(安後泰) : 계축년에 부임하여 갑인년(1674)에 이임하였다.

류지발(柳之發) : 갑인년 3월에 부임하여 4월에 이임하였다.

곽제화(郭齊華) : 갑인년 6월에 부임하여 을묘년(1675)에 장계로 인하여 파면되었다.

권두기(權斗紀) : 을묘년 2월에 부임하였으나 곧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심 유(沈 濡) : 을묘년에 부임하여 병진년(1676)에 경관(京官)의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엄 집(嚴 緝) : 병진년에 부임하여 정사년(1677)에 이임하였다.

이홍적(李弘迪) : 정사년에 부임하여 무오년(1678)에 이임하였다.

박태소(朴泰素) : 무오년 2월에 부임하였으나 같은 해에 병으로 파직되었다.

권시경(權是經) : 무오년에 부임하여 헌납(獻納)으로 옮겨갔다.

김정하(金正夏) : 기미년(1679) 2월에 부임하여 6월에 파직되었다.

안 규(安 圭) : 기미년에 부임하여 경신년(1680)에 조사할 때 대장에 누락된 토지가 많아 잡혀갔다.

윤 반(尹 攀) : 경신년 윤8월에 부임하여 11월에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박세장(朴世樟) : 신유년(1681) 정월에 부임하여 8월에 이임하였다.

조형기(趙亨期) : 신유년에 부임하였다.

윤홍리(尹弘離) : 임술년(1682)에 부임하여 계해년(1683)에 이임하였다.

이일익(李日翼) : 계해년 4월에 부임하여 6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심 평(沈 枰) : 계해년에 부임하여 갑자년(1684)에 이임하였다.

이동욱(李東郁) : 갑자년 3월에 부임하였고, 7월에 병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권 항(權 恒) : 갑자년에 부임하여 을축년(1685)에 이임하였다.

정선명(鄭善鳴) : 을축년 9월에 부임하여 병인년(1686)에 경관(京官)의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현조(李玄祚) : 병인년 4월에 부임하여 9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홍 숙(洪 璠) : 병인년에 부임하여 정묘년(1687)에 이임하였다.

임홍익(任弘益) : 정묘년 9월에 부임하였고 무진년(1688)에 경관(京官)의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류상재(柳尙載) : 무진년 6월에 부임하였고 기사년(1689)에 병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중장(李重章) : 기사년 2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이임하였다.

심최량(沈最良) : 경오년(1690) 3월에 부임하여 7월에 사서(司署)로 옮겨갔다.

채성윤(蔡成胤) : 경오년 9월에 부임하여 겨울에 지평(지평) 벼슬로 옮겨갔다.

김 연(金 演) : 신미년(1691) 2월에 부임하여 5월에 이임하였다.

김여건(金汝鍵) : 신미년에 부임하여 임신년(1692)에 이임하였다.

성 임(成 任) : 임신년 6월에 부임하였고, 계유년(1693)에 대신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박태항(朴泰恒) : 계유년 3월에 부임하여 4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희무(李喜茂) : 계유년에 부임하여 갑술년(1694)에 이임하였다.
 여필용(呂必容) : 갑술년 3월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이 준(李 峻) : 갑술년 10월에 부임하여 12월에 파직되었다.
 신경제(申慶濟) : 을해년(1695)에 부임하여 병자년(1696)에 이임하였다.
 권 수(權 燾) : 병자년에 부임하여 정축년(1677)에 이임하였다.
 박행의(朴行義) : 정축년 3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이임하였다.
 정도명(丁道明) : 무인년(1698)에 부임하여 기묘년(1699)에 파직되었다.
 신필청(申必靑) : 기묘년 3월에 부임하여 6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유명응(兪命凝) : 기묘년에 부임하여 경진년(1700)에 이임하였다.
 이규년(李奎年) : 경진년 부임하여 신사년(1701)에 이임하였다.
 윤 회(尹 會) : 신사년에 부임하여 임오년(1702)에 이임하였다.
 홍대유(洪大猷) : 임오년에 부임하여 계미년(1703)에 이임하였다.
 노세하(盧世夏) : 계미년에 부임하여 갑신년(1704)에 이임하였다.
 강 영(姜 橫) : 갑신년에 부임하여 을유년(1705)에 이임하였다.
 이덕운(李德運) : 을유년에 부임하여 병술년(1706)에 이임하였다.
 이경억(李慶億) : 병술년에 부임하였다.
 박만보(朴萬普) : 병술년에 부임하여 정해년(1707)에 이임하였다.
 박사동(朴師東) : 정해년 8월에 부임하여 무자년(1708)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
 되었다.
 최경식(崔慶湜) : 무자년에 부임하여 기축년(1709)에 이임하였다.
 정유신(丁惟愼) : 기축년에 부임하여 경인년(1710)에 이임하였다.
 김우화(金愚華) : 경인년 3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이임하였다.
 박성격(朴聖格) : 신묘년(1711)에 부임의 명을 받았으나 즉시 부임하지 않고
 명을 늦추었기 때문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이희태(李喜泰) : 신묘년에 부임하여 임진년(1712)에 이임하였다.
 남일봉(南一朋) : 임진년에 부임하여 계사년(1713)에 이임하였다.
 정동후(鄭東後) : 계사년 6월에 부임하여 10월에 장령(掌令)으로 옮겨갔다.
 박치원(朴致遠) : 계사년 10월에 부임하여 갑오년(1714)에 대간(臺諫)의 논
 책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윤성시(尹聖時) : 갑오년에 부임하여 을미년(1715)에 이임하였다.

조명봉(趙鳴鳳) : 을미년 정월에 부임하여 4월에 이임하였다.

안시상(安時相) : 을미년 7월에 부임하여 9월에 이임하였다.

박수인(朴壽仁) : 을미년에 부임하여 병신년(1716)에 이임하였다.

김중희(金重熙) : 병신년에 부임하여 정유년(1717)에 병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송사윤(宋思胤) : 정유년에 부임하여 무술년(1718)에 이임하였다.

이승원(李承源) : 무술년에 부임하여 기해년(1719)에 이임하였다.

이중술(李重述) : 기해년에 부임하여 경자년(1720)에 이임하였다.

신 척(申 滌) : 경자년 10월에 부임하여 신축년(1721)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최도문(崔道文) : 신축년에 부임하여 임인년(1722)에 이임하였다.

김한운(金翰運) : 계묘년(1723)에 부임하였다.

류 간(柳 諫) : 계묘년에 부임하여 갑진년(1724)에 이임하였다.

홍성보(洪聖輔) : 갑진년 3월에 부임하여 4월에 병으로 파직되었다.

박장윤(朴長潤) : 갑진년에 부임하여 을사년에 대간(臺諫)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심 전(沈 堧) : 을사년(1725)에 부임하여 병오년(1726)에 이임하였다.

이형등(李馨登) : 병오년 3월에 부임하여 5월에 병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윤광천(尹光天) : 병오년 8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이임하였다.

안상휘(安相徽) : 정미년(1727) 2월에 부임하여 5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엄경하(嚴慶遐) : 정미년에 부임하여 무신년(1728)에 이임하였다.

이대원(李大源) : 무신년에 부임하였다.

이정석(李廷錫) : 무신년에 부임하여 기유년(1729)에 이임하였다.

이성천(李聖天) : 기유년 6월에 부임하여 8월에 잡혀갔다.

이희춘(李喜春) : 기유년 8월에 부임하여 11월에 이임하였다.

심일희(沈一羲) : 경술년(1730) 정월에 부임하여 8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남태제(南泰齊) : 경술년에 부임하여 신해년(1731)에 이임하였다.

구택규(具宅奎) : 신해년에 자벽(自辟)²⁰⁰에 의해 부임하여 임자년(1732)에 이임하였다.

안후석(安后奭) : 임자년에 부임하였다.

윤광의(尹光毅) : 계축년(1733)에 부임하여 갑인년(1734)에 이임하였다.

여광헌(呂光憲) : 갑인년에 부임하였다. 우도(右道) 감시(監試)의 시관(試官)이 되었을 때 사인(士人)이 과거 시험장을 어지럽힌 일로 대간의 논핵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조 정(趙 挺) : 갑인년에 부임하여 을묘년(1735)에 이임하였다.

김정윤(金廷潤) : 을묘년에 부임하여 병진년(1736)에 이임하였다.

김석일(金錫一) : 병진년 4월에 부임하여 8월에 이배(移拜)되었다.

권기언(權基彦) : 병진년 10월에 부임하여 정사년(1734) 2월에 이임하였다.

이휘항(李彙恒) : 정사년 4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738) 정월에 이임하였다.

김 행(金石^하尤) : 무오년 3월에 부임하여 5월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다.

이 격(李 格) : 무오년 7월에 부임하였고 10월에 사적인 부탁을 받고 형벌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최 집(崔^하火集) : 무오년에 부임하였으나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정기안(鄭基安) : 기미년(1739) 부임하였고, 사임장을 올리고 그만두었다.

한광회(韓光會) : 경신년(1740)에 부임의 명을 받았으나 부임 도중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조진세(趙鎭世) : 경신년에 부임하여 신유년(1741)에 이임하였다.

정하언(鄭夏彦) : 신유년에 부임하여 임술년(1743)에 이임하였다.

남혜로(南惠老) : 임술년에 부임하여 대간(臺諫)의 논핵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김경연(金慶衍) : 계해년(1743)에 부임하여 경관(京官)의 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홍직(李弘稷) : 계해년에 부임하여 갑자년(1744)에 이임하였다.

권기언(權基彦) : 을축년(1745)에 부임하였으나 병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200) 자벽(自辟) : 조선 후기 일부 특정 관직의 임용을 해당 관아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던 제도

남덕로(南德老) : 병인년(1746)에 부임하여 정묘년(1747)에 이임하였다.

이홍덕(李弘德) : 정묘년에 부임하여 무진년(1748)에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이만회(李萬恢) : 무진년에 부임하여 기사년(1749)에 이임하였다.

이재현(李載顯) : 기사년에 부임하여 8월에 이임하였다.

여선응(呂善應) : 기사년에 부임하여 경오년(1750)에 이임하였다.

정경서(鄭景瑞) : 경오년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윤동성(尹東星) : 경오년에 부임하여 신미년(1751)에 이임하였다.

신이복(愼爾復) : 신미년에 부임하여 임신년(1752)에 이임하였다.

한명여(韓命興) : 임신년에 부임하여 4월에 서울에서 별세하였다.

윤학보(尹學輔) : 임신년에 부임하여 계유년(1753)에 파직되었다.

김가경(金可慶) : 계유년에 부임하여 7월에 이임하였다.

이기덕(李基德) : 계유년에 부임하여 삭직(削職)되었다.

고 유(高 裕) : 계유년에 부임하여 갑술년(1754)에 이임하였다.

심 관(沈 鑣) : 갑술년에 부임하여 3월에 이임하였다.

이언립(李彦霖) : 갑술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홍응보(洪應輔) : 을해년(1755)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이만회(李萬恢) : 을해년에 부임하여 병자년(1756)에 파직되었다.

이명준(李命俊) : 정축년(1757)에 부임하였다.

권세숙(權世櫨) : 정축년에 부임하여 무인년(1758)에 이임하였다.

이운해(李運海) : 무인년에 부임하여 기묘년(1759)에 이임하였다.

심옥지(沈勗之) : 기묘년에 부임하였다.

이일증(李一曾) : 기묘년에 부임하여 경진년(1760)에 파직되었다.

김응문(金應文) : 경진년에 부임하였다.

박효삼(朴孝參) : 신사년(1761)에 파직되었다.

안겸제(安兼濟) : 신사년에 부임하여 임오년(1762)에 이임하였다.

한 선(韓 潸) : 계미년(1763)에 부임하였다.

신응현(申應顯) : 계미년에 부임하였다.

이영봉(李榮鳳)

오 저(吳 著) : 갑신년(1764)에 부임하였다.
 이 연(李 漣) : 갑신년에 부임하여 을유년(1765)에 파직되었다.
 박도천(朴道天) : 을유년(1765)에 부임하였다.
 정지원(丁志遠) : 병술년(1766)에 부임하였다.
 이약채(李若采) : 정해년(1767)에 부임하였다.
 김 환(金 煊) : 정해년에 부임하였다.
 신응삼(辛應三) : 정해년에 부임하여 무자년(1768)에 이임하였다.
 이장오(李章五) : 기축년(1769)에 부임하여 경인년(1770)에 이임하였다.
 이진형(李鎭衡) : 경인년에 부임하여 신묘년(1771)에 이임하였다.
 류한신(柳翰申) : 신묘년에 부임하여 임진년(1772)에 이임하였다.
 한광근(韓光近) : 부임하기도 전에 경관(京官)으로 진출되었다.
 이동우(李東遇) : 부임하기도 전에 경관(京官)으로 진출되었다.
 정우순(鄭宇淳) : 계사년(1773)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이시일(李時逸) : 계사년(1773)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교체되었다.
 유언수(俞彦修) : 계사년에 부임하여 갑오년(1774)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
 다.
 이 빈(李 斌) : 갑오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송 담(宋 霽) : 갑오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이광현(李光鉉) : 을미년(1775)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상을 당하였다.
 박명구(朴命球) : 을미년에 부임하여 병신년(1776)에 이임하였다.
 기언정(奇彦鼎) : 병신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파직되었다.
 김재인(金載人) : 병신년에 부임하여 정유년(1777)에 잡혀갔다.
 윤필병(尹弼秉) : 정유년에 부임하여 무술년(1778)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
 다.
 조장한(趙章漢) : 무술년에 부임하였다.
 이 면(李 勉) : 기해년(1779)에 부임하여 같은 해 이임하였다.
 임제원(林濟遠) : 기해년에 부임하여 경자년(1780)에 이임하였다.
 차대수(車大修) : 경자년에 부임하여 신축년(1781)에 교체되었다.
 복태형(卜台衡)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양재(李亮載) : 계묘년(1783)에 부임하여 같은 해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정 인(鄭 仁)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정훈(李正薰) : 계묘년(1783)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교체되었다.

김재인(金載人) : 계묘년 8월에 부임하여 갑진년(1784)에 승지(承旨)로 옮겨갔다. 재임(再任).

신 직(申 日 旻)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서배수(徐配修) : 을사년(1785) 8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지평(持平)으로 옮겨갔다.

한형일(韓珩一) : 을사년 12에 부임하여 병오년(1786) 6월에 파직되었다.

이승운(李升運)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최중규(崔重圭)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김인채(金麟采) : 정미년(1787) 6월에 부임하여 무신년(1788) 5월에 교체되었다.

박유환(朴猷煥) : 무신년 8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장계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정최성(鄭取成)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정중록(鄭重祿) : 기유년(1789) 6월에 부임하여 경술년(1790) 6월에 교체되었다.

백사곤(白師坤) : 경술년 6월에 부임하여 7월에 경관(京官)으로 진출되었다.

윤득부(尹得孚) : 경술년 7월에 부임하여 12월에 영해부사로 옮겨갔다.

김기찬(金驥燦) : 신해년(1791) 2월에 부임하여 6월에 파직되었다.

김계락(金啓洛) : 신해년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9월에 교체되었다.

김 담(金 潭)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강세규(姜世揆) : 계축년(1793) 6월에 부임하여 같은 달에 경관(京官)으로 진출되었다.

황내정(黃乃正)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장지현(張至顯) : 갑인년(1794) 8월에 부임하여 9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이지형(李之珩) : 을묘년(1795) 5월에 부임하여 8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정양한(鄭良翰) : 을묘년 11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796) 10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민광로(閔廣魯) : 정사년(1797) 2월에 부임하여 무오년(1798) 5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권창익(權昌益) : 무오년 10월에 부임하여 12월에 파직되었다.

김광국(權昌益)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허 책(許 策) : 기미년(1799) 8월에 부임하여 12월에 파직되었다.

우석구(禹錫龜) : 경신년(1800) 2월에 부임하여 신유년(1801) 2월에 교체되었다.

남 속(南 涑) : 신유년 2월에 부임하여 8월에 교체되었다.

강준흠(姜浚欽) : 신유년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12월에 지평으로 옮겨갔다.

이이희(李履熙)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김희빈(金晦彬) : 계해년(1803) 2월에 부임하여 5월에 교체되었다.

문봉기(文鳳岐) : 계해년 6월에 부임하여 8월에 교체되었다.

구득로(具得魯) : 계해년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갑자년(1804) 7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민광로(閔廣魯) : 갑자년 7월에 부임하여 12월에 파직되었다.

민양세(閔養世)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홍희준(洪義俊) : 을축년(1805)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병인년(1806) 8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한익진(韓翼鎭) : 병인년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정묘년(1807) 정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최홍진(崔 兪丘鳥晉)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한석인(韓錫仁)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정래성(鄭來成) : 기사년(1809) 정월에 부임하여 9월에 교체되었다.

임천상(任天祥) : 기사년 9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경

오년(1810) 2월에 교체되었다.

황만령(黃萬齡) : 경오년 2월에 부임하여 9월에 교체되었다.

남혜관(南惠寬) : 경오년 9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신미년(1811) 8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김성진(金聲振)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최대식(崔大寔) : 임신년(1812) 정월에 부임하여 계유년(1813) 2월에 교체되었다.

채일상(蔡一祥) : 계유년 3월에 부임하여 8월에 교체되었다.

이동영(李東永) : 계유년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갑술년(1814) 2월에 교체되었다.

이원익(李遠翊) : 갑술년 윤2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민조영(閔祖榮)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박명화(朴鳴和) : 을해년(1815) 9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병자년(1816) 2월에 경관으로 진출되었다.

노상희(盧尙熙)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김 직(金 直)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옥형(李旭馨)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현묵(李賢默) : 무인년(1818) 2월에 부임하여 7월에 교체되었다.

홍만섭(洪晩燮) : 무인년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기묘년(1819) 2월에 교체되었다.

김지태(金持泰)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황기천(黃基天)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유사평(劉師平)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지수(李趾秀) : 임오년(1822) 2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노 휘(盧金彙)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김취강(金就疆)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서만순(徐萬淳)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의원(李穀遠) : 갑신년(1824)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김상면(金相勉)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백시원(白時源)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민영세(閔英世) : 정해년(1827) 8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장 진(張 振)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권 휘(權 徽)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이시원(李是遠) : 무자년(1828) 2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였다.

이정묵(李鼎默)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문경애(文慶愛)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송지양(宋持養) : 신묘년(1831) 2월에 장시도사(掌試都事)로 재직하다가 부임하여 임진년(1832) 정월에 교체되었다.

영장(營將)

노 정(盧 錠) : 갑오년(1654)에 부임하여 병신년(1656)에 이임하였다.

이경한(李經漢) : 병신년에 부임하여 정유년(1657)에 이임하였다.

김시철(金時高) : 정유년에 부임하여 기해년(1659)에 이임하였다.

서상설(徐尙高) : 기해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정한기(鄭漢驥) : 기해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한공신(韓公信) : 경자년(1660)에 부임하여 임인년(1662)에 이임하였다.

이창주(李昌冑) : 임인년에 부임하여 8월에 이임하였다.

박시한(朴始漢) : 임인년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이경빈(李慶彬) : 임인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정후심(鄭後諶) : 임인년에 부임하여 갑진년(1664)에 이임하였다.

이동상(李東相) : 을사년(1665)에 부임하여 병오년에 이임하였다.

박취문(朴就文) : 병오년(1666)에 부임하여 정미년에 이임하였다.

최명후(崔鳴後) : 정미년(1667)에 부임하여 기유년(1669)에 이임하였다.

신 향(申 尙) : 기유년에 부임하여 신해년(1671)에 이임하였다.
 박 성(朴 晟) : 신해년에 부임하여 계축년(1673)에 이임하였다.
 민 함(閔 涵) : 계축년에 부임하여 을묘년(1675)에 이임하였다.
 나팔기(羅八紀) : 을묘년에 부임하여 부모의 병 때문에 이임하였다.
 이동영(李東榮) : 을묘년에 부임하여 정사년(1679)에 이임하였다.
 이상전(李尙香全) : 정사년에 부임하여 10월에 이임하였다.
 최원태(崔元泰) : 정사년에 부임하여 무오년(1678)에 이임하였다.
 민성중(閔誠重) : 무오년에 부임하여 기미년(1679)에 파직되었다.
 이세선(李世選) : 기미년에 부임하여 경신년(1680)에 이임하였다.
 이창주(李昌胄) : 경신년에 부임하여 임술년(1682)에 이임하였다.
 이상옥(李相勗) : 임술년에 부임하여 갑자년(1684)에 이임하였다.
 이 담(李香覃) : 갑자년에 부임하여 병인년(1686)에 이임하였다.
 한익세(韓翼世) : 병인년에 부임하여 정묘년(1687)에 이임하였다.
 권 순(權 詢) : 정묘년에 부임하여 무진년(1688)에 이임하였다.
 김이추(金爾樞) : 무진년에 부임하여 기사년(1689)에 이임하였다.
 이시재(李時宰) : 기사년에 부임하여 신미년(1691)에 이임하였다.
 장만익(張萬益) : 신미년에 부임하여 같은 해에 이임하였다.
 신익염(申益恬) : 임신년(1692)에 부임하여 계유년(1693)에 이임하였다.
 이 용(李 溶) : 계유년에 부임하여 갑술년(1694)에 이임하였다.
 김익팔(金翼八) : 갑술년에 부임하여 병자년(1696)에 이임하였다.
 권극승(權克升) : 병자년에 부임하여 무인년(1698)에 이임하였다.
 민성준(閔聖濬) : 무인년에 부임하여 경진년(1700)에 이임하였다.
 이상옥(李相頊) : 경진년에 부임하여 임오년(1702)에 이임하였다.
 신명윤(申命尹) : 임오년에 부임하여 갑신년(1704)에 이임하였다.
 성지중(成至重) : 갑신년에 부임하여 병술년(1706)에 이임하였다.
 이후전(李厚全) : 병술년에 부임하여 무자년(1708)에 이임하였다.
 지일빈(池日賓) : 무자년에 부임하여 경인년(1710)에 이임하였다.
 이 헌(李 瀾) : 경인년에 부임하여 신묘년(1711)에 이임하였다.
 박세정(朴世挺) : 임진년(1712)에 부임하여 계사년(1713)에 이임하였다.

이진화(李震華) : 계사년에 부임하여 을미년(1715)에 이임하였다.
 윤 심(尹 滄) : 을미년에 부임하여 정유년(1717)에 이임하였다.
 류중석(柳重碩) : 정유년에 부임하여 무술년(1718)에 이임하였다.
 민제장(閔濟章) : 무술년에 부임하였다.
 김정명(金鼎鳴) : 무술년에 부임하여 기해년에 이임하였다.
 안상한(安相漢) : 기해년에 부임하여 경자년(1720)에 이임하였다.
 이철징(李鐵徵) : 경자년에 부임하여 신축년(1721)에 이임하였다.
 박서규(朴瑞圭) : 신축년에 부임하여 임인년(1722)에 이임하였다.
 박 경(朴 慶) : 임인년에 부임하여 갑진년(1724)에 이임하였다.
 정도징(鄭道徵) : 갑진년에 부임하여 을사년(1725)에 이임하였다.
 전익성(全翊聖) : 을사년에 부임하여 파직되었다.
 신경필(申慶弼) : 을사년에 부임하여 병오년(1726)에 이임하였다.
 최진일(崔震一) : 병오년에 부임하였다.
 하 옥(河 沃) : 정미년(1727)에 부임하였다.
 윤취리(尹就履) : 무신년(1728)에 부임하여 경술년(1730)에 이임하였다.
 장두소(張斗紹) : 경술년에 부임하였다.
 민진기(閔鎭箕) : 경술년에 부임하여 계축년(1733)에 이임하였다.
 윤경철(尹慶哲) : 계축년에 부임하여 갑인년(1734)에 이임하였다.
 서명무(徐命茂) : 갑인년에 부임하여 을묘년(1735)에 이임하였다.
 성덕함(成德涵) : 을묘년에 부임하여 정사년(1737)에 이임하였다.
 김 후(金木厚) : 정사년에 부임하여 기미년(1739)에 이임하였다.
 서신수(徐愼修) : 기미년에 부임하여 경신년(1740)에 이임하였다.
 최상형(崔尙衡) : 경신년에 부임하여 신유년(1741)에 이임하였다.
 정 승(鄭 崇) : 신유년에 부임하였다.
 이형신(李衡身) : 임술년(1742)에 부임하여 계해년(1743)에 이임하였다.
 이시혁(李始赫) : 계해년에 부임하여 을축년(1745)에 이임하였다.
 김 완(金 浣) : 을축년에 부임하여 병인년(1746)에 이임하였다.
 김응로(金應魯) : 병인년에 부임하여 정묘년(1747)에 이임하였다.
 신사엄(申思儼) : 기사년(1749)에 부임하였다.

장지항(張志恒) : 기사년에 부임하여 경오년(1750)에 이임하였다.
 조 설(趙 僎) : 경오년에 부임하여 신미년(1751)에 이임하였다.
 이윤덕(李潤德) : 임신년에 부임하였다.
 최진해(崔鎭海) : 계유년(1753)에 부임하였다.
 류혜기(柳惠基) : 계유년에 부임하여 갑술년(1754)에 이임하였다.
 류 혁(柳 赫) : 갑술년에 부임하여 을해년(1755)에 이임하였다.
 변지영(卞至英) : 을해년에 부임하여 병자년(1756)에 파직되었다.
 박량신(朴良燾) : 병자년에 부임하였다.
 김좌국(金佐國) : 정축년(1757)에 부임하여 무인년(1758)에 이임하였다.
 김천상(金天相) : 무인년에 부임하여 기묘년(1759)에 이임하였다.
 이유원(李裕遠) : 기묘년에 부임하여 경진년(1760)에 이임하였다.
 이흥원(李興遠) : 경진년에 부임하여 신사년(1761)에 이임하였다.
 이덕구(李德耆) : 신사년에 부임하여 계미년(1763)에 이임하였다.
 조국진(趙國鎭) : 계미년에 부임하여 갑신년(1764)에 이임하였다.
 이규장(李奎章) : 갑신년에 부임하여 을유년(1765)에 이임하였다.
 임익창(任益昌) : 을유년에 부임하여 병술년(1766)에 이임하였다.
 이한정(李漢鼎) : 병술년에 부임하여 정해년(1767)에 이임하였다.
 신 석(申 皙) : 정해년에 부임하여 무자년(1768)에 이임하였다.
 홍윤중(洪允中) : 무자년 정월에 부임하였다.
 이장옥(李長玉) : 기축년(1769) 8월에 부임하였다.
 윤성연(尹性淵) : 경인년(1770) 12월에 부임하였다.
 김태연(金泰淵) : 임진년(1772) 7월에 부임하였다.
 이언배(李彦培) : 계사년(1773) 7월에 부임하였다.
 이원만(李元萬) : 계사년 12월에 부임하였다.
 송적중(宋迪中) : 갑오년(1774) 12월에 부임하였다.
 한상유(韓尙裕) : 병신년(1776) 6월에 부임하였다.
 권 숙(權 璿) : 정유년(1777) 12월에 부임하였다.
 이 구(李 球) : 무술년(1778) 3월에 부임하였다.
 이정만(李徵萬) : 무술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조봉규(趙鳳逵) : 경자년(1780) 3월에 부임하였다.
 이동식(李東植) : 신축년(1781) 7월에 부임하였다.
 심지현(沈趾賢) : 임인년(1782) 정월에 부임하였다.
 권 흠(權火翕) : 계묘년(1783) 6월에 부임하였다.
 안 숙(安木肅) : 갑진년(1784) 6월에 부임하였다.
 강응환(姜膺煥) : 을사년(1785) 12월에 부임하였다.
 이항눌(李恒訥) : 무신년(1788) 6월에 부임하였다.
 조명진(趙命鎭) : 기유년(1789) 6월에 부임하였다.
 이옥연(李郁延) : 기유년 12월에 부임하였다.
 장중길(張重吉) : 신해년(1791) 6월에 부임하였다.
 정주성(鄭周誠) : 계축년(1793) 정월에 부임하였다.
 류상엽(柳相燁) : 갑인년(1794) 2월에 부임하였다.
 김석구(金錫九) : 갑인년 12월에 부임하였다.
 이수철(李壽哲) : 을묘년(1795) 12월에 부임하였다.
 김처순(金處純) : 정사년(1797) 7월에 부임하였다.
 조은석(趙恩錫) : 기미년(1799) 6월에 부임하였다.
 채현오(蔡顯五) : 신유년(1801) 2월에 부임하였다.
 김수연(金守淵) : 임술년(1802) 8월에 부임하였다.
 황면기(黃勉基) : 갑자년(1804) 9월에 부임하였다.
 이 우(李 遇) : 병인년(1806) 2월에 부임하였다.
 이유엽(李儒燁) : 정묘년(1807) 6월에 부임하였다.
 이경한(李擎翰) : 정묘년 7월에 부임하였다.
 조 수(趙山秀) : 무진년(1808) 12월에 부임하였다.
 이석원(李碩遠) : 경오년(1810) 7월에 부임하였다.
 이사수(李思秀) : 신미년(1811) 12월에 부임하였다.
 이봉석(李朋錫) : 계유년(1813) 7월에 부임하였다.
 민수현(閔修顯) : 을해년(1815) 정월에 부임하였다.
 류가원(柳可源) : 병자년(1816) 정월에 부임하였다.
 안광정(安光貞) : 병자년 윤6월에 부임하였다.

김성익(金星翼) : 정축년(1817) 3월에 부임하였다.
 신의직(申義直) : 무인년(1818) 12월에 부임하였다.
 권 억(權 抑) : 기묘년(1819) 9월에 부임하였다.
 홍석필(洪奭弼) : 경진년(1820) 6월에 부임하였다.
 서유식(徐有植) : 신사년(1821) 6월에 부임하였다.
 박시회(朴蓍會) : 계미년(1823) 정월에 부임하였다.
 류신검(柳信儉) : 갑신년(1824) 6월에 부임하였다.
 신종호(申從鎬) : 을유년(1825) 7월에 부임하였다.
 김이승(金履昇) : 병술년(1826) 12월에 부임하였다.

참령(參領)

이종관(李鍾觀) : 정유년(1897) 3월에 부임하였다.
 윤영기(尹泳璣) : 정유년 8월에 부임하였다.
 이주영(李周永) : 무술년(1898) 7월에 부임하였다.
 장기렴(張基濂) :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
 신 학(申木濤)

과거(科擧)

문과(文科)

빈우광(賓宇光) : 본조(本朝)의 갑과(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또한 중국
 에 제과(制科)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한림(翰林)에 이르렀다. 고려 사람이다.

서균형(徐均衡) : 고려 공민왕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
 렀다.

박윤문(朴允文) : 고려 때 급제하여 벼슬이 대제학에 이르렀다.

박언부(朴彦孚) : 고려 때 급제하여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박효신(朴孝臣) : 고려 때 급제하여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박문빈(朴文彬) : 고려말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정랑(吏曹正郞)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 때 대사성(大司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변중량(卞仲良) : 고려말에 급제하여 벼슬이 밀직승지(密直承旨)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벼슬이 판중추에 이르렀고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전백영(全伯英) : 고려말에 급제하였고, 조선에서는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본조(本朝)

변계량(卞季良) : 태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대제학에 이르렀다.

박 익(朴 翊) : 세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정수충(鄭守忠) : 세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서거정(徐居正) : 문종 때 급제하였고, 또 중시(重試)·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 3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고 달성군(達成君)에 봉해졌다.

송 일(宋 軼) : 성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박한주(朴漢柱) : 성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헌납(獻納)에 이르렀다.

양희지(楊稀枝) : 성종 때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었고,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배익신(裵益臣) : 성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홍찬원(洪纘元) : 중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도 하(都 夏) : 명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이수천(李壽千) : 선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전응창(全應昌) : 선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전경창(全慶昌) : 선조 때 급제하여 임금을 배알하였고 벼슬이 지평에 이르렀다.

노개방(盧盖邦) : 선조 때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도성을 함락하자 문묘(文廟)에 들어가 오성(五聖)의 위판을 끌어안으며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손 린(孫 遴) : 선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랑(正郞)에 이르렀다.

채 무(蔡 楸) : 선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佐郞)에 이르렀다.

이지영(李之英) : 선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북평사(北評事)에 이르렀다.
 이지화(李之華) : 선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서 변(徐 忭) : 인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도신수(都愼修) : 인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곽후창(郭後昌) : 효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도신여(都愼與) : 효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사예(司藝)에 이르렀다.
 정승명(鄭承明) : 효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최진남(崔鎭南) : 효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목사에 이르렀다.
 손처신(孫處愼) : 인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랑(正郎)에 이르렀다.
 이석번(李碩蕃) : 현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다.
 조시원(趙時瑗) : 현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에 이르렀다.
 이 구(李 球) : 현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손 단(孫 湍) : 현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다.
 이여주(李汝柱) : 현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최경식(崔慶湜) : 숙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정이규(鄭以奎) : 숙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우홍적(禹洪迪) : 영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다.
 조경관(趙景觀) : 영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佐郎)에 이르렀다.
 민재문(閔在汶) : 영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직강(直講)에 이르렀다.
 남석로(南碩老) : 영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현령(縣令)에 이르렀다.
 이약채(李若采) : 영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구성옥(具性玉) : 영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백인관(白仁寬) : 고려말에 급제하여 조선 태종 때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채 룬(蔡 倫) : 태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필선(弼善)에 이르렀다.
 이 재(李 栽) : 세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채 수(蔡 壽) : 세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서 도(徐 渡) : 세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학유(學諭)에 이르렀다.
 서 섭(徐 涉) : 세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곽 분(郭汾) : 문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한림(翰林)에 이르렀다.

서인원(徐仁元) : 성종 때 급제하여 벼슬이 목사에 이르렀다.

석지형(石之珩) : 인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박기정(朴基正) : 정조 때 급제하여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

인물(人物)

고려(高麗)

빈우광(賓宇光) : 수성인. 과거의 갑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또한 중국의 제과(制科)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벼슬은 한림에 이르렀다. 이익과 영달을 구하지 않고, 산수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며 삶을 마쳤다. 필법이 세상에 유명하였다.

배정지(裵廷芝) : 달성인. 충렬왕 때에 인후(印侯)를 따라 연기현(燕峻縣)에서 합단(哈丹)을 쳤는데, 칼을 뽑고 말을 달리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다. 화살이 날아와 턱을 꿰뚫었으나 상처를 싸매고 다시 싸워서 사로잡은 것과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다. 신체와 용모가 험걸차고 뛰어났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무력에 탄복하였다. 입으로 이익을 말하지 않았다.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서균형(徐均衡) : 본관은 달성. 달성군 영(穎)의 아들이고 호는 학암(鶴巖)이다. 난계(蘭溪) 김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였고, 포은(圃隱) 정선생과 도의로 교유하였다. 경자년(1360)에 급제하였으며, 병오년(1366)에 정추(鄭樞)·이존오(李存吾)와 더불어 신돈(辛旽)의 주벌을 주청하다가 축출되었다. 경오년(1390)에 정당문학으로 재직하였다. 별세하자 예장(禮葬)되었다. 시호는 정평(貞平)이다. 사적은 동사찬요(東史纂要)에 실려 있다. 옥계서원(玉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본조(本朝)

전백영(全伯英) : 본관은 옥산. 홍무(洪武) 신해년(137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포은 정선생에게 수학하였다. 헌납으로 재직할 때 포은·양촌 등 제현과 함께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것을 논척(論斥)하고 이인임(李仁任)의 주벌을 주청하다

가 국문(鞫問)을 당하고 영외(嶺外)로 유배되었다. 조선조에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평공(文平公)이다. 문장과 청백함이 국사(國史)에 실려 있다.

서 침(徐 沈) : 정평공(貞平公) 서균형(徐均衡)의 아들이고 호는 구계(龜溪)이다. 포은을 스승으로 섬겨 조예가 일찍부터 드러났다. 달성에 은거하여 이학(理學)에 전심하였다. 세종 때 달성은 천연의 요새로 성을 쌓을 만하다고 하여 다른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그 보상책을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공은 사양하고 보상을 받지 않고 고을의 백성들이 납부하는 환곡(還穀)의 이자를 다섯 되씩 줄여주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그 뜻을 의롭게 여겨 허락하고 특별히 남산의 밋 역참 터와 연신지(蓮信池)·신지(新池)를 하사하였다. 제주와 명망으로 벼슬은 체처사(制處使)에 이르렀다.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하였다.

서거정(徐居正) : 본관은 달성. 갑자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또한 중시(重試)·발영(拔英)·등준시(登俊試) 3과에 급제하였다.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봉되었고 벼슬이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이르렀으며 달성군(達成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시문에 섬민(贍敏)하여 저술한 것이 많았고, 문형(文衡)을 26년 동안 맡았다. 중국의 호부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順)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을 때 공이 접반사(接伴使)로서 시를 수창할 때 머뭇거림이 없자, 기순이 탄복하였다. 사신이 돌아가서 그의 재주를 칭찬하였고, 우리 사신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공의 안부를 물었다. 사가집(四佳集)·동인시화(東人詩話)·필원잡기(筆苑雜記)·태평한화(太平閑話) 등의 저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양희지(楊稀枝) : 본관은 중화(中和), 호는 대봉(大峯), 초명(初名)은 희지(熙止)이다. 생원·진사·문과에 급제하였다. 성종조에 입시(入侍)할 때 임금이 명하기를, “버드나무는 가지가 드문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 하시며 희지(稀枝)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호당(湖堂)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휴가를 내렸다. 벼슬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문장과 청백으로 본조명신록(本朝名臣錄)에 수록되었다.

이 영(李 榮) : 본관은 영천. 기국과 도량이 원대하고,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드디어 궁마(弓馬)에 종사하여 무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여러 번 북병사(北兵使)에 제수되었는데, 인자함과 위엄을 함께 행하여 호인(胡人)이 믿고 따랐다. 임금이 교서(敎書)를 내려 포창하며 “경은 청간(淸簡)

을 스스로 지키며 국사(國事)를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의복을 하사하노라.”고 하였다.

박한주(朴漢柱) : 본관은 밀양. 문과에 급제하였다. 점필재 김종직에게 수업하여 학문을 넓히고 의리를 익혔다. 연산군 때에 상소하여 실덕(失德)을 논하였고, 정도를 지켜서 뜻을 꺾지 않았다. 무오사화에 장형(杖刑)을 받고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갑자사화가 다시 일어났을 때 화를 당하였는데, 형벌에 이르러서도 심기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중종이 반정하여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고 죄를 입은 제현들의 원통함을 씻은 듯이 풀어주었다. 도승지에 증직되었다. 호는 오졸재(迂拙齋)이다. 남강서원(南崗書院)에 배향되었다.

서사원(徐思遠) : 본관은 달성이고, 구계선생(龜溪先生) 서침(徐沈)의 7세손이다. 퇴계에 연원을 두었고, 한강(寒岡)을 사우(師友)로 삼았다. 도학과 행의(行誼)로 벼슬이 익찬사사어(翊贊司司禦)·호조정랑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팔공산에서 창의하였고, 쌀과 콩 300곡(斛)을 모아 청도 오례산성(五禮山城)으로 수송하여 군량을 보충하였다. 병신년(1596)에 특별히 청안현감(淸安縣監)에 제수되었다. 전란 속에서도 틈틈이 학교를 수리하여 크게 문화(文化)를 일으키자, 청안인(淸安人)이 그 은택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세우고 구봉서원(龜峯書院)이라 이름하였다. 대구부에 이강서원(伊江書院)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호는 낙재(樂齋)이다.

전경창(全慶昌) : 본관은 옥산이고,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의 5세손이다. 공은 일찍이 48자로써 스스로를 깨우쳤으니, “의관을 엄정하게 함은 외면을 닦는 것이고 행의(行誼)를 순결하게 함은 내면을 닦는 것이니, 안팎을 모두 닦으면 누군들 나를 찾지 않겠는가? 의관이 엄정치 못함은 밖으로 게으른 것이고, 행의가 깨끗하지 못함은 안으로 게으른 것이니, 안팎으로 모두 게으르면 누군들 침을 빨지 않겠는가? [衣服嚴整 謂之外修 行誼純潔 謂之內修 內外相修 何人不求 衣冠不整 謂之外惰 行誼不潔 謂之內惰 內外俱惰 何人不唾]”라 하였다. 저술로는 가헌(家憲)가령((家令)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가정(嘉靖) 계유년(1573)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지평(持平)에 이르렀고,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에 증직되었다. 호는 계동(溪東)이다. 연경서원(研經書院)의 방묘(傍廟)에 배향되었다.

이숙량(李叔樑) : 본관은 영천이고, 효절공(孝節公) 이현보(李賢輔)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퇴계를 스승으로 섬겨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다. 시문

과 필법으로 세상에 유명하였다. 호는 매암(梅巖)이다. 연경서원의 방묘(傍廟)에 배향되었다.

손처눌(孫處訥) : 본관은 일직(一直)이고, 효자인 현감 손치운(孫致雲)의 손자이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선생에게 수학하였다. 학행과 효우(孝友)로 사문(斯文)의 추종을 받았다. 후학을 장려하여 학문을 성취한 선비가 많았다. 호는 모당(慕堂)이다. 청호서원(靑湖書院)에 배향되었다.

채몽연(蔡夢硯) : 본관은 인천. 한강 정구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스승을 높이고 학문을 향한 열의는 늙어도 쇠퇴하지 않았다. 호는 투암(投巖)이다. 인동(仁洞)의 소암서원(嘯巖書院)에 배향되었다.

박수춘(朴壽春) : 본관은 밀양. 아버지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행의(行誼)로 고을에 알려졌다. 병자년(1636) 이후 세상일을 끊어버리고 시 한 수를 지었는데, “입산(入山)하여 기꺼이 숭정(崇禎) 시대의 선비가 될 것이요, 속세에 머물면서 병자년(丙子年)의 백성됨을 부끄러워 하네.[入山甘作崇禎士 處世羞爲丙子民]”라 하였다. 호는 국담(菊潭)이다. 남강서원(南崗書院)에 배향되었다.

류시번(柳時蕃) : 본관은 곤산(崑山).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의 문하에 수학하였고, 행의(行誼)로 세상에 알려졌다. 호는 사월당(沙月堂)이다. 청호서원(靑湖書院)에 배향되었다.

채 무(蔡 樾) : 본관은 인천이고, 투암(投巖) 채몽연(蔡夢硯)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에 이르렀다. 문장과 도학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호는 백포(栢浦)이다. 인동의 소암서원(嘯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우배선(禹拜善) : 본관은 단양이고, 단양백(丹陽伯) 충정공(忠靖公) 우현보(禹玄寶)의 7대손이다. 나이 24세에 임진왜란을 만나자 백의(白衣)로 창의하여 여러 번 기이한 공을 세우니, 임금이 벽 위에 그의 이름을 써 놓았다. 이로부터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일등공신에 녹훈(錄勳)되었고, 벼슬은 3품에 올랐다. 광해군 때에는 문을 닫고 벼슬하지 않고 역학(易學)에 전심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학문이 췌주공(祭酒公, 禹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호는 월곡(月谷)이다. 덕동사(德洞祠)에 배향되었다.

최동집(崔東集) : 본관은 경주. 한강 정선생에게 수학하였고, 문장과 행의로 사람의 추종을 받았다. 효종이 세자였을 때 세자사부에 제수되었다. 병자년 이후에는

벼슬에 뜻을 끊고 팔공산 속에 집을 짓고 두문불출하며 의리의 학문을 강론하고 밝혔다. 호는 대암(臺巖)이다.

류여량(柳汝糧) : 약목인(若木人).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제사에 이르렀다.

이익필(李益秘) : 본관은 전의(全義).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훈련도정(訓練都正)에 이르렀다. 영조 무신년(1728)에 양무공신(揚武功臣)에 책훈(策勳)되었고, 전양군(全陽君)에 봉해졌다.

효자(孝子)

고려(高麗)

하광신(夏光臣) : 본관은 대구. 어머니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나라에서 정문(旌門)을 내렸다.

조희삼(曹希參) : 수성인. 벼슬은 군기소윤(軍器少尹)에 이르렀다. 홍무(洪武, 명나라 태조의 연호) 15년(1382)에 노모를 모시고 왜란을 피하여 경산부(京山府) 가리현(加里縣)에 이르렀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고 왜적은 뒤쫓아 왔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늙고 병들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는 말을 달려서 화를 면해야 할 것이야.”라고 하였다. 희삼(希參)이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 하고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밭 사이에 엎드려 있었다. 왜적이 칼을 뽑아 그 어머니를 내리치자 희삼이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를 덮어 자신은 적에게 해를 당하였으나 어머니는 면할 수 있었다.

김 한(金 閑) : 해안인(解顔人). 어릴 때에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모친이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하였고, 상이 끝나자 부친의 무덤을 옮기고 또 3년간 시묘하였다. 나무로 부모의 형상을 조각하여 두 무덤 사이에 두었다. 또 대롱(大籠)을 짜서 그 앞에 두고 거기에 들어가 부모의 낯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큰 호랑이가 내려와 새장 곁에서 으르렁거리도 오히려 움직이지 않자, 호랑이는 얼마 후에 떠났다고 한다.

채순(蔡順) : 수성인.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이 계셨기 때문에 무덤을 지킬 수 없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6년 동안 시묘하였고, 모친의 무덤을 부친의 무덤 곁으로 옮기고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하기를 6년 동안 하였다.

본조(本朝)

박득춘(朴得春) : 해안인. 부모를 위하여 6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중추부녹사(中樞府錄事)에 제수되었고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서시립(徐時立) : 본관은 달성.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뜻과 몸을 받드는 봉양을 다할 수 있었다.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함에 아침저녁으로 절하고 통곡하니, 호랑이도 범하지 못하였다.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그 효성에 감복하였다. 모친 강씨(康氏)도 효성이 지극하여 시부모를 모심에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으니, 공의 지극한 효성은 유래가 있는 것이었다. 학행으로 참봉에 제수되었고 좌랑(佐郎)에 증직되었다. 호는 전귀당(全歸堂)이다. 백원사(百源祠)에 배향되었다.

서달숭(徐達崇) : 전귀당(全歸堂) 서시립의 손자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고 6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²⁰¹⁾되었다.

박몽징(朴夢徵) : 본관은 밀양이고, 국담(菊潭) 박수춘(朴壽春)의 증손이다. 효도와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고, 부모상을 당하여 죽을 마시며 시묘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곽정응(郭井應) : 본관은 포산(苞山)이고, 괴헌(槐軒) 곽재겸(郭再謙)의 손자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전창항(全昌恒) : 본관은 옥천(沃川). 정성과 효성을 하늘로부터 타고나 부친이 병들자 하늘에 기도하여 자신이 대신하기를 빌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였다. 초상을 당하자 시묘하며 울부짖었고, 상복과 띠를 벗지 않았다. 관찰사 이기진(李箕鎭)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이 사실을 알렸다. 호조정랑(戶曹正郎)에 증직되었다. 호는 우봉(友峯)이다.

전창익(全昌益) : 전창항(全昌恒)의 아우이다. 부친의 병이 심해지자 목욕하고

201) 복호(復戶) : 조세나 부역을 면제함.

하늘에 기도하였고, 대변을 맛보며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였다. 장례를 치룬 뒤에 시묘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함이 그의 형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또한 모친이 돌아갔을 때에는 어려서 상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모친의 무덤 아래에 여막을 짓고 뒤에 3년상을 치루었다. 계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시묘하며 예를 다하기를 이전의 상(喪)과 똑같이 하였다. 호는 영모재(永慕齋)이다.

곽기운(郭起雲) : 정병(正兵)이다. 아버이를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였고,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이칠선(李七先) : 양인(良人, 평민)이다. 어머니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강담사리(姜淡沙里) : 상한(常漢)이다. 어머니가 병들자 지극한 효성으로 손가락을 잘랐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김남백(金南伯) : 상한(常漢)이다. 아버이를 섬김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김철일(金哲鎰) : 어릴 때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욕설이 그의 부모에게 미치자 대꾸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음식을 끓고는 나가서 놀지도 않았다. 부모가 병들자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돌아가시자 땅굴을 파고 6년 동안 시묘하였다. 명절 때마다 묘소를 지키며 밤을 새웠고, 또한 비바람이 세차고 큰 눈이 내릴 때면 무덤을 지키며 떠나지 않고 쌓인 눈을 쓸었는데,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았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하자음동(河者音同) : 양인(良人)이다. 부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영조정사년(1737)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효부(孝婦)

강 씨(康氏) : 효자 서시립(徐時立)의 모친이다. 임진왜란 때 시부모를 모시고 팔공산으로 피난갔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자 대변을 맛보았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자 하늘에 호소하며 기도하니, 매가 숫평을 잡아서 그 앞에 떨어뜨렸다. 가져와 장만해 드리자 시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이소사(李召史) : 박인홍(朴仁弘)의 아내이다. 겨우 8세 때에 부모를 모두 여

의었는데 상을 치름이 어른과 똑같았다.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시계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계모를 받들며 더욱 부지런하였다. 무뢰한이 밤에 갑자기 들이닥쳐 묶어서 싣고 가자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몰래 달아나서 돌아오는데 길을 막아서는 호랑이가 있었다. 그녀가 호랑이를 향해 “차라리 너의 입속으로 들어갈지언정 저놈의 손에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하자 호랑이가 즉시 떠났다. 시어머니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먹이고, 종기를 앓자 피고름을 빨아내었다. 국상(國喪)에 소복을 3년 동안 입었고 국기(國忌)에는 또한 소식(素食)을 먹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와 복호(復戶)가 내려졌다.

열녀(烈女)

본조(本朝)

서 씨(徐氏) : 낭장(郎將) 김내정(金乃鼎)의 아내이다. 나이 24세에 내정이 죽자 수절하여 두 남편을 섬기지 않았다. 태종 때에 정려(旌閭)와 복호(復戶)가 내려졌다.

박 씨(朴氏) : 참봉 이종택(李宗澤)의 아내이고, 취금헌(醉琴軒) 박팽년의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에 왜적을 만나자 서출의 여동생과 함께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사적이 삼강록(三綱錄)에 실려 있다. 선조 때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온 대(溫代) : 박씨의 여종이다. 임진왜란 때 그녀의 자색으로 인하여 왜적이 강제로 범하려 하자 시어머니를 업고 금호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이 씨(李氏) : 사인(士人) 이하주(李廈柱)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물과 미음도 마시지 않고 죽었다. 이 일이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이 씨(李氏) : 사인(士人) 구정리(具鼎履)의 아내이고 송재(松齋) 이우(李隅)의 후손이다. 남편이 죽자 초상과 장례를 한결같이 예법에 따랐다. 물과 미음도 먹지 않은 지 한 달 쯤 뒤에 졸곡(卒哭)을 마치고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조 정사년(1737)에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자 미(者未) : 사인(士人) 구귀징(具龜徵)의 비첩(婢妾)이다. 나이 17세에 귀

정이 죽자 성복(成服)한 뒤에 머리를 었었다. 부모가 그 까닭을 묻자 “상전이 한번 저를 돌아보았으니, 어찌 남이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라 답하고, 문밖을 나가지 않고 3년을 지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몸속에 칼을 품고서 죽기를 스스로 맹세하였고, 다른 남자와는 말하거나 웃지도 않았다. 70세에 죽었다. 영조 때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조소사(趙召史) : 최태상(崔太尙)의 아내이다.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통곡하면서 시신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함에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김재중(金載重) : 영교(營校)이다. 무신년에 역적을 토벌하라는 공문서를 가지고 함천에 이르렀다. 적에게 잡혔으나 굴복하지 않았고 적이 패하자 살아서 돌아왔다. 분무공신(奮武功臣)에 녹훈되었고, 사후에 특명으로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정사철(鄭師哲) : 호는 임하(林下)이다. 한강(寒岡) 정구(鄭述)선생에게 위기(爲己)의 학문을 배웠다. 은일(隱逸)로 천거되어 참봉을 지냈다.

채응린(蔡應麟) : 호는 송담(松潭)이다. 한강을 사우(師友)로 삼았고, 학행과 문장으로 일세의 추앙을 받았다.

곽재겸(郭再謙) : 호는 괴헌(槐軒)이다. 젊어서 한강에게 나아가 학문의 방도를 배웠다.

손 린(孫遴) : 호는 문탄(聞灘)이다. 장여헌(張旅軒)에게 사사하였고 정우복(鄭愚伏)과 도의로 교유하였고, 학행으로 세상의 추종을 받았다. 정묘호란에 창의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을 지냈다.

이 주(李輅) : 호는 태암(苔巖)이다. 한강 정구선생에게 사사하였고, 문장·경학·행의(行義)로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매암(梅巖) 이숙량(李叔樑)과 연경서원(研經書院)을 창건하였고, 임진왜란에 서낙재(徐樂齋)를 따라 창의하였다.

도성유(都聖兪) : 호는 양진당(養眞堂)이다.

도여유(都汝兪) : 호는 서재(鋤齋)이다. 형 성유와 함께 학행이 있었다. 낙재(樂齋)에게 사사하였고, 한강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행의(行義)로 세상의 칭송을 받았다.

서사선(徐思選) : 호는 동고(東皐)이고, 낙재(樂齋)선생의 사촌동생이다. 정한강·장여헌·손모당에게 수학하면서 도의로 교유하였다.

손처약(孫處約) : 호는 오매정(五梅亭)이고, 모당선생의 동생이다. 한강에게 사사하였고, 낙재·여헌 두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다. 효행으로 참봉을 지냈다.

최 계(崔誠) : 재식(才識)과 덕량(德量)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본 고을의 의병장으로 공을 세워 2등 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 사적이 행록 가운데에 실려 있다.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이휴운(李休運) : 호는 석병(石屏)이다. 한강의 문하에 종유하였고, 손모당·최대암·서동고와 도의로 교유하였다.

정 수(鄭鍾) : 호는 양졸재(養拙齋)이다. 한강에게 사사하였다. 근칙(謹館)으로 자신을 지켰고, 학문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종우(朴宗祐) : 호는 도곡(陶谷)이다. 낙재에게 사사하였고, 한강 문하에 출입하였다. 문장과 행의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도경유(都慶兪) : 호는 낙음(洛陰)이다. 모당 손선생에게 사사하였다. 재주와 행실로 천거되어 벼슬이 평양서윤(平壤庶尹)에 이르렀다. 왕이 겉옷과 속옷을 상으로 하사하고 유지(諭旨)를 내렸다. 정묘년의 호종(扈從)으로 일등공신에 녹훈되었고,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정광천(鄭光天) : 호는 낙애(洛涯)이고, 정임하(鄭林下, 鄭師哲)의 아들이다. 효성이 하늘로부터 타고나 부모를 봉양함에 어김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으로 칭송하였다.

전유장(全有章) : 호는 정봉(正峯)이다. 우암 송시열 선생에게 사사하였고, 학문이 순정(純正)하여 사림의 추종을 받았다. 우국시를 지어 뜻을 드러내었다. 효행으로 참봉을 지냈다.

우석규(禹錫珪) : 호는知足당(知足堂)이다. 우암 송시열 선생에게 사사하였고, 효우(孝友)와 학문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행적이 권수암(權遂庵)·이수곡(李睡谷)·이도암(李陶庵) 세 선생의 문집 속에 실려 있다. 음직(蔭職)으로 현감을 지냈다.

김계신(金繼信) : 임진왜란 때 큰 공이 있었고, 두 번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포로가 된 200명을 송환시켰다. 벼슬은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사(兵使)에 이르렀다.

효자

손석태(孫碩泰) :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전창정(全昌鼎) : 전창항(全昌恒)의 셋째동생이다.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세상에서 ‘한 집안의 세 효자’[一室三孝]라 칭송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복호(復戶)되었다.

허초흥(許初興) : 나이 14세에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자 세 번이나 손가락을 잘라 만나질 동안 소생시켰다. 장례를 치르고 시묘하며 슬피 울었다. 상을 마치자 병들어 죽었다. 영조 임진년(1772)에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열녀

신 씨(申 氏) : 사인(士人) 도필상(都必祥)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끈으로 자결하였는데 옷고름에 유서가 있었다. 정조 계묘년(1783)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종 설만(雪萬)은 주인집이 망하자 장례와 제례의 범절을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였다. 이 일이 알려져 속천(贖賤)되었다.

류 씨(柳 氏) : 사인(士人) 최흥락(崔興洛)의 아내이다. 남편의 병환이 위중하자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병이 치유된다는 말을 듣고 독약을 마시고 먼저 죽었다. 정조 계묘년에 복호(復戶)가 내려졌다.

전극태(全克泰) : 정봉(正峯) 전유장(全有章)의 맏아들이다. 벼슬은 현령을 지냈다. 호는 퇴헌(退軒)이다. 동생인 직장(直長) 극념(克念)·봉사(奉事) 극화(克和)와 함께 우암 송시열 선생을 사사(師事)하였다. 학문이 세상에 드러났다.

양배선(楊拜善) : 호는 간와(艮窩)이다. 대사헌 양희지(楊稀枝)의 아들이다. 무오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사화를 겪고서 영달에 뜻이 없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경원(李慶元) : 호는 매정(梅亭)이다. 사간(司諫) 이수천(李壽千)의 아들이다. 학문이 일찍부터 드러났다. 임진왜란 때 낙재 서사원 선생을 따라 창의하여 여러 차례 승리하였다. 왜적을 추격하다가 모봉(茅峯)에 이르러 탄환을 맞아 전사하

였다. 계사년에 관찰사의 장계에 따라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서재겸(徐再謙) : 호는 죽계(竹溪)이다. 낙재 서사원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여 학문을 독실하게 하고 의리를 익혔다. 임진왜란 때 망우당 곽재우와 함께 동맹하였다. 정유년에 왜구가 다시 침입해 오자 채선수(蔡先修) 등 제현과 전략을 꾀하였다. 이 일이 『공산회맹록(公山會盟錄)』에 실려 있다.

류요신(柳堯臣) : 호는 연정(蓮亭)이다. 한강 정구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다. 문학이 정밀하고 능숙하였다. 임진왜란 때 낙재 서사원 선생과 함께 창의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여러 번 승리하여 공훈을 세워 통정대부에 올랐다.

손처각(孫處恪) 호는 경려(警廬)이다. 문탄(聞灘) 손린(孫遴)의 아들이다. 모당 손처눌에게 수학하였다. 학문을 독실히 하고 스스로를 수양하였다. 자경록(自警錄)과 의례해(疑禮解)를 저술하였다. 참의에 증직되었다.

서 신(徐 慎) : 호는 성은(城隱)이다. 낙재 서사원 선생의 종질(從姪)이다. 한강 정구 선생을 사사하였다. 학행으로 세상의 추종을 받았다. 아들 서시태(徐時泰)도 또한 행의(行誼)로 천거되어 별좌(別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종문(李宗文) : 호는 낙포(洛浦)이다. 선조 무자년(1588)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벼슬은 현감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낙재 서사원을 따라 창의하여 팔공산에 들어가 여러 차례 승리하였다. 세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있었다. 만년에 강가에 정자를 짓고 하목정(霞鷺亭)이라 편액하였다. 승지에 증직되었다.

최동률(崔東崙) : 호는 채천(蔡川)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한강 정구 선생과 낙재 서사원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학식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곽 용(郭 涌) : 호는 유계(柳溪)이다. 괴헌(槐軒) 곽재겸(郭再謙)의 아들이다. 낙재 서사원 선생과 한강 정구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장과 학문으로 세상의 추종을 받았다.

류사온(柳思溫) : 호는 구정(龜亭)이다. 낙재 서사원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다. 문학과 덕행, 효행과 우애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자 천거되어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최성원(崔成元) : 호는 직재(直齋)이다. 한강 정구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동래(東萊)로 가서 절사(節死)하였다. 시가 있다.

채 모(蔡 模) : 한강 정구 선생과 여헌 장현광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효행과 청렴으로 벼슬이 의금부 도사에 이르렀다.

나응숙(羅應淑) : 호는 묵헌(默軒)이다. 한강 정구 선생과 낙재 서사원 선생을 사사하였다. 학행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김 원(金 源) : 호는 망강정(望江亭)이다.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을 종유하였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였다. 선조 때 교관에 제수되었으며 을사년(1605)에 녹훈되었다. 공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채선길(蔡先吉) : 호는 금탄(琴灘)이고, 채응린(蔡應麟)의 아들이다. 정묘호란 때 의병장이 되었다. 좌랑에 제수되었으니 나아가지 않았다.

박충후(朴忠後) :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5세손이다. 임진왜란 때 음직(蔭職)으로 현감을 지냈다. 동생 박충윤(朴忠胤)과 함께 창의하여 도원수 권율을 따라 여러 번 공로가 두드러졌다. 왕이 무경칠서(武經七書)를 하사하며 무예를 권장하였다. 급제하여 벼슬이 부총관에 이르렀으며, 일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최동직(崔東山直) : 호는 향암(香巖)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모당 손처놀이 시를 주고받으며 유유자적하였다.

박승고(朴崇古) : 풍모가 빼어나고 홀룡하였으며, 문학을 겸비하였다. 벼슬은 익찬(翊贊)에 이르렀다. 네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지대하여 포상을 받았다.

박승장(朴崇章) : 도곡(陶谷) 박종우(朴宗佑)의 아들이다. 효행과 우애가 타고났으며 문학이 세상에 두드러져 관찰사의 장계에 의해 현종 때 벼슬이 주부에 이르렀다.

박승환(朴崇煥) : 호는 낙애(洛涯)이다. 행동이 독실하고 청렴함과 검소함을 지녔다. 당시 중국인의 “홀로 조양(朝陽)에 앉아 거문고를 안고 독서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서 치(徐 穉) : 자(字)는 공실(公實)이다. 자품이 뛰어나고 재주가 탁월하였다.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관직에 있을 때에는 청렴결백하였고 집에 있을 때에는 효도하고 우애하였다. 행적이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전극초(全克初) : 전유장(全有章)의 아들이고, 호는 청풍(淸風)이다. 송우암(宋尤庵, 宋時烈)을 사사하여 “뜻을 숭상하고 곧음을 기르며, 분수에 편안해 하고

도를 즐긴다[尙志養直 安分樂道]”라는 구절을 받았다.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다.

우명격(禹命格) : 호는 교은(郊隱)이다. 도암(陶菴) 이재(李穡)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학행으로 포상을 받았다.

서 호(徐 琥) : 호는 행와(杏窩)이고, 낙재 서사원 선생의 5세손이다. 학문은 집안을 계승하였다. 문장과 행의(行誼)로 세상의 추종을 받았다. 영조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천거되어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기사년에 왕이 대보단(大報壇)을 증축하고 친히 제사지낼 때 공은 참판으로 가서 느낌이 있어 시를 읊었다. 그 시구에 “꿈에 드니 송정 전의 세상이요, 몸이 태어나니 병자년 후에 산천이라네. 조종문은 우뚝하여 춘추대의와 같고, 대보단은 높아 해와 달과 같네.[夢入崇禎前世界 身生丙子後山川 朝宗門屹春秋炳 大報壇高懸日月]”라 하였다.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석문(石門) 윤봉오(尹鳳五) 두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며 도의로 교유하였다.

구용징(具龍徵) : 호는 경타현(警惕軒)이다. 숙종 때 예전에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두 선생이 무고받은 일을 항소(抗疏)하여 논변(論辨)하였다. 도암(陶菴) 이재(李穡)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선생께서 특별히 서재의 이름을 지어 써서 주셨다.

최흥원(崔興遠) : 자는 여호(汝浩), 호는 백불암(百弗菴)이고 최동집(崔東集)의 5세손이다. 학문이 정수(精粹)하고 행의(行義)가 순수·독실하였다. 사망에서 배우러 오는 자가 많았다. 부인동(夫仁洞)에 모임을 결성하여 선공고(先公庫)와 홀빈고(恤貧庫) 두 창고를 두었으며 정전(井田)과 향약(鄉約)을 모방하였다. 정조 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익찬(翼贊)을 지냈고,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효행으로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문집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조춘경(趙春慶) : 호는 승와(升窩)이고, 어계(漁溪) 조려(趙旅) 선생의 후손이다. 문장과 행의가 있었다.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정조 때 시경과 중용을 참고(參考)한 일로 관찰사의 장계에 의해 포상을 받았다.

박경필(朴慶必) : 호는 애련당(愛蓮堂)이다. 풍채가 단정하고 효행과 우애가 순수·지극하였다. 독실하게 배우고 힘써 실천하여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박광구(朴光久) : 문장이 일찍 드러나 명성이 알려졌으며 추종을 받았다. 정조

때 천거되어 음사(蔭仕)로 벼슬이 의금부도사에 이르렀다.

구문한(具文漢) : 호는 화호(花湖)이다. 영조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역천(櫟泉) 송명인(宋明寅)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다.

우재악(禹載岳) : 호는 인촌(仁村)이다. 문학과 재주로 칭송을 받았다. 정조 때 오경백선(五經百選)을 교정한 일로 관찰사의 장계에 의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서관수(徐寬修) : 호는 만룡(晩龍)이다. 곤궁했으나 뜻을 지켰으며, 학식이 넉넉하였다. 두 번이나 관찰사의 천거를 받았다.

하시찬(夏時贊) : 호는 열암(悅庵)이다. 명성당(明誠堂) 이의조(李宜朝) 선생을 사사하였다. 경술이 고명하고 예학이 탁월하였다. 산목헌(山木軒) 김희순(金羲淳)이 도내를 안찰할 때 예의(禮義)를 강론하였다.

이원섭(李元燮) : 호는 외헌(畏軒)이고, 행휴재(行休齋) 이약채(李若采)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재주와 행실로 누차 참봉(參奉)에 천거되었다.

절의

박일산(朴一珊) : 진사 박순(朴珣)의 아들이다. 병자년(1456)에 온 집안이 몰락하고 모친 이씨는 본부의 관비(官婢)가 되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관비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씨는 아들을 낳았는데 마침 여종이 딸을 낳아 아이를 바꾸어 길렀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조정에서 내린 죽이라는 명을 알고서 서울로 가서 자수하였다. 왕은 특명으로 사면해주었다. 절의로 부친과 함께 정려를 받았다.

효자

서 렬(徐 濂) : 효행이 탁월하였다. 의금부도사에 증직되었다.

서명보(徐命普) : 호는 북곽(北郭)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니 비둘기와 꿩이 저절로 날아들었다.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입안에 넣어 드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정조 기미년(1799)에 암행어사의 장계에 의해 좌랑에 증직되었다.

박진인(朴振仁) : 호는 송암(松庵)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여 참봉에 제수되었다.

강순항(姜順恒) :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여 병술년(1826)에 복호(復戶)를 받았다.

열녀

성 씨(成 氏) : 사인(士人) 박지운(朴之運)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음식을 끊고 죽었다. 정조 갑진년(1784)에 정려가 내려졌다.

남 씨(南 氏) : 사인(士人) 이만섭(李萬燮)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몸소 여러 준비물들을 점검하였다. 미리 두 개의 무덤을 마련해 두고 장례를 치르고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정조 정사년(1797)에 정려가 내려졌다.

윤 씨(尹 氏) : 사인(士人) 이성후(李成厚)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두 딸이 급히 물에 뛰어들어 모친의 시신을 끌어안고 죽었다. 정조 정사년(1797)에 정려가 내려졌다.

최 씨(崔 氏) : 사인(士人) 도필해(都必海)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었을 때 최씨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아이를 분만한 후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순조 경오년(1810)에 정려가 내려졌다.

홍 성(洪 姓) : 감영 아전 이항언(李恒彦)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예를 다하고 대상(大祥)이 끝나는 날 독약을 먹고 남편을 따라갔다. 순조 임진년(1832)에 정려가 내려졌다.

송 씨(宋 氏) : 사인(士人) 정광일(鄭匡一)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독약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갔다. 그 딸과 여종도 남은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한 집안의 세 가지 윤리[一室三綱]’라 할 만하다. 순조 임진년(1832)에 정려가 내려졌다.

제 영(題 詠)

●달성십경(達城十景)-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시

금호범주(琴湖泛舟)

금호강 맑은 곳에 놀이배를 띄우니
이토록 한가롭고 백구는 가까이 있네
흠뻑 취해 달 밝을 때 노 저어 돌아가니
오호(五湖)²⁰²⁾에서 노닐만 풍류는 아니로세

琴湖清淺泛蘭舟
取此閑行近白鷗
盡醉月明回棹去
風流不必五湖遊

입암조어(笠巖釣魚)

안개비 부슬부슬 연못에 가을 드니
낚싯대 드리우고 홀로 앉아 유유자적
미끼 아래 작은 고기 제법 있지만
자라 낚지 못해 그만둘 수 없다네

煙雨空濛澤國秋
垂綸獨坐思悠悠
織鱗餌下知多少
不釣金鰲釣不休

구수춘운(龜岬春雲)

거북산 흐릿하여 금오산 같은데
무심한 구름 또한 뜻이 있으리
대지의 생명들 바라는 바 있으니
아무 뜻 없이 단비를 내렸겠는가

龜岑隱隱似鰲岑
雲出無心亦有心
大地生靈方有望
可能無意作甘霖

학루명월(鶴樓明月)

일년에 열두 번 보름달이 뜨지만
한가위에 가장 둥글게 된다네
다시 긴 바람 구름을 쓸어 가니
온 누각에 나쁜 기운 불을 곳 없네

一年十二度圓月
待得中秋圓十分
更有長風掃雲去
一樓無地着纖氛

남소하화(南沼荷花)

새로 핀 연꽃 엽전 포개듯 하지만
활짝 피면 그 크기 배만큼이나 된다네

出水新花疊小錢
開花畢竟大如船

202) 오호(五湖) : 범려가 은거했던 곳으로 경치 좋은 호수이다.

너무 커 쓰일 곳 없다 말하지 말게
만백성의 고질병 낫게 한다네

莫言才大難爲用
要遣沈痾萬姓痊

북벽향림(北壁香林)

오랜 절벽에 향나무 창같이 길고
항상 바람 불어 사계절 향기 나네
은근히 다시 북돋아 준다면
맑은 향기 온 고을에 퍼지리라

古壁蒼杉玉梁長
長風不斷四時香
慇懃更着栽培力
留得清芬共一鄉

동화심승(桐華尋僧)

멀리 절에 올라가니 돌길 굽이굽이
푸른 지팡이 흰 버선에 또 검은 지팡이
지금 흥겨움 아는 이 없으니
흥은 청산에 있지 스님에게 있지 않다네

遠上招提石逕層
青藤白襪又烏藤
此時有興無人識
興在青山不在僧

노원송객(櫓院送客)

길에는 해마다 버들빛 푸른데
주막 수없이 장정(長亭)에 잇닿아 있네
양관곡(陽關曲)²⁰³ 부르고서 각각 이별한 뒤
모래밭에는 두 개의 흰 술병만 누워 있다네

官道年年柳色青
短亭無數接長亭
唱盡陽關各分散
沙頭只臥雙白瓶

공령적설(公嶺積雪)

천 길 높이 팔공산 우뚝히 서 있는데
쌓인 눈 하늘 가득 이슬처럼 맑다네
사당에 신령 있음을 알겠나니
해마다 삼백(三白)²⁰⁴ 내려 풍년이로세

公山千丈倚峻層
積雪漫空沆瀣澄
知有神祠靈應在
年年三白瑞豐登

203) 양관곡(陽關曲) :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

204) 삼백(三白) : 정월 초사흘에 내리는 눈.

침산만조(砧山晩照)

물은 서쪽으로 흐르고 산머리 끊어졌는데
 푸른 침산(砧山)에 가을이 찾아드네
 저물녘 어디서 방아소리 급한가
 석양에 한결같이 나그네 시름 짙는구나

水自西流山盡頭
 砧巒蒼翠屬清秋
 晚風何處舂聲急
 一任斜陽搗客愁

●송서사가형제영친귀달성(送徐四佳兄弟榮親歸達城)

•하위지(河緯地)선생의 시

한 집안의 형과 아우 명성이 향기로워
 형은 집금오(執金吾)²⁰⁵ 아우는 옥당
 백발의 어머니 응당 효도를 받으리라
 영남(嶺南)에 금의환향 영광스럽네
 우애 독실한 그대 형제가 부럽고
 나무 한 그루 양보 못하는 나 홀로 슬퍼
 고개 돌려 월파정(月波亭) 아래 길 바라보니
 울창한 송백(松栢)이 온 산에 가득하네

一家兄弟姓名香
 兄執金吾弟玉堂
 鶴髮北堂膺孝養
 錦衣南國已輝光
 鵠原前後君堪羨
 荊樹參差我獨傷
 回首月波亭下路
 滿山松栢鬱蒼蒼

•이개(李垕)선생의 시

구름 보며 귀향 소식 급히 알렸는데
 모친은 아직 선녀처럼 아름다우리라
 술잔 올려 만수무강 축원 드릴 때
 술동이에 군은(君恩)이 젖어 있으리라
 미담(美談) 고향 어른들에게 전해져
 아름다운 기운 고향 마을에 가득하리라
 효도의 이치 문교(文教)에서 나오리니
 나라에서 근본을 소중히 여기리라

望雲飛傳急
 仙桂媚堂萱
 爵上南山壽
 樽涵北闕恩
 美談歸父老
 佳氣藹鄉村
 孝理仍文教
 邦家重本源

205) 집금오(執金吾) : 궁문(宮門)을 호위하는 무관의 우두머리.

•전귀당(全歸堂)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의 시

들으니 영남에 서시립(徐時立)이란 분	傳說南州徐孺子
초당의 편액을 전귀당이라 하였다네	草堂華扁是全歸
백발에도 어버이 추모 어여뻐 여기노니	遙憐白首增追慕
죽순 푸를 때 ²⁰⁶⁾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네	竹筍青時淚滿衣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의 시

달성의 효자 서시립	達城孝子徐時立
그의 효도 그의 모친과 같다고 하네	其孝人稱類厥慈
오늘 우연히 삼성록(三省錄)을 보니	今日偶見三省錄
이런 효도하는 아들 두고 싶다네	有子如此有兒宜

•남선(南銑)의 시

하늘에서 팔공산 아래 내린 효자	天生大孝公山下
보고 배운 것 어머니의 자애로움이라네	觀感無非母也慈
꿩 얻고 생금 얻은 일 ²⁰⁷⁾ 하늘이 감동한 것이니	錦翼金精誠所激
이런 정성 어찌 신령을 감동시키지 않으리오	箇中靈應不其宜

•사간(司諫) 홍여하(洪汝河)의 시

팔공산 우뚝하고 강물 깊고 넓으니	公山嶹嶹水泱泱
맑은 기운 도와 훌륭한 인물 배출하였네	淑氣扶輿產奇祥
서거정 같은 인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孕出四佳不獨當

206) 죽순 푸를 때 :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맹종(孟宗)의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어 하자, 맹종이 대숲에 들어가 하늘에 애원하였다. 그 때 죽순이 갑자기 솟아나오자 맹종이 어머니께 올렸다고 한다.

207) 꿩 얻고 생금 얻은 일 : 임란 때 서시립의 모친 강씨가 시부모를 부양할 양식이 없어 하늘을 향해 탄식하니 매가 꿩을 떨어뜨렸고, 서시립이 조모를 위해 약을 캐러 산에 갔다가 생금(生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삼성록(三省錄)』에 있음.

덕행 빼어난 인물이 대대로 이어졌네
 효자 서시립의 어머니는 효부 강씨로
 꿩이 밭에 떨어져 시어머니가 드시도록 하였다네
 참새 얻고자 하면 참새 얻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남금(南金)²⁰⁸이 창고에서 찬란히 나오는 듯하네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니
 태수도 신발 거꾸로 신고 급히 찾아온다네
 학사(學士)들이 지은 시 벽에 넉넉히 걸려있으니
 그 행실이 온 고을에 모범이 되었으리라
 성대에 충신에게 총애와 영광을 내렸으니
 중거(仲車)선생이 남창(南昌)을 다스리게 되었네
 공의 탄생 동국(東國)에서 모두 바란 바
 공산(公山)은 푸르고 물은 넓고 깊도다
 효자가 장수하고 덕이 더욱 높아지니
 들나물과 물고기에 산주(山酒)가 향기롭네
 골짜기의 솔바람은 생향을 연주하는 듯하고
 아들 손자 효제(孝悌)하며 가법을 익히네
 해마다 물고기 잡아 이 건물에 올려서
 공산을 노래하고 공의 장수를 기원하리라

絕德殊行世聯芳
 孝子有母孝婦康
 雉飛墮田遺姑嘗
 欲雀得雀事堪方
 南金燦燦發閤藏
 亦緣孚誠感穹蒼
 太守褊舄倒趨蹌
 學士題詩剩掛牆
 豈惟家行範邦鄉
 聖代求忠錫寵光
 仲車先生擅南昌
 公生東國蔚相望
 公山蒼蒼水泱泱
 孝子眉壽德彌長
 野蔌溪毛山酒香
 松風一壑獻笙簧
 兒孫孝悌嚙家常
 歲歲擊鮮登玆堂
 歌我公山壽公觴

• 손처눌(孫處訥)선생의 시

고을 수렐 수레 타고 방문하였으니
 그대의 효심 돈독함을 알겠네
 공중으로 높이 물길을 내고
 돌 다듬어 시냇가에 집 지었네
 구석진 곳이라 속세와 떨어져 있고
 산 깊어 사슴들 무리지었네

地主傾遊盖
 知君孝思敦
 跨空開水道
 鑿石架溪軒
 地僻塵凡隔
 山深麋鹿群

208) 남금(南金) : 중국 남쪽의 형주(荊州) 양주(楊州) 등지에서 산출되는 황금.

이곳 수없이 빼어난 경치
말하려니 이미 말을 잊었네

此間多少景
欲辨已忘言

•사부(師傅) 최동집(崔東集)의 시
땅은 빈 골짜기로 남아 있기도 하나
사람은 푸른 산 저버리지 않는다네
꽃은 붉은 이슬 머금어 젖어있고
이끼는 푸른 옷처럼 빛나네
수면은 바람 불자 거울 같고
하늘엔 밝은 달 옥처럼 걸려 있네
마을은 도리동(道理洞)에 있는데
별 떨어진 물굽이와 얼마나 흡사한가

地有傳空谷
人無負碧山
花含紅露濕
苔化綠衣斑
水面風磨鏡
天腰月帶環
村居道理洞
何似落星灣

•부사(府使) 김윤안(金允安)의 시
자식 도리로 마땅히 효도해야 하니
이 일은 사람이 돈독히 해야 한다네
밭 갈아 노모를 봉양하면서
물가에 작은 집 세웠네
부끄럽네 이 몸 다섯 말 봉록에 매여 있고
슬프네 자식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네
홀로 옛 뜻을 온전히 하고자 하나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爲子職當孝
此事人所敦
耕田養老母
臨水架山軒
慙吾淹五斗
嗟子久離群
獨全太古意
此意與誰言

●영회당(永懷堂)

—부의 동문 밖에 있다. 상덕사 강당의 편액 이름이다.

•도암(陶庵) 이재(李穡) 선생이 사당에 배알한 뒤 상사(上舍) 백구성(白龜成)의
시에 차운하다[陶庵李先生緯締謁廟後奉和白上舍龜成韻]

유상(遺像)은 어릴 적 꾀시던 모습과 완전히 같은데	宛似童年侍
장막 뒤에 옮겨졌으니 따르는 사람 누구리오.	誰從幕後移
덕스런 모습은 봄 기운 가득하고	德容春滿座
어진 은택은 때맞은 비와 같네	仁澤雨偕時
옛 영광 이미 거의 사라졌으니	古光略已盡
후생들 어찌 알아리오	後生那得知
풀 자란 섬돌 배회하노라니	徘徊階草色
뜨락에 들바람이 불어오네	庭宇野風吹
어느덧 삼진날 되니	偶值三三節
생신날이 돌아온 것 같아라	依然晬日廻
동향(桐鄉) ²⁰⁹ 의 유상(遺像)을 보니	桐鄉七分貌
소손(小孫)을 모시고 온 듯하네	如待小孫來

●동계서재(東溪書齋)²¹⁰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선생의 시

인흥사는 포산 기슭에 있는데	仁興社在苞山麓
옛적에 내가 공부하던 곳이라네	昔我曾遊伴雪螢
신자(信者)들 때때로 예불 올리고	檀越有時來禮佛
고승은 한낮에 앉아 불경을 강론하네	闍梨淸晝坐談經
뜰에는 흰 탑 하나 우뚝 서 있고	立庭一塔亭亭白
오솔길에 소나무 모두 푸르네	夾道長松箇箇青
하늘에 황금색 붓 가장 잘 기억하노니	最憶黃金天上筆

209) 동향(桐鄉) : 중국 안휘성(安徽省) 동성현(桐城縣)의 북쪽에 위치한 지명인데, 자신이 다스렸던 고을을 뜻한다. 한나라 때 주읍(朱邑)이 동향(桐鄉)의 색부(齋夫)가 되어 그곳을 잘 다스렸는데, 뒤에 그가 죽을 무렵 아들을 불러 자기가 죽거든 동향에 묻어달라고 하였다. 아들이 그의 말대로 동향에 안장하니, 이곳 백성들이 모두 그를 사모하여 사당을 세워 향사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循吏傳 朱邑]

210) 동계서재(東溪書齋) : 한강 정구가 세운 서재. 여기에 고려 때에 인흥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도은 이승인이 왕래하며 시를 읊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은 빛을 별들에게 비추네

至今光焰射華星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선생의 시

바위산 울퉁불퉁 오르기 어려워

山石巉巖未易躋

나귀 풀어놓고 지팡이 짚고 오르노라

放驢隨意杖枯藜

한자(韓子)의 정성에 감동되어 구름 걷히고²¹¹⁾

雲開韓子精誠感

유랑(劉郎)은 꽃 지는 풍경에 길을 잃었네²¹²⁾

花落劉郎物色迷

길고 짧은 등넝쿨 묶은 길을 가로막고

長短藤枝橫故路

높고 낮은 나뭇잎 맑은 시내를 덮고 있네

高低樹葉覆清溪

하루 종일 걸어가도 말할 사람 없고

行行盡日無人語

다만 산새들 마음껏 지저귀네

惟有幽禽自在啼

•한강(寒岡) 정구(鄭述)선생의 시

동계 가에 집터를 정하고 나서

卜宅東溪上

남북의 빼어난 인물 만나게 되었네

逢人斗北南

떠돌 한 줌 나눠 주길 기약하노니

期分茅一把

이 강가에서 한평생 늙어가리라

終老此江潭

•안국암(安國巖)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선생의 시

계곡과 산의 맑은 경치 끝없이 넓은데

溪山清景浩無邊

더욱이 단풍 물든 9월을 만났네

又值丹楓九月天

누가 나그네 불러 언덕 위에서

誰喚行人斷岸上

술 한 통 두고서 풍경 감상하리오

一樽留與嘗風烟

211) 한자(韓子)의 ... 구름 걷히고 : 옛날 한유가 형악(衡嶽)에 올라가 기도하자 운무가 걷힌 일을 말한다.

212) 유랑(劉郎)은 ... 길을 잃었네 : 진(晉)나라 유자기(劉子驥)가 복사꽃이 떠내려 오는 물길을 따라 도화원을 찾으려 하다가 실패한 일.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보인다.

●사미정(四美亭)

-세워진 정자는 부의 남쪽 80리 각북면[예전에는 밀양에 속하였음]에 있다.
연대가 오래 되어 누가 세웠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시

사미정 이름 들은 지 오래인데	亭名聞已久
오늘에야 비로소 찾아오게 되었네	今日始來尋
시냇물 소리는 귀를 맑게 하고	溪舌清人耳
산 모습은 마음을 기쁘게 하네	山顏悅我心
모래밭엔 죽룡(竹籠) 잠겨 있고	帶沙筠籠淺
붓도랑에 물 가득 넘쳐 흐르네	水分稻畦深
오래도록 앉았노라니 그윽한 흥취 일고	久坐探幽興
흠뻑 취하여 나도 몰래 시를 읊네	陶然不覺吟

•무진재(無盡齋) 박신(朴愼)의 시

계곡과 산 아름다운 이곳에	溪山佳麗處
천지간에 한가로운 늙은이 있네	天地一閑翁
꽃과 버들은 봄의 아름다움 다투고	花柳爭春艷
논밭은 여름 되자 훤히 트이네	壠畦入夏通
달은 맑은 밤에 고운 빛 비추고	月妍清夜色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떨기 간직하네	竹保歲寒叢
반평생 자연의 아름다운 흥취	半世烟霞趣
사미정에 모두 모아 두었네	都輪四美中

●국담정(菊潭亭)

-부의 남쪽 80리 각북면 남강서원(南崗書院)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한강(寒岡)선생의 시

번화한 곳 피해 고요한 곳으로 떠나니	違喧處靜遠離群
----------------------	---------

고요한 이곳엔 속세의 기운이 끊어졌네
아노니 오졸재가 남긴 옛터 여기라는 걸
이 골짜기에 예전의 일 계속 이어지리라

夥爾幽居絕世氛
拙老遺墟知在此
也應空谷繼前塵

•동계(桐溪) 정온(鄭蘊)선생의 시

고개 위 구름 강가의 나무에 소식조차 끊기니
그리운 마음 가을 되니 더욱 견디기 어렵다네
은자로 사는 그대 맑은 마음 생각해 보니
뜨락에 국화 피고 연못에 물 가득하리라

嶺雲江樹隔書函
別思逢秋更不堪
想得幽人清意味
菊開庭畔水盈潭

•무진대(無盡臺)

—부의 남쪽 80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무진재(無盡齋) 박신(朴愼)의 시

무진대(無盡臺) 이름은 다함없다는 뜻
계곡과 산의 풍월(風月) 다함이 없다네
조물주의 간직함 다함이 없게 하였으니
이곳의 그윽한 흥취 더욱 다함이 없네
시냇가에 누대 하나 새로 세웠는데
대나무와 소나무가 앞뒤로 둘러 있네
누가 알리오 이곳의 무진장한 흥취
약초 캐고 물고기 잡는 즐거움이라네

無盡臺名意無盡
溪山風月浩無盡
任教造物藏無盡
此間幽興更無盡
孤臺新築小溪邊
修竹長松擁後先
誰識箇中無盡趣
採山漁水樂悠然

•국담(菊潭) 박수춘(朴壽春)선생의 시

선인께서 이 언덕에 누대를 세웠으니
이곳에 선현들 노닐었기 때문이라네
그대들 경치 좋다 말하지 말게나
물소리 산빛 모두 나의 근수이로다

先人當日築斯丘
爲是前賢此地遊
諸子莫言風景好
水聲山色總余愁

•승란정(勝蘭亭)

—부의 남쪽 80리 각북면[예전에는 밀양에 속하였음]에 있다. 연대가 오래되어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밀양부사(密陽府使) 이경우(李慶祐)의 시

험한 고개 높은 산 사면으로 둘러는데	峻嶺崇山面面回
이 높은 누각에 태평 세월 녹아 있네	太平烟月此高臺
술 마시며 날마다 풍악을 연주하니	羽觴連日催絃管
난정의 곡수연(曲水宴) ²¹³ 보다 더욱 좋아라	猶勝蘭亭曲水杯

•압로정(狎鷺亭)²¹⁴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의 시

산기슭엔 푸른 나무 산 앞엔 물	山邊碧樹山前水
강 너머엔 푸른 들판 물가엔 집	水外靑郊水上家
산수를 평하는 건 다른 뜻 아니라	評水評山無外事
평생 동안 벗들 찾아오길 원해서라네	生平只願故人過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선생의 시

생각해보니 스승에게 글 배우던 때	憶曾負笈從師日
절벽 위 정자에서 자주 모시었네	杖屨頻陪壁上家
온갖 병에 성취함도 쓸모도 없으니	百病無成餘朽木
서쪽 숲으로 어찌 다시 찾아가리오	西林何面再堪過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선생의 시

213) 난정의 곡수연(曲水宴) : 중국 동진(東晉)의 왕희지가 회계(會稽)에 있는 난정(蘭亭)에서 벗들과 놀이할 때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즐긴 일.

214) 압로정(狎鷺亭) : 참판 이영(李榮)이 금호강 가에 세운 정자. 외손 채응린(蔡應麟)이 여기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바다 밖에 진경(眞境) 있다 말하지만
 세상에 도리어 선가(仙家) 있다네
 주인이 선인의 뜻 이어받아
 손님과 벗 날마다 와도 싫어하지 않네

海外徒聞眞境在
 世間還有地仙家
 主人能繼先人志
 不厭賓朋日日過

•간성당(干城堂)

•풍원군(豊原君) 조현명(趙顯命)의 시

푸른 옷의 무사들이 모이니
 석양에도 과녁이 분명하다네
 변방 지키는 일 중요하니
 군자의 활쏘기 열었네
 심양(瀋陽)에 비린내 풍기니
 북쪽 변방의 성에 칼이 날카롭네
 힘써 자신의 목숨 가볍게 여김
 거기면 성군의 백성이 아니라네

靑袖虎士集
 斜日鵠心明
 爲是邊防重
 且觀君子爭
 腥塵遼瀋界
 利劍薩麻城
 勗爾輕躬命
 支非聖主氓

•관찰사(領府事) 김상로(金尙魯)의 시

백년 동안 전쟁 없어
 온 세상이 태평세월 누렸네
 태평 세월만 믿을 게 아니니
 어찌 전쟁을 잊으리오
 씩씩한 군사는 곰과 호랑이 같지만
 쇠약한 군사는 간성(干城)에 부끄럽네
 대대로 임금님 은혜 무거웠으니
 힘쓸지어다 그대들 또한 백성이로세

百年無警急
 四海屬清明
 莫以昇平恃
 寧忘戰伐爭
 健驍足貔虎
 衰劣愧干城
 歲歲君恩重
 勗哉爾亦氓

•하빈창(河濱倉)

•김백옥(金伯玉)의 시

강어귀 옛 고을 이름은 하빈(河濱)
나그넷길 먼데 새해는 가까웠네
영남 칠십 고을 두루 다니노라니
수의(繡衣)²¹⁵도 말도 모두 고생하네

江頭古縣號河濱
客路迢迢歲向新
七十南州行欲遍
繡衣驄馬亦酸辛

•남운경(甫雲卿)의 시

어느 해에 암행어사 하빈을 지나갔던가
문설주 위의 시 먹빛 여전히 새롭네
이런 흥취 응당 나보다 먼저 알았지만
나그넷길 어디에나 고생스럽지 않으리오

何年繡衣過河濱
楣上題詩墨尙新
此味已應先我識
客行無處不酸辛

•하목당(霞鵞堂)

•용계(龍溪) 김지남(金止男)의 시

관찰사 되어 나룻배 타려 하니
호각 소리 마름풀 물가에 먼저 이르네
주인이 술로 손님 맞이하노라니
끝없는 경치 누각에 가득하네
트인 들판 넓은 모래밭 멀리까지 보이고
향기로운 비 맑은 구름 유람을 북돋우네
요즈음 산수 사랑 취미가 되었는데
오늘밤 어긋난 계획에 가슴 아프네
깊은 땅 맑은 강 별천지 같으니
은둔하기에 이곳이 정녕 알맞다네
나그네 어렴풋이 푸른 노을 밖에 있고
그림자는 아득히 백조 옆에 어른거리네

弭節將乘古渡舟
角聲先到白蘋洲
主人有酒能迎客
光景無邊政滿樓
野濶沙平供遠望
雨香雲淡助清遊
年來愛水曾成癖
此夕偏傷計謬悠
地迴江清別有天
隱淪端合此盤旋
人行縹緲青霞外
影落蒼茫白鳥邊

215) 수의(繡衣) : 암행어사의 별칭.

앞 포구에 비 내릴 때 그물 거두고
 호미 들고 돌아가는 곳 연기 나는 마을이라
 어찌하면 함께 한가위 달을 마주하고서
 낚싯배에 술 싣고 물길 따라 놀아보나

收網去時前浦雨
 荷鋤歸處小村烟
 何當共待中秋月
 載酒沿洄弄釣船

•설죽(雪竹) 조국빈(趙國賓)의 시

누각 높이 서 있고 물빛은 하늘에 닿으니
 금채찍 옥발걸이 말을 다시 되돌렸네
 어부는 맑은 못에서 그물 거두고
 상인은 황혼녘에 물을 건너네
 나그네 귀밑머리 절로 눈빛처럼 밝고
 이로부터 인정은 안개보다 더욱 맑네
 그대도 달을 안고 같은 곡조 노래하니
 강호에서 함께 뱃놀이 하세나

眺望憑高水接天
 金鞭玉鐙更回旋
 漁人捲網澄潭下
 賈客移舟落照邊
 旅鬢任他明似雪
 世情從此淡於烟
 看君月抱眞同調
 俱是江湖不擊船

•이제(李穡)의 시

침구 집이 낙동강 가에 있어
 수양버들 무성하니 말을 더디 몰게 되네
 경치 좋은 곳이 나를 기다리니
 반평생 행장 꾸려 때때로 길을 나서네
 담대멸명은 자유를 찾아가지 않았고²¹⁶⁾
 산간은 제습씨(諸習氏)의 연못 자주 찾았네²¹⁷⁾
 당의 이름 하목(霞鵞)이라 지었고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시 지었다네

故人家住洛東涯
 楊柳陰陰策馬遲
 烟月一區爰待我
 行裝半世且隨時
 澹臺不入言游室
 山簡頻過習氏池
 試看堂名霞鵞字
 不須模寫倩新詩

216) 담대멸명은 ... 찾아가지 않았고 :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을 다스릴 때 공자가 그에게 훌륭한 사람을 얻었는지 물으니, 자유가 담대멸명(澹臺滅明)을 칭찬한 말.[논어 옹야(雍也)]

217) 산간은 ... 찾아갔어라 : 산간(山簡)은 진(晉)의 죽림칠현(竹林七賢) 산도(山濤)의 아들. 그는 정남장군(征南將軍)이 되어 양양(襄陽)에 있을 때 지방 호족인 제습씨(諸習氏)의 연못을 자주 찾아가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한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시

두 호수 흐르니 두 마리 용이 누운 듯하고
먼 들판 펼쳐진 모습 그리기도 어렵다네
새벽 안개 연기와 함께 물가에 가라앉고
석양은 물결 따라 강 위로 일렁이네
서산의 가랑비 주름 너머 상쾌하고
남포의 노을 새의 등에서 빛나네
애석하도다 자안²¹⁸⁾이 남긴 말 없음
경치 감상하며 술 가져오네

重湖鋪帶兩龍橫
遙野羅鬢畫不成
曉靄雜烟沈渚濕
落暉和浪盪江平
西山細雨簾心爽
南浦殘霞鳥背明
可惜子安留語少
賞奇輸與翹先生

•서경(西峒) 유근(柳根)의 시

강가의 모래톱 이리저리 놓여 있고
삼면의 산봉우리 깎아지른 듯 하네
하목당은 지금 경치 한결 돋보이게 하고
안개 낀 물결 옛부터 하늘과 맞닿았네
무더위에 얼음 같은 바람 불어오고
하늘 위 물 아래에 옥 같은 달 있네
나도 그대와 같이 떠집 짓고자 하니
백구야 나와 함께 하기를 사양하지 말지어다

一江洲渚自縱橫
三面峯巒類削成
霞鶯祇今增地勝
烟波從古與天平
炎蒸冰雪長風至
上下瓊瑤片月明
我欲從君結茅宇
白鷗能不謝殘生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의 시

강은 넓어 끝이 없고
정자는 높아 푸른 기운 스며드네
돛단배는 왔다가 다시 떠나고
물새는 모였다가 다시 날아가네
듣자하니 삶이란 부질없는 꿈인데
어느 해에 훌훌 털고 속세를 떠날까

江濶無涯涘
亭高入翠微
風帆來又往
水鳥集還飛
聞此空勞夢
何年定拂衣

218) 자안(子安) : 중국 무창(武昌)의 황학루에서 황학(黃鶴)을 타고 노닌 신선.

이 시를 증거로 삼을 터이니
나에게 낚시터 하나 주게나

將詩爲左券
分我釣魚磯

•이지익(李之翼)의 시

긴 강에 넘치는 물 남은 비 모아둔 것이고
높은 누각 백 척(尺) 멀리 허공에 있네
모래톱에 비 갠 뒤 무지개 비로소 나타나고
하늘 위 솟은 산 그림같이 펼쳐 있네
몇 곳에 상인의 배 언덕으로 모이고
대숲은 안개 너머로 아련히 보이네
물고기와 벼 가을되어 풍족하니
문득 그대와 함께 이곳에 살고 싶네
한 줄기 안개 긴 강물은 위아래로 하늘
놀잇배는 백구 옆에 와서 춤추네
복숭아꽃 핀 언덕에 비단 물결 빛나고
방초 자란 모래톱에 푸른 안개 스며드네
술잔에 비친 산빛 채색화(彩色畵)를 이루고
풍광은 붓을 따라 종이에 물들여지네
지난날 등왕각의 모임 자랑하지 말지어다
지금의 고상한 모임 신선처럼 보이네

漲綠長江積潦餘
危欄百尺迴臨虛
沙邊霽景虹初斷
天外浮岑畫盡舒
幾處商舡依岸集
千林修竹隔烟疎
銀鱗紫稻秋來足
便欲從君此卜居
一帶烟波上下天
蘭舟來儀白鷗邊
桃花夾岸波翻錦
芳草侵沙翠濕烟
岳色暎杯成彩畵
風光隨筆染華牋
莫誇當日滕王閣
高會如今望若仙

•관찰사(觀察使) 이숙(李肅)의 시

가야산의 절을 찾아가다가
하목당(霞鵞堂)에 먼저 올랐네
햇살은 날 저물자 응당 사라지고
외로운 그림자 석양을 띠고 있네
빠어난 경치는 등왕각에 견줄 만하고
맑은 유람은 무창의 황학루와 같다네
강산은 본래 주인이 없으니

未到伽倻寺
先登霞鵞堂
餘暉當晚霽
孤影帶斜陽
勝概擬滕閣
清遊屬武昌
江山本無主

분망한 나의 생애 가소롭다네

堪笑此生忙

•관찰사(觀察使) 이숙(李翺)의 시
한 굽이 이름난 호수 십리의 모래밭
낙동강 좋은 경치 그대의 집에 있네
문득 가야산 가는 길 잊었는데
백로는 날고 해는 지려 하네

一曲名湖十里沙
東江勝槩在君家
居然忘却伽倻路
白鷺飛來日欲斜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의 시
삼청동에서 옛 유람 생각하고
하빈현의 백 척 누각에 왔노라
따오기 저물녘 노을에 내려앉을 때
갈대 피리 소리 고깃배에서 들리네

三清洞里憶舊遊
來倚河濱百尺樓
孤鷺落霞斜日暮
一聲蘆管上漁舟

•화산(華山) 권해(權璫)의 시
상쾌한 누각 물속에 평평히 보이는데
서풍 불 때 올라와 돌아감을 잊었네
물가의 저녁 경치에 갈매기는 잠들고
차가운 갈대소리 기러기 옆에 들리네
물 건너 가벼운 구름 떨어져 비 내리고
강 너머 성긴 나무 연하게 안개 끼네
술잔 앞에서 시 지으며 흥을 돋우는데
어디선가 등불 달고 고깃배 멀리 있네
저문 가을 강호에 하나의 낚싯배
갈대꽃에 가랑비는 모래톱에 가득하네
고금의 산하에 나그네 얼마였던가
천지간 동남쪽에 이런 누각 있구나
천리에서 찾아오니 모두 좋은 벗
십년 동안 다니며 두루 유람 하였네

快閣平臨波底天
西風登眺却忘旋
汀洲晚景眠鷗外
蘆荻寒聲落雁邊
渡水輕雲低作雨
隔江疎樹淡生烟
樽前覓句添新興
何處漁燈遠遠船
秋盡江湖一釣舟
荻花疎雨滿汀洲
山河今古幾過客
天地東南有此樓
千里逢迎皆勝友
十年蹤跡遍奇遊

강에 안개 끼고 낙엽은 우수수 지는데
 붓 잡고 읊조리니 나의 그리움 그윽하네
 이 누각이 강가에 있음을 사랑하여
 석양에 말을 타고 일부러 더디 가네
 돛단배 떠난 포구 물결 일고 나자
 기러기 내리는 모래밭에 비 내리네
 최치원이 노인 골짜기 어느 곳인가
 당시에 가락국이 여기에 성을 두었지
 그대 보게나 옛날의 금산사(金山寺)
 다만 장생(張生)의 시 한 수만 남았네

烟波落木蕭蕭下
 把筆高吟我思悠
 愛此高樓江水涯
 夕陽乘馬故遲遲
 帆歸極浦潮生後
 雁下平沙雨過時
 何處孤雲舊洞府
 當年駕洛此城池
 君看千古金山寺
 惟有張生一首詩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의 시

유람하다가 지쳐 강가에 말 세우니
 저녁 바람 마름풀에 가을 기운 감도네
 우연히 누대에 올랐다가 신선세계 만났고
 만난 사람들 시주(詩酒)하는 사람들일세
 하늘 밖엔 안개 끼고 산은 들을 감췄는데
 석양은 나무 끝에 지고 물은 누각을 비추네
 그대와 함께 시 읊조리는 일 거두고서
 낚시터에 낚싯배 빨리 저어 가세나
 가야산 산빛이 앞 물가에 떨어지고
 저물녘 따오기 노을 모두 가을이로세
 명승지에서 나그네들과 만나게 되어
 석양에 술을 들고 다시 누각에 기대네

江路停驂故倦遊
 晚風蘋末已生秋
 登臨偶得神仙界
 邂逅還逢詩酒儔
 天外遠烟山抱野
 樹頭殘日水明樓
 共君收拾吟哦興
 催理漁洲一釣舟
 伽倻山色落前洲
 晚鷺孤霞一樣秋
 勝地偶得萍水會
 夕陽携酒更憑樓

•해촌(海村) 조현명(趙顯命)의 시

옛날에 순무사(巡撫使) 따라 왜적 토벌할 때²¹⁹⁾

昔從巡撫南討

219) 옛날에 ... 토벌할 때 : 하목당(霞鵞堂)을 건립한 이종문(李宗文)을 칭송한 시. 이종문은 임진왜란 때 서사원(徐思遠)·손처눌(孫處訥) 등과 함께 팔공산에서 의병을 모아

검은 갑옷 입은 장군은 우레와 같았네
 군공(軍功)으로 기린각²²⁰⁾에 초상화가 그려지고
 절각건(折角巾)²²¹⁾ 쓰고 하목당으로 돌아왔네
 물가의 버들과 언덕의 매화에 깊이 기약하고
 좋은 일에 누각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네
 영욕은 뜬 구름 같으니 말할 게 있으리오
 원컨대 그대와 함께 노리고자 하네

玄甲將軍若雷
 羽箭麒麟閣畫
 角巾叢鶯堂回
 幽期柳渚梅塢
 勝事歌樓舞臺
 榮辱浮雲足說
 願言與子徘徊

•번암(樊菴) 채제공(蔡濟恭)의 시

두 호수 그대로이고 강물은 가로로 흘러가고
 조물주의 힘인들 어찌 갑자기 이루었겠는가
 고기와 새 안개와 노을 모두 외물이 아니요
 누각에 음악 소리 퍼지니 태평성대로다
 주렴 걷으니 나무색 석양에 멀어져가고
 난간 굽어보니 하늘빛 긴 밤에 밝아오네
 속세의 영달에 부질없이 늙어버렸고
 백년의 엽매임에 내 생애 가소롭다네

雙湖宛轉一江橫
 化力何曾造次成
 魚鳥烟霞非外物
 樓臺鍾鼓屬時平
 開簾楚色斜陽遠
 俯檻天光永夜明
 塵裏聞名空白首
 百年匏繫笑吾生

•옥 천(玉泉)²²²⁾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의 시

속객이 동쪽으로 말 타고 가노라니
 스님 한 사람 작은 정자에 누워 있네
 구름은 아침저녁 흰 빛을 머금고
 산은 옛부터 지금까지 푸르네

俗客驅東道
 孤僧臥小亭
 雲從朝暮白
 山自古今靑

서면대장(西面大將)으로 활약하였다.

220) 기린각 : 한나라 때 공신의 초상화를 걸었던 누각.

221) 절각건(折角巾) : 도사나 은사들이 쓰던 두건.

222) 옥천(玉泉) : 용천사(湧泉寺)라고도 함. 비슬산에 있음.

장량(張良)은 적송자(赤松子) 따랐는데	往事追松子
말 타고 유람하니 지상의 신선에게 부끄럽네	羈遊愧地靈
은근한 마음으로 산골물 길어 와서	慇懃汲澗水
한 움큼 물로 산삼과 복령 달이네	一掬煮蓼苓

●대 산(臺山)²²³⁾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의 시	
이 절의 건물 신라 때의 것	棟宇羅朝舊
불탄 흔적 산천 위에 있네	山川上火餘
천수불 ²²⁴⁾ 은 기이한 경관이요	奇觀千手佛
몇 줄의 글씨는 오래된 유적이로세	古蹟數行書

●낙육재(樂育齋)

•순조 임술년(1802)에 우암 송선생의 위패를 모실 때 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이 지은 시

의관을 정제하고 공손히 사당에 배알하니	摠衣恭肅拜祠堂
정기와 풍모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네	正氣英風尙不亡
사후나 생전에나 서로 친밀한 사이	歿後生前魚水契
자양부자[朱子]와 화양부자[尤庵]라네	紫陽夫子又華陽

•순조 정묘년(1807)에 관찰사 윤광안(尹光顔)이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행하면서 지은 시

예전부터 왕도 체험하여 쉽게 행하고	王道從來驗易行
영남의 성대한 일 태평세월 이루었네	南鄉盛事屬休明

223) 대산(臺山) : 대산사(臺山寺) 또는 용봉사(龍鳳寺)로 불리는 절. 비슬산에 있음.

224) 천수불 :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가리킴.

높이 체득하여 유학의 교화 숭상하니	祇要仰體崇儒化
헛되이 고인의 이름 흠모한 게 아니로다	不是虛耽慕古名
백번 절하며 술잔 올려 향음주례 따르니	百拜獻酬遵縉禮
일시의 감동 여러 인정에서 솟은 것이라네	一時觀感聳群情
귀빈들 더러 큰 도를 보여 주셨는데	嘉賓尙或周行示
피리와 거문고 연주 작은 정성이라 부끄럽네	笙瑟初筵愧淺誠

비판(碑板)

표충사(表忠祠)

공산동(公山洞)의 숲은 고려 태사(太師) 장절공(壯節公, 신승겸)이 목숨을 바친 곳이다. 공의 죽음은 후당(後唐) 천성(天成) 2년(927), 지금으로부터 7백여 년 전이다. 이 숲을 지나는 자들이 삼가 공을 생각하니 절의가 끊어지지 않고, 공의 일을 얘기하니 공로의 빛남은 예전과 같도다.

황명(皇明) 만력(萬曆) 정미년(1607년)에 공의 외손 류공(柳公) 영순(永詢)이 관찰사로 이곳에 부임하였다. 유지(遺址)를 돌아보고 근본을 생각하며 “이러한 큰 충성과 공적이 있는 분에게 아직도 공적을 드러낼 만한 비석이 없으니,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영남에 사는 공의 후손에게 말하여 공인과 재물을 모으니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공의 사당을 지묘사(智妙寺)의 터에 세웠다. 관아에서 봄가을의 좋은 날에 제물을 마련해 주고, 이곳에 사는 후손에게 제향하도록 하였으니, 아마도 공의 명령이 이곳에 강림하시리라. 그래서 비석을 구하여 비문을 새기려 할 때 그 문장을 나에게 청하였다. 나 또한 공의 후손이라 삼가 두 번 절하고서 글을 짓는다.

공의 절개는 강상(綱常)을 붙들었고 공의 명성은 천하에 가득하였다. 공의 기상은 하늘을 벗어나고 사람을 감동시켜 변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돌아보건대 어찌 이것에만 국한되었겠는가? 간혹 뛰어난 영웅들이 공에게 힘입어 공과 같은 공적을

남겼으니, 또한 충성을 권장하고 후세를 가르침에 어찌 공로가 없다고 하겠는가?
류공(柳公)은 먼저 힘써야 할 바를 알았기에 공의 행장을 모아 서문을 짓는다.

신씨는 곡성(谷城)에서 나왔는데, 고려 태조가 평산(平山)을 본관으로 삼게 하였다. 공의 휘(諱)는 숭겸(崇謙)이고 초명은 능산(能山)인데, 그 외에는 전하는 바가 없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 신라가 쇠퇴하자 궁예와 견훤이 동쪽과 남쪽에 자리잡았다. 공은 천명이 돌아가는 곳을 알고 고려 태조를 도와 왕위에 올랐다. 태조가 수륙(水陸)으로 정벌할 때 공에게 많이 의지하였다.

견훤이 신라의 수도에 침입하자 고려 태조가 정예 기마병을 출군시켜 견훤을 팔공산에서 맞이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고려 태조를 포위하여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은 대장으로서 모습이 태조와 닮았기 때문에 자신이 태조의 수레를 대신 타고 나가서 싸우다 죽었기에 고려 태조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견훤의 군사가 공을 고려 태조로 여기고 머리를 베어갔다. 태조는 공의 시신을 찾아와 장인(匠人)에게 머리와 얼굴을 만들게 하여 상복을 입고 광해주(光海州) 소양강 비방동(悲方洞)으로 옮겨 장사지냈다. 그곳이 지금의 춘천부(春川府)이다. 또 벽상호기위대사개국공삼중대광의경익대광위이보지절저정공신(壁上虎騎衛大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에 추봉(追封)되었고, 시호는 장절(壯節)이다. 교지가 내려 광익효절현양(匡翊效節獻襄)의 호가 더해졌고,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고려 태조가 팔관회를 열면서 공의 신상(神像)과 기무(起舞)의 특이함을 갖추게 하였다. 예종이 서도(西都)를 돌아보면서 또 신상과 기마(騎馬)를 마련하였는데 모두 생시의 모습과 같았으니, 세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기이한 행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공과 같은 분은 이른바 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살게 되며 죽음을 따르지 않으려 해도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종이 시를 하사하여 공을 아름답게 여겼다. 우리 조선에 와서도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관직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아마도 공의 은택일 것이다.

곡성에 있는 공의 사당은 외손 한준겸(韓浚謙)이 안렴사로 있을 때 급히 중수하여 새롭게 한 것이고, 류공이 뒤를 이어 이 일을 실행하니 실로 성대한 일이다.

고려가 일어날 때 좌우에서 보필한 자가 어찌 한 둘이었겠는가? 오대사(五大

師) 같은 분은 실로 공과 견줄 수 있고 그 성취도 성대하지만, 사람의 이목을 빛나게 한 일로 말하자면 반드시 공을 으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명성이 한때에 그치는 것과 충의가 끝없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히 함께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만 우리 가문의 다행일 뿐만이 아니다. 아마 공을 흠모하고 공에게 감동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지 않겠으며, 또한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땀을 흘리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공을 보면서 권면과 경계를 함께 하리니 다 음과 같이 명(銘)을 붙인다.

왕께서 하늘의 명을 받으니
공께서 보필하여 이루게 하였네.
한번 충의를 주창하니
백년 기업이 창성하였네.
한나라의 기신(紀信)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 하였어라.
공적은 천년 뒤에도
끝없이 펼쳐지리라.
공의 외손이 있으니
어진 류공(柳公)이라네.
관찰사로 부임하여
공무를 잘 처리하셨네.
동화사(桐華寺) 숲을 찾아가
몰래 슬퍼하셨다네.
저 유적을 돌아보고
비석을 세워 비문을 새기셨네.
신공(申公)의 공적 찬란하니
그 명성 우뚝하구나.
굳센 무공
열렬한 절개
높고 높은 벼슬

펄럭이는 깃발
 슬픈 바람 불어오니
 신령이 강림하셨네.
 문득 광채 번쩍이니
 땅이 찬란히 빛나네.
 군자의 은택은
 오래될수록 새롭다네.
 아, 천만번 제사 올리니
 우리 백성들 보살피 주소서.

만력(萬曆) 35년(1607년) 3월 일에 세우다. 후손 자헌대부 판서 겸 제학(提學) 흠(欽)이 비문을 짓고, 통정대부 목사(牧使) 김현성(金玄成)이 비문을 쓰고, 통정대부 부사(府使) 김상용(金尙容)이 전자(篆字)를 쓰다.

증좌승지 행 문경현감 신길원 묘갈명(贈左承旨行聞慶縣監申吉元墓碣銘)

우리 선조 임진년에 왜적이 쳐들어오자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흩어졌다. 이 때 관아를 떠나지 않고 절개를 지켜 굶기지 않으며 태연히 죽은 분으로 동래(東萊)에 송공(宋公)이 있었고 문경에 신원길(申元吉)공이 있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충절을 기리는 은전(恩典)을 내려주었다. 송공에 대해 동래의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 제향하고 제현(諸賢)들이 기문(記文)을 짓고 돌에 새겨 공적을 장대하게 하였으나, 신공(申公)에 대해서는 드러내는 자가 없어서 거의 과묵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때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천명이라고 마음을 달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식자들의 오랜 한이 되었다.

어느 해인가 공이 돌아가신 백십 여년 뒤에 문경 사람들이 순절하신 곳에 겨우 비석을 세우고 사적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그 후에 공의 5대손 신의(申嶷)가 비문과 속삼강행실록에 기록된 몇몇 사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묘갈(墓碣)을 청하였다. 아, 나는 평소에 공의 절의를 사모하여 공의 마부가 되기를 원하

였으나 되지 못했으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살펴보니, 공의 자는 경초(慶初)이고 본관은 평산이다. 상세(上世)에 승겸(崇謙)이란 분이 있으니, 고려의 명신이다. 이 분의 죽음은 매우 빼어난 일로 한나라의 기신(紀信)과 같았고, 시호는 장절(壯節)이다. 조선에 와서 집(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이(彝)라는 분이 있었는데 벼슬이 대사헌이니, 공에게 7·6대조가 된다. 고조는 자의(子儀)로 벼슬이 부사(府使)이고, 증조는 경문(景文)으로 벼슬이 감찰(監察)이고, 조부는 공석(公錫)으로 벼슬이 현감이다. 고(考)는 국량(國樑)으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고, 비(妣)는 숙인(淑人)이씨이고 시령령(始寧令) 현동(賢同)의 따님으로 가정(嘉靖) 무신년(1548) 6월 11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자질이 순미(純美)하였고 자라면서 스스로 학문의 필요성을 알아,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았고 예의가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 염락(濂洛) 제현(諸賢)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즐겨 보면서 기준으로 삼았다.

성품 또한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를 모실 때 온화한 안색으로 봉양하였고, 부모의 노고를 대신함에 게으르지 않았다. 부모가 병이 들면 하늘에 병을 대신하기를 빌었다. 하루는 모친의 병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내고서 약에 타서 마시게 하여 목숨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14세에 부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을 하루같이 통곡하며 사모하였고, 죽을 마시면서 상례를 마쳤다. 곡하는 절도와 초상과 제사 때의 범절을 예법에 따라 허물없이 치르자, 고을사람들이 모두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이 소문이 조정에 알려져 마을에 정문(旌門)이 내려졌다.

병자년(1576)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뒤에 또 능관(陵官)으로 참봉(參奉)과 직장(直長)에 올랐고 또 상의주부(尙衣主簿)에 올랐다. 경인년(1590)에 외직으로 문경현감(聞慶縣監)에 제수되었다. 영남의 큰 고을을 맡아 공사(公私)의 일을 처리할 때 모두 의리에 맞게 하였고, 폐단을 혁파하고 부역을 덜어주니 백성들이 매우 편안하게 여겼다.

임진년(1592)에 왜적이 갑자기 침입하자 공은 모친을 서울로 모셔 왜병을 피하게 하고, 자신은 말을 몰아 상주로 갔다. 주장(主將)을 만나보고 수비의 방책을 의논하니, 주장이 공에게 “문경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점검하고 군량을 보내 싸움을

도우라.”고 권하였다. 공이 말을 타고 돌아와 군사를 점검하기도 전에 적이 이미 경내(境內)로 들어왔다. 장수와 관리들이 공에게 “여러 고을의 군진이 모두 무너졌으니 문경의 군사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물러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한 지역을 지키는 신하는 그곳에서 죽는 것이 의(義)이다.”라 하고, 서제(庶弟) 길성(吉成)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라의 은혜를 두터이 받았고 지금 죽을 데를 얻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한스러워 하겠는가? 다만 노모께서 반드시 나를 생각할 것이니 너는 빨리 돌아가서 이런 대의(大義)를 어머니께 아뢰어라.”고 하였다. 또한 집안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노모를 잘 봉양하고, 내가 죽었다고 달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윽고 왜적이 침입하자 군사와 백성이 모두 흩어지는데 공은 홀로 종 한 명과 함께 관복을 입고 허리띠에 관인(官印)을 차고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왜적이 칼을 뽑아 위협하며 “너는 말을 달릴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인도하여라.”고 하자, 공은 “나는 본래 선비이다. 어찌 말을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또한 왜적이 위협하며 “너는 빨리 항복하라.”고 하자, 공이 굴복하지 않고 왜적을 계속 꾸짖고는 손으로 목을 그으며 “이런 일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왜적이 노하여 먼저 오른쪽 팔을 자르며 “이래도 길을 가리켜 주지 않겠느냐?”고 하자, 공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천천히 말하기를, “팔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왜적이 공의 몸을 마디마디 베었다. 이 일은 4월 27일에 있었다.

방백(方伯)이 사실에 따라 조정에 알리자, 선조가 특별히 충신의 정문(旌門)을 하사하고 좌승지에 증직하였다. 뒤에 공의 순절한 사적을 삼강행실도에 수록하게 하였고, 모년 모월 모일에 양주(楊州) 군장리(軍場里) 모좌향의 언덕에 안장(安葬)하였다.

공은 처음에 동지중추(同知中樞) 권상지(權常之)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뒤에 사온서령(司醢署令) 하세준(河世濬)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의 이름은 명휴(命休)이니, 성균관 생원으로 벼슬은 교관(敎官)을 지냈다. 장녀는 목사(牧使) 이담(李擔)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전한(典翰) 이익(李翼)에게 시집갔다.

아, 공의 언행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 가승(家乘)이 흠어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의 평생을 상고해보니, 집안에서는 어버이를 섬겨 효도를 다하였고, 조정에서는 임금을 섬겨 충성을 다하였다. 공이 순절하는 날 대의를 아뢰며 모친께 영결을 고한 것을 살펴보니, 송동래(宋東萊)의 “군신간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간의 은혜는 가볍다.”라고 한 말과 절실하게 부합된다. 또한 공이 순절한 곳은 송동래와 함께 모두 영남에 있으니, 옛 사람이 “효를 옹기면 충이 된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한 말을 지금 두 공(公)에게서 더욱 증험할 수 있으니 또한 위대하도다. 이어서 사(詞)를 붙인다.

한 손으로 백만의 적을 대적하였고
팔은 잘렸으나 의기는 꺾이지 않았네.
한 몸으로 천지의 기둥을 떠받쳤으니
목숨은 끊겼으나 의리는 떨어지지 않았네.
군신간의 의리 때문에 부자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고
부자간의 은혜 때문에 군신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네.
전후로 내린 충효의 정문(旌門) 위대하노니
충과 효는 본래 두 가지가 아니라네.
우리나라 수천 리에 공과 같은 분 몇이나 있을까?
산은 높고 강물은 길게 흐르니
공의 명성 이와 같이 끝없이 전해지리라.

오천(烏川) 정호(鄭澍)가 짓다.

채소감 묘갈(蔡少監墓碣)

관찰사 강공(姜公)이 영남에서 돌아와 나에게 말하기를, “대구부의 북쪽에 채소감의 묘소가 있는데, 이는 곧 우리 선대의 외가이고 또한 공의 외가이기도 합니다. 소감공의 8대손 몽연(夢硯)씨는 조상의 덕을 전하고 조상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

는 사람입니다. 조상의 근본을 생각하고 비석으로 영원히 전하고자 하니, 옛 사람이 이른바 ‘인인(仁人)과 군자는 조상을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고서 감탄과 경복(敬服)을 그치지 않았고 또한 직접 성묘하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몽연씨가 그 보첩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청하기를, “우리 소감공을 장사지낸 지가 거의 백년이 되었습니다. 무덤 주위가 풀로 덮여 나뭇꾼과 목동의 출입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사적을 상세히 아는 자손이 없어 부인을 합장(合葬)하였는지 이장(移葬)하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강관찰공(姜觀察公)이 이곳에 부임하자 봉분도 쌓고 나무도 심어 묘소가 일신되었습니다. 또 재물을 내어놓고 나에게 돌에 새겨 소감공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묘소의 길에 세울 비석의 글을 그대가 맡아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뚫어엿아 받으면서 “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채공께서 효도에 정성을 다하시고 강관찰사가 조상을 추모하여 돈독한 마음을 다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두 분께서 저의 변변치 못한 글로 선대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 그 빛을 영원히 전하고자 하니, 저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가 살펴보니, 공의 이름은 영(泳), 자는 모(某)이고 본관은 인천이다. 비조(鼻祖)의 이름은 선무(先茂)로 고려 때 동지사(同知事)에 증직되었다. 이 분이 신징(愼徵)을 낳았는데 국가에 공이 있어 대장군(大將軍)에 봉해졌다. 이 분이 보문(寶文)을 낳았는데 문학에 뛰어나 벼슬이 예부상서 태자빈객 지제고(知制誥) 보문각대제학에 이르렀고 호가 금성공(錦城公)이다.

그 후손은 영년(永年)·중서(仲舒)·규(圭)·환(環)으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다. 윤신(允臣)은 벼슬이 광정대부 호조전서(匡靖大夫戶曹典書)로 공의 증조부이다. 조부 원길(元吉)은 형부상서(刑部尙書)이다. 고(考) 귀하(貴河)는 호조전서(戶曹典書)이고 비(妣)는 배씨로 김해의 명문이다.

공은 달성서씨 목사 서고(徐翱)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밀직사(密直使) 서유(徐有)의 손녀이고 판도판서 서진(徐晉)의 증손녀이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시(蓍)는 대사헌을 지냈으며, 차남 윤(倫)은 성균관 사예(司藝)를 지냈고 후에 예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시(蓍)는 2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운실(云實)과 운보(云寶)이고, 사위는

한신(韓信)·류주(柳疇)·김경종(金敬宗)이다. 윤(倫)은 5남 4녀를 두었으니, 아들 임소(任紹)는 교감(校勘), 신명(申命)은 현감, 신석(申錫)은 군수, 신복(申福)은 우후(虞候), 신보(申保)는 부사(府使)를 지냈고 가선대부 소성군(邵城君)에 증직되었다. 따님은 김효인(金孝仁)·허장민(許長民)·서섭(徐涉)·김이(金彝)에게 시집갔다.

운보(云寶)는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숙(淑)·면(沔)·린(潁)이고, 딸은 유이손(兪二孫)·김수숭(金壽崇)에게 시집갔다. 운실(云實)은 1남을 두었는데, 희(禧)로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한신(韓信)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우명(佑命)·좌명(佐命)이고, 딸은 김구(金球)·남세호(南世豪)에게 시집갔다. 류주(柳疇)는 2녀를 두었으니, 김당(金唐)과 참판 김수익(金壽益)에게 시집갔다. 신석(申錫)은 2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정손(正孫)·말손(末孫)이고, 딸은 권중희(權仲禧)·이승복(李崇福)·신옥(申礪)에게 시집갔다. 신복(申福)은 1남을 두었는데, 종수(宗秀)로 몽연(夢硯)의 5대조이다. 신보(申保)는 3남 4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예조판서를 지내고 인천군(仁川君)에 봉해졌으며 문장으로 이름난 수(壽)·연(年)·재(載)이고, 딸은 평성(淸城)·김령(金鈴)·이정(李靖)·양면(楊沔)에게 시집갔다. 평성(淸城)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주계군(朱溪君) 심원(深源)은 한훤당(寒暄堂)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남추강(南秋江)과 교유하며 이학(理學)의 연원을 터득하였는데, 끝내 직언으로 연산군에게 화를 당하였다. 이 분의 딸이 군수 송세충(宋世忠)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두었으니,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인수(麟壽)로 흠(欽)의 외조부이다. 김효인(金孝仁)은 1남을 두었으니 석규(石珪)이다. 서섭(徐涉)은 4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진원(震元)·감원(坎元)·간원(艮元)·태원(兌元)이고, 딸은 배사량(裴士良)에게 시집갔다. 김이(金彝)는 1남을 두었는데 경보(景寶)로 강관찰사(姜觀察使)는 그 후손이다. 관찰사의 이름은 첨(簽)이다. 내외손이 수백 명으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아, 공의 시대는 아득히 멀기 때문에 관직의 이력과 생몰을 모두 알 수가 없다. 오직 그 자손들은 대를 이어 관직이 융성했고 수많은 문벌들이 만드시 제공(諸公)과 혼인하였으니, 공이 선을 쌓고 뿌리를 기른 징험과 덕성을 심고 근본을 다스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 군자의 은택이 어찌 5대에서 끊어지겠는가? 몽연씨의 일을 통해 돈독히 믿을 수 있다. 여기에 명(銘)을 붙인다.

선을 쌓아 근본을 굳건히 하였으며
 경사(慶事)를 남겨 후손을 풍성하게 하였네.
 비석에 새겨 사적을 바르게 기록하니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조봉대부(朝奉大夫) 군자소감(軍資少監) 인천채공묘갈명병서(仁川蔡公墓碣銘并序)를 황명(皇明) 만력 38년(1610) 10월 일에 외손 현헌(玄軒) 신흠(申欽)이 짓고,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이 전자(篆字)를 쓰다.

낙재 서선생 묘갈(樂齋徐先生墓碣)

영남은 신라의 옛 땅으로 전한(前漢) 때부터 군자의 나라로 불렸다. 여기 사람들은 예의와 사양을 좋아하니 비난하기 어렵고, 자제(子弟)들은 시서(詩書)를 익히며 학문에 종사하니 산천의 기운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몸을 일으켜 이름을 떨친 분은 우뚝 유학의 종사(宗師)가 되어 국가로부터 지극한 존숭을 받았다. 근세에 대구의 낙재(樂齋) 서공(徐公)이 있으니, 또한 유도를 닦아 갈무리한 분이다.

달성 서씨는 고려조에 벼슬이 넉넉하였으나, 공의 증조 필(弼)과 조부 응기(應期)와 부친 훈도공(訓導公) 흠(洽)에 이르러서는 3대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다.

공의 이름은 사원(思遠)이고 자는 행보(行甫)이다. 가정(嘉靖) 경술년(1550)에 태어났고, 태어난 지 7년 뒤에 백부 진사공 형(炯)의 양자가 되었다. 진사공의 부인 이씨는 성격이 엄격하였다. 공은 비록 어렸지만 양모(養母)의 뜻을 맞추었다. 장성하여 부모를 섬길 때는 안색을 온화하게 하고서 명을 어김이 없었고, 부모가 돌아가시자 시묘(侍墓)하며 항상 슬픔에 잠겨 그리워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사당에 배알하였고 서당에 나아가서는 바르게 앉아 저물도록 글을 읽었다. 노비들을 안팎으로 한결같이 다스렸고, 제부(諸父)를 섬기고 형제를 대하며 마을 사람과 사림에 윤리를 다하여 힘쓰지 않아도 극진하였다.

처음에 부모의 명에 따라 과문(科文)을 익혀 초시(初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였

다. 그러나 스스로 좋아서 한 것이 아니어서 뒤에 부모상을 치르고는 다시 과거장에 나아가지 않았다. 항상 성현의 글을 읽으며 도를 탐구하였고, 한강(寒岡) 정공(鄭公)이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학문에 연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정성을 다하여 질정(質正)을 받았다.

성현의 도는 높고 먼 데 있지 않고 나의 실행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서 힘껏 실천하기를 부단히 노력하였다. 의관을 엄숙히 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니, 마치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듣는 듯하였다. 일찍이 “공맹(孔孟)을 배우려면 마땅히 정주(程朱)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 하고, 주서(朱書)와 퇴계문집을 가장 좋아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 글을 읽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함이 옳은 일이겠는가? 주자는 공맹 이후 최고의 학자이고, 퇴계선생은 우리 동방에서 주자와 같은 분이다. 내가 퇴계선생께 나아가 직접 공맹의 도를 배우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노라.”고 하였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벗과 청량산(淸凉山)에 들어가서 퇴계선생의 유적을 살펴보니, 직접 선생을 모시는 듯하였다. 산수를 유람하는 사이에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고 돌아왔다.

공이 사는 이천(伊川)은 금호강 아래에 있으니, 산이 반석 같고 물이 가득하여 은거하기에 알맞았다. 푸른 소나무가 주위를 감싸고 뜰에는 매화가 아름답고 대나무가 고결하니, 한가로이 글을 읽으며 해를 보냈다.

선사서재(仙槎書齋)가 전란에 불탔는데, 공이 중건하면서 자양서원(紫陽書院)의 옛 제도를 따라 경의(敬義)·완락(玩樂)으로 재사(齋舍)의 이름을 삼았다. 선유(先儒)의 격언을 모아 정사(精舍)의 학규(學規)를 정하고, 처음 강학할 때에 이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이치를 강론하였다. 학생들의 게으름을 없애기 위하여 “뜻은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수 없고 마음은 한시라도 놓을 수 없다. 군자가 엄숙하고 공손하면 날로 강해질 것이고 편안하고 방자하면 날로 투박해질 것이니, 이 두 구절을 더욱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가가 있으면 한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강을 오르내리며 자연을 읊었다.

당시 사수(泗水)에는 한강(寒岡) 정공(鄭公)이 있었고 옥산(玉山)에는 여헌(旅軒) 장공(張公)이 있었으니, 공과 함께 술발처럼 세 곳에 거처하였다. 스승을 따라 공부하는 선비들이 서로 오고가며 질문하였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이곳을 지나거나 영남에 부임할 때면 모두 공의 집을 방문하였다.

처음에 조정에서 공의 명망을 듣고서 감역(監役)·찰방(察訪)에 제수하니, 한번 명을 받들고 나아가 벼슬하다가 곧 돌아왔다. 만력(萬曆) 을미년(1595)에 청안현감(淸安縣監)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의 여러 마을이 도적의 침입을 받아 매우 혼란스러워지자 벼슬하지 않으려는 뜻을 굽히고 분연히 일어나 정무(政務)를 처리하였다. 그래서 유민(流民)을 편안하게 한 뒤에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예법에 따라 봄가을로 제향하였다. 성황당에 올리는 제사로부터 관청의 여러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롭게 정비하였다. 매월 하루 학사(學舍)에 나아가서 직접 구두(口讀)와 문장을 강론하니, 근방의 유능한 학생들이 다투어 달려와 배워 훌륭한 자질에 문채를 더하게 되었다.

무술년(1598)에 벼슬을 그만두었으나 길이 막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원산(西原山) 가운데 흠집을 짓고서 독서로 자락(自樂)하니, 문도들이 서로 이끌고 공에게 나아가 배웠다. 고을사람들이 돌에 새겨 그의 공덕을 흠모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의 고아(高雅)한 마음은 더욱 확고하였다. 이어서 개령(開寧)·옥과(玉果)·연기(燕岐)의 현감과 형조좌랑·호조정랑·익위사(翊衛司) 사어(司禦)·역학교정(易學校正)으로 불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을묘년(1615) 여름 4월에 세상을 떠났으니, 하빈현(河濱縣) 파산(巴山)기슭에 장사지냈다. 공은 죽산박씨(竹山朴氏)에게 장가갔는데, 예전에 정승을 지낸 박원형(朴元亨)의 후손이다. 아들 향(恒)은 무과에 급제하여 언양현감을 지냈고, 서자로 는 구(懼)가 있다.

영남은 퇴계선생이 돌아가신 이후로 선비라 부를 수 있는 몇 분을 거론할 수 있다. 공과 같은 분은 퇴계의 문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였으니, 아마 그 풍모를 듣고서 사숙(私淑)한 이가 아니겠는가? 진실로 공이 이른 학문의 깊이를 논하는 것은 외람스럽긴 하지만 공이 옛것을 좋아하고 바른 도를 알아서 시속(時俗)을 벗어났으며, 숨어 살면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여 고을에 교화를 끼쳤고 말학(末學)인 나에게까지 본보기가 되었으니, 또한 공의 성대한 덕을 숨길 수 없다.

퇴계선생 같은 대현(大賢)이 돌아가신 이후 좋은 풍속은 더욱 침체되어 남기신 교화는 무너지고 착한 본성은 가려져 세상은 밤과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향심(恒心)을 가진 이를 만나기는 예로부터 어려운 일인데, 공은 후인에게

유학에 뜻을 두어 근원을 찾도록 하였고 백대 후의 사람을 진작시켰으니, 유학을 붙들고 후학을 이끈 공적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드디어 명(銘)을 붙인다.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선을 부지런히 행하니
성인의 무리가 아니리오?
숨어 살면서 뜻을 구하고
외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
마음이 풍족하여 자락한 분이 아니리오?
글이 넉넉하고 도가 풍족하여
고량진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살아서는 순종하고 죽어서는 편안하니
한결같이 올곧은 분이 아니리오?
문인에게 글을 가르쳤기에
이름 대신 시호(諡號)로 불렸으니
어찌 또한 문강선생(文康先生)이라 하지 않으리오?

관해(觀海) 이민구(李敏求)가 짓다.

구암서원비(龜巖書院碑)

한 고을의 이름난 선비로서 도학과 행의(行誼)가 후생에게 본보기가 되면 그를 제사지내고 벼슬과 공적이 안팎으로 드러나면 그를 제사지낸다. 이것은 이른바 ‘고을의 선생이 죽으면 제사지낸다’는 것이다. 그의 은혜가 한 고을에 두루 미치고 은혜가 끝없이 흘러내려 오래될수록 더욱 사라지지 않는 분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대구의 달성은 곧 우리 서씨가 처음부터 세거(世居)한 곳이다. 지형은 말[斗]처럼 우뚝하고 주위는 천혜(天惠)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영남 고을의 중심이다.

세종 때 여기에 성을 축조하고 창고와 관청을 만들기 위해 그 땅의 보상을 의논한 일이 있었다. 이 때 구암선생(龜巖先生)이란 분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조정의 명에 따라 남산(南山)의 예전 역참 터로 옮겨 살았다. 또한 국가의 보상을 사양하면서 대구부의 백성들이 납부하는 환곡(還穀)의 이자를 한 섬에 다섯 되씩 줄여주기를 청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사실은 여러 사람의 기록과 대구읍지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360고을 가운데에 유일한 일이다.

환곡(還穀)은 고을의 큰 행정이니, 한 말에 한 되의 이자는 실물 고금(古今)에 바뀌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부유한 집이 아니면 빌릴 때는 즐거우나 갚을 때는 곤란한 데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한 백성들은 일년 내내 괴롭게 일하여도 가마니에 저장해 둔 곡식이 없으므로 마을의 아전이 날뛰고 설치며 관청에서 닥달하게 되면, 술과 송아지를 팔아도 오히려 모자라는 부분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때에 한 되나 한 홉을 덜어주더라도 송덕비를 급히 세우는데 하물며 한 부(府)의 백성이 몇 천 가구인지 환곡(還穀)의 이자가 몇 천 석(石)인지 모를 만큼 많음에 있어서랴!

가구마다 한 섬에 다섯 되로 계산해 볼 때 천 가구면 5천 되, 만 가구면 5만 되가 된다. 지금 또한 4백년 가량 되었으니, 그것을 합한 숫자는 계산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 천만년이 지난다면 백성을 이롭게 한 정치는 넓고 길 것이며, 백성을 사랑한 뜻은 은미하고 깊을 것이다.

아, 공이 조정에 나아가 이런 마음을 미루어 정치를 하였다면 백성들을 모두 착하게 하되 반드시 올바른 방도를 갖추었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한 고을에만 은혜를 끼치고 나라에 두루 끼치지는 못하였다.

옛날 경상초(庚桑楚, 노자의 제자)가 외루(畏壘)에 3년을 살았는데 외루에 크게 풍년이 들자 백성들이 그를 제사지냈다. 주자께서 장자(莊子)가 말한 뜻을 취하여 편액으로 삼았으니 흠모함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외루의 백성들은 3년간 풍년을 얻은 데 불과했으나 오히려 성인에 가깝다고 여겼으니, 지금 대구부 백성들이 공의 은덕을 갚고자 한다면 온 고을이 집집마다 신주와 제문을 갖추어 제사지내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현종 때에 비로소 숭현사(崇賢祠)를 대구부의 남쪽에 창건하였으니, 어찌 때를 기다려서 그러했겠는가? 수십 년 뒤에 원근의 선비들이 공론을 일으키고 정성을

함께 하여 달성 구암(龜巖)의 북쪽으로 이견하였으니, 이곳은 선생이 살았던 옛 마을이다. 옛 제도에 따라 크게 단장하고 우리 방조(傍祖)인 사가선생(四佳先生)과 우리 선조인 함재(涵齋)·약봉(藥峯) 두 선생을 차례로 추향(追享)하였다.

사가공(四佳公)은 이곳에서 일어나 문장과 재주로 세조 때 의정부(議政府)를 맡았다. 함재공(涵齋公)은 퇴계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덕행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약봉공(藥峯公)은 선조가 임진왜란을 평정할 때에 본도(本道)를 지켰는데, 공적이 성대하게 드러나 고향 사람들이 대대로 섬겼다. 실로 이런 분들이 머물렀던 자취가 있으면 이곳이 이른바 향선생(鄉先生)을 제사지낼 만한 곳이다. 그래서 향렬에 따라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을 만들었으니, 매우 성대하도다. 또한 이 서원이 건립된 것이 어찌 달성 지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구계공의 후손인 한중(漢重)이 사당 뜰에 비석을 세우려고 비석을 다듬어 놓았다가 일을 끝내지 못하였다. 지금 아들 옥(鉦)이 부친의 뜻을 계승하고자 천 리 길을 달려와 나에게 비문을 청하니, 빗돌에 새겨 비석을 세우려는 것이다. 돌아보니 나는 정신이 흐리고 문장이 졸렬하여 실로 이 분들의 공적을 드러낼 수 없지만 우리 서씨에게는 실제 계보와 가승(家乘)에 관계되므로 어찌 끝내 사양할 수 있겠는가?

구계공의 이름은 침(沈)으로 전의소감(典醫少監)·제처사(制處使)를 지냈다. 계보(系譜)는 고려 태조부터 시작되는데, 판도판서 진시(晉始)가 공의 고조부이다. 고(考)는 균형(均衡)으로 공민왕 경자년(1360)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정평공(貞平公)이고, 비(妣)는 광산김씨 원명(遠鳴)의 따님이다.

공의 묘소는 북산(北山) 중심리(中心里) 간좌(艮坐)의 언덕에 있는데, 부인 이씨와 위아래로 자리하고 있다. 자손은 지금까지 번성하다. 공의 행적은 세대가 멀어 살펴볼 수 없으나 백성을 위한 행적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경사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가(四佳)의 이름은 거정(居正)인데, 공과 본관은 같지만 계파는 다르다. 벼슬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으며 문형(文衡)을 맡았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함재의 이름은 해(嶰)로 사가(四佳)의 종중손이다. 불행히 요절하였는데, 그의 언행은 복주(福州, 안동)의 선비 이중립(李中立)이 지은 뇌문(誄文) 가운데에 실려 있다. 약봉의 휘는 성(淸)으로 함재공의 아들이다. 벼슬이 판중추에 이르렀고

시호가 충숙(忠肅)이다. 두 공(公)의 행적은 국사에 실려 있으니, 여기에 다시 덧붙이지 않는다. 명(銘)을 짓는다.

찬란한 달성 땅은
우리 서씨가 나온 곳으로
신령한 뿌리가 퍼져 있고
맑은 기운이 도와주네.
인결은 산의 정기로 태어나고
땅은 하늘이 내린 풍요한 곳이니
구계공(龜溪公) 같은 분은
실로 여기에 살았다네.
관아에서 여기에 축성(築城)하고자
후한 대가를 주려 하였으나
공은 머리를 흔들며 사양하셨으니
구하는 바가 남다름이 있었네.
우리의 옛 터전을 버리고
고을 사람들과 옮겨 사시면서
한 섬에 다섯 되씩 줄여주길 청하니
환곡(還穀)의 이자가 달라졌다네.
어진 사람이 널리 이로움 끼쳐서
만세토록 그 은혜 입게 되었으니
이 서원을 보살피고
보답하기를 게을리 말지어다.
백성들은 순박하니
어찌 은혜를 모르겠는가?
환곡 갚는 길에 서원 앞을 지나면서
또한 몸을 굽혀 공경하네.
우러러 삼현(三賢)을
순서대로 받들었으니

문충공(文忠公)은 고아한 문장으로
 끼치신 향기로움 끝이 없으리라.
 함재공(涵齋公)의 돈독한 뜻
 충숙공(忠肅公)이 크게 있었으니
 아름답고 찬란한 덕과 공적
 이곳에서 제사지낼 만하네.
 고향 마을은 영광을 더하고
 남기신 은택은 변함 없으니
 달성 지역 영원히 위축되지 않으며
 구암서원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으리.
 해마다 해마다
 풍성하고 깨끗한 제물로 제사 지내리라.
 그 공적을 돌에 새겨서
 사당 가운데에 우뚝히 세우노라.

충숙공 4세손 승정대부 치사봉조하(致仕奉朝賀) 종급(宗級)이 짓고, 5세손 병조참판 명신(命臣)이 전서로 비액(碑額)을 쓰고, 6세손 행세자익위사위술(行世子翊衛司衛率) 무수(懋修)가 비문을 쓰다.

구계(龜溪) 서선생(徐先生) 묘갈(墓碣)

옛날, 구계(龜溪) 서(徐)선생은 달성(達城)의 산속에 은거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고, 날마다 문하의 제자들과 함께 경전(經傳)과 도(道)를 강론하였다. 비록 곤궁하였지만 독선(獨善)²²⁵을 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인민애물(仁民愛物)²²⁶을 진심으로 실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225) 독선(獨善) : 『맹자』 「진심(盡心) 上」에 “곤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는 말이 나온다.

226) 인민애물(仁民愛物) : 『맹자』 「진심(盡心) 上」에 “군자는 우선 친한 이를 친하게

당시 세종(世宗) 때 남쪽 변방에 삼포(三浦)²²⁷를 개설하였는데, 해마다 왜구들의 침입이 있어 고을마다 성을 쌓아 삼엄하게 지켰다. 이 때 조정에서는 공(公)이 살고 있는 곳의 지형이 두형(斗形)이어서 성을 쌓을 만한 천혜의 요새(要塞)라는 보고를 받고, 남산(南山)의 옛 역(驛)터를 내주면서 그 택지(宅地)와 바꾼다면 보상을 논의하여 대대로 내리는 녹봉에 보태어 주겠다는 교명(敎命)이 내려졌다. 이에 공께서는 그 보상을 사양하고 받지 않으면서, “왕의 영토가 아닌 곳이 없는데 어찌 보상이 있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였다. 교명을 고사(固辭)하면서 말하기를, “한 집안에 이익이 되는 은택을 어찌 만백성에게 널리 베푸는 시혜(施惠)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우리 고을의 적모축석(糶耗逐石)²²⁸에서 다섯 되를 경감해주시어 백 대에 길이 남을 조정의 특이한 은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의로운 일이라 여기고 허락해주었으며, 마침내 고을 전체의 상제(常制)가 되었고,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받으며 송덕(頌德)의 글이 끊이지 않으니, 이른바 ‘힘써 덕을 펴서 그 덕이 아래에 미쳤으니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 본다.’²²⁹라는 것이 공을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니겠는가?

공의 이름은 침(沈), 자는 성묵(聖默)이며, 구계(龜溪)는 호이고, 달성(達城) 서씨(徐氏)이다. 가계(家系)는 고려(高麗)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진(晋)이 공의 고조가 되고, 증조는 도관좌랑(都官佐郎)을 지낸 기준(奇俊)이며, 조부 영(穎)은 중대광(重大匡)에 오르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부친 균형(均衡)은 공민왕(恭愍王) 경자년(1360)에 포은(圃隱) 등과 함께 과거에 동방급제(同榜及第)하여 봉정대부(奉政大夫)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정평공(貞平公)이고, 모친은

대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며,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나서 다른 살아 있는 것들을 아껴준다.[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라는 말이 나온다.

227) 삼포(三浦) : 세종(世宗) 때, 왜인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齊浦, 熊川), 부산포(釜山浦, 東萊), 염포(鹽浦, 蔚山)를 말한다.

228) 적모축석(糶耗逐石) : 관아에서 환곡(還穀)을 받아들일 때, 세곡의 운반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모량과 곡식에 섞인 돌을 가려내면서 줄어드는 양을 감안하여, 한 섬에 다섯 되를 더 받던 것을 말한다.

229) 힘써 ... 우러러 본다 : 본문의 ‘종덕(種德)’은 씨앗을 뿌리듯이 덕을 널리 행한다는 뜻이다.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왕위를 선위하려고 하자, 우가 말하기를 “저는 덕이 없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皐陶)는 힘써 덕을 펴서 그 덕이 아래에 미쳤으니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볼 것입니다.[朕德罔克 民不依 皐陶邁種德 德乃降 黎民懷之]”라고 사양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서경』 「대우모(大禹謨)」

광산(光山) 김원명(金遠鳴)의 따님이다.

공은 조선에 들어와서 첫 벼슬로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少監)에 제수되었고, 세종 때 제주와 명망으로 삼남균전제처사(三南均田制處使)를 지냈다. 공은 일찍이 포은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특히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대해 강론하고 질문하며 배우고 익혔다.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 매진하였고, 병이 심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 분향(焚香)하고 글을 읽었으며, 성인의 가르침을 완미(玩味)하기를 마치 입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였다. 학문에 나아간 공력이 늘그막에는 더욱 독실해져 생도들이 문하에 줄을 이었는데, 그들을 각자의 재능에 맞게 가르쳐 성취를 이룬 자가 많았다.

부인은 고려(高麗) 때 동궁첨사(東宮詹事)를 지낸 고성이씨(固城李氏) 을방(乙芳)의 따님으로 판우군(判右軍) 은암(隱庵) 이백(李伯)의 손녀이다. 공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광흥창(廣興倉)²³⁰의 부승(副丞)을 지낸 문한(文翰),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낸 문간(文幹)이 있고, 부사(府使)를 지낸 문덕(文德)은 공의 동생 습(習)에게 출계(出系)하여 후사를 이었다. 문한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현감을 지낸 제(濟), 문과에 급제하여 학유(學諭)를 지낸 도(渡),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섭(涉)이다. 문간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감찰(監察)을 지낸 근중(近中)이다. 제는 아들 셋을 두었으니, 맹원(孟元)·중원(仲元)·계원(季元)이다. 도는 아들 넷을 두었으니, 진사 지원(智元), 문과에 급제한 인원(仁元), 진사 용원(勇元), 진사로 훈도(訓導)를 지낸 숙원(叔元)이다. 섭은 아들 넷을 두었으니, 진사 진원(震元), 생원 감원(坎元), 간원(艮元), 태원(兌元)이다. 근중은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직장(直長)을 지낸 진손(震孫), 태손(兌孫), 중손(仲孫), 주부(主簿)를 지낸 건손(乾孫), 현감을 지낸 의손(義孫)이다. 현손(玄孫) 이후는 번잡하여 다 기록하지 않지만, 공의 후손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학자가 많았다.

7세손 낙재(樂齋) 사원(思遠)은 정랑(正郎)을 지냈다. 퇴계(退溪)선생을 사숙(私淑)하고 한강(寒岡)·여헌(旅軒)과는 사우(師友)로 교유하였으며, 도(道)와 덕행(德行), 명예(名譽)와 절조(節操)로 사람의 사표가 되었다. 우리 고을의 이강서원(伊江書院)과 청안(淸安)의 구봉서원(龜峯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동고(東

230) 광흥창(廣興倉) : 호조(戶曹)에 속하여 관리의 녹봉을 맡아보던 관청, 또는 그에 딸린 창고를 말한다.

阜) 사선(思選)은 사원의 종제로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역시 학행으로 추앙받아 경산(慶山)의 옥천사(玉川祠)에 제향되었다. 8세손 전귀당(全歸堂) 시립(時立)은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효행으로 좌랑(佐郎)에 증직되었고, 우리 고을의 백원서원(百源書院)에 제향되었다.

아! 공이 살던 세상은 지금 400여 년이나 흘렀고, 이미 연대가 먼 데다가 여러 번의 병화를 거치면서 문헌으로는 고증할 수가 없다. 공의 생몰연대와 도(道)의 얹고 깊음은 물론 관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길이 없는데, 오직 적모축석(糴糒逐石)을 경감했던 이 한 가지 일만이 오래도록 길이 남을 은택이 되었다. 고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혜택이 컸으므로 기뻐하며 칭송하면서, 오래도록 잊지 못하여 집집마다 축송(祝頌)하기에 이르렀다.

현종 을사년(1665)에 구암서원(龜岩書院)을 건립하여 제향하였다. 묘소는 팔공산(八公山) 중심촌(中心村)의 간좌(艮坐) 언덕에 부인 이씨와 함께 상하(上下)로 조성되었다. 옛날에는 묘도에 표석(表石)도 없었으나 지금 비로소 한 경지(境地)를 만들게 되었는데, 선비와 아녀자 할 것 없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역사(役事)에 즐거이 참여하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득히 먼 후생으로서, 공의 유풍(遺風)을 소문으로만 듣고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깊었는데, 근자에 공의 먼 후손 식(栻)이 나를 찾아와서 묘도에 세울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실로 덕이 없고 글 짓는 재주가 졸렬한 사람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극구 다시 청하기에, 마침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사실을 약술(略述)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명(銘)을 붙인다.

아! 우리 공께서
 걸출한 기운을 타고 나서
 일찍이 어진 스승을 만나
 도를 배워서 성취하였네.
 은거하여 도를 전수하며
 영재 육성에 심취하였고
 포부를 잠시 펼쳤으니
 남쪽지방의 군전이라네.

고택의 지형이 소문나고
 천혜의 성터라 하여
 관에 바치라는 명과 함께
 보상하리라 하였건만
 세록을 사양하고 그 대신
 환곡의 세금을 덜게 하여
 혜택이 고을사람들에게
 천만년 미치게 하였네.
 노래와 칭송이 가득하고
 경사가 면면히 이어져
 백세토록 제사 지내니
 그 후손 헤아릴 수 없네.
 수목이 우거진 팔공산
 봉작 내려진 사당에서는
 누구나 공경심이 일어나니
 옷과 신을 간직한 곳이라네.
 내가 비석에 명을 새기니
 무궁토록 전해지리라.

연안(延安) 이의조(李宜朝)가 짓다.

오졸재(迂拙齋) 박선생(朴先生) 유허비(遺墟碑)

공자가 태어나신 궐리(闕里)와 주자가 사신 고정(考亭)은 만세 뒤에도 전해질
 것이니, 비록 드러내지 않아도 오히려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명현(名賢)은
 어느 곳에서 생장하였지만 과묵히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뒷날의 학자가 비
 록 유적을 돌아보고 남기신 꽃다운 덕을 경모하면서 착한 본성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드러내어 밝히는 글이 없을 수 없는 까닭이 오
 래된 것이다.

예전 천순(天順, 명나라 英祖의 연호) 3년 을묘년(1459) 정월 23일에 오졸재(迂拙齋) 박선생(朴先生)이 밀양부 풍각현의 차산리(車山里) 집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한주(漢柱), 자(字)가 천지(天支)이고 자호(自號)는 오졸재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고상사(高上舍)에게 수학하면서 스승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알현하였다. 장성하여 점필재선생을 섬기면서 유가의 도로써 스스로를 경계하고 격려하였고, 널리 배우고 힘써 실천하되 문장을 짓는 일은 지엽적인 것으로 여겼다.

성화(成化, 명나라 현종의 연호) 계묘년(1483)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을사년(1485)에 별시문과(別試文科)의 갑과에 급제하여 안팎의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다. 신미년에 비로소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제수되었는데, 매번 들어가서 임금의 대할 때면 바른 말로 아뢰니, 성종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사투리를 쓰는 정언(正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선생이 조정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으나 고향 말씨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사년(1497)에 사간원 헌납(獻納)에 제수되었다. 이 때 연산군이 덕을 많이 잃어버리자 선생이 진언하기를, “태묘와 여러 능전(陵殿)의 제사에 하나도 직접 참석하지 않고 즐겁게 노는 것을 일로 삼아서 용과 봉황이 그려진 임금의 장막을 여러 날 동안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연산군이 크게 노하여 근신(近臣)에게 박한주에게는 진언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교지를 특별히 내렸다. 선생이 또 노사신과 임사홍 등의 간사함과 나라를 저버린 죄를 극간하니, 두 사람의 원망과 배척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처음 선생이 창녕현감이 되었을 때, 필마를 타고 부모님께 문안하고 오로지 학교를 일으켜 교화를 밝히는 일을 급선무로 삼으니, 고을 백성들이 감화되어 선행을 실천하여 정문(旌門)을 받은 이가 많았다. 예천현감으로 옮겨서도 고을의 백성들이 서로 깨우치고 신중하도록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점필재 김종직의 문도(門徒)로 연좌되어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 경신년(1500)에 마른 날에 벼락이 쳐 사람을 놀라게 하는 변괴가 있어 감형되어 낙안(樂安)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갑자년(1504) 5월 15일에 사약이 이르자 친구와 함께 신명에게 고하였는데, 안색이 평소와 같았다. 이 날 대낮에 어두워지고 세찬 바람에 빠른 우뢰가 일어나고 큰 비가 내렸으니, 마

치 부음을 알리는 듯하였다. 고향 집에서 처음 제사를 지내려 할 때에도 천둥과 비에 무지개가 뜰에 드리워져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지금 함안 봉산(蓬山)의 동쪽 기슭은 선생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부인 안씨도 슬픔에 젖어 선생을 따라 죽었는데, 선생과 합장되었다.

아! 선생은 난세에 태어났으나, 옛 도를 좋아하여 오로지 정진하고 힘써 배웠다. 효를 옮겨서 임금께 충성하였으니, 선생이 몸을 잊고 임금께 직간한 것과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잘못을 바로잡은 정성은 귀신을 감동시키고 천지를 움직였다. 전후로 세 번의 우뢰와 바람과 비와 무지개의 이변(異變)은 원통함을 드러낸 것이리라. 마침내 천하가 다시 밝아지고 사론(士論)이 크게 펼쳐지자 선생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증직되었고 그의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이 있었으며, 또한 간사하고 추악한 무리들에게 중형이 가해졌다.

아! 천도는 바른 데로 돌아가기를 좋아하고 인심은 속이기 어려우니, 유학의 맥이 끊어지지 않으니 사람의 경모(敬慕)가 더욱 간절하였다. 근년 이래로 선생을 예림서원(禮林書院)에 배향하니, 이전의 법도가 달라지지 않고 남기신 풍모가 뚜렷이 살아있다. 불행히도 후손이 없어 차산(車山) 한 곳에 정령(精靈)을 모아서 옛 자취가 있는 곳에 향기로운 덕을 퍼뜨리고자 하지만 아득하여 시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산봉우리들이 부끄러워하고 산들이 쩡그린다. 후학이 존경과 추앙의 도리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오?

사인(士人) 박류(朴瑠)·이이주(李而柱) 등 몇 사람이 돌을 다듬어 그 마을에 정표(旌表)할 계획을 세웠다. 내가 이 고을의 수령이 된 적이 있어 사인 이경미(李慶美)를 영천(榮川)으로 보내어 사적을 담은 비문을 청하니, 이는 뒷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예를 표하면서 천백년 뒤에도 공경과 감흥을 일으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내가 그 지극한 뜻을 소중히 여겨 참람스러움을 잊고 감히 명(銘)을 붙인다.

하늘이 이 사람에게 한 줄기 정기를 모아
광란의 물결에 우뚝히 지주(砥柱)를 세웠네.
사문(斯文)이 없어지고 오도(吾道)가 궁해도
어찌 그 사이에 사도(邪道)를 붙이리오?

다행히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지니
원기(冤氣)는 두우성(斗牛星) 사이에서 사라졌네.
신안(新安)의 옛 마을에 비석 세우노니
유적의 아름다운 향기는 천만년 이어지리라.

대사간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가 짓고, 관찰사 이관징(李觀徵)이 쓰고, 밀양부사 이희년(李喜年)이 앞면의 전서(篆書)를 쓰다.

상덕사(尙德祠) 유애비(遺愛碑)

현종이 재위한 14년 동안 관리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여 교화가 안팎으로 두루 미쳤다. 선정(善政)을 말하는 자는 모두 지금 대사구(大司寇)로 재임하고 있는 이상공(李相公)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공적을 제일로 삼았으니, 나는 사대부의 끝자리에 있는 처지라 소문으로만 듣고 상세한 사실을 알 수 없어 한스러웠다.

9년이 지난 경신년(1680)에 달성의 부로(父老)가 편지를 보내어 말하였다. “신해년(1671)·임자년(1672)의 흉년에 영남지방 70고을은 사람이 없는 황무지처럼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남쪽을 돌아보며 근심하시고, 정사에 임하여 인재를 구하며 ‘누가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자 모두 ‘이숙(李黼)이 책임자입니다.’라고 아뢰니, 임금께서 ‘그대는 달려가서 굶주린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이 세 번 사양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자, 구황으로 급히 시행해야 할 조치와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일을 조목별로 갖추어 아뢰니, 임금께서 곧바로 재가(裁可)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몸은 아직 도성문을 나서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경상도 지방을 두루 살펴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호서·호남의 수천 곡(斛)의 곡식을 옮겨와 감영에 쌓아두었다가 배로 옮겨갈 곡식 수만 석을 방출하였습니다. 지역의 넓고 좁음과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맞추어 죽을 먹여야 할 때에는 죽을 먹이고 건량(乾糧)을 보내야 할 때에는 건량을 보내니, 그릇을 잡고 먹기를 바라는 자가 하루에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감영을 나가서 마을을 둘러보면 백성들이 공의 수레 아래에 담을 두르듯 모여들어 어

지럽게 하소연하였지만, 공은 온화한 안색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말로 어루만져 주니, 굶주린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원통한 사람은 원통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듣고 세심하게 조치하여 빠뜨림이 없었으니, 잘못된 마음이나 생각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너그럽기가 공황(龔黃)²³¹과 같고 엄밀하기가 연상(研桑)²³²과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공의 직책을 맡게 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할 것이고, 틀림없이 갈피를 잡지 못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은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아도 실행하면 모두 이치에 맞았으니, 정무를 처결함에 포정(庖丁)이 날카로운 칼로 뼈와 살 사이를 여유롭게 가르면서 소를 잡는 듯 하였습니다. 감영의 문에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고 책상 위에는 보류된 문서가 없었습니다. 비록 촉관(祝官)처럼 공손하지만 신명(神明)보다 위엄이 있었고, 백성에겐 봄비처럼 대하였지만 관리에겐 서릿발처럼 대하였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거짓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게 되니, 실질적인 은혜가 마을 구석에까지 미쳤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임자년(1672) 봄의 굶주림이 신해년(1671)보다 거의 열 배나 심하였지만 굶어 죽거나 초췌해진 백성이 없었고 또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자, 백성들은 공덕을 모두 공에게 돌렸습니다.

공이 구휼하고 남은 물건으로 크게 양로 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는데, 술이 거나해진 어르신이 잔을 잡고 말하기를, “아! 공의 선대부(先大夫)께서 대구 부에 부임하여 이런 양로 잔치를 열었는데 도민들은 도(道) 전체에 열리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상공(相公)께서 이를 널리 열어 주시니, 한 고을의 백성들이 선대부를 송축하던 것처럼 공을 송축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이 자리를 피하며 사양하였으니, 당시의 미담이 되었고 또한 시가(詩歌)로 전파되었습니다.

231) 공황(龔黃) : 공수(龔遂)와 황패(黃覇). 한나라 때 선정을 펼친 목민관.

232) 연상(研桑) : 계연(計研)과 상홍양(桑弘羊). 계연은 월(越)나라의 경제가(經世家)로 월왕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패한 뒤 복수할 생각을 품고 계연을 등용하였다. 계연이 월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계책을 올리자, 구천이 그 계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오나라에 복수하였다. 상홍양(桑弘羊)은 한(漢)나라 때 치속도위(治粟都尉)가 되어 염철법(鹽鐵法)을 평준화하여 국용(國用)을 이롭게 하였다.

만회선생(晩悔先生)이 병술년에 부임하여 이 지역을 예로 다스려 크게 향풍(鄉風)을 일으키니, 향인(鄉人)들의 칭송이 자자하고 덕을 사모하여 비석을 세웠습니다. 우재(尤齋) 송선생과 노서(魯西) 윤선생이 선생의 장수를 축원하는 글을 지은 적이 있는데, 비석에 그 일을 모두 실었고, 비문 가운데 ‘공의 정치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선생의 그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공이 감영에 부임하여 예의로 자신을 단속하니 백성들이 서로 가리키며, “이것은 선대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였다. 법도에 맞게 백성을 다스리니 사람들이 서로 귀로 전하며 “이것이 선대부의 정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공덕을 칭송하면서 공보다 선대부를 가리키며 “선대부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 상공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상공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때 수레를 잡고 만류하였지만 마침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선례와 같이 공의 모습을 소상(塑像)으로 만들고 사당을 세워 제향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생사(生祠)는 예전의 예법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분이 제물을 먼저 드실 수 없으니 양양(襄陽)의 비석에 두 분의 아름다움을 길이 드러내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니 모두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빗돌을 구하여 그 사적을 새겨 비석을 세우려 할 때 그 글을 영남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명공(名公)에게 구한다면 공을 칭송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영남 사람 가운데에서 구한다면 마땅히 그대와 같은 이가 없으니, 그대는 비문을 지을 뜻이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영민하지 못하여 굳게 사양하였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께서 우리 영남지방을 골육처럼 여기신 것은 우리 모두가 경하(慶賀)해야 할 일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구제해 준 공적은 더욱 백대의 명성으로 남을 것이다.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칭송하지 않고 다만 문장이 졸렬하다고 사양할 수 있겠는가? 어르신들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공의 이름은 숙(翊)이고 본관은 우봉(牛峯)으로 명분과 절의가 당대에 뛰어났다. 여기에 명(銘)을 붙인다.

아버지의 덕은
한 고을에 두루 미쳤고

아들의 공은
한 도(道)를 모두 덮었네.
쪽빛에서 나온 푸른빛이요
곤륜산에서 나온 옥이라네.
전후의 행적을
여러 돌에 새기니
빛돌은 닳아버리더라도
이름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곽세익(郭世翼)이 짓고, 진사 백세형(白世珩)이 쓰다.

묘정비(廟庭碑)

상덕사(尙德祠)는 감영(監營)의 성(城) 동쪽 1리쯤에 있으며, 그 이름은 송시열(宋時烈)선생이 지었고, 현판은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의 글씨이다. 이곳은 예전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한 이숙(李翺)과 유척기(兪拓基)를 함께 제향하는 곳이다.

현종 신해년(1671)에 경상도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공(李公)이 명을 받아 와서 절제(節制)로서 다스렸다. 공은 이 때 창고를 열어 보태어주고, 부세(賦稅)를 깎아주면서 직접 나가서 구휼활동을 하였으며, 흩어져 떠돌던 자들이 돌아온 후에는, 양로 잔치를 열고 향사례(鄉射禮)를 베풀면서, 학교에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자 온 도에서 크게 경사스러워하며 살아 있는 공의 형상을 그려놓고 제사지내다가 후에 여론에 따라 모든 의식을 서원과 같이 하였다.

유공(兪公)의 관찰사 재임기간은 영조 병오년(1726)에서 정미년(1727)까지이다. 유학을 흥기시켜서 교화를 펼쳤으며, 백성들의 민생고를 척결하면서 구휼하고 어루만지는 정치로, 이공(李公)과 함께 짝을 이루어 찬미(贊美)되었다. 예전부터 사냥꾼들에게 쫓을 잡아서 영부(營府)에 바치게 하던 것을 모두 없애주고, 만금(萬金)의 돈을 출연하여 전지를 마련해 농사를 짓게 하여 군역(軍役)이나 부역(賦

役)에 대응하게 하였으니,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입지 않음이 없었다. 11년이 지난 뒤 다시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기뻐하면서 정치를 펼침에 번거롭지 않게 해주었으니, 고금의 정치 행적들을 되짚어보더라도 공(公)보다 먼저 꼽을 자가 없었다. 정조 무술년(1778)에 공을 추가로 봉사(奉祀)하며 그 덕(德)을 영남에서 첫째로 꼽았다.

삼가 상고해보면, 이공(李公)의 아버지 유겸(有謙)이 이곳에서 지부(府使)를 지냈고, 유공(兪公)의 할아버지 철(徹)이 이곳에서 관찰사를 지냈으며, 아버지 명악(命岳)이 이곳에서 판관(判官)을 지냈는데, 모두들 뛰어난 공적이 있었다. 그러니 이공(二公)은 이들 선공들의 덕행을 본받아서 미루어 넓혀나갔던 것이며, 백성들은 이들을 보고 배운 것을 익혀 그 덕(德) 또한 깊어진 것이다. 『시경(詩經)』에서는, “대대로 덕을 지어 구원한다[世德作求]”²³³⁾라고 하였고, 그 전(傳)에는,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인이 행해질 것이다[必世而後仁]”²³⁴⁾라고 하였으니, 믿을 만하다.

한편, 이 감영의 영주(營主) 제명기(題名記)²³⁵⁾를 살펴보면 고려(高麗) 문종(文宗) 33년부터 도부서사(都部署使) 이제원(李齊元)을 시작으로 고려조에서 516명, 본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재임하였으니, 그 가운데에는 직무를 잘 처리하여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한 자 역시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이 두 분에게만 제사지내면서 그 유풍(遺風)과 여운이 성대하여 차마 잊지를 못하였으니, 어찌 그 지모(智謀)와 공력(功力)을 계승하여 취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반드시 진실 되고 거짓이 없을 것이다. 아! 백세(百世) 전의 일이 천세(千世) 후에도 있으리니, 이후에 지방관을 맡게 되는 자는 이 상덕사(尙德祠)를 보고 스스로를 면려(勉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233) 대대로 ... 구원한다[世德作求] : 『시경』 「하무(下武)」에 나오는 구절로, 이 시는 주 무왕(周武王)이 태왕(太王), 왕계(王季), 문왕(文王)의 전통을 이어 천하를 소유함을 찬미한 시로, 선왕의 덕을 계승하였다는 말.

234) 반드시 ... 행해질 것이다[必世而後仁] : 『논어』 「자로(子路)」에, “만약에 성군이 출현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 이후에야 온 세상에 인덕이 행해질 것이다.[如有王者 必世而後仁]”라는 구절이 나온다.

235) 제명기(題名記) : 관서(官署)의 벽에 그 관서에 출사(出仕)한 사람들의 이름과 이력(履歷)을 써서 걸어 놓은 것.

유공의 증손 장주(長柱)는 지금 안의현감(安義縣監)이고, 개령현감(開寧縣監) 홍치규(洪稔圭)군이 외현손(外玄孫)이며, 나 또한 분에 넘치게 외외증손이다. 함께 모여 사당(祠堂)을 살펴보고 알현한 후에, 그 사실들을 기록하여 남기기로 하였다. 그래서 내가 비문을 짓도록 추천되었고, 글씨와 새기는 일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분담시키기로 한 백성들의 뜻을 따랐다.

이공의 자는 중우(仲羽), 호는 일휴당(逸休堂), 시호는 충헌(忠憲)이고,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유공의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시호는 문익(文翼)이고,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두 공(公)은 모두 태사(台司, 政丞)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그 공적이야 왕실에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약술(略述)한 것은 본 감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공적을 기록한 것이다.

문익공(文翼公)의 외외증손(外外曾孫) 관찰사(觀察使) 조인영(趙寅永)이 짓고, 외현손(外玄孫) 개령현감(開寧縣監) 홍치규(洪稔圭)가 쓰고, 증손(曾孫) 안의현감(安義縣監) 장주(長柱)가 새겨, 병술년(1826)에 세우다.

축성비(築城碑)

대구부는 실제로 영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달성(達城)이 없어진 뒤 유영(留營)을 옮겨와서 이곳에 두었으니, 실로 영남의 큰 도회지이다. 그런데도 막고 지킬 수 있는 조그만 성벽조차 없다. 감영의 북쪽에 토성(土城)의 남은 터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시대에 쌓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은 또한 거의 허물어졌다.

내가 을묘년(1735)에 이곳의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 일을 탄식하며 축성할 방안을 급히 강구하자 모두 돌이 없다고 어렵게 여겼다. 겨울에 돌이 있는 곳을 두루 찾아보고 의논한 끝에 결정하여 조정에 아뢰었다. 다음해 정월 8일 계미일(癸未日)에 돌을 캐기 시작하였고, 4일 뒤 정미일(丁未日)에 드디어 성터를 닦았고, 4월 25일에 체성(體城)이 완성되었고, 6월 6일에 성 위의 담이 모두 이루어졌다. 네 정문은 무지개처럼 둥글게 하고 성문 위에 누각을 설치하였으며, 두 개의 암문(暗門)은 동남과 서북으로 두었다. 둘레는 옛 성터를 조금 넓혔는데 총 넓이가 2,124보(步)이고, 담의 숫자는 819첩(堞)이다. 성의 높이는 서남쪽이 18척, 동북쪽이 17척이다. 후축(後築)은 넓이가 7보, 높이는 3급(級)이다.

인부를 모으고 경비를 마련하는 일은 두 도청(都廳)을 설치하여 주관토록 하였고, 각각 한 명씩 감독관을 두어 담당하게 하였다. 체성(體城)은 100패(牌)로 나누고 각 패에 패장(牌將)을 두었는데, 넓이를 살펴 구역을 나누었다. 사방을 동소(東所)·서소(西所)·남소(南所)·북소(北所)로 나누었고, 4문(四門)에 또한 각각 도청부감(都廳副監)을 두어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돌을 캐고 기와를 굽는 일은 모두 감독관을 따로 정하여 주관하게 하였고, 나 또한 매일 일의 결과에 따라 상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줄 사람은 벌을 주니, 사람들이 더욱 힘써 게을리 노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일이 빨리 끝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감영에 부속된 고을의 속오군을 동원하였다가 장계를 올려 농사일을 끝낸 백성의 동원을 청하였고, 봄철 농사가 바빠질 때는 모두 돌려보냈다. 이어서 승군(僧軍)을 동원하였고, 감영의 관리에게 도내의 장인, 각 점(店)의 연군(鉛軍), 장리(將吏), 예속(隸屬)을 모으게 하였는데, 모두 급료를 넉넉히 주고 일을 시켰다.

철(錢)·숯·석탄·목재·기계 등 필요한 물품도 또한 모두 후한 값을 지급하고 사들였고 운반비를 지불하고 옮겨왔다. 소요되는 경비가 매우 많았으나 감영의 재정을 절약하고 물건을 전매하여 남은 이익에서 충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나머지 재물을 모두 사용하여 수성계(守城械)를 제작하였고, 수성창(修城倉)을 세워 군량을 비축하고 전포(錢布)를 저장하여 불시의 어려운 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공사가 끝나자 장사(將士)들과 함께 구정(龜亭)에 모여 활쏘기를 하고 남문(南門)에서 크게 잔치를 열어, 공로에 따라 상을 주었다. 가을이 돌아오자 여러 고을의 장교들 가운데 축성에 공로가 있는 자를 모으고 활쏘기를 하여, 구정(龜亭)의 경우와 같이 상을 주었다.

10월에 장계를 올려 상을 청하자 공로에 따라 높낮이를 헤아려 도청(都廳)으로부터 아전과 예속(隸屬)에 이르기까지 모두 품계를 올린다는 임금의 전교와 쌀과 벼가 하사되었다. 임금의 은전이 매우 두터웠고 포상도 또한 넉넉하였다.

11월 신축일에 선화당에서 잔치를 열어 낙성식을 행하니,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모두 820여명이나 되었다. 무사(武士)와 승려,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모두 발을 구르고 춤을 추며 축하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이 축성의 공사는 매우 거창하고 노고 또한 매우

했습니다. 일을 담당한 장교들은 머리 빗고 목욕하면서 정성을 다했고, 발바닥에 못이 박히는 괴로움을 참아내었으니, 그 수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축성의 전말을 간략히 서술하고 사람들의 성명을 아래에 새긴다.

승정(崇禎) 이후 두 번 지난 정사년(1737) 2월 상순에 세우고, 관찰사 민응수(閔應洙)가 짓다.

석가여래비(釋迦如來碑)

옛날 석가의 사리가 거의 8곡(斛) 4두(斗)나 되었다고 한다. 신라의 승려 자장(慈藏)이 서쪽으로 천축국에 가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양주(梁州)의 통도사에 보관하였는데, 두 상자에 각각 두 개씩 넣었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의 난리에 왜적이 탑을 허물고 사리를 꺼내자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이 격문을 돌려 승군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린다는 말로 겁을 주니, 왜적이 두려워서 모두 돌려보냈다.

송운대사가 사리를 받들고 금강산에 이르러 서산대사 휴정(休靜)에게 물었다. 휴정이 탄식하며 “자장은 신인이다. 그가 처음 보관할 때에 깊숙이 숨겼으나 마침내 드러남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아마도 나에게 갈무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는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 하였다. 드디어 한 상자를 제자인 선화(禪和) 등에게 주어 태백산 보현사에 봉안하게 하고, 또 한 상자를 송운대사에게 주어 통도사로 돌려보내어 탑을 고쳐 봉안하게 하였으니,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당시에 영남은 새로 전란을 겪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새와 쥐처럼 달아나 탑을 고칠 겨를이 없었다. 송운대사도 또한 일본에 어명을 받들어 갈 일이 있어 상자를 받들어 원불(願佛)로 삼았고 그 상자를 바꾸어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머물러 두었다. 승도(僧徒) 청진(淸振)이 비슬산 용연사(龍淵寺)로 옮겨 봉안하였고, 뒤에 대중들이 서로 의논하여 탑에 보관하였다. 또 두 사찰에 봉안하라는 휴정대사의 뜻을 어길까 두려워하여 한 개는 통도사에 봉안하고, 또 한 개는 용연사의 북쪽 기

숨에 봉안하였다. 계축년(1619) 5월 5일에 탑이 완성되었으니, 높이가 5척 5촌이었다.

이 절의 승려인 광헌(廣憲)·광륜(廣倫) 등이 북쪽으로 7백여 리를 달려와 서울에 있는 나를 방문하고 그 일의 전말을 알리며 명(銘)을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젊어서 공자의 글을 읽었고 불가의 말은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불가의 사적을 알겠는가? 그러나 석가가 죽은 뒤 1600여년 뒤에 그의 사리가 중국 땅 5만여 리를 거쳐 우리나라의 통도사에 봉안되었고, 또 940여년 뒤에 왜적이 꺼내었다가 되돌려 주었고, 또 80년 뒤에 통도사의 옛 탑과 비슬산의 용연사에 나누어 봉안하였다고 하니, 이 말을 믿는다면 또한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의 말에 따라 사적을 차례로 서술하고 명(銘)을 붙인다.

비슬산 울창하고
낙동강 출렁이는 곳
우뚝한 탑 있으니
석가의 사리 간직된 곳이에.

지평(持平) 권해(權階)가 짓고, 김렴(金濂)이 비문과 전서(篆書)를 쓰다.

평영남비(平嶺南碑)

무신년(1728) 봄에 영남지방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관찰사(觀察使) 황공(黃公)이 고을 병사들을 독려하여 토벌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겨 마침내 평정하였는데, 그 해 4월 신묘일에 공이 관찰사로 재임 중에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적(功績)들을 책록(冊錄)하고,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과 양관(兩館) 대제학(大提學)을 증직하고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황공의 이름은 선(璿), 자(字)는 성좌(聖左)이고, 남원부(南原府) 장수현(長水縣) 사람으로 옛날 황희(黃喜) 정승의 후손이다. 어려서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참판과

대사간(大司諫)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영조 3년(1727) 가을에 절도사(節度使)의 명을 받고 영남으로 출진(出鎭)하였는데, 그 다음 해에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이때 주상이 새로 즉위하였는데 적신(賊臣) 김일경(金一鏡) 등이 역적으로 주살되었으나, 그 잔당(殘黨)들이 조정에 많이 남아 국사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원망하고 난을 꾀하였다.

이때 영인(嶺人) 이인좌(李麟佐)가 호서(湖西)에서 병사를 일으켜, 밤중에 청주(淸州)를 습격하여 절도사 이봉상(李鳳祥)을 죽이고 상당산성(上黨山城)을 점거하였다. 이 당시 그의 동생 웅보(熊輔)는 영남우도(嶺南右道)에서 봉기하여 정희량(鄭希亮)·나송건(羅崇建) 등과 연합하여, 안음(安陰), 거창(居昌), 함양(咸陽)을 함락시키고 합천(陝川)에 이르렀다. 이때 합천의 죄수 조정좌(曹鼎佐)가 탈옥하여 합천을 점거하고, 삼가(三嘉)의 군사(軍師)들을 병합하여 이웅보를 지원하였다.

공께서는 우선 상주(尙州)와 안동(安東)의 병사들을 출병시켜 충주(忠州)에 집결시키고, 강가 요충지에 12개의 방어진지를 만들어, 여러 주군(州郡)의 조련된 병사들을 분산 배치하여 이인좌의 공세를 막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계(草溪)와 성주(星州)에 주둔하고 있는 좌우도의 방어 진영에 명령을 내려 웅보를 포위하게 하였는데, 양 진영이 서로 경계를 이루며 분리되어 대치만 하고 있었다. 이 때, 웅보는 거창에서 7만의 무리들을 불러 모으자, 공은 병사들을 다섯 군데의 경로로 진격시켜 거창으로 다가가게 하고, 별도로 정예병사 300명을 좌우도의 방어 진영에 합쳐 마침내 빠르게 추격하니, 합천의 조정좌가 크게 놀라 군사들이 궤멸되고, 그 휘하의 장수 김계(金洳)가 조정좌를 죽이고 항복해 왔다. 이 때 웅보는 고립이 된 채 군사들을 집결시켰으나, 많은 무리들이 이미 흩어져 도망가 버린 상태였다. 이에 공은 몰래 병사들을 우두산(牛頭山) 서쪽 골짜기에 매복시켰는데, 과연 웅보는 밤중에 거창을 버리고 서쪽 골짜기로 도망가다가 매복군을 만나 되돌아 도주하면서 총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들이 성초역(省草驛)에 이르렀을 때, 관군들이 추격하여 정희량과 나송건을 함께 사로잡음으로써 영남지역의 난리는 드디어 평정되었다.

이때, 이인좌의 군사들은 청주에서 경기도의 고을로 진격하여 핍박하였고, 박필몽(朴弼夢)과 박필현(朴弼顯)은 호남에서 봉기하였으며, 이사성(李思晟)은 관서(關西)에서 호병(胡兵)으로 가장하여, 이들은 날짜를 정해 놓고 대궐을 침범하였

으나, 끝내 모두 패하여 주살되었다. 그러나 공이 영남의 난을 평정하지 못하였다면, 나라의 변고를 어찌 잘 다스릴 수 있었겠는가.

공의 사람됨은 침착하고 듭직하여 믿음직스러우면서 말이 적었고, 영특함이 안으로 온축되어 있었다. 항상 산천도기(山川圖記) 보는 것을 즐겨하여 관방(關防)²³⁶⁾의 험이(險易)와 허실(虛實)의 형세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백성을 다스리고 병사를 쓰는 일 모두가 법도와 형세에 들어맞았다. 처음으로 나아간 관직에서는 체납된 환곡(還穀)을 느슨하게 하면서 빈궁한 사람들을 진휼(賑恤)하였고, 아전들이 지고 있던 빚 15만 냥을 면제해 주었으니, 남인(南人)들은 이를 크게 기뻐하였다.

적도들이 처음 봉기하였을 때, 그 허점을 노려 공을 습격할 것을 모의하자 공은 감영을 닫고 단정한 모습으로 여유를 보였으며, 자객이 들이닥쳤다고 하더라도 역시 동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를 믿고 안심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안음이 함락되자 현감 오수옥(吳遂郁)은 그 죄가 죽어 마땅하였는데, 순무사(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은 공에게 그의 사면을 애걸하였다. 공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처결을 서둘렀다. 합천군수 이정필(李廷弼)은 군사와 직무를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마침내 조정좌가 옥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공이 이정필을 잡아 감영에 도착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도 전에 공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공이 죽자 정언(正言) 권혁(權赫)이, “공은 병이 없었고 갑자기 죽었으니, 그 정상(情狀)을 조사해 밝혀야 합니다.”라고 주청하였다. 이에 주상이 본도에 그 일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관찰사 박문수(朴文秀)가 처리를 늦추면서 곧 마무리되고 말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통해 하였다.

공이 죽은 지 13년 후에, 영남의 백성들과 선비들이 감영의 성(城) 남쪽 구산(龜山) 아래에 공을 위한 사당(祠堂)을 세우고 이름을 민충사(愍忠祠)라 하였다. 그 다음해에 새로 세운 사당과 서원을 모두 허물게 한 조정의 명에 따라, 이때 공의 사당도 서원과 함께 없어졌다.

얼마 후에 여러 의논 끝에 다시 그 자리에 단을 쌓아서 공의 공적을 돌에 새겨 백성들의 생각에 깃들게 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나에게 와서 글을 지어달라고 청

236) 관방(關防) : 변방을 방비하는 일, 또는 변방을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요새를 말한다.

하였다. 공의 공적이 국가에 보존되어 있고, 몸은 불행하게도 이미 죽었는데 제사조차 지내지 않고 있다. 그 이치가 슬퍼할 만한 것이므로, 마침내 그 일을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붙인다.

무신년의 난에
영남의 두 도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 되어
안으로 엮혀 있었네.
홍포한 무리들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도적으로 바라보고
나라 위해 간흉들을 다스렸으니
오직 충렬이 드러났을 뿐이로다.
오로지 이런 충렬만으로도
문무의 기상을 드날렸으니
신명스런 기지 거울삼을 만한데
공훈과 초상도 남지 않았네.
강으로 막힌 깎아지른 절벽에
보루마다 구졸²³⁷⁾을 배치하였는데
거창의 반란군들 소굴에는
그 무리가 7만이나 되었다네.
합천의 원군을 무찌른 뒤에는
세력이 꺾이고 곧 무너지면서
우두산 골짜기 밤 전투 후에는
적들이 드디어 쓰러졌도다.
이러한 간흉들의 짝은
하루 만에 쌓인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237) 구졸(句卒) : 삼군(三軍)의 좌우에 진을 치는 별대(別隊)로, 합성을 질러 허세를 부림으로써 적을 유인하여 분열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영남에서 더욱 심하였네.
 지금 이러한 반란으로
 역리와 순리가 분명해졌으니
 공의 은혜 각인되어 남음이
 영남에 더욱 더하였네.
 공을 베풀고 그대가 죽어서
 갑자기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일이 의심스러울 만한데도
 그 원수를 잡지 못하였네.
 백성들의 모두 함께 경모함이
 세월이 흘러도 끊임이 없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
 민중사라는 사당이 있어
 농사 바쁜데도 수리하여
 이곳에 봉안하였네.
 지금 조정의 명으로
 사당을 철거하고 단을 쌓았으니
 단은 삼층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비석이 우뚝하네.
 이수(螭首)와 귀부(龜趺)²³⁸ 만들고
 비문도 지어 새겼다네.
 금수(琴水)의 유유히 흐르고
 남쪽 백성들 그리워하니
 공은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유훈은 장구하리라.
 우리의 사사로움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영광이로세.

238) 이수(螭首)와 귀부(龜趺) : 비석의 장식물로, ‘螭首’는 뿔 없는 용의 머리 모양이고,
 ‘龜趺’는 거북 모양의 빗돌받침이다.

중훈대부(中訓大夫) 행(行)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이의철(李宜哲)이 짓다.

비각은 대구부(大邱府)의 성 남문 밖 민충사(愍忠祠)의 옛터에 있다.

국담(菊潭) 박선생(朴先生) 묘갈(墓碣)

공(公)의 이름은 수춘(壽春), 자는 경노(景老)이고, 호는 국담(菊潭)이다. 박씨(朴氏)는 대를 이어가며 밀양(密陽)에서 현창하였으니, 고조(高祖) 형달(亨達)은 점필재(佔畢齋)의 문인이었고, 조부(祖父) 대성(大成)은 회재(晦齋)의 문인이었다. 부친 신(愼)은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도산(陶山)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대를 이어서 선비로서의 예를 행하고 집안을 지키는 모범이 되었으며, 모친은 같은 군(郡)의 손씨(孫氏)였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침을 받아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스스로를 바르게 단속하였다. 약관의 나이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송(靑松)으로 피난하였는데, 온 집안에 돌림병이 돌아서 한꺼번에 부모와 형제 중 일곱 분의 상을 당하였다. 오직 공과 최씨(崔氏)에게 출가한 누님만이 죽음에서 벗어나, 지치고 떨리는 몸으로 일곱 구의 시신을 짊어지고 객지에 매장하고, 거친 음식이지만 반드시 제수(祭需)를 올렸다. 공은 영동(嶺東)을 떠돌면서도 계절마다 슬피 울면서 성묘하였으며, 7년 동안의 왜란이 평정되고 난 뒤 다시 차례로 일곱 번의 상례를 치루면서 300리 밖에서 고향의 산 아래로 귀장(歸葬)하였다. 공은 이때 우마(牛馬)의 도움도 거절하면서, 자신이 몸소 관을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성심껏 자력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공이 부인을 맞아들인 후 풍각(豐角)의 산중에 거처를 정하고 종형(從兄) 양춘(陽春)과 함께 머리가 희도록 한집에서 거처하였다. 난리 중에 부군을 잃은 누님도 모친을 모시면서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정의 모든 안살림을 누님이 처리하여도 집안에 틈이 벌어지지 않았다. 공은 세속의 일을 사절하면서 학문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엄한 스승으로 삼아서 스스로 터득함을 구하다가, 그 후에 한강(寒岡)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질정하였다. 공은 조예(造詣)

가 깊고 사리에 밝아서, 일의 처리에 알맞지 않음이 없었고 법도가 매우 엄격하였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을 훈도할 때 『소학(小學)』을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여러 경전(經傳)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배우는 자들이 의지할 뿐만 아니라 고을 사람들도 모두 감복하였다.

풍각(豐角)은 지형이 벽지(僻地)인데다가 사람들의 다툼이 많아서 늘 시끄러웠다. 공은 이를 참작하여 동규(洞規)와 향약(鄉約)을 만들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가르치며 술선수범하였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의 습속(習俗)이 크게 변하여 모두 좋은 일을 하고자 하였으며, 문득 “우리 선생께서 ‘어찌하여 소송장(訴訟狀)을 만들어 관청에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네.” 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이 무오년(1618)에 모후(母后)를 서궁(西宮)에 가두었다.²³⁹⁾ 이때 공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하며 극언(極言)으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지었다.

“고수(瞽叟)가 순(舜)을 죽이려고 일을 꾸몄을 때에도 순임금은 오로지 효성으로 잘 화합하였거늘, 하물며 자전(慈殿)께서는 이러한 일을 꾸민 것도 아닌데, 전하께서는 순임금의 그러한 심성을 지니지 않으시니, 장차 무엇으로 천하와 후세에 해명하시겠습니까?”

이 상소문은 의론(議論)의 기세가 위엄이 있으면서도 추상같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치솟게 하였는데, 당시 광해군이 상소문을 들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정인홍(鄭仁弘)이 신송계여표비(申松溪閼表碑)를 지어서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두 선생을 방자하게 헐뜯었을 때, 정인홍의 위세가 크게 펼쳐질 때라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때 공이 정인홍을 찾아가, 그 글을 면전에 던지면서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그 잘못을 따졌는데도, 정인홍 역시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 금인(金人)²⁴⁰⁾들에게 서울이 함락되고 주상은 남

239) 광해군(光海君)이 ... 가두었다. :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 등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 사건을 말한다.

240) 금인(金人) : 청(淸)나라 사람.

한산성의 순영(巡營)으로 파견하였다. 공은 격분하여 창의하여 군사를 모았는데, 남한산성 아래에서 굴욕의 화친이 이루어지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시를 짓고는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공은 오로지 세도(世道), 향풍(鄉風), 민생(民生), 사기(士氣)만을 염두에 두면서 오히려 비운(否運)을 끌어당겨 그 허물을 씻어내고자 하였다. 공의 성품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궁핍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는데, 그 수가 몇 천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 선(善)을 권장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항상 몸가짐과 말씨와 안색을 바르게 하였다. 나이 80세가 되자 덕망이 더욱 융성해져 인근 고을에서도 추앙하였으며, 사신들도 공의 집을 예방(禮訪)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간혹 산림재상(山林宰相)이라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효종 임진년(1652) 11월 5일 향년 81세로 세상을 떠나자, 원근의 향촌에서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도와 봉천(鳳泉)의 동쪽 기슭 축좌(丑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는데, 이 때 모인 조문객은 4, 5개 군(郡)을 능가하였다.

공의 집안에서 전해오는 모든 문헌에, 공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질이 빼어나고 순수하였으며, 읽지 않은 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大學)』과 『소학(小學)』을 입문서로 삼고,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을 지침서로 하여, 마음을 수습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을 공부로 여겼으며,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공손한 것을 덕목으로 여겼다.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있어도 거만함과 태만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에도 그 기품이 온화하면서도 군세어 범하기 어려웠다.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에는 사람들이 공을 숭정처사(崇禎處士)로 불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난중에 집을 잃어버린 사대부 집안의 처녀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불쌍하게 여기며 거두어 누님과 함께 거처하게 하면서 집의 안채와 바깥채를 차단하였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자취를 수소문하여 돌려보내었는데, 그 아버지는 인근 고을의 당재(黨宰, 향당의 座首)였다. 이렇듯 그 의리(義理)의 독실함과 예절(禮節)의 엄격함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것이었다.

공의 저서에는 『독서지남(讀書指南)』 『학문유해(學問類解)』 『도통연원록(道統淵源錄)』 『동방학문연원록(東方學問淵源錄)』 『의례문견해(疑禮聞見解)』 등이 있다.

숭정(崇禎) 임자년에 공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가 증직되었고, 사림에서는 풍각(豐角)의 남강서원(南岡書院)에 공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향하였다.

공의 증손 몽징(夢徵) 등이 그의 생질인 진사 김광국(金光國)으로 하여금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가 쓴 공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나에게 묘갈명(墓碣銘)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나는 삼가 그 기록의 요점들을 추려 묘갈문(墓碣文)을 짓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덧붙인다.

아! 공의 선조들은
대를 이어 스승을 얻었고
공은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강의 문하에서 질의하였네.
덕을 쌓아 깊어졌을 때는
미루어 널리 은혜를 펼쳤고
다툼 많은 습속 바꾸어
사민들의 갈 길 바루었네.
의병 일으키는 격문을 쓰고
쟁송의 글 쓰지 않게 되니
평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삼강오륜을 바로 세웠네.
울창한 무덤
바로 공의 묘소라네
훼손하거나 파헤치지 말라
내가 명을 이 돌에 새기노라.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 겸 지제교(知製敎) 권두경(權斗經)이 짓다.

대암 최공 유허비(臺巖崔公遺墟碑)

팔공산(八公山)이 영남(嶺南)에 이름이 드러나 초목과 구름과 안개가 드러나게 특이한 기운이 있는 것은 어찌 은일(隱逸)하는 군자(君子)가 그 속에서 있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 군자(君子)는 누구인가? 사부(師傅) 최공이 바로 이 분이다.

공의 이름은 동집(東集), 자(字)는 진중(鎭仲)이고 대암(臺巖)은 호(號)이다. 한강(寒岡) 정선생(鄭先生)의 문하에 종유(從遊)하여 학문하는 요결(要訣)을 들었다. 물러나서는 한 시대의 여러 명유(名儒)들과 더불어 도의(道義)로 교분(交分)을 맺어 성인(聖人)의 글이 아니면 강마(講磨)하지 않았으니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독실함과 공부의 세밀함을 알 수 있다.

광해군(光海君) 때 생원(生員)으로서 성균관(成均館)에 유학할 때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교유하기를 청했으나 드디어 소매를 뿌리치고 고개를 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분수에 만족하며 배고픔을 잊었다.

인조(仁祖) 기묘년(1639)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능참봉(陵參奉)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에 효종(孝宗)이 대군(大君)으로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인질(人質)로 갈 때 공을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제수하였다. 공이 그 명을 듣고 곧 말을 달려 조정에 나아갔으나 길이 멀어 대군의 행차에 미치지 못하여 교체되어 통곡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갑신년(1644)에 명나라가 망하자 드디어 팔공산(八公山)에 들어가 농연(壟淵)의 수석(水石)이 좋은 곳에 초가(草家)를 짓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공이 돌아가신 지 백여 년이 되었는데 5세손 전(前) 익찬(翊贊) 흥원(興遠)씨가 공의 유적(遺蹟)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농연(壟淵)의 옛 터에 다시 몇 칸의 집을 짓고 여러 자제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독서하여 이름난 조상의 구업(舊業)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그래도 흠족하지 않다고 여기고, 작은 집은 흥폐(興廢)가 무상(無常)한 것이니 오래 갈 수 없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돌을 세움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곧 제공(濟恭)에게 서신을 보내었는데 공의 사적(事蹟)이 매우 자세하였다. 그 끝에 이르기를, “훌륭하지도 않은 것을 칭찬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요 훌륭한 행의(行義)가 있는데도 칭찬하지 않음은 어질지 못함이니 원하옵건대 귀하(貴下)께서는 우리 선조의 유허비명(遺墟碑銘)을 지어 후생(後生)들로 하여금 어질지 못한 사람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제공(濟恭)이 손

을 씻고 읽고서는 탄복하여 말하기를, “요동(遼東)의 심양(瀋陽)으로 대군(大君)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처자(妻子)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형세를 살피고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공은 홀로 용감하게 즐거운 땅에 나아가듯 하였다. 이윽고 대군 행차에 미치지 못하여 교체되었을 때에는 북쪽을 바라보며 크게 통곡했으니 이것은 춘추(春秋)시대의 개자추(介子推)가 진문공(晉文公)의 망명(亡命)에 말고삐를 잡고 다닌 정성과 같다.

갑신년 이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세상이 되어 의관과 문물이 오랑캐의 문화로 변하자 공은 필부(匹夫)의 몸으로 이미 세상에 할 일이 없게 되어 마침내 멀리 세상을 피해 숨고 오직 입산한 곳이 깊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니 이것은 제(齊)나라의 노중련(魯仲連)이 진(秦)나라의 방자한 정치에 반대하여 동해(東海)를 밟은 기풍(氣風)과 같다.

공의 충의와 대절(大節)이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밝게 비추어져 지금까지 칭찬의 말이 어제의 일처럼 되었으니 공의 충의를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비석이 아니겠는가? 비록 익찬공(翊贊公)이 효성에 독실하여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오래되어도 게을리 하지 않아 선조의 덕행(德行)을 현양함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제공(濟恭)이 어찌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드디어 명(銘)을 붙인다.

규장각(奎章閣) 제학(提學) 채제공(蔡濟恭)이 짓다.

효자 증좌랑(贈佐郎) 북곽서공(北郭徐公) 묘갈명(墓碣銘)

달성에 대대로

이름난 집안

어찌 반드시 영달이라!

귀한 것은 덕행이로다.

공은 실로 이를 지녀

효성이 모든 행실의 근본이니

고기와 새들도
정성에 감동한다네.
더욱이 사람에게 있어
땃땃함은 모두 같은 것이니
자식된 자들은
깊이 새길지어다!

행(行) 이조판서 홍문관 제학 세자좌빈객 김희순(金羲淳)이 짓다.

책 판(冊板)

맹자(孟子) : 대전(大全) 7권 백지 16속(束), 언해 7권 백지 15속.
논어(論語) : 대전 7권 백지 25속 5장(張), 언해 4권 백지 7속 15장.
중용(中庸) : 대전 1권 백지 4속 5장, 언해 1권 백지 1속 18장.
대학(大學) : 대전 1권 백지 2속 2장, 언해 1권 백지 18장.
시전(詩傳) : 대전 10권 백지 23속 19장, 언해 7권 백지 15속 4장.
주역(周易) : 대전 14권 백지 34권, 언해 5권 백지 10속 15장.
돈효록(敦孝錄) : 23권 백지 50속.
두시비해(杜詩批解) : 14권 백지 24속 12장.
주서요류(朱書要類) : 6권 백지 15속 15장.
유원총보(類苑叢寶) : 20권 백지 55속 10장.
한서(漢書) : 30권 백지 75속.
만병회춘(萬病回春) : 10권 백지 21권 5장.
동의보감(東醫寶鑑) : 25권 백지 43권 17장.
육례의집(六禮疑輯) : 14권 백지 32속 2장.
오례의(五禮儀) : 8권 백지 24속 10장.
속오례의(續五禮儀) : 4권 백지 8속 5장.

국조상례(國朝喪禮) : 6권 백지 12속 5장.
 훈의소학(訓義小學) : 구언해 9권, 백지 23속 10장.
 상례비요(喪禮備要) : 2권 백지 3속 10장.
 여사제강(麗史提綱) : 13권 백지 28속 15장.
 당감(唐鑑) : 4권 백지 9속 11장.
 대전통편(大典通編) : 5권 백지 10속.
 반계수록(磻溪隨錄) : 13권 백지 27속 15장.
 팔대가(八大家) : 40권 백지 86속.
 주자어류(朱子語類) : 50권 백지 107속.
 천자문(千字文) : 1권 백지 1속 2장.
 육주약선(陸奏約選) : 1권 백지 2속.
 향음합(鄉飲合) : 2권 백지 3속 10장.
 무원록(無冤錄) : 1권, 언해 2권 백지 7속.
 사기영선(史記英選) : 3권 백지 6속 10장.
 주서백선(朱書百選) : 2권 백지 5속.
 아송(雅頌) : 2권 백지 3속 15장.
 두과휘편(痘科彙篇) : 2권 백지 6속.
 사문유취(事文類聚) : 70권 백지 127속.
 외재집(畏齋集) : 6권 백지 14속.
 독석집(獨石集) : 백지 20속 13장.
 해봉집(海峯集) : 백지 14속 10장.
 월사집(月沙集) : 22권 백지 46속.
 수곡집(睡谷集) : 백지 19속 18장.
 월사집(月沙集) : 백지 46속 10장.
 삼봉집(三峯集) : 백지 15속 6장.
 태화집(太華集) : 백지 5속 4장.
 진암집(晉菴集) : 백지 9속 10장.
 입암집(立巖集) : 백지 7속 6장.
 음애집(陰崖集) : 백지 4속 3장.

동리집(東里集) : 5권 백지 11속.
동국보감(東國寶鑑) : 백지 53속.
의례경전(儀禮經傳) : 백지 50속.
북창집(北窓集) : 백지 4속 10장.
정암집(正庵集) : 10권 백지 21속 10장.
백강연보(白江年譜) : 백지 2속 10장.
기계유씨족보(杞溪兪氏族譜) : 백지 12속.
강릉김씨족보(江陵金氏族譜) : 백지 14속.

부 록

읍지(邑誌) 보궐(補闕)

-대구부읍지(1907년, 규장각 소장본)에 수록되어 있음.

개국 504년인 을미년(1895)에 판관을 없애고 군수를 두었으며, 같은 해 9월에 군수를 없애고 본도의 참서관(叅書官)으로 겸임하게 하였다가 병신년(1896) 7월에 참서관을 없애고 다시 군수를 두었다.

속현 수성현 이하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이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4도로 나누었으며, 대구·안동·진주·동래 4부로 나누어 관찰사를 두었다. 병신년(1896) 7월에 안동부와 동래부는 혁파되었다. 이후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 진주는 남도가 되었고 대구는 북도가 되었다.

각 아문(衙門) 보궐

지방대(地方隊)

광서(光緒)²⁴¹⁾ 정해년(1887) 도순찰사 이호준(李鎬俊)이 조정의 명령으로 친군남영(親軍南營)²⁴²⁾을 감영의 진휼창(賑恤倉)에 설치하였는데 병신년(1896)에 혁파되었다. 친군영 사령관 이겸제(李謙濟)는 임시로 군대를 거느렸다. 정유년(1897)에 지방대를 설치하고 참령(參領)·정위(正尉)·참위(參尉)·부위(副尉)를 두었다.

전보사(電報司)

241) 광서(光緒) : 청나라 덕종(德宗)의 연호.

242) 친군남영(親軍南營) : 1887년(고종 24) 대구에 설치하였던 친군영(親軍營). 종전의 경상감영군(慶尙監營軍)을 친군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친군남영이었다. 그 지휘관을 남영사(南營使)라 하였는데 경상도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이 군영은 갑오경장 뒤인 1896년에 개편되어 대구지방대(大邱地方隊)라 하였다.

광서(光緒) 무자년(1888) 4월에 낙육재(樂育齋)에 전분국(電分局)을 창설하고 주사(主事) 2인, 위원 1인을 두었다가 을미년(1895)에 2인을 감축하였다. 병신년(1896) 2월에 전국청사(電局廳舍)를 일본인 수비대에 빌려주고 예전 감영의 관노청(官奴廳)에 이설하였다. 무술년(1898) 5월에 국명을 전보사(電報司)로 개칭하고 주사 3인을 다시 두었다.

경무서(警務署)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예전 진영(鎭營)에 창설하고 경무관보(警務官補) 1인과 총순(總巡) 2인을 두었다가 정유년(1897)에 경무관보를 없앴다. 지금 다만 총순 2인만 있다. 무술년(1898)에 제승당(制勝堂)에 옮겨 설치하였다.

우체사(郵遞司)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예전 감영의 영리청(營吏廳)에 창설하고 기수보(技手補) 2인을 두었다. 병신년(1896)에 1인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해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로 개명하였다. 각 군(郡)을 관장하는데 22개 군이다. 이를 간격으로 통신을 발송한다. 북쪽으로는 상주와 190리, 남쪽으로는 부산과 280리의 거리이다. 매일 발송한다.

관직(官職)

감사(監司) 겸 부사(府使), 판관(判官), 도사(都事), 영장(營將), 중군(中軍) 겸 남영병방(南營兵房)은 모두 혁파되었다. 관찰사 겸 재판장, 주사 5인, 참령, 정위, 부위, 참위, 군수, 전보사 기수, 우체사 기수, 총순(總巡), 교원(敎員)이 있다.

호구(戶口)

무술년(1898)에 가구 수는 12,504호이고, 인구는 44,801명이다. 남자는 24,652명이고, 여자는 20,149명이다. 집의 칸 수는 51,678칸이다. 기와집은 534칸이고, 초가집은 51,144칸이다.

전부(田賦)

밭은 11결 15부 3속이다. 구몽탈(舊蒙頭)²⁴³⁾은 456결 62부 7속, 부세가 면제된 것의 승총(陞摠)은 20결 31부 2속이다. 시기전(時起田)²⁴⁴⁾의 실결(實結)은 4,133결 14부 6속이다. 논은 310결 64부 7속이고, 구몽탈은 284결이고, 부세가 면제된 것은 320결 51부 3속이다. 갑오년(1894)에 몽탈답과 시기답의 실결은 3,557결 18부이다.

개국 503년 갑오년(1894)에 모두 혁파되고 다만 1결에 돈 10냥씩 백성들에게 거두어 일정한 수대로 상납하였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 7월에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는 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명이 따라 한꺼번에 탕감하였다.

동치(同治)²⁴⁵⁾ 신미년(1871)에 군액(軍額)을 한꺼번에 혁파하고 호포(戶布)를 신설하여 군포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건양(建陽) 원년(1896)에 호포를 한꺼번에 혁파하고 1호에 돈 3냥씩을 거두어 일정한 수대로 상납하였다.

광서(光緒) 병술년(1886)에 환곡을 혁파하고 모두 값게 하고 결두전(結頭錢)²⁴⁶⁾ 3냥씩을 마련하여 매년 상납하게 하였고 모조(耗條, 耗穀의 몫)는 제외하고 납부하게 하였다. 이후에 남은 돈은 감영의 고을의 지방(支放, 俸給)에 사용하였다. 개국 503년 갑오년에 결두전 또한 혁파되었다. 창고는 햇수가 오래되어 무너지고 다만 빈 터만 남아 있다.

건양 원년에 수포(收布)를 폐지하고 병기(兵器)는 지방대(地方隊)로 이속하였다.

봉수(烽燧)

개국 503년 을미년(1895)에 한꺼번에 폐지하였다.

243) 구몽탈(舊蒙頭) :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전답.

244) 시기전(時起田) : 현재 농사짓고 있는 밭.

245) 동치(同治) : 청나라 목종의 연호.

246) 결두전(結頭錢) : 결(結)에 따라 매기던 토지세인 결세(結稅)에 덧붙여 징수하는 돈.

별감(別監) 3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같은 해에 군주사(郡主事)를 1인을 두었다. 병신년(1896)에 군주사를 혁파하고 향장(鄕長) 1인을 두었다. 초관(哨官) 1인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교수(敎授)는 지금 없다. 패관(牌官) 19인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군관 1,000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순교(巡校) 10인을 두었다가 병신년에 4인을 감축하여 지금 6인만 있다. 도훈도(都訓導) 90인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시탄(柴炭, 땔나무와 숯) 책응소(責應所)²⁴⁷)를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인리(人吏) 126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고원(雇員) 15인을 두었다가 병신년에 혁파하고 다시 서기(書記) 8인을 두었다. 지인(知印) 39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통인(通引) 2인을 두었다가 병신년에 1인을 추가하였다. 사령(使令) 25명을 을미년에 10인을 감축하여 11인만 있다. 병신년에 세무사(稅務使) 3인을 감축하여 지금 8인이 남아 있다. 군뢰(軍牢)²⁴⁸) 23명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관노(官奴) 40명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사용(使傭) 4인 사동(使僮) 3인을 두었다. 기생 31명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조장(操場)은 햇수가 오래되어 전복되었다.

비장(裨將) 10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주사(主事) 15인을 두었다가 병신년에 10인을 감축하여 지금 5인만 있다. 심약(審藥) 1인과 검률(檢律) 1인을 모두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군관 80인과 우열(右列) 700인을 을미년에 모두 혁파하였다. 영리(營吏) 103인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청사(廳舍)는 지금 우체사(郵遞司)가 되었다.

인리(人吏) 307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다시 서기 10인을 두었다. 지인(知印) 132인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통인(通引) 4인을 두었다. 관노 81명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사용(使傭)과 사동(使僮)을 두었다. 청사는 지금 전보사(電報司)가 되었다.

기생 35명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사령 78명을 을미년에 혁파하고 청사(廳使)를 두었다. 군뢰 50명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중영(中營)

247) 책응소(責應所) : 책임지고 물건을 대주는 곳.

248) 군뢰(軍牢) :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

을미년(1895)에 혁파하고 정유년(1897)에 경무서를 설치하였다. 군관 90인을 을미년에 혁파하였다. 지금 본부의 사용청(使傭廳)이 되었다. 도훈도와 군뢰 30명을 을미년에 모두 혁파하였다.

진영(鎭營)

계미년(1883)에 혁파하고 판관이 겸임하였다. 을유년(1885)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무자년(1888)에 또 혁파하고 중군이 겸임하였다. 을미년에 영원히 혁파되었다.

무용당(撫戎堂)

진영(鎭營)을 혁파한 후 을미년에 경무서를 설치하고 정유년(1897)에 제승당으로 경무서를 옮겨 설치하였는데 지금 참령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군뢰방(軍牢房)은 을미년에 혁파되었다.

친군남영(親軍南營)

동치(同治) 경오년(1870)에 도순찰사(都巡察使) 김세호(金世鎬)가 별포(別砲)를 설치한 후 감영의 진휼창(賑恤倉)을 중수하여 별포청(別砲廳)으로 만들었다. 을유년(1885)에 별포가 친군 병정(兵丁)이 되었다. 도순찰사 이호준(李鎬俊)이 포청(砲廳)으로 남영을 만들었다. 병신년(1896)에 삼남사령관 이겸제(李謙濟)가 진영(陣營)에 머물 때 친군 병정이 지방대(地方隊)로 바뀌게 되었다.

심성당(心誠堂)

지방대(地方隊)이다. 광서(光緒) 정해년(1887)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이호준(李鎬俊)이 진휼창(賑恤倉)을 중수하여 친군남영(親軍南營)으로 삼았다가 정유년(1897)에 지방영(地方營) 향관실(餉官室)로 삼았다. 정위(正尉) 1인, 부위(副尉) 1인, 참위(參尉) 1인, 취음소(炊飲所) 정교(正校) 2인, 부교(副校), 참교(參校), 병대소 병정(兵丁) 340인, 곡호수(曲號手)²⁴⁹⁾ 8인, 화병(火兵)이 있다.

249) 곡호수(曲號手) :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군인.

전보사(電報司)

무자년(1888)에 낙육재(樂育齋)에 창건하였으며 병신년(1896)에 이전 감영 관노방(官奴房)으로 옮겨 세웠다. 관원으로는 주사(主事) 1인, 위원(委員) 1인, 서리(書吏) 1인, 사령(使令) 3명, 공두(工頭) 2명, 방직 2명, 식고자(食庫子) 1명, 순변(巡弁) 2인, 순졸(巡卒) 9명이 있었다. 을미년 12월에 폐지되고 다만 주사 1인, 서리 1인, 사령 2명, 공두 1인만 남아 있다. 병신년에 주사 3인, 공두 7인, 보방직(報房直) 1인, 전전부(電傳夫) 4인을 다시 두었다.

경무서(警務署)

을미년(1895)에 진영에 창설되고 정유년(1897)에 제승당(制勝堂)으로 옮겨 설치되었다. 총순(總巡) 2인, 행정소(行政所) 순검(巡檢) 8인, 서기소(書記所) 순검 2인, 동지소(東支所) 순검 2인, 남지소(南支所) 순검 2인, 서지소(西支所) 순검 2인, 북지소(北支所) 순검 2인, 동암문지소(東暗門支所) 순검 2인, 서암문지소(西暗門支所) 순검 2인, 중지소(中支所) 순검 2인, 본부 보호소 순검 2인, 신문소(訊問所) 순검 4인, 감옥소(監獄所) 청사(廳使) 6인이 있다.

주일헌(主一軒)

우체사(郵遞司)이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에 이전 영리청(營吏廳)에 창설되었다. 관원으로는 사장(司長) 1인, 주사(主事) 1인, 체전부(遞傳夫) 18인이 있다.

간행사항

역자 : 정병호(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윤문 · 교열 : 오용원(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발행처 : 대구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발행일 : 2016. 12. 30